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

1972 – 2022

더 나은 삶, 교육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50th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

더 나은 삶, 교육, KEDI

1972 – 2022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50th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

더 나은 삶, 교육, KEDI

1972 – 2022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더 나은 삶, 교육, KEDI

개원 50주년을 맞은 한국교육개발원은
혁신적 교육 개발과 연구를 통해
미래교육체제로의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립 50주년 맞이한 KEDI, 미래교육의 새 지평을 다 함께 열어갑시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2년 설립 이후 한국교육의 발전과 함께한 한국교육개발원 50년의 역사를 내놓습니다. 초중학교 학습자의 성장을 돕기 위한 '새로운 교수·학습 체제'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일로 시작한 한국교육개발원은 반세기 동안 교육현장에서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연구는 물론 국가 수준의 종합적인 교육 발전을 위한 분석과 정책 대안을 꾸준히 내놓으며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왔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굴곡 없이 평탄하게 발전해온 것만은 아닙니다. 25년 전쯤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교육방송공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을 분화시키며 기능 위축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분화된 기관들은 제각기 발전을 거듭하여 교육계에서 나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기능 분화 이후 여러 기관을 연계하는 네트워크의 중심 역할을 자임하였고 정책을 뒷받침하는 교육통계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새로운 기능을 맡아 국가 수준의 데이터 기반 정책 연구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발과 함께 지속해 온 교육현장의 혁신 선도의 기능을 확대 강화해 왔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교육개발원의 위상은 높습니다. OECD 가입 이후 교육혁신센터(CERI)의 의장국으로 국제 연구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UNESCO와도 정기적인 교류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 학교 설립, 교사 양성,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수준에서 이제는 우리의 교육통계시스템을 전수하는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저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명망 있는 국제기구와 여러 나라들의 연구기관들과 교류·협력하며 다각화되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중심 허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50년사는 한국교육개발원 구성원들이 지난 50년간 성장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 맞을 새로운 50년을 구상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급속한 사회 변화와 더불어 정책 환경의 변화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새로운 방향 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은 지방자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고등교육이나 성인교육은 초·중등교육에 비해 훨씬 여러 분야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례를 본 따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식상하고 산업화 과정에서 형성되어 안정화된 교육체제의 개혁을 꾀하는 정책 제안들은 이해관계의 심각한 갈등을 초래하곤 합니다. 최근의 세계적으로 확산된 감염증에 대한 대응은 미래교육 전환에 대한 요구를 키웠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찰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금 진지하게 고민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감을 가지는 데 이 50년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디지털화의 속도를 보면 50년 후를 상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식기반 사회를 넘어 학습기반 사회로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대는 널리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 사회의 뿌리가 되는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전망하며 현실의 변화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임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질책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 연구와 사업으로 바쁜 가운데에도 작년 하반기부터 이 50년사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집필, 검토, 자문·감수 등을 위해 애쓴 50년사 발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회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장
류방란 류방란

더 나은 삶과 교육을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회의장 박병석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반세기 역사를 담은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1972년 개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연구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설립 이후 지금까지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과 교육 현장을 혁신하는 데 크게 이바지해 왔습니다.

이는 모두 선진 일류 교육을 꿈꾸고 헌신해온 한국교육개발원의 구성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분 한 분께 격려와 감사를 전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 교육청-학교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우리 교육의 선진교육체제를 공고히 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성장을 이루는 바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 4차 산업혁명, 팬데믹, 기후변화 등 우리를 둘러싼 사회환경의 급변은 교육정책에도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수준과 성과는 우리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더 나은 삶과 교육을 위해 더욱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육개발원 개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교육개발원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장
박병석 박 병 석

축사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인재양성에 더욱 전념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개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문을 연 이후 50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 분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지식 교육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구성원으로의 기본적인 소양과 윤리, 민주 시민으로서의 양심과 정의감을 기르는 데에도 노력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시대와 전쟁을 겪고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나라가 되기까지는 교육의 힘이 가장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소중하게 여기고 후손들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한 그 열정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이제 세계 10대 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류방란 원장님을 비롯한 역대 원장님들,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들과 선배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비전을 담은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의 발간도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방역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국민의 높은 시민정신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디지털 전환에도 더욱 빠르게 대응해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원하는 수준의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것이 교육 체계 전반의 혁신이 지금 절실한 이유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빛을 발하는 창의적 인재는 물론, 이웃에 대한 사랑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진 양심적인 시민, 나아가 인류의 미래를 고민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더욱 전념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경제력에 걸맞은 지적·문화적·도덕적 역량을 가진 문명국가 대한민국의 비전을, 우리 후손들이 꼭 실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만들어 주십시오.

모쪼록 한국교육개발원 50년을 기록한 이 책이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믿음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50주년을 거듭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김부겸

지난 반세기의 업적을 토대로 미래 새 교육의 길을 함께 모색해주길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교육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의 발자취와 결실이 담긴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 설립 이래 우리나라의 혁신적인 미래 교육체제 개발과 당면한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를 수행해 왔고, 반세기 만에 오늘날 세계적인 교육정책 전문기관으로서 자리 잡았습니다.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한국교육개발원 50주년을 더욱 뜻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리며, 현재 우리 교육의 눈부신 성장과 결실을 이루어내기까지 혜안과 지혜를 보태어 준 한국교육개발원 전·현직 구성원 모두에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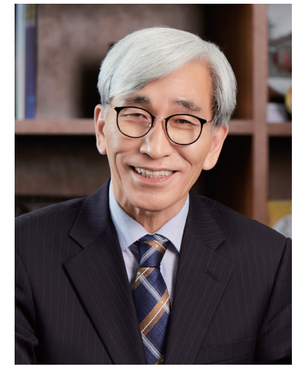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은 1970년대 빈약한 교육투자와 과밀학급으로 인한 학교 교육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교육개혁의 산실로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우리 교육의 현안을 깊이 있게 살피고,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으로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더 큰 도약을 위한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 교육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미래 세대의 교육 회복을 추진하는 한편, 기술 혁신에 따른 디지털 융복합 사회를 이끌어 갈 전인적 인재를 길러내야 합니다. 교육부는 미래사회에 대응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가는 동시에, 한 명의 아이도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전문성과 책임감, 미래에 대한 혜안을 바탕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미래 교육에 대한 비전과 현실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빛을 비춰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한국교육개발원 개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지난 반세기의 업적을 토대로 새로운 교육 반세기를 열어갈 한국교육개발원의 힘찬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유은혜



인재강국·교육대국을 실현하는 세계적인 교육정책 전문기관으로 성장하길

한국교육개발원(KEDI) 개원 5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72년 8월에 출범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지금에 이르기까지 반세기에 걸쳐 우리의 교육 발전을 위해 분투해 왔습니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에 몸담아 왔던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제로부터의 해방과 남북 간의 전쟁 이후 꾸준한 발전을 이룩했던 한국은 현재 세계로부터 신흥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사례는 그 유례를 쉽게 찾기 어려운데, 이러한 도약의 바탕에는 교육의 힘이 있었습니다. 즉 높은 교육열에 힘입어 발전한 우리의 교육은 산업화와 민주화 등 근대적 과제 수행에 필요한 우수한 인적자원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 교육이 수행한 이상과 같은 역할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교육에 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 당국의 교육정책을 지원했으며, 교육방송(EBS),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 등 교육 관련 기구들의 출범에도 큰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인구 감소, 디지털 전환 그리고 그린 전환의 대전환기를 맞아 우리 교육은 현재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연계된 교육 불평등 문제 역시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될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 한국교육개발원이 향후 수행해야 할 시대적 과제는 매우 큽니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미래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은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을 소속 기관으로 두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이를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육개발원의 개원 50주년을 축하드리며, 한국교육개발원이 향후에도 '인재강국', '교육대국'을 실현하는 전문 교육 기관으로 계속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일류국가로 나아가는 길목에서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밑거름을 마련하고 있는 한국교육개발원 구성원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정해구 정해구

한국교육 싱크탱크 수준을 넘어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비상하길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의 지난 50년의 성장과 발전을 새기는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를 발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설립과정과 1972년 개원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숱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설립 추진 과정에서 기관 설립을 반대하는 의견이 제기되어 설립사업이 중단되는 위기도 있었습니다. 설립추진위원회와 관련 인사들의 백년지대계 교육 발전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부단한 노력으로 지난한 과정을 극복하고 한국교육의 종합 연구개발기관으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출범 이후 반세기, 우리 KEDI 가족 모두는 목적한 바대로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의 현안에 관한 종합적·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며, 당면과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인 미래 교육체제를 개발해왔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기능조정을 통해 교육방송공사(EBS)를 비롯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 등을 분리·독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분리된 이들 교육 중추기관들의 산실로서 명분과 실제에 충실하게 교육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특화하여 날로 필요성이 커지는 정책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해나가며, 교육혁신 선도 핵심기관으로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교육의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하며, 세계적인 교육 연구 개발기관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문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세기를 이끈 세대로서 헌신적으로 일해 왔다고 자부하며, 이에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구성원 여러분, 오늘의 발전은 여러분의 지혜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50년의 축적된 경험과 새 시대의 교육을 선도하는 사명감으로 한국 교육의 미래를 개척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 싱크탱크 수준을 넘어 세계 수준의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 더 크게 비상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동문들은 KEDI의 미래와 여러분을 힘차게 응원하겠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동문회장
강인수

Contents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

발간사 004
축사 006

Part. 01 | KEDI History
한국교육개발원 반세기의 기록

1972–1979 Section 1. 한국 교육발전의 기초를 놓다

Chapter 1. 한국교육개발원의 탄생
01. 설립의 두 뿌리, 장기종합교육계획안과 미국 연구조사단의 보고서 017
02.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019
03. 기관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021

Chapter 2.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전개
01. '새 교육 체제'의 개발 024
02. 새 교육 체제 시범사업 진행 027
03. 새 교육 체제의 전국적 보급 028
04. 연구 효과 및 의의 029

Chapter 3. 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토대 구축
01.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연구 030
02. 교육과정·인구교육 연구 032

Chapter 4. 교육 및 정보 서비스의 확대와 국제교류 시작
01.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및 운영지원 시작 035
02. 교육정보자료사업 전개 036
03.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037

1980–1989 Section 2.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종합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다

Chapter 1. 종합교육연구기관 체제 확립
01. 전문연구실 체제로 전환 041
02. 업무 공간과 예산 규모의 확대 042
03. 교육개혁심의회 참여 및 지원 043

Chapter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연구의 전문화
01. 교육과정개발센터 기능 수행: 제4~5차 교육과정 개발 044
02. 교과서 개발 연구 수행 048

일러두기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는 크게 통사, 부문사, 부록의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통사(KEDI History)는 1972년 개원한 한국교육개발원 반세기 역사를 총 6개의 장으로 구분하여, 시대순으로 기술하였다. 부문사(Current state of affairs)는 부원장/기획조정본부, 대외협력단, 경영지원본부 및 감사실을 비롯해 5개 주요 연구본부에 대한 변천과 현황, 아울러 향후 계획까지 담아 KEDI가 관장·운용하고 있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을 정리하였다. 부록(Appendix)에서는 역대 원장, 조직도, CI, 연표 등 본문에서 미처 싣지 못한 자료들을 수록하였다.

표기법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의 표기는 국립국어원의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적용하되, 한국교육개발원 및 유관기관에서 사용하는 연구 및 사업명 등 일부에 한해서는 한글맞춤법 표기안에서 벗어난 표기법도 적용되었다. 숫자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만, 억, 조 등의 보조단위를 사용하였다.

Chapter 3. 교육정책·교육기초 연구 및 컴퓨터 교육 연구
01. 교육정책 연구 053
02. 교육기초 연구 056
03.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 060
Chapter 4. 본격적인 교육방송 사업 전개
01. 교육방송의 태동과 발전 063
02.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064
03. 교육방송 연구 수행 066
04. 기타 주요 사업 067
Chapter 5. 교육·정보 서비스 발전과 국제협력 확대
01.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및 연구 068
02. 교육전문도서관으로 진화 070
03.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070

1990 1998 Section 3.
기능조정을 통해 교육연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다
Chapter 1. 교육개혁방안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의 분화
01.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발족 073
02. 기능 조정·분리에 따른 유관기관의 설립 074
03. 대대적인 조직구성의 변화 076
Chapter 2. 교육정책·교육기초·학교지원 연구와 교과서 개발
01. 교육정책연구의 양적·질적 성장 078
02. 교육기초연구의 다각화 084
03.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학교지원연구 087
04. 6차~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090
Chapter 3. 연구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신규사업의 전개
01. 열린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 시작 094
02. 교육통계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096
03.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는 컴퓨터교육 연구·개발·보급 사업 098
0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운영과 연구 100
Chapter 4.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교육정보자료 및 국제교류·협력
01.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도서관 체제 구축 103
02.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제교류·협력의 전문화 105

1999 2008 Section 4.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가 되다
Chapter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새롭게 출발
0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재편과 인문사회연구회 체제 편입 109
02.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110
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변경 113
Chapter 2. 교육정책·기초 연구와 학교평가·지원 관련 연구
01. 교육정책 연구기관의 역할 확대 115
02.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는 교육기초 연구 수행 119
03. 학교평가제 도입에 따른 학교평가 및 학교지원 연구 122
Chapter 3. 교육격차 분석 연구와 교육복지 정책사업
01. 교육격차 연구 125
02. 교육복지 정책사업 126
Chapter 4.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인적자원개발 연구 수행
01. 평생교육센터의 출범 및 기능 이관 129
02. 교육인적자원부를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 연구 131
03.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134
Chapter 5. 다양한 위탁·지원 사업의 변화와 발전
01.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주무기관이 되다 136
02. 교육통계사업의 확장과 국제화 138
03. 쌍방향 방식의 디지털 교육정보자료 제공 139
04.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확산 141

2009 2016 Section 5.
글로벌 시대의 교육혁신에 매진하다
Chapter 1.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을 위한 연구 수행
01. KEDI 미래비전 선포 145
02. 미래교육 연구의 가동 147
Chapter 2.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및 학습자 존중 교육정책 개발
01. 공교육의 책무성 증진 151
02. 학생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154
03. 인성교육의 진흥 및 행복교육 추구 157
04. 교육취약집단 및 위기학생 지원 159
05.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적 지원 166
Chapter 3. 고등·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01. 대학 교육역량 강화 168
02. 고등·평생교육 국제경쟁력 증대 169
03. 고등·평생교육 학습성과 분석 및 제고 171
04.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172
Chapter 4. 교육통계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 실현
01. 국가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전문기관 176
02. 교육통계 조사방법 및 서비스의 고도화 178
03. 데이터 기반 연구사업의 확대 179
Chapter 5. 글로벌 교육 아젠다 선도
01. 교육 수여국에서 교육 공여국으로 183
02. 국제교육연구교류 활성화 185

2017 2022 Section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다
Chapter 1. 지방균형발전 시대의 개막
01.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과 새로운 출발 191
02.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강화 192
03.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지성 체제 구축 193
04. KEDI 장기발전계획 수립 195
Chapter 2. 시대의 대전환과 교육의 전환
01.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교육적 대응 200
02.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연구 및 사업 강화 201
03.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 203
04.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개편 207
0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혁신 준비 208
Chapter 3. 고등·평생 교육 혁신 및 새로운 생태계 구축
01. 고등교육체제 개편 및 지역생태계 구축 209
02. 고등교육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210
03. 고등교육의 뉴노멀과 성과(역량) 제고 213
Chapter 4. 빅데이터 기반 교육연구 체제 수립
01. 교육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확대 215
02. 교육통계 수집 및 분석의 고도화 216
Chapter 5. 글로벌 교육 협력 및 지원 강화
01. 교육 2030 및 SDG4 이행 모니터링 및 지원 219
02. 개발도상국가와의 개발협력 강화 222

Part. 02 | Current state of affairs
한국교육개발원 본부별 현황
Section 1. 부원장/기획조정본부 228
Section 2. 초·중등교육연구본부 234
Section 3.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242
Section 4. 교육데이터연구본부 250
Section 5. 미래교육연구본부 258
Section 6. 교육현장연구본부 268
Section 7. 대외협력단 278
Section 8. 경영지원본부 및 감사실 284

Part. 03 | Appendix
자료로 보는 한국교육개발원 50년
01. 역대 원장 294
02. 조직도 295
03. 미션 & 비전 299
04. CI 변천 및 50주년 엠블럼 300
05. 연표 301

편찬후기 310
50년사를 만든 사람들 311
판권 312

더 나은 삶, 교육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50th

한국교육개발원 반세기의 기록

1972년 8월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과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추진하는 종합연구기구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이 탄생하였다.
개발원은 탄생 이후 2022년 개원 50주년을 맞은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교육이 당면한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모색·탐구하고, 이를 통해 더욱 올바른 교육을 이끌어가는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변모하였다.

Part.01

KEDI History

Section 1. 한국 교육발전의 기초를 놓다
1972-1979

Section 2.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종합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다
1980-1989

Section 3. 기능조정을 통해 교육연구의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다
1990-1998

Section 4.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싱크탱크가 되다
1999~2008

Section 5. 글로벌 시대의 교육혁신에 매진하다
2009-2016

Section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다
2017-2022

1972 2022

Section 1.

한국 교육발전의 기초를 놓다

1972
1979

Chapter 1.
한국교육개발원의 탄생

01. 설립의 두 뿌리, 장기종합교육계획안과 미국 연구조사단의 보고서
02.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03. 기관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Chapter 2.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전개

01. '새 교육 체제'의 개발
02. 새 교육 체제 시범사업 진행
03. 새 교육 체제의 전국적 보급
04. 연구 효과 및 의의

Chapter 3.
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토대 구축

01.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연구
02. 교육과정·인구교육 연구

Chapter 4.
교육 및 정보 서비스의 확대와 국제교류 시작

01.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및 운영지원 시작
02. 교육정보자료사업 전개
03.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Chapter 1.

한국교육개발원의 탄생

01 설립의 두 뿌리, 장기종합교육계획안과 미국 연구조사단의 보고서

1960년대 한국 교육현장의 문제점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한민국 교육의 혁신과 장기적인 발전을 계획·추진하는 종합연구기구로서 1972년 8월 설립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반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교육 현대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였다. 당시 교육혁신 운동의 방향은 연구·개발 활동을 교육현장과 체계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규모 교육연구개발 기구를 설립했으며,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젊은 교육학자들을 중심으로 한국교육개발원 설립이 논의되었다.

1960년대의 콩나물 교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부터 눈부신 양적 성장을 이루어냈고, 이에 따라 1970년대 국내 교육의 최대 과제는 양적 성장을 뒷받침할 질적 성취에 있었다.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과정에서도 이 점에 특히 주목하였다. 당시 한국 교육의 질적 문제는 비단 '콩나물 교실'이나 '매머드 학교' 같은 외형적인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치열한 입시경쟁은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가로막았고, 교육의 실질적인 목표와 내용도 단순 지식 습득에 머무는 정도였다. 학교 수업도 학습능력의 차이를 외면한 채 질문·토론, 실험·실습의 기회조차 없이 교과서 읽기와 교사의 설명을 듣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 결과, 학습실패자가 양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지역 간 학력 격차도 심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1971.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연구팀 보고서

한국 교육의 혁신을 위한 '장기종합교육계획안'

이런 문제점들은 한국 교육의 근본적인 혁신과 현대화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즉, 무절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사회변동과 장기적인 국가발전의 전망 속에서 한국 교육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정부는 1969년 2월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기종합교육심의회를 발족시켰고, 1970년 12월 '장기종합교육계획안'을 완성시켰다. 이 계획안은 1972년부터 1988년까지 15년간의 장기 계획을 다뤘으며, 비록 공식적으로 채택되지는 못했으나 이후 교육정책의 중요한 길잡이 구실을 했다.

'장기종합교육계획안'에서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중요 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교육과정 개편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이런 업무를 담당할 '교육과정개발센터(가칭)'의 신설을 건의하였다. 나아가 국가 수준의 종합 평가제도의 도입을 제창하는 한편, 교수방법의 연구개발과 양질의 교재-교구의 연구개발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안한 교육과정개발센터와 기존 연구소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장기종합교육계획안은 한국교육개발원과 같은 연구개발센터가 왜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 정책으로 반영되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이 해당 계획의 출발점인 1972년에 설립되었다는 것은 개발원의 설립이 시대적 요구에 따른 필연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플로리다 주립대학팀 연구조사단의 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경제기획원과 미국 국제 개발협조처(USAID: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간의 비공식 대화였다. 양국 관계자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투자 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경비 절감과 교육 효율성 증대'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고, 그 방향성을 찾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활용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 주립대학팀 연구조사단이 1970년 봄에 내한하여 약 3개월간 조사 활동에 착수하였다. 연구조사단은 한국 교육에 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현장을 방문해 교육 관계자들의 여러 조언을 청취한 뒤, 1971년 4월 최종보고서를 우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는 한국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당시 연구조사단이 제시한 건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초·중학교에 걸친 9년간의 학교 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연구 개발 및 적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새로운 교육체제에서 배출되는 중학교 졸업생들을 위한 직업훈련 체제의 적용과 이에 따른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면적 재구성에 관한 것이었다.

이 중 첫 번째 건의 내용인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에 관한 제안이 바로 한국교육개발원 설립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연구조사단은 이를 추진하는 모체로서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KEDL)'의 설립을 건의하였다. 해당 사업을 추진할 경비는 미국 USAID가 매년 한국정부에 공여해 왔던 양곡차관 중 일정액(750만 달러)을 할애해 지급하기로 했으며, 한·미 양국 정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차관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교육체제 개혁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의 재정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립도 본격화되었다.

02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문교부는 1971년 11월 30일 새로운 연구개발 기관 설립을 준비할 책임자로 이영덕 교수를 위촉하였다. 그는 젊은 학자들을 모아 창설 준비팀을 구성해 그해 12월 1일부터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설립 준비팀은 출발 직후부터 난관에 부딪쳤다. 특히 사업의 직접적인 계기가 플로리다 주립대학팀의 보고서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부각되었고, 당시 우리나라 교육계에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내 교육전문가들이나 교육자들과 충분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를 키웠다. 심지어 미국 전문가들의 위험한 교육실험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반발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이런 논쟁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의 기본 성격과 위상은 한층 더 명확하고 정교하게 다듬어질 수 있었다.

1971.11.30.
초대원장 이영덕 교수 위촉

이렇게 약 9개월간 준비 과정을 거쳐 마침내 1972년 8월 30일 한국교육개발원이 개원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플로리다 주립대학팀이 제안했던 '교육비를 절감

1972.
개원초 사용했던 삼청동
중앙교육행정연수원 청사

하고 교육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초·중학교 교육체제의 연구개발'이라는 제한된 임무를 넘어, 새로운 한국적 교육질서를 세우기 위해 교육의 목적·내용·방법을 탐구 및 개발하는 현대적인 종합교육연구기관을 표방하였다. 플로리다 주립대학팀은 보고서에서 새 연구기관의 영문 명칭을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Laboratory(KEDL)'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개발원은 'Laboratory'라는 제한된 의미를 벗어나고자 마지막 단어를 'Institute'로 변경하여 영문 명칭을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로 결정하였다.

새로 출범한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업계획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9개 영역에 걸친 광범위한 기본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9개 사업 영역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성격과 기능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즉, ①교육이념과 목적의 재정립은, 한국 교육의 맹점으로 인식되어 왔던 철학적 빈곤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 나가고, 급변하는 내외 정세 속에서 한국 교육의 좌표를 유지하며 '설계된 변화'를 추구하는 연구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②교육과정 개편 연구, ③교과서 및 학습자료의 연구 개발 등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발센터로서 한국교육개발원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④수업 및 학교경영 체제의 개발과 시범, ⑤교사교육의 연구 및 실시 등은 교육과정의 개편이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개발과 현장 적용간의 긴밀한 상호 연계성을 강조하는 현대적인 연구개발의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⑥전국 대상의 교육방송망의 구축, ⑦교육정보센터의 설치, ⑧사회교육체제의 확충, ⑨종합적 교육발전 정책의 연구 등은 국가 현대화 과정에서 태어난 한국교육개발원이 정보사회의 첨단 교육연구 기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수행해야 할 연구기능을 반영한 것이었다.

사업계획안에 따른 9개 영역의 기본사업

01. 교육이념과 목적의 재정립
02. 교육과정 개편 연구
03. 교과서 및 학습자료의 연구 개발
04. 수업 및 학교 경영 체제의 개발과 시범
05. 전국 대상의 교육방송망 구축 및 프로그램의 개발, 제작, 방영
06. 교사교육의 연구 및 실시
07. 교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08. 사회교육체제의 확충
09. 종합적 교육발전 정책의 연구

03 기관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제정 및 조직 구성

한국교육개발원은 창립 이후 종합교육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틀을 다지는 데 집중하였다. 먼저 기관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1973년 3월 14일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법률 제2616호), 10월 11일 동 시행령(대통령령 제6899호)이 제정·공포되었다. 해당 내용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재원에 관한 것으로, 시설비는 정부가 출원하고, 운영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과 시행령 제정 이후에는 정관과 제반 규정도 함께 마련되었으며, 이에 의거해 기관 운영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였다.

설립 당시 이사회는 문교부장관을 당연직 이사장으로 하여 감독관청이자 주무부처인 문교부의 차관 및 실·국장 2명(기획관리실장, 과학교육국장)과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등 당연직 이사 4명, 그리고 교육계 및 학계의 원로 중에서 선임된 민선이사 4명과 상임 및 비상임 감사 2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되었다. 이사회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의 결정, 결산의 승인, 원장을 포함한 임원의 선임 및 해임, 기본재산 편입 및 처분, 차입금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 및 주요 운영규정(직제·인사·보수·퇴직급여 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맡았다.

개원 당시에는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원장 밑에 2부원장, 3국, 1센터, 2과를 설치하였다. 연구부원장은 연구기획국과 개발지도국의 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운영부원장은 기술지원국과 교육정보센터, 총무과 및 출판과의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듬해인 1973년에는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기획업무를 관장하기 위해 원장 직속으로 기획실을 신설하였으며, 기술지원국과 교육정보센터를 연구부원장 소관으로 이관하고, 경리과 및 관리과를 신설하여 2부원장, 1기획실, 3국(연구기획국, 개발지도국, 기술지원국), 1센터(교육정보센터), 4과(총무과, 관리과, 경리과, 출판과)로 조직구성을 새롭게 재편하였다. 이후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은 정기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운영과 연구의 효율화를 도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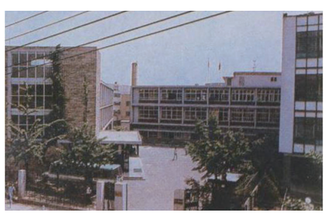
사업 확대에 따른 인력 확충과 우면동 청사 신축

설립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은 총 46명(원장 1명, 부원장 2명, 연구직 26명, 관리직 6명, 기능직 11명)이었다. 하지만 각종 연구 및 사업이 증가하면서 매년 신규 인력 증원이 이뤄졌다. 특히 초기부터 교육방송 사업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서 전파관리 및 특수송신체제 운용을 위한 기술요원과 방송직 요원이 대거

1972년부터 1974년까지 사용했던
수운회관 청사

충원되었다. 1978년 교육방송 송신소 기능을 타 기관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인력이 감소하였으나 1979년 교육정책 관련 연구기능이 확대되면서 연구 인력이 대거 추가되는 등 전반적으로 꾸준한 직원 확충이 이뤄졌다.

설립 당시에는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수운회관 2개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1974년에는 종로구 예장동에 위치한 중앙교육연구소로 청사를 이전하였으나 집중적인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독립된 청사가 필요하였다. 이에 정부의 협조를 얻어 1974년 5월 14일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92-6번지 소재 16,000평 대지에 청사 건립을 위한 기공식을 갖게 되었다. 당시 한국교육개발원 신축부지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어 청사 건축이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어렵게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 1975년 9월 30일 연구동 995평, 방송동 947평 규모의 신축청사를 준공할 수 있었다.



1974년 우면동 청사 준공까지 사용했던
종로구 남산 청사

직종별 인력 구성 변화 추이(1972~1979년)

구분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원장	1	1	1	1	1	1	1	1
감사	-	1	1	1	1	1	1	1
부원장	2	2	2	2	1	1	1	1
연구직	26	38	41	67	87	80	79	136
방송직	-	-	-	30	37	61	55	62
기술직	-	28	57	53	59	74	59	42
사서직	-	-	-	2	2	2	4	4
관리직	6	24	29	47	54	56	52	59
기능직	11	19	25	45	78	74	65	61
계	46	113	156	248	320	350	317	367

양적 성장의 가속화

이처럼 초기 제도적 기반을 다진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 특히 1970년대 후반은 양적 성장을 가속화한 시기로, 이 기간 동안 여러 업무가 추가되었다. 문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요구가 있었고, 이에 부응하여 한국교육개발원은 기능과 업무를 확충해 나갔다. 1974년 중앙시청각교육원으로부터 라디오 학교방송 운영업무를 인수해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을 위한 방송업무를 시작하고, 1979년 교육과정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기능 변화와 업무 확장에 따라 임직원도 대폭 증원되었다. 1972년에 49명이던 직원 수는 1975년에는 240여 명으로, 그리고 1979년에는 360여 명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사업 수행이 정상궤도에 오르면서 예산 역시 매년 증가하여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1980년(약 39억 원)에는 1973년(약 5,600만 원)보다 무려 68배가 증가하였다.

1975.09.30.
신축청사 준공

Chapter 2.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전개

01 | '새 교육 체제'의 개발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The Elementary-Middle School Development Project: EMP)은 한국교육개발원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업인 동시에 1970년대 개발원의 대표적인 연구 사업이다. 사업 목표는 새로운 한국적 교육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교육의 목적·내용·방법 등에 관한 종합적이며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한국 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 체제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물로 '새 교육 체제'가 탄생했고, 이 명칭은 초·중학교 교육 발전사업의 대명사처럼 불리게 되었다.

목표 설정

새 교육 체제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구체적인 목표의 설정이었다. 즉, 학습 현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주어야 하며, 이를 통해 한국 교육 전체에 어떤 '효과'를 유도할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발원은 새 교육 체제의 목표를 '내적 목표(intrinsic goals)'와 '결과적 목표(pay-off goals)'의 두 종류로 설정하였다. 내적 목표는 새로운 교육 체제가 그 효과를 발휘할 때 학생들이 갖게 되는 경험을 가리키는 것이며, 결과적 목표는 새 교육 체제가 전국 학교에 전면적으로 적용되었을 때 얻게 되는 장기적 효과 또는 성과를 의미하였다.

새 교육 체제의 내적목표와 결과적 목표

내적 목표

+ 문제 해결력, 비판적 사고, 창의력과 같은 고차적 정신 과정을 강조하는 많은 학습 경험을 가지게 된다.
+ 국가 발전에 직결된 중요 가치관, 태도, 지식 및 생산적 기능의 학습 및 내면화를 촉진하는 많은 학습 경험을 가지게 된다.
+ 학습 진도는 주기적으로 점검되고, 그 결과가 교수-학습 과정에 재투입된다.
+ 자율적인 학습 기회를 더욱 많이 가지게 된다.
+ 다양한 학습 자료와 매체의 활용을 통하여 주어진 학습 목표의 달성에 보다 적합한 경험을 한다.
+ 보충·심화 학습의 기회와 융통성 있는 학급 조직의 운영을 통하여 학습 진도의 개인차에 따른 보다 적합한 경험을 한다.

결과적 목표

-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향상된다.
- 투입된 교육비의 효율성이 높아진다.
- 교육의 질의 지역차와 학교차가 감소된다.
- 더 많은 청소년에게 교육의 기회가 확대된다.
- 학교 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증대된다.

개발 과정

새 교육 체제는 크게 수업 체제, 학교 경영 체제, 교수학습자료로 구성되었다. 1973년 처음으로 새 교육 체제의 출발점이 되는 '새 수업 체제'가 구안되었고, 1974년에 수업 체제를 지원하는 '학교 경영 체제'가 마련되면서 '새 교육 체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갖춰졌다.

수업 체제 | 수업 체제는 수업과정 일반 모형과 교과별 수업모형이 주축을 이룬다. 수업과정 일반 모형은 일종의 수업 절차 모형으로, '계획 → 진단 → 지도 → 발전 → 평가'의 5단계를 거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교과별 수업 모형은 수업과정 일반 모형이 제시하는 원칙과 정신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각 교과의 교육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반영시켰다.

학교 경영 체제 | 새 수업 체제가 학교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지원 체제로서, 학교 경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학교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계획·실천·평가의 흐름으로 통합한 체제라고 할 수 있다.

교수학습자료 | 교수학습활동이 이뤄질 때 발생할 제반 사태를 예견하여 그에 대처할 계획을 수립하고, 적합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활한 교수학습 운영을 돕는 자

료를 의미한다. 이는 크게 교사용 수업 지침서, 학생용 배움책, 각종 평가 자료, 교수 텔레비전 및 교수 라디오 프로그램 등으로 나뉜다.

연구영역 및 수행 조직 설정

새 교육 체제 연구 사업은 그 규모가 방대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업이었다. 따라서 연구 영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연구 조직을 효율화하는 일 역시 중요하였다. 연구의 구체적인 영역과 연구 조직은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몇 차례 변화를 거쳤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각 연구 분야를 구분하였다.

새로운 교육 체제의 개발 및 시범사업 분야 | 새로운 수업 체제를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는 학교경영 체제를 개발하여 여러 차례에 걸친 현장 실험을 거친 후, 광범위한 평가 작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국에 시범 보급하는 일련의 연구 활동을 수행하였다.

교육과정 연구 및 수업자료 개발 분야 | 가장 많은 인원이 집중적으로 참여한 연구 영역이었다. 개발원은 수업과정 일반 모형을 기초로 각 교과 특성에 맞는 교과별 수업과정 모형을 개발하는 한편, 당시 교육과정에 대한 상세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실험과 전국적 시범 연구에 투입하는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수업자료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발전 및 혁신 보급을 위한 연구 분야 | 연구 초기에는 한국의 교육이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새 교육 체제의 구상에 직·간접적으로 반영하는 데 많은 비중을 두었다. 또한 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전국에 보급하기 위해 혁신

1976.08.02~10.
교육과정 탐색에 관한 국제세미나

보급에 관한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교원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이를 교육정책과 연계시키기 위한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방송 체제의 확보와 교육적 활용을 위한 분야 | 수업 효과의 제고를 위한 혁신적인 방안의 하나로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활용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위해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작 시설 및 송신, 그리고 프로그램의 개발·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02 새 교육 체제 시범사업 진행

시범사업은 새 교육 체제를 부분적 또는 종합적으로 현장에 적용하는 사업이며, 소규모 시범과 종합 시범으로 구분해 시행되었다.

소규모 시범

소규모 시범 연구는 수업과정 모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수학습자료 및 학교 경영 체제를 교육현장에 적용하여, 그 타당성과 효율성을 검증·수정·보완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 연구는 수업과정, 수업 매체, 수업 활동, 학급 편제, 교사 조직 등 수업체제에 관련된 중요한 변인들에 관한 실험적 연구와 함께, 학교 경영 체제의 이론적 모형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대체로 서울 근교 2~3개 학교 1~2개 학년을 대상으로 4~8주 정도의 짧은 기간에 실시되었으며, 새 교육 체제 아래 하위요소에 관한 부분적인 시범이 이뤄졌다.

1976.
교육과정 탐색에 관한 국제세미나

새 교육체제 개발을 위한 종합시범 연구보고서

종합 시범

종합 시범은 소규모 시범을 통하여 수정·보완된 수업 체제와 학교 경영 체제를 종합적으로 현장 학교에 적용하고 대상 학년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면서, 새 교육체제의 타당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소규모 시범과 달리 종합 시범에서는 확정된 수업 체제, 교수학습 자료, 학교 경영 체제를 종합적으로 교육 현장에 적용했으며, 학년 또는 학교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종합 시범 연구는 1975년 9월부터 1980년 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행되었는데, 특히 마지막 제5차 연구(1979.3.~1980.2.)의 경우에는 전국 11개 시·도 18개교, 726개 학급 4만 6,226명의 학생을 포함하는 대단위 연구로 확대되었다.

새 교육 체제 종합 시범 진행 개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시범 기간	1975.9.~1976.2. (6개월)	1976.3.~1977.2. (12개월)	1977.3.~1978.2. (12개월)	1978.3.~1979.2. (12개월)	1979.3.~1980.2. (12개월)
대상 학년 및 과목	3·5학년 전교과	3·4·5학년 전교과	3·4·5·6학년 전 교과	2·3·4·5·6학년 전 교과	전 학년전 교과
시범 지역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지역 (5개 시·도)	전국 11개 시·도	전국 11개 시·도	전국 11개 시·도	전국 11개 시·도
학교 수	14개 시범 학교 (163 학급, 1만 1,198명)	16개 시범 학교 (264 학급, 1만 7,721명)	16개 시범 학교 (382 학급, 2만 5,059명)	18개 시범 학교 (595 학급, 3만 7,193명)	18개 시범 학교 (726 학급, 4만 6,226명)

03 새 교육 체제의 전국적 보급

제1차 종합 시범이 시작된 1975년 9월부터 일선 교육현장의 새 교육 체제 보급 요청이 잇따랐고, 이에 개발원에서는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새 교육 체제의 전국 보급을 추진하였다. 새 교육체제의 전국적인 보급은 크게 교수학습자료의 보급 확대와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각종 교육이론을 보급하는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교수-학습자료 보급

교수 학습자료의 보급은 '협력학교' 보급과 '일반학교' 보급의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협력학교는 시·군 단위로 1개 학교씩 지정되었으며, 학교 여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부분만을 선별적으로 채택·운영하도록 했다. 일반학교에 대한 보급은 종합 시범 연구 착수 3년 만인 1978년부터 이뤄졌다. 시범학교와 협력학교의 운영을 통해 효과가 확인되자 문교부는 '새 교육체제 평가위원회'(위원장: 박준희 교수)를 구성하여 1978년 5월부터 5개월간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그해 11월 전국 규모의 평가보고회를 가졌다. 이는 새 교육 체제의 효과를 문교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계기로 전국적인 확산의 길이 트이게 되었다.

관련 이론의 보급

새 교육체제 관련 이론의 보급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일선 교사에 대한 연수 활동이었고, 다른 하나는 교원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새 교육 체제는 종래의 수업·운영 방법과 달랐기 때문에 일선교사들의 정확한 이해와 운영이 요구되었다. 일선교사를 위한 연수활동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1975년부터 1980년에 걸쳐 집중연수 184회 1만 3,437명, 현장연수 365회 3만 6,700명에 달하였다. 한편 교원 양성기관과의 협력 체제는 새 교육 체제의 보급 효과를 더욱 확대하고 교육 일선에 장기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04 연구 효과 및 의의

1972년 9월부터 1980년 2월까지 무려 7년 반 동안 진행된 새 교육 체제 연구 사업은 우리나라 교육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직접적인 교육 효과 검증·평가를 위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뤄졌으며,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학력의 지역간·개인간·학급간 차이와 과목간 격차의 감소 ▲학생들의 정의적 특성 변화 ▲교사들의 자질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약 8년간의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당초 의도했던 효과 외에 부수적 효과도 달성하였다.

첫째, 새 교육 체제는 열악한 우리의 교육 여건 속에서도 교육의 개선과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하여 '가능성'에의 신념을 심어 주었다. 둘째, 학문적인 측면에서도 귀중한 공헌을 남겼다. 특히 제3차 교육과정을 통하여 새로 도입된 학문 중심 교육과정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 교수학습방법의 체계화에 크게 공헌했으며, 교과 교육의 이론을 정립하는 데도 기여하였다. 셋째, 교육 행정 및 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무엇보다 새 교육 체제 연구사업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이 전문 연구기관에 의해 이뤄지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개발센터'로서의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넷째, 새 교육 체제 연구는 많은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폭넓은 연구 능력을 축적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다섯째, 교육방송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특히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던 컬러TV 교육방송의 도입은 훗날 교육 전용 방송의 실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새 교육 체제 연구 사업은 그 질과 양에서 우리나라 교육 발전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으나 아쉬움도 없지 않았다. 먼저 중학교 부분에 대한 교육 체제를 개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당초에는 중학교에 대한 교육 체제도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여러 여건상 이를 완수하지 못하였다. 다른 하나는 TV·라디오 등 방송 자료가 교육 현장에 투입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한 한계였으며, 1981년 2월 UHF교육방송이 출범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Chapter 3.

교육 연구개발 사업의 토대 구축

01 교육계획 및 교육정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은 창립 이후 교육정책에 관한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우리나라 교육정책 연구의 산실로 자리매김하였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교육은 국가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에는 공교육의 양적 팽창이 빠르게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정책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창립 초기의 중·장기 교육계획 연구는 당시 교육정책의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기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또한 학교제도, 의무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원교육 등과 관련한 교육정책 연구는 우리나라 교육혁신과 발전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연구들이었다.

교육계획 연구

교육계획에 관한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 창립 이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교육계획 가운데 가장 먼저 착수된 사업은 「초·중등교원 장기수급계획(1972~1986)」이었으며, 이후 교육계획만을 전담하는 교육계획연구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관련 연구가 이뤄졌다. 종합계획으로서의 교육계획 수립활동은 1973년에 시작된 「교육발전계획(1972~1976)」의 수정·보완 작업이 시초였다. 이후 1974년에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에 반영될 교육부문 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결과는 『제4차 경제개발계획 교육부문계획(1977~1981)』으로 발행되었다. 한편 1970년대 후반에는 고도 경제 성장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장기전망과 이에 따른 장기계획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78년 장기 종합교육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결과는 『교육발전의 전망과 과제(1978~1991)』로 발간되었다.

교육발전계획(1972-1976)의 수정보완(안)

제4차 경제개발계획 교육부문계획(1979~1981)

재수생 대책연구

1970년대를 전후한 입시제도의 변화는 대학입시 경쟁을 더욱 가열시켰고, 그 결과 재수생이 매년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개발원에서는 1976년 2월 정책연구실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6월 말 재수생대책시안을 발표하였다. 이 대책시안에서는 ▲고등학교 진로교육의 강화, ▲고등교육기회의 균형적 확대 및 고등교육의 균형발전 촉진, ▲고등교육기관 입학전형방법의 개선, ▲재수학관의 정비 및 재수생 지도 강화,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기회의 확대 및 고용조건의 개선 등이 제시되었으며, 공청회를 거쳐 1977년 7월 21일 시행되었다. 재수생 대책연구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를 강화시키고 재수행위에 관한 학부모와 사회의 그릇된 통념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교육제도 연구

학교제도(학제) 연구 | 1979년 학제를 평가하기 위한 준거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를 착수했으며, 그 결과는 『학제평가 준거모형 개발과 현행 학제의 분석(연구 보고 제101집)』으로 발행되었다.

의무교육 연구 | 1977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방향(연구 보고 제66집)』에 관한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당시 연구 결과들은 의무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부터 실행계획에 이르기까지의 기초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되었다.

1976.07.24.
재수생 대책시안 공청회

고등학교 교육연구 | 고교 교육에 관한 연구로는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평가 및 실업교육과 사립 중등학교에 관한 과제, 그리고 고등학교 체제개편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고등교육 연구 |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1979년 『고등교육의 기회확대 및 질 관리(연구보고 제102집)』, 『교수요원 양성 및 확보방안(연구보고 제103집)』 등 고등교육 분야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교원교육 연구 | 1972년 교원 교육연구에 관한 기초 작업으로 『교원 및 교원교육에 관한 문헌초록』이 간행되었고, 이후 다양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02 교육과정·인구교육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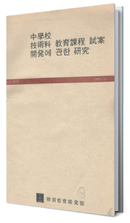
교육과정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은 1979년 문교부로부터 제4차 교육과정 개정안 연구를 위임받았다. 이에 따라 중등학교로 확대하려던 초·중학교 발전사업 계획을 축소하고, 교육과정 개정 작업으로 연구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1979년 교육과정연구부를 신설하고,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제4차 교육과정 개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회과 교육방법 및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 1973년부터 '사회과 탐구 수업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로 『탐구 수업의 효과에 관한 실험 연구(1974)』가 발간되었다. 이후 해당 연구를 통해 사회과 교사용 지도서와 각종 자료를 비롯한 연구 개발물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사회과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교과 교육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밖에도 「초·중학교 사회과 교육과정의 구조화를 위한 연구(1977)」와 「새 교과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를 중심으로(1977)」에 이어 「교과서 구조 개선 연구(1979)」 등이 수행되었다. 특히 제4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로써 1977~1981년까지 초·중·고 사회과 1종 도서 전체를 연구·개발하였다.

기술 및 실업·가정 교육과정 연구 | 고도 산업사회 건설을 위한 실업교육의 강화 정책으로, 1970년대에는 실업계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편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수행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1975년 「중학교 기술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관한 연구」,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에 관한 연구」, 「중학교 실업·가정과 교육의 실태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1979년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등을 수행하였다.

중학교
기술과 교육과정시안
개발에 관한 연구


중학교
가정과 교육과정시안
개발에 관한 연구

중학교 실업·가정과교육의
실태조사연구

음악·미술 교육과정 연구 | 1973년에 개편된 제3차 교육과정의 효율적 구현을 위해, 1973년부터 1974년까지 국민학교 음악·미술 교육과정의 상세화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연구결과는 현장 교사들의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되었다. 특히 실험용 교과서의 현장 평가 결과는 새로 개편된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실험용 교과서의 효율성 및 타당성 등을 평가하여 음악·미술 교육과정 및 현장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외국 교과서 한국 관련내용 연구 | 한국관(韓國觀) 시정 사업은 주로 외국 교과서와 백과사전에서 발견되는 잘못된 한국관을 바로잡는 수준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 사업은 원래 문교부 사회과학 편수관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에서 이뤄졌으나, 1981년 9월 업무 분담의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담당하게 되었다.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교과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는 크게 교과서 모형 또는 체제 개선을 위한 탐색 연구와 연구 개발된 교과서의 실제 적용을 통한 실험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새 교과서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1977)」는 교과서 개발 기초 연구의 출발점으로, 4학년 사회과 한 단원의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실험하여 차후 본격적인 교과서 연구·개발의 방향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 이어서 「교과서 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1979)」가 수행되었다.

교과용 도서의 개발 | 1977년 '문교부 1종 교과서 및 지도서 연구 개발을 위한 편찬 기본 계획'에 의하여 문교부는 국정 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를 각각 1종 도서와 2종 도서로 변경하고, 1종 도서의 연구 개발을 각 대학의 해당 연구소와 한국교육개발원 등 관계 연구기관에 위탁하였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제3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의 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한 데 이어, 제4차 이후의 교육과정의 개정 및 이에 따른 각급 학교 교과용 도서 개편 과제 대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하였다.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1979년)에 개발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과 같다.

국정교과서
개발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용 도서 개발 상황(1974~1979년)

연도	학교 급별	책수	개발 구분	비고
1974	방송통신고	20	신편	
1975	방송통신고	32	신편 및 개편	
1976	고등학교	18	신편	
1977~1978	중학교	42	정본	
	고등학교	17	정본 11, 개편 6	
	방송통신고	18	정본 14, 개편 4	
1979	국민학교	19	정본	
	중학교	3	정본	
	실업고	10	정본	
	체육고	3	정본	
	방송통신고	3	정본	

인구교육 연구

정부는 인구교육에 깊은 관심을 갖고, 1974년에 유엔인구기금(UNFPA)의 자금지원과 UNESCO의 기술 협조 아래 '인구교육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문교부 내에 인구교육중앙본부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인구교육을 계획·추진하였다. 인구교육중앙본부는 1970년대 말까지 관련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1982년부터 한국교육개발원에 동 사업을 이관하였다. 개발원은 초·중등학교 교사용 인구교육 연수자료와 슬라이드를 개발하여 전국에 보급하였고, 이후 유엔인구기금(UNFPA)의 재정 지원으로 「도서 벽지 초·중등학교 교사 인구교육 연구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사업 이관 이전부터 『교사용 인구교육 지침서』를 비롯해 다양한 인구교육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구교육 사업의 주요 성과물은 다음과 같았다.

01. 교사용 인구교육 연수자료 개발, 보급
02. 교사 인구교육 연수 실시
03. 교사용 인구교육 지침서 개발
04. 인구와 교육에 관한 연구보고서 개발, 배포
05. 각급 학교 인구교육 수업지침서 및 배움책 개발

1974.05.27~30.
인구교육 워크숍

Chapter 4.

교육 및 정보 서비스의 확대와 국제교류 시작

01 방송통신고등학교 개교 및 운영지원 시작

탄생 배경 및 설립 과정

1970년대는 산업 현장에 투입해야 할 인력 수요가 늘면서 비숙련 노동력 및 기능공을 산업 현장으로 대거 흡수해야 하는 시기였다. 여기에 해방 이후,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중·장년층에게 고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었고, 고교 연합고사에 탈락한 고입 재수생을 흡수해야 한다는 현실적 문제도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1973년 2월 28일 서울과 부산의 고교입시제도 개혁 및 방송통신고 설치 계획이 발표되었다. 고교 입시 탈락자들에게 고등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방송통신고의 설치를 계획한 것이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1973년 3월 10일 교육법을 개정하여 국공립 고등학교에 방송통신 교육과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는 1973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에 방송통신고 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추진 계획의 수립을 위촉하였고, 같은 해 7월 문교부는 방송통신고 설립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검토·결정하기 위한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또한 교육과정 등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방송통신고등학교교육과정심의회'를 두었다. 이후 1974년 3월 1일 부산과 서울의 11개 공립고등학교에서 부설 방식으로 최초의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열었다.

1982.09.23.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과제와 전망

방송통신고 설치 과정에서 개발원의 역할

한국교육개발원은 설립 직후인 1973년부터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 준비작업에 착수하여 교수 행위를 제외한 대부분의 설립 작업을 주도하였다. 개발원은 1973년 3월 8일 문교부로부터 방송통신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추진 계획 수립을 위촉받아 방송통신고 설립과 관련된 각종 제도 및 법규, 교육과정 및 교재작성, 라디오 방송 방안과 실시 계획 등을 연구하였다. 같은 해 10월 29일에는 방송통신고 운영 세부 지침을 문교부에 보고하였고, 이는 이후 방송통신고 운영의 기본구조가 되었다.

한편 개발원은 부여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독립된 연구실을 설치·운영하였고, 연구원, 제작팀, 서무실 등의 하부 구조를 두었다.

세부 지침에서 제시된 개발원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았다.

01.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02. 방송강의 프로그램 제작
03. 통신학습자료의 개발 보급
04. 평가 체제 입안 및 일부 참여
05. 졸업학력인정평가시험 총괄 계획 및 일부 참여
06. 방송고 제도 도입 및 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 연구수행
07. 각급 학교 인구교육 수업지침서 및 배움책 개발

02 교육정보자료사업 전개

설립 직후 1973년 초에 이미 도서실이 설치되었으나 최초로 직제화된 것은 1974년 3월이었다. 초기에는 운영 부서의 소관 사업이었으나 1976년부터 1978년까지는 기획조정실 소속으로 바뀌었으며, 1979년에 비로소 도서관으로 승격 개편되었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도서관을 교육자료정보센터로 확대 발전시키는 작업과 교육정보자료의 전산화 작업에 착수하였으나, 예산 확보의 실패와 기구 축소 등으로 결실을 맺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선 과정에서 장서 규모는 크게 증가하였다. 도서실 설립 당시 1,883권이었던 총 장서수는 1970년 말 10배 이상 증가하여 2만 3,762권으로 늘어났다. 장서 구성에 있어서도 당초 도서자료와 정기간행물 2종류만으로 출발하였으나 1970년 말에는 교육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정보서비스에 있어서도 초창기에는 소극적인 열람·대출에 치중하였으나 장서 규모가 갖추어진 1979년에 들어서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 제공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교육정보자료 수집 활동초기 | 도서실의 최대 관심은 빠른 시일 내에 장서를 확충하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1974년에는 중앙교육연구소 소장 자료를 인수하였고, 동시기에 AID 차관 약 10만 달러로 최신 외국 도서를 구입·확보함으로써 교육학 전문 도서관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교육정보자료의 제공 | 1979년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자료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시작하였다. 개발원은 「주간교육자료정보」, 「학술잡지목차속보」 등을 발행하여 광범위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후 소장 자료와 소재 정보를 제공해 주는 종합 목록집의 발간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교육정보자료 전산화 준비 | 1979년부터 교육연구에 필요한 정보자료를 체계화하여 교육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보급하기 위해 「교육자료정보센터 운영 기본 계획의 수립」, 「교육자료정보처리 전산화 기본 계획의 수립」, 「교육용어(thesaurus) 개발연구」 등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교육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 조성 작업으로 교육현장 논문과 교육학술 연구논문을 수집하기 시작하고, 연구논문의 독자적인 분류체제를 개발하였다.

03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의 태동

1970년대 무렵, 정부는 대내적으로는 1960년대의 양적 급성장이 초래한 교육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대외적으로는 보다 발전된 선진국의 최신 학문과 기술을 도입하여 교육발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중 부담을 안고 있었다. 당시

1979.08.16~17.
교육발전에 관한 국제세미나

문교부는 국내 학자들과 해외 학술·연구기관들과의 제휴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고, 국제 학술대회에 학자들이 참가하여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국제협력 및 교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한국교육개발원은 우리나라의 교육발전에 귀감이 될 만한 선진국의 교육적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우리의 교육 현실에 접목시키고자 하였다. 이 시기는 개발원이 대등한 입장에서 국제사회와의 상호 교류를 진척시켰던 국제교류·협력이라기보다는 발달된 선진국의 노하우 도입을 통해 우리의 내적 역량을 강화시키려는 성격이 강했다.

주요 국제교류·협력 활동

1970년대 국제교류·협력 활동은 주로 국제기구나 선진국의 대학 등에서 발달된 교육 경험과 기술을 전수받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선진 기술 및 경험 습득을 위한 국제 연수해외 연수와 관련하여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은 기관은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였다. 개발원은 1973년 체결된 기술연수계약에 의거하여 해외 장·단기연수를 실시하고 자문 교수를 파견하였다. USAID(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경우에도 개발원 설립 이전부터 기술지원 협력 계획에 의거하여 해외연수 및 자문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APEID 관련 활동 | APEID(아시아교육발전혁신프로그램: Asian Programme for Educational Innovations for Development)는 아시아 국가 간 교육개혁을 독려하고 방향을 공유하기 위한 협력체계로서 출발한 UNESCO 산하 프로그램이다. 개발원은 APEID 사업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NDG(한국위원회: National Development Group) 창설의 산파역을 맡았고, 1974년부터 1980년까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이 한국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였다. 1970년대에 개발원에서 이루어진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많은 부분은 APEID와 연관되어 있다.

기타 국제교류·협력 활동 | 유네스코 및 산하의 '교육계획기구(IIEP)', '국제교육국(IBE)',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UNESCO-PROAP)' 등은 당시 개발원과 국제사회를 연결하고 정보를 교류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1973년 '국제교육과정기구(ICO)'에 가입함으로써 교육과정 연구·개발의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수업 체제를 세계에 소개할 수 있었다.

초기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의 의의

1970년대의 국제교류·협력은 개발원을 국제사회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과 더불어, 발달된 선진 기술 지원의 수혜자로서 기관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형식과 내용을 빠르게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비록 뚜렷한 목표와 비전에 의거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는 못했으나, 개발원은 향후 국제 교류·협력이 보다 탄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정신적·물리적 토양을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한 여러 국제 교류·협력을 통해 'KEDI'라는 브랜드를 국제사회에 한국 교육기관의 대명사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다.

Section 2.

교육개혁을 선도하는 종합 연구기관으로 성장하다

1980
1989

Chapter 1.
종합교육연구기관 체제 확립
01. 전문연구실 체제로 전환
02. 업무 공간과 예산 규모의 확대
03. 교육개혁심의회 참여 및 지원

Chapter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연구의 전문화
01. 교육과정개발센터 기능 수행: 제4~5차 교육과정 개발
02. 교과서 개발 연구 수행

Chapter 3.
교육정책·교육기초 연구 및 컴퓨터 교육 연구
01. 교육정책 연구
02. 교육기초 연구
03.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

Chapter 4.
본격적인 교육방송 사업 전개
01. 교육방송의 태동과 발전
02.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03. 교육방송 연구 수행
04. 기타 주요 사업

Chapter 5.
교육·정보 서비스 발전과 국제협력 확대
01.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및 연구
02. 교육전문도서관으로 진화
03.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Chapter 1.
종합연구교육기관 체제 확립

1980년대는 정치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던 시기였다. 제5공화국은 정치적 안정화를 위해 과열과외 등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안을 마련했으며, 교육개혁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 교육개혁 사업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국책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특히 1980년대를 거치면서 개발원은 1970년대의 양적 성장에 더해 질적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확대된 업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면서 종합 교육연구개발 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된 것이다.

01 | 전문연구실 체제로 전환

1980년대에 들어 정부는 행정쇄신의 일환으로 정부기구 및 출연기관 등의 운영을 축소·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 결과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1981년 연구부와 사무처를 대폭 축소하게 되었다. 이때 두드러진 변화는 교육기초연구부와 교육정책연구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교육발전연구부'를 발족시킨 것이었다. 각 부서 하위조직은 50과(실)에서 39과(실)로 대폭 축소되었으며, 정원도 31명 줄어드는 등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축소 개편이 이뤄졌다. 이와 같은 기구 축소에 따라 창립 당시부터 계속 운영해왔던 상임감사제가 폐지되었고, 비상임감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1983년에는 과제별 연구팀 제도를 최초로 도입했고, 1985년 이를 전문연구실 체제로 발전시켰다. 기존에는 기초연구 1실·2실·3실, 정책연구 1실·2실·3실 등으로 구

분했으나 이를 전문연구실 체제로 전환하여 교육사·교육철학연구실, 교육사회연구실 등을 둔 것이다. 전문연구실 체제를 도입하면서 연구의 전문화와 노하우의 축적이 가능해졌다. 한편, 새로운 연구와 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신규 연구 조직도 만들어졌다. 1987년에는 영재교육연구실과 특수교육연구실이 신설되었고, 1988년에는 컴퓨터교육연구센터를 조직하여 그 아래 컴퓨터교육연구실과 컴퓨터운영관리실을 두었다. 그리고 같은 해 경제교육연구실도 새롭게 설치했다.

교육방송부도 확대·개편을 거듭하였다. 교육방송 프로그램 심의와 모니터링을 위해 1984년 방송심의실을 신설했으며, 교육방송 자료의 정리와 대출을 목적으로 방송자료실을 새롭게 설치했다. 또한 1985년에는 방송교육연구실을 연구1실과 연구2실로 나누어, 각각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육과 중·고등학교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1988년에는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 업무와 제작 지원 업무를 분리하였으며, 지원 업무를 담당할 지원국을 신설하였다.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은 크게 '교육연구'와 '교육방송'이라는 두 가지 분야의 사업을 전개했으며, 1980년대를 거치면서 두 사업 모두 양적·질적 성장을 이뤘다. 이에 개발원은 1989년 단일 부원장제에서 양 부원장제로 전환하여, 연구담당부원장은 교육연구 사업을, 방송담당부원장은 교육방송 사업을 각각 전담하도록 하였다.

02 업무 공간과 예산 규모의 확대

기관 운영 측면에서 1980년대 최우선 과제 중 하나는 부족한 시설공간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82년 3월 30일 신관동 부지에 신축건물(1,401평) 기공식을 갖고 추가 공간을 확보했다. 이로써 그동안 공간 문제로 외부에 있던 부서가 1983년 청사로 들어오면서 업무상 여러 불편한 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1985년에는 교육방송 활성화 정책에 따라 TV 과외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방송동 옥상에 300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방송 체제를 강화할 수 있었다. 한편 1980년대는 교육방송사업비의 지속적인 증가로 정부출연금 예산 규모가 커지고, 제4차 교육과정 개발과 컴퓨터 교육 등으로 국고보조금(수탁사업) 사업도 증가했다. 이에 따라 본원의 예산 규모 역시 1985년을 전후로 100억 원을 넘어서게 되었다.

1982.03.30.
청사 신축건물 기공식

1982.12.
청사 신축건물 준공식

03 교육개혁심의회 참여 및 지원

제5공화국은 출범 이후 헌법에 교육 조항을 보강하고, 국정지표에 '교육개혁과 문화창달'을 신설했다. 그리고 1985년 3월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의 종합적인 개선책 수립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교육개혁심의회를 설치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는 1985년 10월 사무실을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전했으며, 이에 따라 개발원은 교육개혁심의회에 물리적인 공간을 제공한 것은 물론 다양한 기초 연구와 연구 인력을 지원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교육개혁심의회가 1987년 12월 해체될 때까지 개발원의 연구진들은 심의위원, 전문위원, 연구원 등으로 참여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전문연구기관으로서 정책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여러 교육개혁안을 적극 제안하였다. 각 전문위원들이 심의회 내부에서 수행한 정책연구 과제 외에도 심의회가 개발원에 의뢰한 15개 연구 과제를 수행하였다. 이와 관련한 정책연구들로는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 「교육방송의 활성화 방안」, 「교과서 및 교육과정 조정」, 「외국어 교육 방법 개선 연구」, 「교원 양성 제도와 자질 향상 및 사기 앙양 방안」, 「현직 교원 재교육 방법」, 「대학 정원의 적정화」, 「학교 시설 현대화 방안」, 「평생 교육 진흥 방안」, 「특수 교육 진흥 방안」, 「교육자치제 운영」, 「전문대학의 내실화」, 「대학교육의 질적 고도화」, 「교육재원의 확보 방안」 등이 있었다.

이 연구들은 심의회의 교육개혁안으로서 심의 과정을 거쳐 정책 방안으로 수용되었다. 이외에도 개발원은 자체적으로 「대학 입시제도 개선 연구」,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제도 개선 연구」, 「교육 이념에 관련된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하면서 심의회가 교육 정책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했다.

교육방송 활성화 방안 연구

외국어 교육 방법 개선 연구

평생교육 진흥방안

Chapter 2.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연구의 전문화

01 교육과정개발센터 기능 수행 : 제4~5차 교육과정 개발

교육과정 개발 방식의 변화

1977년 2월 '검인정 교과서 사건'이 발생하면서 1978년 3월 편수업무를 전담하던 문교부의 편수국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문교부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를 연구기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으며, 1978년 6월 제4차 교육과정의 연구·개발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 교육과정 개발은 문교부 편수국을 중심으로 몇몇 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던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개발(R&D) 형태로 바뀌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교육과정개발센터(CDC: Curriculum Development Center)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79년 1월 교육과정연구부를 설치하고 그 안에 교육과정연구조정실과 10개의 교과교육연구실을 두어 교육과정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했다. 또한 문교부 관계자들과 회의를 통해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일정 및 업무내용, 참여 인사 등을 협의하였다. 이때 확정된 교육과정 연구·개발 절차와 기능분담 및 참여 인사는 이후 제4차 교육과정 뿐만 아니라 제5차 교육과정 연구·개발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한편 개발원은 내부 연구진 외에도 외부 전문가 및 현장 교사들의 참여를 위해 각 전공별로 연구실에 대학 교수를 연구교수로 위촉하여 주2회씩 연구 자문을 수행하도록 하였고, 교육과정 업무를 담당한 문교부 관계관 전원과 대학교수, 학교 교장 및 교사, 교육행정가 및 연구관 등을 교육과정 연구위원으로 위촉하여 교육과정의 연구·검토·수정·보완에 필요한 자문 및 협의를 진행하였다.

제4차 교육과정 연구·개발

문교부로부터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를 위탁받은 뒤, 개발원은 본격적으로 교육과정 개발 관련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1979년부터 1981년 12월 제4차 교육과정 고시 이전까지 수행한 기초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제4차 교육과정 개발 관련 기초 연구

연도	연구과제
1974	- 교육과정의 방향 탐색 - 현행 교육과정의 분석 및 개선방향 탐색 - 학교교육 목표에 대한 사회적 요구 분석 - 교육과정 국제비교 연구 -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 교육과정 및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 중학교 교육의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농업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1975	-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 분석 연구 -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 연구 - 한국 중·고등학교 학생의 관심 및 요구 조사 - 학교교육제도 및 교육과정 발전방향 탐색 - 농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유형별 적용 연구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공고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새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술계 교육과정 운영실태 조사
1979	-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상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가사·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선 연구 - 공업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개선 방안 및 목표설정 연구 - 공업 고등학교 분야별 교육과정 개편의 방향 -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가정 교육과정 개선 연구

이들 연구는 제4차 교육과정 연구의 기본 내용을 구성하는 데 바탕이 되었으며, 특히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1980)」는 제4차 교육과정의 구성방향과 편제, 내용구성, 운영지침 등을 직접 제시한 연구이다.

이러한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원은 1980년 11월부터 본격적인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착수하면서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간의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1981년 3월 「교육과정 개정안(총론)의 연구·개발」 답신보고서

를 제출하고 1981년 7월 31일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안)을 문교부에 보고하였다. 문교부는 이 안을 각급 학교별·교과별·계열별로 2차에 걸쳐 심의하고 수정·보완하였다. 그리고 1981년 11월 20일 공청회를 거쳐, 같은 해 12월 31일 문교부 고시 제442호로 제4차 교육과정이 공포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교원 연수를 위해 KBS 방송으로 1982년 2월 8일부터 19일까지 하루 1시간 개정 내용을 방영하였다. 이러한 TV매체를 통한 교원 연수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것으로, 당시 획기적인 홍보 방법으로 평가되었다.

제4차 교육과정 연구위원

구분	교육개발원 연구원	문교부 관계관	대학교수	학교장 및 교사	계
총론 및 조정	14	11	18	5	48
유치원	10	7	25	5	47
국민학교	54	36	121	48	259
중학교	70	41	142	64	347
고등학교	128	79	249	198	664

1981.11.20.
교육과정 개정방안에 대한 종합세미나

제5차 교육과정 연구·개발

1985년 구성된 교육개혁심의회에서는 21세기를 향한 인간상을 제시하면서, 학생들의 수준과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을 주문하였으며, 교과목에 대한 통합적 조정, 학습자료의 다양화, 기술·과학교육의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는 이러한 내용이 대거 반영되었으며, 개발원은 제5차 교육과정 개정에 대비하여 다양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육과정 국제비교연구'는 선진국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분석·비교한 것이며, '교육과정 평가 연구'는 제4차 교육과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특성·성취도·문제점·개선점 등을 밝히는 연구였다. 또한 '교육과정 개선 방향 탐색연구'는 제5차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고, '통합교육과정 연구'는 통합 교육 및 교육과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다.

문교부는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업무 추진 계획을 1985년 6월 17일자로 한국교육개발원에 통보하고,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연구·개발을 1986년 2월 19일자로 위촉하였다. 이후 개발원은 새 교육과정 연구·개발을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였다. 제5차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조직은 교육과정 연구실과 8개의 교과교육연구실로 구성되었으며, 인적 구성은 실무진(개발원 연구원), 자문교수진(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교장), 협의진(문교부 관계관,

1980.10.30.
국민학교 통합교육과정 아시아 국제 세미나

교장·교사,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으로 이루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의 기본 방침을 살리면서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 전략(지속성·점진성·효율성)을 수립하였다. 지속성은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고, 점진성은 적합하지 않은 것을 점진적으로 고쳐 나가는 것이며, 효율성은 교육과정과 실제 학교교육 간의 괴리를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러한 전략 아래 제5차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1989년부터 순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되었다.

한편 개발원은 제5차 교육과정 개발 이후 후속 연구를 실시하였다. 1988년부터는 개발 과정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평가기록 방법 개선 연구 등 실제적인 연구와 함께, 수학과 기초 기능에 대한 조사 및 실업·가정 교과의 성격 정립과 편제 개선을 위한 연구 등 각 교과별로도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5차 교육과정 개발 과정

절차	주요과제	기간	담당기관
정책결정	• 5차 교육과정 개정 기본체제 • 개정 업무 추진 계획 • 개정의 방향 정립	1985.06. 1986.02.	문교부
기초연구	• 현행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효과분석 • 5차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 분석 • 교육과정의 국제비교 연구 • 교육과정 교과교육 연구 동향 분석 • 국민학교 통합 교육과정 연구 • 교과서체제 개선 연구	1982. 1986.02.	한국교육개발원
개정시안개발	• 총론시안 - 구성 원칙 - 교육 목표 - 편제 및 시간배당 - 운영지침	1986.01. 1986.06.	한국교육개발원
	• 각론 시안 - 교과 및 특별활동의 지도 목표 - 지도상의 유의점	1986.01. 1986.08.	
심의	• 총론심의	1986.07. 1986.08.	문교부
	• 각론심의	1987.03. 1987.08.	
확정고시	• 개정안 최종 보안 • 최종 심의 • 고시	1987.06. 1987.11.	문교부

02 교과서 개발 연구 수행

교과서 개발 정책의 변화

1977년 '검인정 교과서 사건' 이후 우리나라의 교과서 행정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문교부는 1977년 8월 22일 국정 및 검인정 제도를 없애고 1종도서 및 2종도서로 구분하여 교과서를 편찬 발행하도록 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문교부가 직접 담당해 오던 국정교과서 개발을 1종도서로 변경하여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는 학술 단체에 위탁해 수준 높은 교과서를 만들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문교부는 1종도서 개발 대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였고, 일부를 대학 또는 학술 단체에 위탁하였다.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은 1979년 3월 문교부와 관련 업무 및 역할분담을 조정하였다.

1종도서 편찬 과정 및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업무 분담

구분	문교부(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개발기관)
도서편찬 기본계획	- 편찬의 기본계획 수립 - 연구·개발 기관 선정 - 연구·개발 계획서 및 집필세부계획서 심의·확정 통보	- 연구·개발 계획서 및 집필 세부계획 작성
집필	- 집필과정 확인 및 지원	- 원고본 작성 - 원고본 검토(협의진)
원고본 심의	- 원고본 심의 및 수정·보완 지시	- 원고본 수정 보완 및 실험본 작성
현장실험	- 실험학교 선정 - 실험결과 평가	- 실험 계획서 작성 - 실험 - 실험결과 보고 - 실험본 수정
수정본 심의	- 수정본 심의	- 심의 결과 반영 - 인쇄본 작성·제출
인쇄본 검토	- 인쇄본 종합 검토	
발행공급	- 발행 기관에 생산 및 공급지시	
현장적용	- 연수 및 장학	- 모니터링 - 일부 수정

이러한 역할 분담에 따라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등학교 1종도서의 경우 국민학교는 1종도서 전부를, 중등학교는 대부분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개발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한 초·중등학교의 1종도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외에 다른 대학이나 기관에서도 상당수 개발하였다.

1980년대.
통합교과-바른생활

1980년대.
통합교과-슬기로운 생활

1980년대.
통합교과-즐거운 생활

중학교 교과서 개선을 위한 연구(RR82-09)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 (RR85-30)

교과서와 교과서 정책 (RR86-06)

교과서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은 제4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국민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해 1978년부터 1979년까지 「교과서 구조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의 외형, 단원전개, 내용제시 등에 관한 분석 기준을 정하고 국민학교 전 교과의 국내외 교과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각 교과별 교과서 체제를 구안하고, 국민학교 교과의 교과서 및 통합 교과서 예시 단원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는 1982학년도부터 적용된 국민학교 교과서 개발의 체제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어서 개발원은 1980년 외부 전문가에게 위촉하여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는 여러 개의 하위 연구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히 「교과서제도에 관한 외국 제도와 우리 제도의 비교 연구(1980)」는 선진 8개국의 저작·편집·발행·검인정·사용·공급·가격 등을 비교하여 국내 교과서 행정 체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1981년 제4차 교육과정의 개정 고시 이후에는 교과서 개선을 위한 연구에 착수하였는데, 그 첫 번째가 「중학교 교과서 개선을 위한 연구(1982)」였다. 이 연구는 중학교 교과서의 분석을 바탕으로 국어·사회·수학·영어 교과서의 모형을 구안하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개발원은 다양한 교과서 관련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과서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로서 1985년 「교과서 체제 개선 연구」를 진행했고, 1986년 「교과서 정책」을 연구하였으며, 1988년에는 「교과서 공급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 중반까지는 주로 교과서 내용 체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1980년대 후반에는 제도적인 교과서 정책 연구가 주를 이뤘다.

교과용 도서의 개발

교과서 개발 전략 및 체제 개선 | 한국교육개발원은 1970년대에 수행한 새 교육 체제 모형과 그간의 기초 연구를 바탕으로 정립한 교과서 내용 전개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일반적인 자료 개발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그 개발 절차 모형을 다음 표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정립·적용하였다.

특히 교과서 내용에서는 교육과정 기본 정신과 목표의 반영, 내용 분량과 수준의 적정화를 시도하였고, 국민학교 1,2학년 교과용 도서는 교과 간 통합을 이루었다. 그

교과서 내용 전개 모형을 적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학습과제 안내
  학습 목표제시, 학습 동기·흥미 유발
+ 학습내용 제시
  주요사실·개념·원리 제시, 관련 자료 및 정보 제시, 학습방법 및 절차 제시
+ 학습 결과 정리·확인
  주요개념·원리 발견, 주요 내용 요약, 결과 정리·확인
+ 학습 내용 적용·보충·심화
  개념·원리 적용, 문제해결 태도·가치 변화, 보충·심화 학습자료 제시

교과용도서 개발 절차 모형

기초연구	연구·개발	현장검증	수정·보완	현장적용
- 문제확인 - 기초연구	- 개발계획 수립 - 초안 작성 - 검토 및 수정	- 표집 연수 - 현장 시행 - 자료 수집	- 문제 규명 - 수정 보완 - 심의 확정	- 보급 - 질 관리

리고 제4차 교육과정부터는 교과서 판형을 국민학교 1,2학년 교과서와 3~6학년 음악·미술 교과서를 4×6배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제4차 교육과정 이후 각급 학교 전 교과를 미색 중질지로 개선하고, 다색 인쇄를 진행하는 등 교과서 외형제제의 전면적 개혁이 이루어졌다. 특히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대부분 '1교과 1책'이었으나 제5차 교육과정부터는 다종화(多種化)를 이루어 '1교과 다책'으로 발행되었다.

교과용 도서의 연구·개발 | 교과용 도서의 개발은 크게 적용시기로 보아 제3차 교육과정 시기(1973~1981년), 제4차 교육과정 시기(1982~1988년), 제5차 교육과정 시기(1989~1994)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개발 유형에 따라 실험본·정본·신편·개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차 교육과정, 제5차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개발원이 연구·개발한 교과용 도서는 다음과 같다.

1980년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과용도서 개발 현황

구분	학교급별	책수	개발 구분	총계
1980	국민학교	48	실험본	88
	중학교	1	정본	
	고등학교	25	정본 4, 개편21	
	실업고	7	정본	
	체육고	6	정본	
	방송통신고	1	정본	
1981	국민학교	142	실험본 55, 정본87	191
	중학교	7	정본	
	고등학교	29	정본5, 개편22, 신편2	
	방송통신고	13	정본	
1982	국민학교	58	정본	83
	중 학 교	13	정본10, 개편3	
	고등학교	2	정본	
	방송통신고	10	정본	
1983	국민학교	6	수정본	57
	중학교	32	정본	
	고등학교	19	정본3, 개편16	
	방송통신고			
1984	중학교	2	개편	30
	고등학교	19	정본3, 개편16	
	체육고	4	정본	
	방송통신고	5	정본	
1988	국민학교	75	개편40, 신편35	85
	중학교	10	개편8, 신편2	
1989	국민학교	6	개편	42
	중학교	18	개편	
	방송통신고	15	개편	
	실업고	3	개편	
1990	국민학교	9	개편	25
	고등학교	2	개편	
	방송통신고	14	정본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용 도서(학생용 교과서, 교사용 지도서) 이외에도 외국어교육, 사고력교육, 민주시민교육 등 학교에서 요구되는 많은 교수학습 자료를 연구·개발하였다. 이 중 대부분의 자료는 문교부의 장학자료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시중에서 판매되었다.

교과서 현장 적용을 위한 실험 연구 | 제3차 교육과정 개정부터는 교과서 실험본을 제작한 후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여 오류를 발견·수정하고, 효과를 검증해 개선점을 찾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제4차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서 실험연구로는 1981년 국민학교 1,2,3학년 교과서 현장적용 연구가 있으며, 1982년 국민학교 4,5,6학년 교과서 현장 적용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전국 12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 부속 국민학교와 각 시·도의 지역별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26개 학교에서 실험이 이루어졌다. 대상 교과는 각 학년 1,2학기 전 교과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와 4,5,6학년 통합본인 특별활동 교사용지도서였다. 제5차 교육과정에 의해 편찬된 국민학교 교과서의 경우에는 1988년 1,2,3학년 교과서가, 1989년에 4,5,6학년 교과서가 현장 실험 연구에 투입되었다. 실험 학교는 전국적으로 42개 학교였으며, 문교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교과서를 수정·보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경제·환경·진로 교육 연구 및 자료 개발

경제교육 연구와 자료 개발 | 1980년대 후반 경제교육이 강조되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은 문교부와 경제기획원의 특별지원으로 경제교육 연구와 자료 개발 및 보급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사회과 교육 연구진에서 추진하다가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1990년부터는 경제교육연구부를 설치하고 연구·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환경교육 연구와 자료 개발 | 한국교육개발원은 1970년대 후반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를 바탕으로 환경교육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인구성장과 환경관리(1976)」, 「환경 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기초 연구(1977)」, 「환경교육 모형 단원 개발에 관한 연구(1977)」 등이 대표적이다. 1980년대 후반에는 환경교육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학교 환경교육의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1987)」, 「환경교육개선을 위한 TV프로그램 개발 연구(1988)」를 수행하였다. 그밖에도 환경처의 용역으로 다양한 학생용 학습 자료와 교사용지도서 및 VTR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는 등 우리나라 환경교육의 시작을 열었다.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기초연구(RR-60)

환경교육개선을 위한
TV프로그램
개발 연구(RR88-14)

1984.08.16~25.
초·중등학교 진로교육 특수분야 일반연수

진로교육 연구와 자료 개발 | 문교부와 주한 유니셉의 지원을 받아 1982년부터 1986년까지 5년 동안 진로교육 연구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 사업은 기초연구(1982~1983년),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1984~1985년), 자료의 확산 및 보급(1986년)의 3단계로 추진되었으며, 이후에도 시범학교의 계속적인 운영과 함께 진로 교육 관련 교사들의 교원연수 등이 진행되었다.

Chapter 3.

교육정책·교육기초 연구 및 컴퓨터 교육 연구

01 교육정책 연구

교육계획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이 1980년대까지 주로 수행한 정책 연구는 교육계획에 관한 연구였으며, 이는 교육계획연구부 설치 이후 보다 본격화되었다. 교육계획 연구는 국가 수준의 중·장기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 수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초·정책 연구, 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계획 수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연수 활동 등이 주를 이뤘다.

개발원은 1982년 하반기부터 국내 11개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2000년을 향한 국

1982.11.05~06.
2000년대의 사회발전과 교육 세미나

가발전 장기 구상」 중 교육 부문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가 발전에 교육발전이 중요함을 부각시키고, 21세기에 필요한 인간상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발전 방향과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또한 종합교육 계획과는 별도로 교육계획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기초·정책 연구가 수행되었다.

교육제도 연구

학교제도 연구 | 1980년 교육정상화 방안이 실시되면서 학제 개편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학교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가 1981년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는 『학교제도 발전 연구』로 발행되었다. 또한 1980년에는 「통합고교형으로 고등학교 체제 개편 연구」, 1985년에는 「한국 중등교육체제 발전 연구」를 각각 수행하였다. 특히 1987년에는 「진로교육체제 발전 방안 연구」라는 과제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에서 제시한 안은 교육개혁심의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건의되었으며, 각 시·도 교육연구원에 진로교육센터가 설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교육체제 개선 연구 | 1980년대 주요 정책 연구 과제 중 하나로 과열과외 해소 대책에 관한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책 안은 1980년 7월 30일 정부의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대책」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과열과외 해소 대책으로 추진된 교육정상화 방안은 1980년대 정부가 취한 최초의 교육개혁으로서, 당시 만연되었던 과열과외 현상을 근절시키는 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교육정상화 방안으로 실시된 고교 내신제도와 대학 입학정원 확대 등은 고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입시 경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한편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에 대한 연구」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실시한 지 10년이 되는 시점에서 해당 정책을 다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교육의 기회 균등과 수월성·다양성·자율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이 시기에 「사학 활성화 연구」를 통해 사학과 공교육이 함께 발전하는 맥락에서 6가지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입시제도 연구 | 1980년대 들어서면서 대학입시제도에 대해 수차례 연구가 수행되었다. 1980년에는 「입시제도 비교 연구」와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선방향 탐색」이라는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이후에도 1981년 교육부 수탁과제로 「대학입학시험제도의 개선방안」 연구가 수행되는 등 관련 연구가 이어졌다.

1985.04.26.
한국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 전략 세미나

고등교육 연구 | 1984~1985년에 걸쳐 「한국 고등교육 정책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교육개혁심의회가 건의한 고등교육 부문 방안에 반영되어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1986년에는 고등교육의 장기적인 발전과 연계하여 정원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교육행정 연구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는 1980년 당시 교육행정제도 문제 진단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다. 『교육행정제도 개선연구』로 발행된 이 연구에서는 교육부의 정책 개발 기능 강화와 지방 교육행정 조직의 확대·개편 및 교육자치제 활성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해당 연구 수행 과정에서 「주요 국가의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연구」도 함께 수행되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여러 교육행정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교육계획 활성화를 위한 주요 기초·정책 연구(1980~1989년)

시기	연구 제목	연구 목적 및 내용
1981	「지방교육행정조직·운영의 효율화 방향」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단계적 개편 방안과 기구 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 방안 등을 제시
1982	「장학행정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교원의 교수 기술을 향상시키고 학교 경영의 쇄신을 유도할 수 있는 본래적 의미의 장학 활동이 전개·정착될 수 있는 장학 행정 체제 구안
1983	「초등학교 대도시 장기수용대책연구」	과대규모 학교 및 다인수 학급 문제 해결
1986	「교육행정의 자율화 방안 연구」	교육행정 조직 및 권한 배분, 운영 및 절차, 교원 및 교육행정요원의 양성 및 임용체제, 교육재정 측면 탐색·제시
1987	「장학체제 개선을 위한 장학 담당자의 직무 분석 연구」	장학 담당자의 직무 분석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장학 체제 개선에 기여

한편, 교육행정의 한 영역인 교육시설에 대한 연구는 1981년 「대학시설 기준 연구」를 시작으로 1987년과 1989년에 교육부의 요청으로 「학교시설의 현대화」, 「학교시설·설비기준령 개정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기타 교육정책 연구

교원교육 연구 | 1983년 교원교육연구실이 설치된 이후 교원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교원양성제도, 교원양성 교육과정, 교원연수제도, 교사자격제도, 교원수급계획, 교원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추진되었다.

교육경제·재정 연구 | 교육경제 분야 연구로는 비용·효과 분석 연구, 교육과 경제성장의 관계 분석 연구, 교육투자정책 연구, 규모의 경제 연구 등이 이뤄졌으며, 교육재정 분야 연구로는 총 교육비 분석 연구, 교육재원 확보방안 연구, 교육재정 배분 연구, 적정 교육비 연구, 지방교육재정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비교교육 연구 | 1985년 비교교육연구실이 신설되었다. 이곳에서는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교육체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초·중등학생의 신장발달에 관한 의사종단적 연구

02 교육기초 연구

교육심리 연구

교육심리 연구는 창립 초기부터 새 교육 체제, 교육과정 및 교과서 연구개발 등에서 기초연구로 수행되어 왔으나 독립 부서로 설치되어 연구가 수행된 것은 1979년 1월 교육기초연구부가 설치된 이후부터였다.

인간발달에 대한 연구 | 인간발달에 대한 연구는 신체발달, 지적·정의적 발달 등에 대한 조사연구로 이루어졌으며, 「초·중등학생의 신장발달에 관한 의사 종단적 연구(1980)」, 「중등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 특성조사(1982)」 등이 진행되었다. 특히 후자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중·고등학생들의 지적·정의적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15년 뒤인 1994년에 다시 한번 이루어졌다.

학습방법에 관한 연구 | 「학습 전략 훈련 프로그램 개별연구 Ⅰ, Ⅱ, Ⅲ(1988, 1989, 1990)」이라는 명칭으로 1988년부터 1990년까지 3년간 이루어졌으며, 주로 인지심리학에서 밝혀진 학습전략을 학생용 글 읽기 훈련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연구였다. 연구 종료 이후에는 초등학교 4/5/6학년과 중학교 1/2/3학년 읽기자료로 출판되어 현장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하였다.

교육심리검사 개발 연구 | 학생들의 지능·적성 등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1985년부터 1986년까지 2년간 진행된 「한국교육개발원 아동용개인지능검사(KEDI-WISC)개발 연구」를 통해 산출된 KEDI-WISC(KEDI-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는 미국의 WISC-R을 한국적 상황에 맞도록 개발한 최초의 개인지능검사였다. 특히 이 검사는 영재아 및 특수아를 판별하는 필수 도구로서 널리 활용되었다. 한편 1987년도에 개발된 기초학습기능검사는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7개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능력검사로, 특수교육 분야는 물론 병원의 학습장애 클리닉센터에서 널리 활용된 개인용 학력검사였다.

유아교육 연구

취학 전 아동들의 발달수준과 관련된 연구 | 유치원 아동의 학습 준비도에 관한 연구와 우리나라 아동들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학습준비도 검사는 초등학교 입학 연령과 시기 및 그 준비 정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학계와 현장의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으며, 이후 「유아 학습준비도 검사 개발 연구(1987)」를 거쳐 표준화된 유아 학습 준비도 검사를 개발·시판으로 이어졌다. 또한 한국 아동의 구문발달, 음운발달, 어휘발달 연구를 포함하여 유치원 아동을 위한 언어발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저에 이르기까지 6편의 관련 보고서가 산출되었다.

유치원 아동을 위한 언어 발달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기저

한국 유아교육의 현황분석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관련 연구 | 문교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된 제3차 유치원 교육과정과 제4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연구를 들 수 있다. 이 두 편의 보고서는 3차와 4차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 시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관련된 후속 연구의 시사점을 얻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유아교육정책 관련 연구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이 제정되는 등 유아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개발원에서도 「한국 유아교육의 현

1983.09.16~17.
유아교육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세미나

황분석(1982)」, 「유아교육정책의 진단과 발전방향 세미나(1983)」, 「사립 유치원 납입금 자율화에 관한 공청회 보고(1984)」 등 유아교육 정책 관련 연구들을 진행하였다.

유아 교육 내실화를 위한 연구 | 문교부의 요청과제가 중심이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유아를 위한 놀이감 평가 기준 개발(1983)」, 「부모교육 프로그램 모형개발 연구(1984)」, 「유아교육 기관 평가 준거 개발 연구(1988)」와 「우리나라 유아교육기관의 운영실태 분석(1986)」 및 「취학전 유아의 문자지도에 관한 연구(1988)」를 들 수 있다.

교육사·철학 연구

교육사·철학 연구실이 최초로 개설된 것은 1985년으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개발원 정관에 명시된 교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교육발전연구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정책연구의 이념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관련 연구는 후자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가 1985년까지 3년간 수행된 「한국교육정책의 이념연구(Ⅰ),(Ⅱ),(Ⅲ)」이었다. 이 연구는 대부분의 연구가 실용적·실천적 성향이 강했던 것과 달리, 한국 교육정책의 근저를 이루고 있는 이념적 줄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국 교육정책의 이념(III) :
3차년도 교육개혁과 의식개혁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학생 비행의 제이론
비교 분석

교육사회 연구

한국인의 교육관에 대한 연구 |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이 교육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전제 아래, 학생·학부모·교사, 행정가 및 사회 일반인으로 나누어서 각 집단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하였다.

교육격차 관련 연구 | 「교육격차의 관련요인(1981)」, 「도 농 학교의 사회적 체제 비교 연구(1983)」, 「어머니의 취업과 학교교육 및 자녀의 성취에 관한 연구(1987~1988)」 등 3편이 진행되었다.

교육체제와 사회체제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학교 교육과 사회적 성취(1982)」, 「여성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 연구(1982)」, 「한국 외국어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안(1986)」, 「한국 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체제의 대응(1989~1990)」 등 4편이 이루어졌다.

청소년 관련 연구 | 청소년 집단의 의식과 이념적·사회적·교육적 특성을 학문적으로 심도 있게 규명하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문제를 진단하며, 교육적 처방을 내리기 위한 다학문적이고도 정책적인 연구물들이 주를 이뤘다. 관련 연구로는 「청소년 문제 종합진단 연구(1981)」, 「청소년 의식구조 및 형성배경 연구(1983)」, 「학생 비행 제이론 비교분석연구(1987)」 등이 수행되었다.

학교 교육 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 「국민학교 수업방법의 개선을 위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학교 문화의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수업방법들을 다뤘으며, 「국민학교 교육현상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와 가정에서의 학습시간과 학습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사회교육에 관한 연구 | 「사회교육 요구 분석 연구(1982)」, 「사회교육기관 실태조사 연구」(1982)」, 「평생교육 진흥방안 연구(1986)」, 「평생교육적 관점에서 본 학교교육 체제 발전 전략 연구(1987)」 등이 진행되었다.

영재교육 연구

1980년대는 정책개발연구를 토대로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는 등 영재교육이 정착된 시기라 할 수 있다. 개발원에서도 이 시기부터 다양한 영재교육 연구를 수행하였다. 1982년도에는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가 수행되

었으며, 1983년부터는 과학영재 뿐만 아니라 음악·미술·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교육에 관한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여 전문가들의 영재교육에 관한 의견을 수합하였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는 취학 전 영재아동 지도를 위한 부모용지도서, 학습자료 등을 개발하고 학부모와 시도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취학 전 영재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영재교육연구실이 설치되었고, 이후 개발원은 1988년도부터 1991년까지 한국과학기술대학과 국제개발계획(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의 지원을 받아 영재교육 관련 연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성장하였다. 또한 1988년에는 중앙교육심의회의 위촉을 받아 「특수재능교육 진흥방안: 영재교육 센터를 중심으로」라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과학영재교육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특수교육연구

1978년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개발원에서도 1980년 「특수교육현황분석연구」를 시작으로 여러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1986년 수행된 「특수교육 진흥방안 연구」에서는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특수아동의 교육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며, 특수교육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일이 시급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1988년에 연구된 「특수교육 시설·설비기준 연구」를 통해서는 학교 현장에 적합한 장애영역별 시설 설비의 개선방향과 기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1989년에는 특수학급 관련 연구로서 「특수학급운영 효율화 방안연구」이 진행되었다. 「특수 아동의 판별과 교육적 조치에 관한 연구」는 장애학생의 판별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정의와 판별 방식에 관한 논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으며, 여기서 제시된 기준은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이처럼 개발원에서는 1980년 이래 10년간 특수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했으며, 1987년에는 특수교육연구부를 설치해 관련 연구를 강화하는 등 우리나라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였다.

03 컴퓨터 교육 연구·개발

컴퓨터교육연구센터 신설

컴퓨터가 개발되고 널리 활용되면서 컴퓨터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정부는 1983년을 '정보 산업의 해'로 지정하였으며, 그해 국가 기간전산망 기본 방침이 확정되면서 전문인력 양성 및 전산교육 확대가 주요 추진 내용에 포함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1983년부터 컴퓨터 교육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으며,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교육에 관한 정책 연구 등을 함께 수행하였다.

초기에는 교육과정연구실과 교육정보연구실 등에서 관련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연구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987년 교육자료부 내에 컴퓨터교육연구실을 신설하였으며, 1988년 2월 5일 교육부의 「학교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1987.12)」에 의거하여 개발원 내에 컴퓨터교육연구센터를 설치하였다. 신설 당시에는 컴퓨터교육연구실과 컴퓨터운영관리실로 구성되었으며, 10여 명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되었다.

컴퓨터 교육 연구

1980년대 접어들면서 컴퓨터 문맹 탈피의 필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개발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여 1983년 교육과정연구실에서 「초·중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것이 컴퓨터 교육 연구의 효시였다. 이후 개발원의 컴퓨터 교육 연구는 우리나라 학교 컴퓨터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역할을 담당했다.

컴퓨터 교육 연구가 전환점을 맞이한 것은 1988년 컴퓨터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되면서부터였다. 본격적인 학교 컴퓨터 교육이 추진되자 학교 컴퓨터 교육의 3대 기본 요건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원' 관련 연구가 동시다발적으로 요청되었다. 특히 컴퓨터 문맹 탈피에 대한 개념적 혼란은 학교 컴퓨터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크게 대두시켰다. 따라서 1988년 이후 컴퓨터 교육 연구는 기초 연구 차원을 넘어 컴퓨터 교육에 관련된 정책 연구, 컴퓨터 교육과정 연구, 교육용 컴퓨터 활용방안 연구, 하드웨어 연구, 교원 컴퓨터 연수과정 연구, 교육용 소프트웨어 질 관리 방안 및 심의기준 연구 등으로 확대되었다. 컴퓨터 교육에 관한 연구는 1983년도부터 1988년도까지는 매년 평균 1~2개 과제 중심의 소규모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1989년도 이후부터는 매년 6~7개 과제 이상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한 컴퓨터 교육 연구는 대부분 컴퓨터 교육 정책 수립,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보급용 소프트웨어 개발·활용에 직접 반영되는 실용적 성격이 강했다. 특히 1988년 컴퓨터교육연구센터가 설립된 이후에는 소규모 연구 수준을 탈피하여 사회의 동시·다발적인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수행되었다. 「국·중·고 컴퓨터 교육 실태 분석 및 실천적 강화방안 연구(1989)」는 최초로 학교 현장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운영, 교원 등의 실태를 조사·분석한 것으로 이후 컴퓨터 교육정책의 수립 및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초·중등학교 컴퓨터 교육을 위한 기초 연구 : 컴퓨터 교육 지도 자료 개발을 중심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학교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 교육부는 1987년 12월 '학교 컴퓨터 교육 강화 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1996년까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을 추진하였다.

학교 업무지원 프로그램 개발 | 학교의 업무·기능이 다양해짐에 따라 자료의 양이 방대해지고 처리해야 할 정보가 증가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989년부터 기본과제 및 수탁과제로서 학교 업무지원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기 시작했다.

학습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코스웨어 개발 | 1980년대 후반에는 학습보조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공중전화망을 이용해 보급·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양질의 코스웨어가 필요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989년과 1990년에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재정 지원으로 컴퓨터 통신학습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였다.

학교에서의 컴퓨터 도입과
활용방안 연구

컴퓨터교육을 위한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연구

컴퓨터 운영 관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1979년 이후 전산화 추진방안 연구에 착수하여 1980년 전산화 기본계획 연구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협조로 1981년 8월 개발원 내에 PLATO터미널을 설치하게 되었으며, 이는 컴퓨터를 활용한 교육 실험에 시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후 개발원은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도입하며 전산화를 확대해 나갔다. 특히 1984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의 주전산기로 도입된 VAX 11/750 슈퍼미니컴퓨터는 전산업무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행정관리 업무 전산화의 경우, 1985년 급여 전산처리 시스템이 완성되어 세금 등 각종 공제사항 및 연말정산에 이르기까지 일괄 전산 처리가 이뤄졌으며, 그밖에도 1986년 방송 출연료 시스템 및 회계영수증 처리 시스템 개발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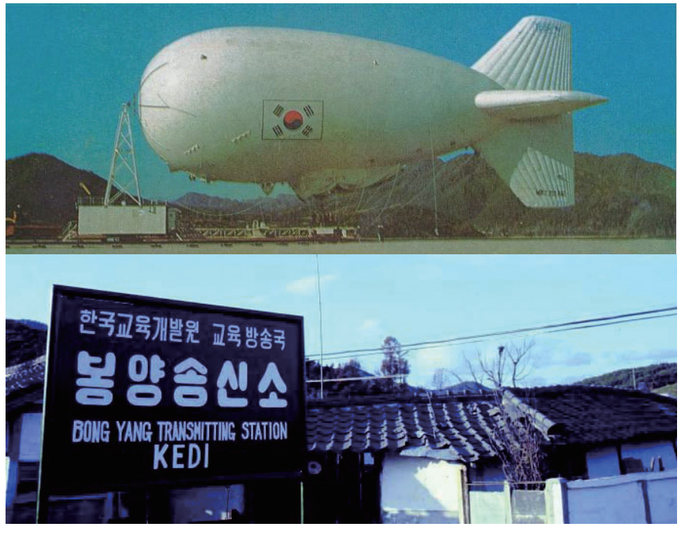
1989.06.26.
고등교육의 원격교육제도 활용방안 탐색을 위한 세미나

Chapter 4.

본격적인 교육방송 사업 전개

01 교육방송의 태동과 발전

우리나라 교육방송의 시작은 1951년 한국전쟁 중에 방송된 '라디오 학교'였다. 당시 문교부는 전쟁 중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라디오를 통해 모든 학교에 정보와 지시사항을 전달했다. 1966년에는 KBS가 중앙시청각교육원에 'TV 여름학교' 방송을 의뢰하여 그해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매일 30분간 실험방송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텔레비전을 통한 교육방송의 효시였다.



1975.12.
봉양송신소 설치 완료

이후 1972년 3월 14일 국회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육성법」이 통과되면서 교육 전문 방송국 설립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 법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위한 라디오·텔레비전 방송 시설과 송신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하지만 1978년 7월 26일 '국무총리 지시 각서'로, 교육방송의 기본 편성은 교육방송심의위원회가 맡고, 세부 편성 및 제작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하며, 송출은 KBS가 분담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그해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의 무선국 허가가 취소되고, KBS에 교육방송망을 설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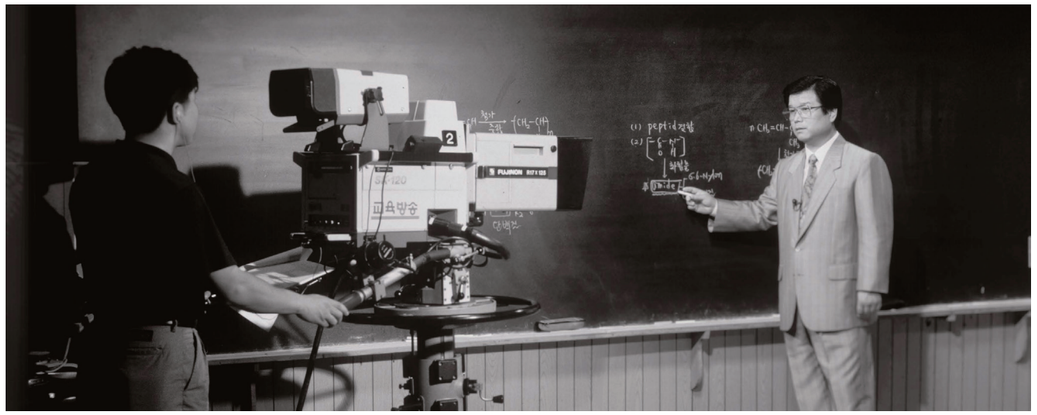
개발원의 교육방송 사업이 본격화된 것은 1980년대부터다. 결정적인 계기는 1980년 7월 30일 국가보위비상대책 상임위원회가 마련한 일련의 교육개혁조치였다. 교육 정상화와 과열과외 해소방안으로 마련된 이 개혁안에서 정부는 과외 금지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모든 학생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TV고교 보충학습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1981년 1월 12일 UHF-TV 채널을 교육 전용 방송망으로 설정하고, KBS는 성인교육 및 일반교양 방송을,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아 및 학교교육 방송을 제작해 KBS 제3TV(UHF-TV)을 통해 송출하고, KBS 제1TV와 MBC TV에서 재방송을 맡도록 하였다. 이를 계기로 개발원의 교육방송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02 TV·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교육전용 TV 채널 구축과 편성

1980년 9월 고등학생 대상으로 1일 2시간 30분씩 방송되던 TV교육방송은 1981년 2월 교육전용 채널 구축과 함께 대상과 시간이 확대되었다. 1984년에는 방송의 목표와 내용이 훨씬 구체화되었으며, 편성에 있어서도 고등학교 시간대를 축소하고 초·중학교에 각 학년별 구분을 두기 시작했다. 1985년에는 국민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였고, 1986년에는 중학교 대상 프로그램의 단위 시간을 축소·조정하면서 중·고교 학생 및 직업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시간대를 신설하였다.

1987년에는 방송채널과 송출시간의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먼저 전파방식에 있어 수도권과 경기 일부 지역에 VHF 채널을 추가로 할당받게 되었다. 이로써 서울, 경기 일원에서는 기존의 UHF 43채널과 함께 VHF 13채널을 통해서도 교육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되면서 해당 지역의 접근성이 높아졌다. 또한 방송 시작 시간도 오



'TV고교가정학습' 방송 녹화 현장
(출처: EBS 10년사)

후 5시 30분에서 4시 30분으로 1시간 당겨 민영방송 어린이 프로그램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었다. 1989년에는 4월부터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일부 조정되고, 고교 3학년 대상의 'TV 고교 가정학습' 방송이 시작되면서 방송시간이 다시 조정되었다. 이 편성은 1990년 12월 27일 EBS 개국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1980년대 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 현장

교육라디오채널 프로그램 운영

기존에 KBS 사회교육방송 및 KBS 제2방송을 통해 1일 3시간씩 방송되던 라디오 교육방송은 1981년 2월, KBS 교육라디오채널(FM 104.5MHz)이 신설되면서, 1일 20시간의 방송으로 변경되었다. 이 중에서 방송통신고등학교를 포함한 학교교육 프로그램은 한국교육개발원이 담당했으며, 성인교육 및 일반사회 교양프로그램은 KBS가, 방송통신대학 프로그램은 통신대학이 각각 담당하였다. 이러한 편성은 1982년 통합교육과정 운영으로 국민학교 교과목이 개편되면서 부분적으로 조정되었으며, 1983년 3월부터는 방송통신대학 강의가 확대됨에 따라 개발원의 방송시간이 1시간 축소되기도 했다. 또한 이 무렵에는 중·고등학교 학생 대상의 '영어듣기능력평가'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1987~1988년에는 국민학교 5·6학년 단위 시간이 각각 20분에서 15분으로 조정되었고, 1988년에는 유아 대상의 '이야기샘'이 월~토요일까지 편성되었다. 이 편성은 1990년 12월 EBS 개국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다.

03 교육방송 연구 수행

교육방송 정책연구

1980년대 교육방송 정책연구는 독립 교육방송기구의 탄생 및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주력했다. 「효율적인 교육방송 운영 개선 방안 연구(1983)」에서는 교육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방송위원회 설치 및 프로그램 평가위원회 구성, UHF채널의 VHF채널로의 전환, 주간방송 실시 등을 건의하였고, 「교육방송 활성화 방안 연구(1986)」에서는 교육방송 독립을 위한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교육 전담 방송 체제 연구(1987)」에서는 국고, 시청료, 공익자금 등으로 운영되는 교육전담 방송 체제를 제안하였다.

교육방송 활용 실태 및 방법 연구와 방송심의 업무

교육방송 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활용실태 조사도 매년 이루어졌으며, 수업모델 개발 연구, 프로그램 내용 개발 연구, 교육방송 프로그램 평가 및 연구 등이 꾸준히 이루어졌다.*

한편, 제작된 프로그램은 심의를 거친 후 방송되었으며, 1980년대를 거치면서 방송심의 업무가 보다 과학적·체계적으로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심의평가 업무가 강화되었고, 교육방송 모니터 운영, 우수 프로그램 시상 등이 함께 이뤄졌다.

해당 분야의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 「국민학교 텔레비전 프로그램 활용 수업 모델 개발(1982)」
+ 「유아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형 개발(1982)」
+ 「교육방송 수용자의 사회적 요구도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 개선 방안 연구(1983)」
+ 「라디오 교육방송 교과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관한 조사연구(1984)」
+ 「교육방송을 통한 진로교육 강화 방안(1986)」
+ 「교육방송 프로그램 활용 효율화 방안(1987)」
+ 「한국 방송의 사회교육기능에 관한 연구(1989)」

1987.04.13~17.
교육방송 세미나

04 기타 주요 사업

교육방송 연구·시범학교 운영

1980년대 개발원의 교육방송은 50% 이상이 학교교육 영역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초·중·고등학교에서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를 위해 1983년부터는 문교부를 비롯하여 전국 13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지정한 '교육방송 시범학교'를 지원 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결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지역 실정 및 학교 여건에 맞는 교육방송 활용방안을 구안·적용함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다. 아울러 각 지역 교육방송 시범학교 운영 결과는 주변 학교까지 확산되는 효과도 가져왔다.

교육방송 연구대회 개최

교육부 후원으로 전국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방송 연구대회가 1987년 처음 열렸으며, 1989년 제2회 대회부터 매년 개최되었다. 이 대회는 교사들의 교육방송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한편, 학교 활용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교육방송 담당교사 연수

1988년부터 1990년까지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 약 1주일 동안 30~50명 정도의 교육방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교육방송 활용 연수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이 학교에서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직접 제작하는 데 도움을 줌으로써 교육방송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Chapter 5.

교육·정보 서비스 발전과 국제협력 확대

01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및 연구

학교 운영의 체계화

신·편입생 모집 홍보 사업 도입 | 한국교육개발원은 1984년부터 각 학교에 신·편입생 모집 포스터와 전단을 제작·배포하여 전국 각 학교에서 학생회장단을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학생 수가 점차 증가하여 1987년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역사상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갖게 되었다.

통신학습 개발 보급 확대 | 한국교육개발원은 1980년대에 들어 통신학습 자료를 대폭 개선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학력 제고에 힘썼다. 1982년에는 기존의 명칭인 '통신학습자료'를 '통신학습'으로 바꾸었고, 지면도 8면에서 12면으로 증면하였으며, 내용도 보완하였다. 1984년부터는 규격을 타블로이드판에서 4×6배판으로 개선하고, 지면도 36면으로 대폭 증면하여 학생들에게 보급하였다.

방송고 운영요람 발간·보급 | 1982년부터 일선 학교의 운영 혼란을 개선하기 위해 '방송고 운영요람'을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했다.

1980년대 방송통신고등학교 현황

연도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학교 수	44	44	47	47	49	49	49	50	50	50
학생 수	29,510	31,613	35,002	38,286	42,435	45,216	47,255	48,067	44,983	41,482
학생 수 증감(%)	9.0	7.1	10.7	9.4	10.8	6.6	4.5	1.7	-6.4	-7.8

1982년부터 정기적 발간한 방송고 운영요람

방송통신고등학교 관계자 해외연수 | 외국의 방송통신 교육 실태를 파악하고, 상호 정보 교환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85년부터 해외연수를 진행하였다. 초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8~10명 정도의 소규모 연수단이 일본의 사립 통신제 고등학교를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이후 대상 인원과 지역이 크게 확대되었다.

학예경연대회 개최 | 1981년부터 전국 41개 학교를 모아 학예경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매년 참가 인원과 경연 부문이 확대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 연례행사 중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로 자리매김하였다.

방송통신고 교육과정 및 운영 관련 연구 수행

1980년대는 방송통신고의 제도와 체제가 정비되고 학교 및 학생 수 급증으로 양적 성장이 가속화된 시기로서, 교육과정 및 시스템 개선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 경향은 교육 내용의 체계적 정립, 교육방법의 개선 및 효율성 추구, 교육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방송통신고등학교 기능의 재구조화 탐색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방송통신고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일반계고교 교육과정을 준용하는 체제에 더하여 실업계고교 교육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고 학생 자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 청소년, 직장인 및 주부 등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1984.09.26.
방송통신고등학교 역할에 관한 세미나

02 교육전문도서관으로 진화

개발원의 도서실은 1980년대부터 교육전문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기 시작했다. 교육정보 자료의 내용·구성 측면에서 다양성을 확보하였으며, 정보자료 수록 매체에 있어서도 큰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육정보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전국에 온라인으로 보급한다는 계획과 맞물려 교육정보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1981년부터는 교과서박물관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본격적으로 옛 교과서를 수집하기 시작했으며, 1982년에는 교육방송부 소속의 방송자료실 업무를 도서실로 흡수하였다.

정보자료 검색 방법도 크게 변화했다. 인쇄 형태의 ERIC 탐색 TOOL 체제를 국내 최초로 CD-ROM 검색체제로 전환한 것도 이 시기였다. 1980년대 중반에는 교육정보자료 관리의 전산화 작업이 추진되었다. 주 전산기 VAX 도입과 함께 1985년에는 도서 대출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여 대출·반납처리 및 통계산출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1987년에는 타 기관과의 상호협력 체제를 확대하여 6개의 관련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여성개발원, 통신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고등교육재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에 자료 상호대차 협약을 체결하고 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한 협력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03 국제협력 및 교류사업

1980년대 국제교류·협력 활동의 특징은 국제기구 및 기관들과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 교류를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개발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은 국제기구의 수가 1970년대에 비해 대폭 증가하였고, 해외 선진국 및 개도국과의 일대일 협력 및 교류도 크게 늘었다. 또한 기관의 성장 및 인재양성을 위해 국제교류·협력의 영역이 대폭 넓어졌으며 채널 역시 다양해졌다.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 증대

한국교육개발원이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었던 국제기구로는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및 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UNESCO-PROAP), 유네스코 산하기관인 국제교육계획기구(IIEP), 유엔개발프로그램(UNDP),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교육평가협회(IEA), 아·태지역경제사회이사회(ESCAP) 등이었다. 이러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 방식은 주로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간 협력이었으며, 협력 내용은 국제연수, 워크숍, 세미나 등을 공동으로 조직하거나 공동 연구사업의 추진, 국제비교연구의 수행 등 학술지향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1989.08.28.
IEA(국제교육평가협회)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1982.10.24.
미국교과서 전문가 회의

다양한 해외 기관과의 상호교류 활성화

1980년대에는 선진국, 개발도상국, 그리고 과거 공산주의 체제였던 국가들과의 교류 및 협력이 늘었고, 그 방식도 더욱 다양해졌다. 기존 미국·일본 선진 기관과의 교류는 계속 지속되었고, 관련 노하우 도입을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미국 연방 교육성 내 교육연구혁신실(OERI)로부터 각종 연구정보 자료를 도입하고, 일본 문부성 내 국립교육연구소(NIER)가 후원하는 각종 학술세미나 및 워크숍에 참석해 교류를 이어나갔다. 또한 구소련, 체코, 헝가리, 폴란드 등의 학자들이 본원을 방문하거나 교육정보를 교환하였으며, 중국과의 교류도 활발해져 북경의 중앙교육과학연구소(CIER) 및 연변 길림성의 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등과 상호교류가 이루어졌다.

맞춤형 연수 진행 및 개발도상국 연수 요청 증가

1970년대 개발원 직원의 국제연수는 선진 기술과 경험을 전수 받기 위해 특정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80년대에는 개발원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 다양한 교육연구기관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이른바 '맞춤형 연수' 형태로 진화하였다. 또한 한국의 경제발전 성공 사례와 교육의 역할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개발도상국의 연수 요청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태국,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바레인,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피지 등의 개도국들이 개발원에 교육행정이나 직업교육 관련 시찰·연수를 의뢰하였고, 대만의 경우는 교육과정개발 및 교과서 편찬 관련 상호교류를 진행하였다.

1998.09.
인도네시아 연수단 수료식

Section 3.

기능 조정을 통해 교육연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다

1990
1998

Chapter 1.
교육개혁방안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의 분화
01.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발족
02. 기능 조정·분리에 따른 유관기관의 설립
03. 대대적인 조직구성의 변화

Chapter 2.
교육정책·교육기초·학교지원 연구와 교과서 개발
01. 교육정책연구의 양적·질적 성장
02. 교육기초연구의 다각화
03.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학교지원연구
04. 6차~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Chapter 3.
연구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신규사업의 전개
01. 열린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 시작
02. 교육통계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03.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는 컴퓨터교육 연구·개발·보급 사업
04.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운영과 연구

Chapter 4.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교육정보자료 및 국제교류·협력
01.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도서관 체제 구축
02.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제교류·협력의 전문화

Chapter 1.

교육개혁방안에 따른 교육연구기관의 분화

01 문민정부의 교육개혁위원회 발족

199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업 범위를 더욱 확대했다. 기존의 교육과정, 교육기초, 교육정책, 교육자료 연구·개발 업무에 더하여, 1990년대부터는 컴퓨터교육과 직업기술교육 연구·개발 업무를 추가했다. 컴퓨터교육 연구·개발 사업은 1989년 10월 정관에 추가되어 199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직업기술교육 연구·개발 사업은 1994년 「공고 2·1체제」 연구·개발 사업을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초반에는 교육방송이 부설 체제로 전환되면서 독립 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개발원은 1990년 12월 정관을 개정하여 부설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1991년부터 교육방송을 부설기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훗날 한국교육방송원(현재의 EBS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으로 이어졌다. 한편 1993년 출범한 문민정부는 교육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교육개혁방안을 입안하도록 했다. 새로운 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정보화·세계화 추세를 반영한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교육개혁방안은 개발원의 기능이나 연구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무엇보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등의 설립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던 일부 업무 및 기능이 관련 기관으로 이관되었고, 관련 구성원도 상당수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또한 교육개혁방안에서는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를 강조하면서 학교선택권 강조,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단위학교의 자율성 증대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교육개혁의 방향은 개발원의 교육연구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학교 중심 연구의 확

대로 이어졌다. 또한 교육 현장을 중시하는 교육정책 연구가 수행되었고, 교육 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학교평가 기능이 강조되면서 관련 사업이 이뤄졌다.

아울러 교육개혁방안에서는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학점은행제'를 도입했다. 학점은행제는 정규 학교 이외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이수한 학점을 인정하여 일정한 학점이 적립되면 학위까지를 수여하는 제도로서, 정부는 관련 사업을 한국교육개발원에 위촉했다. 이와 함께 평생교육센터를 개발원에 설치하여 평생교육 사업을 기획·지원하도록 했다.

02 기능 조정·분리에 따른 유관기관의 설립

교육방송 및 컴퓨터교육 사업의 분리·독립

1980년대 말 TV고교방송 프로그램 방영을 계기로 교육방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그 결과 교육방송의 운영·규모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정부의 방송구조 개편 방안이 도출되었다. 정부는 교육방송을 별도의 독립방송국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개발원의 부설기관으로 운영할 것인지 검토한 끝에 후자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방송본부가 1990년 부설기관으로 독립했다. 이는 연구 사업과 방송 사업을 분리시킨 것으로, 개발원이 순수 연구기관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었다.

1990.12.27.
교육방송 개국

1996.06.21.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개소

이후 1990년대 후반에는 부설기관으로 운영되던 한국교육방송원의 완전 독립이 이뤄졌다. 1996년 교육부는 주요 재원을 정부출연금, 자체 수익금으로 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한국교육방송원(EBS)을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분리시켜 별도의 법인체로 만들고, 편성권을 교육부로부터 독립시켜 독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1999년 12월 27일 한국교육방송공사 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하고, 이 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로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EBS교육방송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방송부로 시작된 지 25년 만에 독립 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했다.

한편 1996년 6월에는 국민학생 컴퓨터교육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멀티미디어교육연구본부의 기능이 확대·개편되면서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라는 또 하나의 부설기관이 탄생하였다. 이후 해당 기관의 기능은 1997년 3월 한국교육방송원으로 이관되었고, 1999년 4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으로 별도 독립, 개원하였다.

교육과정연구 및 직업기술교육연구의 기능 이관

문민정부의 '작은 정부 구현' 정책에 따라 교육부 직속기관인 국립교육평가원의 구조조정과 함께 민간 이양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논의는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5·31 교육개혁방안'의 내용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교육개혁위원회는 ▲국가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원격교육체제 구축, ▲직업능력개발원 설립 및 직업능력인증제 도입, ▲교육과정평가원 설치·운영 등을 제시했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공학연구본부, 교육과정연구본부,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 등의 조직을 두고 이미 이러한 기능을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었다. 개발원은 신규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존 기능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교육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고 백화점화 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각 기능을 분리·독립시키기로 결정했다.

신설기관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인력을 각 기관으로 이관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발원의 규모와 인력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교육부는 개발원에 새로운 기능 추가를 제안했다.

결국 한국교육개발원은 3개 신규 기능을 수임받으면서, 새로운 3개 독립기관을 신설하는 산파 역할을 하게 되었다. 먼저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개발원의 교육공학연구본부를 확대·개편하여 부설기관인 멀티미디어연구센터로 시작되었으나, 곧바로 1997년 새롭게 출범한 한국교육방송원의 부설기관으로 독립했다. 이후 멀티미디어교육지원센터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새로운 독립기관으로 재탄생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99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과 동법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그해 9월 10일 설립되었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역시 1997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및 동법시행령 제정과 함께 1998년 1월 1일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 직업기술교육연구특임본부 및 교육과정연구본부의 기능과 연구인력 대부분을 해당 기관으로 이관했다.

교육부가 한국교육개발원에 추가로 제안한 세 가지 신규 기능은 다음과 같다.

01. 국립교육평가원이 수행하던 기능 중 교육통계조사 부문
02.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 제시된 학점은행제 도입·운영
03. 초·중등학교 평가 기능

03 대대적인 조직구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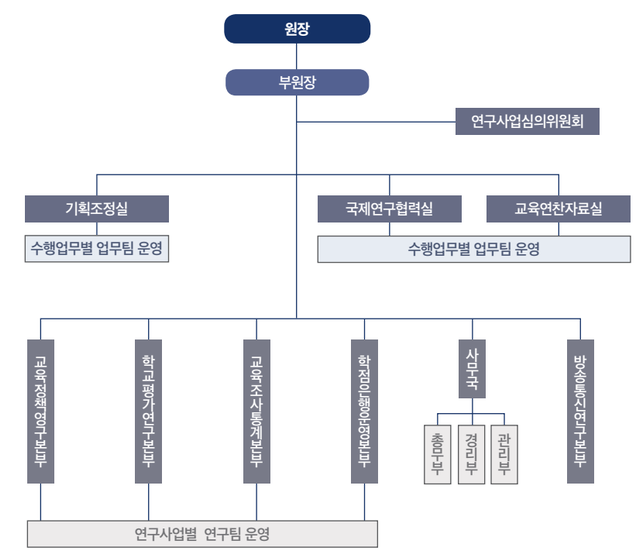
1990년대에는 여러 기능이 조정된 만큼 대규모 조직개편이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1992년에는 교육방송 기능을 부설기관장 소관으로 별도 운영하면서 연구기능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기초연구본부 소관의 경제교육연구부를 경제·산업연구부로 개편하고, 교육정책연구본부 소관의 비교교육연구부를 통일교육연구부로 개편했다. 아울러 상황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고 정부에서 요구하는 긴급한 업무를 탄력적으로 전담·수행하기 위해 부서 단위의 특임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교육현장의 다양한 수요와 교육정보화의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그해 1월 교육발전연구본부를 폐지하고, 학교교육에 관한 연구를 전담할 학교발전연구본부와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를 전담할 교육정책연구본부를 신설하였으며, 기획처 하부조직의 국제협력부를 부서 단위의 국제연구협력실로 개편했다. 또한 부서 단위의 하부조직으로 연구기능을 수행하였던 상설 연구부 체제를 폐지하고 상황변화에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한 과제별 팀 운영체제로 전환했다. 아울러 멀티미디어교육 수요가 팽창함에 따라 1996년 6월 멀티미디어교육연구본부가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로 부설기관화되었다.

1997년에는 정부의 방송구조개편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 조정으로 큰 조직변화가 있었다. 먼저 개발원의 부설기관 체제로 운영되던 교육방송이 1997년 1월 한국교육방송원으로 분리·독립되면서 멀티미디어교육 연구기능도 한국교육방송원 부설기관으로 분리·독립하게 되었다. 또한 1997년 하반기에는 교육과정 연구기능과 직업교육 연구기능이 각각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이관되고, 개발원은 정부로부터 교육조사 통계기능과 학점은행 운영기능 및 학교평가 연구기능을 새롭게 수임받게 되었다.

그 결과, 1998년 1월, 한국교육개발원은 부원장, 4본부(교육정책연구본부, 학교평가연구본부, 교육조사통계본부, 학점은행운영본부), 3실(기획조정실, 국제연구협력실, 교육연찬자료실), 1국(사무국)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1998년 1월 조직도



Chapter 2.

교육정책·교육기초·학교지원 연구와 교과서 개발

01 교육정책연구의 양적·질적 성장

1990년대는 과거 어느 때보다 교육개혁이 활발히 추진된 시기였다. 이 때문에 교육개혁 과정에서 제기된 또 다른 교육개선 대책들을 탐색해보는 활동이 크게 증가했으며, 교육정책연구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 수반되는 보완 방안이나 새로운 관점에서 미래 교육을 구상해보는 연구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990년대 수행된 정책연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양적·질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 연구 주제도 다양해졌으며, 직접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수탁된 연구과제도 크게 증가했다.

교육계획연구 | 국가수준의 교육계획 개발연구「제7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 교육부문(1991)」 연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적인 계획 중 교육 부문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으로서, 국가적 수준의 종합교육연구기관이라는 개발원의 강점을 최대로 발휘한 결과물이었다. 1998년에 수행한 「21세기 한국교육의 기반구축을 위한 중기교육투자 계획: 1999-2003」 역시 국민의 정부 출범 당시 향후 5년간 교육계획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정부의 교육부문 싱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수행했다.

종합적 미래 교육연구 | 1990년대에는 과거와 달리 장기과제를 다양하게 추구했던 시기였다. 특히 이 시대의 연구들은 대부분 종합적인 미래교육 구상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교육의 종합이해와 미래 구상(1990~1992)」, 「입시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1990~1992)」, 「한국교육 비전 2020(1996~1998)」 연구가 대표적이다. 이들 3개 연구는 1990년대 교육정책 연구들을 대표하는 장기과제로, 한국교육개발원이 미래 교육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음을 보여준다.

제7차 경제사회 발전
5개년 계획 교육부문계획(안)

21세기 한국교육의
기반구축을 위한 중기교육투자
계획

1998.09.30.~10.01.
한국교육비전 연구공청회

교육개혁 실천전략연구 | 교육개혁 전략을 탐색하는 연구들로, 「현장중심의 교육개혁 활성화 방안(1998)」, 「학교개혁의 실현을 위한 전략탐색(1998)」, 「교육개혁 실천 우수사례 확산방안 연구(1999)」 등이 이뤄졌다. 이들 연구는 수탁과제로서 교육개혁 조치들이 학교 현장까지 올바로 파급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교육개혁을 학교 현장에 정착시키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전략을 제시했다.

인력수급연구 | 인력수급 관련 연구로 「과학기술인력 수급전망(1990)」, 「고등교육 수급체제 변화와 대응방안연구(1994)」,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1998)」 등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고등교육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책에 특히 주목하여 양적 팽창 위주의 발전보다는 질적 수월성을 추구할 것을 제안했다.

지역 혹은 학교교육계획 연구 | 대부분 해당 지역 혹은 학교에서 의뢰한 수탁과제 형식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21세기를 대비한 서울교육 중·장기발전계획(1993~1994)」, 「경상남도 도립전문대학설립 및 장기발전계획연구(1995)」 등이 있었으며, 이들 연구는 개발원이 지방과 단위 학교에 대한 교육연구 서비스도 적극 제공하였음을 보여준다.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연구

유아교육제도연구 | 유아교육제도 관련 수탁연구로는 「유치원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단계적 발전방안연구(1996)」를 비롯하여 「유아교육의 공교육 체제

확립 방안연구(1997)」, 「유치원 평가체제 구축연구(1999)」 등이 추진되었으며, 기본연구과제로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과의 연계방안연구(1997)」 등이 수행되었다. 이 연구들은 훗날 유아교육 진흥을 위한 정부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초·중등교육제도연구 |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많아지자 이들 학교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기 위한 몇몇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초·중등학생들의 종적·횡적 이동에 대한 연구가 다수 이뤄졌으며,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교운영 방안을 제시하면서 정부가 해당 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편 1990년대에는 학생들의 권리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런 연구들은 학생인권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함으로써 정부나 학교가 학생지도를 개선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고등교육제도연구 | 고교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그리고 기본연구과제로 「21세기 학교경영혁신 모형 개발연구(1999)」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는 다양한 학교 운영으로 교육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제시했다. 그밖에도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다수 이뤄졌다.

교육행정연구 | 교육행정에 관한 연구로는 본원 기본과제로 수행되었던 「교육행정가 교육훈련체제 및 프로그램 모형개발연구(1990)」, 「장학기능 개선방안연구(1995)」, 「한국의 장학체제진단연구(1997)」 등이 수행되어 교육행정가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이들 연구 중 '교육행정가 교육훈련체제 및 프로그램 모형개발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교육행정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프로그램 모형 개발 연구로서 교육행정 학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교육자치제도연구 | 1990년대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이에 관한 여러 연구가 추진되었다. 특히 「지방교육 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는 1990년대 말에 수행된 연구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종합 진단하고 일반자치와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기초단위 교육자치제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연구로 평가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교육정책 연구들도 다수 이뤄졌다.

21세기 학교경영혁신모형 개발 연구

교육행정가 교육·훈련체제 및 프로그램모형 개발연구

장학기능 개선 방안 연구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연구

교육청 평가연구 | 교육청 평가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다. 수탁과제로 진행되었던 「서울시 초·중등학교 및 지역교육청평가방안연구(1997)」, 「지역교육청 평가모형 개발연구(1999)」, 「충청남도 교육청 기관평가 모형 개발과 그 적용 연구(1999)」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 역시 1990년대 말부터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 시·도교육청 평가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교원교육연구

교원양성체제에 관한 연구 | 「교원양성체제 개선방안연구(1994)」, 「교원양성체제 개혁방안연구(1997)」,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비한 유아교사 양성체제 개선 방안연구(1998)」들이 대표적이다. 이들 연구는 양성체제를 통해 전문적인 교사를 학교에 적기에 공급하는 방법에 초점을 두었다.

교원인사제도에 관한 연구 | 기본과제로 「신규 교사 자격검정방안 개선연구(1991)」, 「교사 신규채용 및 전보제도 개선연구(1992)」, 「교원인사제도 국제비교연구(1997)」 등이 수행되었으며, 수탁과제로는 「신규교원 공개전형 평가방법 개선에 관한 연구(1996)」, 「교육전문직 인사제도 개선방안연구(1996)」 등이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는 교사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임용하는 데 필요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공했다.

교원연수 개선에 대한 연구 | 「교원연수제도 개선방안연구(1993)」, 「유치원교원 자격연수 교육과정 개발연구(1995)」, 「교육공무원 연수 이수 단위학점제 방안(1995)」, 「원격교육을 통한 교원연수체제 개발(1995)」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들 연구는 교원연수를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들을 담고 있다.

1991.06.27.
신규 교사자격 검정방안 개선연구 세미나

교원교육 관련 기관들의 평가인정 연구 | 교원 양성기관 및 연수기관들이 질적으로 다양한 격차를 보여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인정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정부가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제 구축'을 결정하고 시행을 준비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었다.

교원정책 관련 연구 | 교원 관련 문제를 혁신하기 위한 대책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2000년 이후 교육부가 '교원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었다.

교육경제·재정연구

1990년대에는 투자의 효율성 문제와 지방 및 학교에서의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되었다. 이는 교육투자의 전체 규모가 점차 비대해지면서 그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교육재정의 세부적인 기획·투자가 실제 지방 및 학교 단위에서 이루어진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학교재정관리의 효율화 방안연구(1991)」, 「지방교육재정제도 발전방안 연구(1992)」,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 재정제도 개선방안(1998)」, 「중등 사학재정분석 및 대책연구(1993)」 등이 있었으며, 수탁연구로서는 「교육투자 효율성 제고방안연구(1997)」, 「단위학교 재정 운영체제 확립방안 연구(1999)」 등이 있었다.

한편 개발원이 1970년대부터 시도해 온 교육비 조사연구가 1990년대에도 세 차례 진행되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투자되고 있는 공교육비·사교육비·교육기회경비를 산출해내고 그 규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로서,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규모와 그 흐름을 파악하는 중요한 기본연구과제였다. 특히 교육비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최초로 시도한 것이며, 한국교육투자를 정확하게 파악해 제시한 연구로 평가받았다.

그밖에도 교육재정에 관한 여러 연구가 추진되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1995년 수행된 「표준교육비 산출연구」는 교육재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기준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훗날 교육재정 배분 기준 설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유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통일교육연구

교육정책 연구 중 1990년대에 가장 특기할 만한 분야는 통일교육연구 분야로, 당시 독일 통일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독일에서 통일 이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자 우리나라도 각 사회 분야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는 교육 분야에서도 나타났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기본연구과제로 「남·북한 교육통합에 대비한 기초연구(1991)」,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연구: 통일 단계별 정책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1992-1993)」를 필두로 통일교육 관련 연구를 다수 수행했다.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I) : 통일 단계별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II)

통일교육은 사회통합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수탁연구로 진행되었던 「독일교육통합과 파생문제점 분석연구(1993)」, 「남북한 교육제도 통합방안연구(1994)」 등은 다양한 교육통합방안을 구체화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교육통합 연구는 기본과제로 추진된 「민족통합을 위한 교육대책 연구(1996-1997)」로 이어졌다.

1990년대 말 통일교육연구는 학교현장 개선을 지원하는 연구에 초점을 두었으며, 학교 단위의 통일교육 활성화에 기여했다. 그밖에 통일교육연구로서 「남북한 학생과 주민의 통일사회적응연구(1995)」, 「남북한 교육용어 비교연구(1999)」,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 교육적응 연구(1999)」 등이 있었다. 이들 연구는 남과 북의 주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질성과 극복 방안을 탐구하는 연구로서 통일교육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

기타 교육정책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연구라는 큰 범주에서 다양한 연구들을 추진했다. 「유치원 교육환경개선방안연구(1994)」, 「유아용 사이버 교수-학습 시스템 연구(1999)」, 「초·중등학교 시설설비 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1997)」 등은 교육시설 및 환경 개선 연구로 본원이 학생들의 교육시설 개선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사회 변화와 시장 개방에 따라 「교육서비스부문 개방화 전망과 대책연구(1991)」가 수행되었는데, 이는 세계적인 시장 개방화 추세에 따른 교육시장 개방 대책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로 향후 정부의 대응 방향과 원칙을 세우는 데 기여했다.

1990년대에는 다양한 교육정책 연구·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아시아 후발 국가들을 지원하는 연구도 추진했다. 특히 몽골 관련 정책연구들은 몽골의 교육정책 개선에 큰 영향을 끼쳤으며, 연구진들이 직접 몽골을 방문하여 교육개선을 자문하는 역할도 수행했다. 또한 해외동포들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해당 연구는 정부가 중국 연변지역 한인동포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결정하게 하는 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 지역과의 교육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도 기여했다.

02 교육기초연구의 다각화

한국교육개발원은 창립 초기부터 정책연구와 함께 기초연구를 중시하였고, 그 결과 조직 측면에서도 언제나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부서가 독립적으로 존재했다. 1990년대 기초연구는 주로 교육기초연구본부, 교육발전연구본부, 학교평가연구본부에서 수행되었다. 특히 1997년 조직된 학교평가연구본부는 당시 국가수준의 학교교육의 질 관리에 대한 요구에 부응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육사·철학연구

1990년대에 수행된 대표적인 교육사·철학 관련 연구로는 「전통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1993)」, 「한국 근대학교교육 100년사 연구(Ⅰ)~(Ⅲ)(1994, 1997~1998)」를 들 수 있다.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에서는 개화기의 학교교육,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해방 이후의 학교교육으로 시대를 구분하여 각 시대별로 학교교육의 목적과 기능,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와 학생, 학교행정 및 재정을 다뤘다.

교육사회학연구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1993)」 | 한국인의 교육열의 실체를 심층적이고 포괄적으로 검토한 연구로, 교육열의 형성 배경과 함께 교육열의 실상을 사회경제적 계층별, 지역별로 분석·제시했다.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연구(1994)」 | 우리의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 교육이 변화해야 할 방향 또는 가치 지향점, 교육현장과 교육정책 결정자에 대한 국민의 요구, 교육에 대한 인식과 가치지향 그리고 원망(願望)의 일치 정도와 격차 등에 대해 다양한 사회집단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했다.

「학교교육의 효과분석연구(1998)」 | 학교교육의 효과가 장기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는지 개인, 직업생활 및 시민생활 영역 등 23개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효과를 분석하여 학교교육의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제시했다.

한국인의
교육열 연구

한국인의
교육의식 조사 연구

학교교육
효과 분석 연구

평생교육연구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평생교육연구는 학교교육과는 대별되는 사회교육으로서의 개념이 강했고, 관련 연구에서도 '사회교육'이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1998년 이후에는 '평생학습' 및 '평생교육'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평생학습실현을 위한 열린 교육체제 연구(1998)」는 평생학습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이유를 교육 외적요인과 교육 내적요인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했다.

영재교육연구

1990년대에도 영재교육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영재교육 연구들은 주로 학생 영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영재 판별 도구 개발, 그리고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 등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연구예산과 연구진의 제약으로 인해 개발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주로 과학영재에 초점을 맞춰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1996년부터는 교육부의 「제1단계 영재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근거하여 매년 2~3억 원 규모의 연구가 수탁과제의 형태로 이뤄졌다. 이는 그동안 출연금에 의지해온 영재교육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영재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개발원은 교육부의 예산으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영재교육 활성화 체제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했다.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1차적인 목표를 두고 추진되었으며, 이 연구 사업을 통해 다양한 영역의 영재를 판별해낼 수 있는 표준화 검사도구 개발, 학교 급별 교육과정 개발과 이에 따른 심화학습 프로그램 개

1998.11.25.
영재 컴퓨터 교수-학습 시스템 구축의
실제와 활용 방안

발, 원격 영재교육 서비스체제 구축, 영재교육 담당 교원연수 교재 개발, 기타 영재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이 이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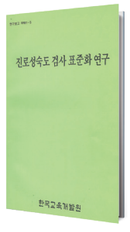
교육심리연구

심리검사개발연구 | 1990년대에는 개인차와 학생 중심의 지도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적성검사, 지능검사 등 심리검사 개발에 관한 요구가 많았다. 특히 대부분의 심리검사들이 제작된 지 20년이 넘도록 문항·규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특성을 제대로 밝혀주지 못했고, 검사구성도 지나치게 단순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다. 「진로성숙도 검사도구 표준화 연구(1991)」를 비롯하여 「초·중·고 및 대학생(성인)용 집단 지능검사 개발연구(1991~ 1992)」, 「초·중·고등학생용 적성검사 개발연구(1995~1998)」 등은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발된 검사들이다. 한편 학교현장에서는 선수학습 결핍으로 인한 학습부진아 지도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서는 학습부진아 지도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였으며, 이에 개발원에서는 1997년부터 「학습부진아 판별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연구」를 위탁받아 수행했다.

성교육연구 | 청소년기 학생들의 성교육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1993년 「초·중·고등학교 성교육 읽기 자료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6종의 성교육 자료를 개발했다. 개발된 자료들은 교육부의 인정도서가 되어 1994년 3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활용되었으며, 교원 및 공무원 대상 성교육 연수에서도 활용되었다.

학생이해연구 | 이 시기에 이루어진 학생 이해 관련 연구들은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정의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와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 및 대책수립 연구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 속하는 연구로는 「중·고등학교 학생의 논리적 사고 및 정의적 발달 특성 조사연구-1982년과 1994년과의 비교(1994)」가 대표적이며, 다양한 유형의 논리적 사고력, 학생들의 흥미·관심·정서·자아의식·가치관 등을 조사했다. 또한 후자에 속하는 연구로는 「학교폭력 유발 및 증가요인과 대책연구(1996)」, 「한국 중등학생의 의식 및 생활실태 조사연구(1998)」, 「한국학생의 왕따(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1998)」 등이 수행되었다.

학습력 강화 연구 | 학생들의 학습력 강화를 위한 연구는 그동안 한국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암기식 교육을 탈피하고 보다 창의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관련 연구로는 「사고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연구-배우며 생각하며(중학생용)과 배우며 생각하며(교사용)(1991)」, 「학교현장의 교육방법 혁신사례연구(1992)」 및 「국민학생의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 연구(1993)」를 들 수 있다.



진로성숙도 검사
표준화 연구

초·중학생용
적성검사 개발 연구(I) :
기초 연구편

초·중·고등학생용
적성검사 개발연구(II) :
검사제작편

특수교육연구

1985년부터 시작된 특수교육 연구는 19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특수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에 관한 연구였다. 그러다가 1994년 7월 국립특수교육원이 신설되면서 개발원에서는 더 이상 특수교육연구를 수행하지 않게 되었다. 1990년대에 수행된 특수교육 연구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효율화방안 연구(1991)」, 「행동장애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Ⅰ,Ⅱ)(1992-1993)」, 「특수학교 학급운영 효율화방안 연구(1994)」, 「조기 특수교육 활성화 방안연구(1995)」,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특수교육 개선방안연구(1996)」가 있다.

03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학교지원연구

학교지원연구의 추진 배경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교육개발원은 학교 교육의 현실과 실제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 학교 교육이 기본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으

1991.08.05.
입시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에 관한 세미나

1997.03.26.
교육개혁위원회 공청회

며, 그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연구 프로젝트에 반영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장기 연구 프로젝트가 크게 늘었으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학교 교육의 실제를 다루게 되면서 '학교지원연구'가 활성화되었다.

학교지원연구의 배경이 된 이런 프로젝트들은 "한국 교육의 종합 이해와 미래 구상"이라는 제목 아래 다면적으로 이루어진 연구와 "교육본질을 추구하기 위한"이라는 전제를 단 일련의 평가체제 연구, 그리고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되어 온 "입시 위주 교육의 실상과 대책" 연구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모두 2~3년 동안 진행된 장기과제들이었으며, 학교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를 드러내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했다. 이러한 의지는 연구원 투입 규모에서도 드러났다. 3개 프로젝트에 투입된 연구원 수는 1990년 한 해 동안에만 45명이 넘었다. 하나의 연구과제에 많아야 3~4명의 연구원이 투입되던 것을 고려하면 해당 프로젝트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새로운 교육개혁방안과 학교지원연구

본격적인 학교지원연구는 1994년 구성된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 추진과 맞물려 있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소위 '5·31 교육개혁방안'을 발표하였고, 이 방안들은 곧바로 교육부에서 정책으로 입안·추진되기 시작했다. 개혁의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책적인 관심은 학교현장으로 옮겨갔고,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학교 현실에 대한 이해와 탐구가 필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당시 교육 분야의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이러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교육개혁이 학교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연구 | 교육개혁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학교현장에 뿌리를 내리게 되며 그 과정에서 어떤 장애와 문제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살피고 정리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며, 다음과 같은 연구가 추진되었다.

-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 지원 연구(1997)」
- 「교육개혁 과제 현장 적용 지원 연구: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1996)」
- 「교육개혁의 저해요인 분석 연구(1996)」
- 「학교의 자율성 신장을 위한 교육개혁 과정 고찰(1997)」
- 「학교 단위 교원 조직 개편에 관한 연구(1998)」
- 「학교운영위원회 시범 운영 평가 연구(1996)」
-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 혁신 사례 연구(1992)」
-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 사례집(1996)」

개혁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이상적인 학교상(學校像)의 연구 | 교육개혁을 통해 얻고자 하는 학교의 모습은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해당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개혁할 수 있는지 탐색한 연구들이며,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추진되었다.

- 「미래 학교 시설 계획에 관한 연구(1994)」
- 「'새 학교' 구상: 좋은 학교의 조건과 구현 방안 탐색(1996)」
- 「교육의 세계화 구상(1995)」
- 「한국 교육 비전 2020(1996, 1997, 1998)」

학교 현장의 변화를 촉구하고 안내하기 위한 학교평가 연구 | 학교 교육의 과정과 효과를 분석적으로 살펴서 학교별 교육성과를 확인하고 발전의 여지를 발견하려는 연구들이다. 이 범주의 연구는 특히 1990년대 후반 교육개혁의 흐름이 학교 단위의 책무성과 경쟁력을 강조하게 되면서 더욱 정책적인 조명을 받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1998년부터 학교평가본부를 설치하여 학교평가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추진되었다.

- 「학교 평가 국제비교 연구(1998)」
- 「단위학교 평가 기준 및 절차 개발 연구(1998)」
- 「초·중등학교 교육 성취 조사 연구(1993, 1994)」

교육개혁과제
현장적용 지원연구 :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개혁 저해 요인
분석 연구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 혁신 사례 연구

학교현장의
교육 혁신 사례집(I)

• 「국가 교육평가 정책 수립 방안 연구(1997)」

'열린 교육'의 실제에 관한 연구 | 학교 현장에서 일기 시작했던 '열린 교육' 운동을 분석하면서 확산을 지원하고자 했던 연구들이다. 1990년대 후반, 열린 교육의 확산은 정책적인 지원을 받는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 「열린교육 현장 연구(1996)」
•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방법 실행 연구(1997)」
•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연구(1998)」
• 「학교 현장의 교육 방법 혁신 사례 연구(1992)」
• 「학교 현장의 교육혁신 사례집((1996)」

열린교육
현장 연구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방법 실행 연구

열린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개선 연구

학교지원연구의 의의

학교지원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다. 직접적으로는 학교 단위 연구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관련 연구 결과가 집적되기 시작했다. 전문 연구자들이 현장에 참여해 연구를 수행하는 사례가 늘었고, 현장 교원들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현장 연구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연구방법 측면에서도 이른바 '참여관찰의 방법(ethnomethodology)'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놓았으며, 학교현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04 | 6차~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교과서 개발

1990년대에는 기존 교육과정을 개정하는 6차 교육과정 개정과 7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뤄졌다. 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은 1990년 12월 총론 연구를 시작으로 1992년 6월 중학교 교육과정 고시, 9월 국민학교 교육과정 고시, 그리고 10월 고등학교 교육과정 고시에 이르기까지 약 2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7차 교육과정 개정은 교육개혁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한 1994년 2월부터 1997년 12월 고시될 때까지 약 4년에 걸쳐 개정 작업이 이루어졌다.

6차 교육과정 개정과 개발원의 역할

총론 개정 | 4~5차 교육과정 개정의 경우, 총론과 각론 모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연구하고 그 시안을 교육부(당시 문교부)에 제출하면 교육부가 그 시안을 검토·심의·고시하는 형식을 취했다. 그러나 6차 교육과정 개정의 경우 교육부가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의뢰하는 형식을 취했다. 1991년 9월 총론 시안이 마련되었고, 이에 대한 교육부의 심의·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그해 12월 총론이 확정되었다.

각론 개정 | 총론 확정 이전부터 각론 시안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1992년 4월 교육부는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수행된 각론 시안들을 수령하고, 그에 대한 심의·수정·보완 작업을 시행하여 1992년 6월, 9월, 10월에 중학교,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 고등학교의 국가 교육과정 전체(총론과 각론 포함)를 고시했다. 각론 시안 개발 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91~1992년간 개발원은 교육부의 수탁을 받아 과학계·예술계·농업계·체육계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했다. 과목별 교육과정(각론)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국어,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실과, 바른생활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하였으며, 중학교의 경우, 도덕, 국어, 국사, 수학, 과학, 체육, 미술, 한문, 기술·산업, 가정, 컴퓨터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했다. 그리고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어, 국사, 수학, 과학, 체육, 미술, 실업·가정, 한문, 교련 과목의 교육과정 시안을 개발했다.

교과용 도서 개발 | 6차 교육과정이 1992년 말 고시됨에 따라 1993년부터는 본격적으로 6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 지도서를 개발하는 작업이 3년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교과서 개발 첫해인 1993년에는 유치원, 초등학교 1~2학년 교과서와 지도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일부 도서 등 모두 121개 도서가 편찬 대상이었다. 6차 교육과정 개정에서 국민학교의 경우 총 57개 도서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개발원은 그 중에서 즐거운 생활, 말하기·듣기, 읽기, 쓰기, 국어,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 생활의 길잡이 등 모두 44개 도서를 맡아 국민학교 1~2학년 전체 교과용 도서의 약 77%를 개발했다. 중학교 도서의 경우, 국어, 사회1, 환경, 컴퓨터 등 7개 도서를 맡아 중학교 도서의 70%를 개발했다. 고등학교 교과서는 대부분 2종 교과서로서 일반 출판사들이 저술하고 교육부는 검정만 하기 때문에 개발원은 해당 편찬 사업에 관여하지 않았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교과서를 개발해 온 과정과 방법 등을 묶어 여러 개발 보고서를 산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수년간 교과용 도서를 개발하는 데 동원되었던 개념, 원리, 방법, 절차, 예산, 인원 등 여러 관련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술했다.

7차 교육과정 개정과 개발원의 역할

총론 개정 | 7차 교육과정 개정 절차는 이전 교육과정 개정 절차와 큰 차이를 보였다. 7차 교육과정의 경우는 교육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기관이었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먼저 개정을 발의하였고, 새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골격까지 구성하였으며, 후속 교육과정 개정 내용들이 대체로 이 기본 골격 안에서 이뤄졌다. 교육개혁위원회는 7차 교육과정의 기본 골격 시안을 1996년 2월에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교육부는 3월에 교육과정 개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총론 개발 연구 및 관련 기초 연구들을 여러 기관에 위탁했다. 총론 개발을 위한 연구는 6차 때와는 달리 거의 전적으로 개발원에서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1996년 10월 교육부에 제출했다. 연구 결과들은 7차 교육과정의 핵심 요소가 되었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체제 구조안」에 제시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7차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2~3학년에서의 '선택중심 교육과정' 체제가 구축되었으며 「수준별 교육과정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교육과정안'이 마련되었다. 선택중심 교육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은 1996년도 이후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논의의 핵심 주제가 될 만큼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

1996.02.09.
교육개혁위원회 회의(출처. 국가기록원)

1997.06.20.
제7차 수준별 교육과정 현장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한 워크숍

각론 개정 | 교육부는 총론 시안을 심의·수정·보완하는 한편, 1996년 12월부터 각론 개정 연구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연구를 여러 기관에 의뢰했다. 수탁을 받은 여러 기관은 연구한 각론 시안들을 1997년 10월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교육부는 각론에 대한 심의·수정·보완을 거쳐 총론과 함께 1997년 12월 말 제7차 교육과정으로 고시했다. 7차 교육과정 총론 개발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교육개발원은 각론 개발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개발원에서는 1996년 12월 교육부로부터 국어, 한문, 체육, 교련, 미술, 영어, 초등 통합교과, 제2외국어 교과의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를 위탁받았으며, 1997년 8월 교육부에 시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체육계·예술계·국제계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의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업무도 위탁을 받았으며, 해당 시안들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개발원의 각론 개발 과정은 다른 개발 기관의 모범이 되었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심의·수정·보완 작업을 할 때 개발원의 각론 보고서는 다른 기관의 각론 보고서를 수정·보완하는 기준 역할을 했다.

교과용 도서개발 | 총론과 각론을 합한 전체 교육과정은 1997년 12월 30일 국가 교육과정으로 고시되었고, 이후 1998년부터 교과서 개발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그해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업무를 전담하던 개발원의 '교육과정연구본부'가 분리되어

1998.09.18.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교원정책의 과제

새로 출범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속하게 되었고, 1998년도부터 시작된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개발 연구 역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더 이상 교과용 도서개발 업무에 관여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교육과정연구본부에 속했던 거의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과용 도서개발 사업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의 직업교육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개원 이래 초·중등학교 직업(기술) 관련 교육은 물론, 다양한 직업교육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에 노력을 기울였다. 1990년대 이후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수행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 「진로 성숙도 검사 도구 표준화 연구(1991)」
- 「소비·직업 교육 연구(1991)」
- 「중학교 진로 교육 강화 방안 연구(1992)」
- 「고등학교 직업·기술교육 효율화 방안 연구(1992)」
- 「대학단계의 직업기술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1992)」
- 「직업기술교육체제 발전 방안 연구(1992)」
- 「직업기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제 개편 방안 연구(1993)」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1994년부터 1996년까지 3년간 교육부와 함께 우리나라 공업계 고등학교의 구조와 내용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과제를 「공업계 고교 2 + 1 체제 개발 연구」라는 이름으로 수행했다. 이와 관련한 연구 및 사업들은 우리나라 공업계 학교의 교육과정은 물론 학교 운영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실업계 및 직업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했다.

Chapter 3.

연구기관 기능 조정에 따른 신규사업의 전개

01 열린학습사회 구현을 위한 학점은행제 운영 시작

학점은행제의 탄생과 운영 배경

1990년대는 기능의 분화와 재편의 시기였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이 수행했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서 개발 기능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직업기술교육 연구 기능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는 한국학술정보원으로 각각 이관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대신하여 수행할 기능들을 정부에 요구하였고, 그 결과 학점은행제 운영 사업과 국가 교육통계의 업무를 새롭게 수행하게 되었다.

학점은행제는 1995년 교육개혁방안에서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었다. 학습자 개인이 객관적으로 평가·인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키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 교육사상 최초의 대안적 평생교육 형태의 고등교육제도였다.

학점은행제는 1997년 개발원의 기능재조정 및 구조개편과 관계없이, 이미 1995년부터 시행 준비 작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교육부 평생교육국에서는 1995년 7월부터 1996년 5월까지 「학점은행제 도입 및 실시방안 연구」를 추진하였고, 법률(안) 입법예고를 거쳐, 1996년 10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로 개칭했다. 당초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주관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 학점은행제 운영은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도록 하되, 1996년 평가원이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대행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인정은 학습과정의 성격에 따라 대학부설 사회교육원은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육협의회, 직업훈련기관은 직업능력개발원, 직업훈련을 제외한 사회교육은 교육과정평가원이 각각 수행하되, 최종 평가인정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하도록 했다.

하지만 1997년 9월 11일 공포된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9조, 제20조 등의 조항에 따라 학점인정에 관한 업무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하게 되었으며, 같은 해 9월 25일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학점은행제 주관기관으로 확정 통보했다.

2002.02.21.
제3회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

학점은행제 시스템 구축 과정

한국교육개발원은 1997년 10월 학점은행제추진기획팀을 조직해 학점은행제 운영계획 수립, 1998년도 사업 개발, 학점은행본부 신설 방안 수립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주요 업무로는 ▲학습과정 평가인정 업무, ▲학점인정 업무, ▲학력인정 업무, ▲학위수여 업무, ▲학점은행제 실시 및 관리를 위한 DB개발·운영·홍보 등을 설정했다. 그리고 1998년부터는 학점은행운영본부를 새롭게 설립하여 학점은행제 운영 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초기에는 본부 아래 연구기획팀, 학습과정평가인정팀, 학점학위인정팀, 교육과정관리팀, 학습정보관리운영팀의 5개 팀을 두었고, 인원은 총 31명으로 하되 업무 증가에 따라 조정하기로 했다.

이후 개발원은 1997년부터 1998년 초까지 4년제 대학 인문사회계열 및 이공계열과 전문대학과정의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하였으며, 학습과목 평가인정 도구를 개발했다. 또한 1997년 12월 대학부설 사회교육원, 직업전문학교, 학원, 특수학교·고등기술학교 전공과 등 72개 기관의 363개 학습과목에 대한 평가인정 실사를 거쳐 1998년 3월부터 61개 기관의 274개 학습과목을 운영할 수 있도록 평가인정했다. 1998년 2월 28일에는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 제정되었고, 같은 날 시범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습과정을 중심으로 40여개 학과의 표준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다. 그리고 1998년 3월 평가인정을 거친 학습과목을 한국 교육역사상 처음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학점은행제를 정부로부터 위탁 운영하면서부터 여러 사정으로 고등교육 학습의 기회를 갖지 못한 성인 학습자에게 대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개혁의 궁극적 목표인 열린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다.

02 교육통계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

한국 교육통계사업의 뿌리

우리나라 교육통계사업은 1950년대부터 『교육통계연보』를 발간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통계연보』의 자료를 분석하여 1980년대 초부터 '한국의 교육지표'를 작성하고 있었으나, 이는 엄밀히 말해 정부의 공식 통계는 아니었다. 16개 시·도 교육청이 『교육통계연보』의 양식에 따라 제출한 집계표를 국립교육평가원이 종합하여 연보를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발간사업'이 교육통계사업의 거의 전부였다. 그러다가 1996년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립교육평가원으로부터 '교육통계사업'을 인수받고, 이에 필요한 조사, 자료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등을 수행하면서 관련 사업이 본격화되었다.

교육통계사업의 전개

교육통계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개발원은 1997년 교육통계특임본부, 1998년 교육조사통계본부, 1999년 교육정보연구본부 교육통계사업총괄팀 등의 조직을 구성했다. 개발원은 사업 첫해인 1997년 통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교육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와 현안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통계자료집을 발간하는 한편, 새로운 조사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듬해인 1998년부터는 전국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그해 가을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발원 최초의 『교육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통계협력사업」, 「시·도 분산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개발」, 「교육정보 표준코드 시스템 연구」 등을 수행하였고, 현안조사사업을 수행했다.

1999년에는 주요통계 미래예측, 한국교육개발원 여론조사, 국제교육통계조사사업,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설계연구 등을 수행했고, 통계자료집으로는 OECD 교육지표 번역자료를 비롯해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편람』, 『간추린 교육통계』 등을 발간했다.

교육통계사업 관련 연구의 수행

교육통계사업을 과학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연구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문에 개발원은 조사 실무 수행, 자료 발간, 데이터베이스 개발 등과 함께 통계사업 개발을 위한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간추린 교육통계

한국의 교육체제 배치 연구

주요 교육통계 미래 예측

- 「교육지표 개발 및 주기적 교육조사를 위한 기초 연구(1997)」
- 「교육통계정보 서비스 효율화 방안 기초 연구(1997)」
- 「국가 교육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기초 연구(1997)」
- 「국제 교육표준분류 개정안에 따른 한국의 교육체제 배치 연구(1998)」
- 「주요통계미래예측(1998)」
- 「교육통계 DB 시스템을 활용한 표본추출시스템 설계방안 연구(1998)」
- 「교육정보 표준코드 개발연구(1998)」
- 「멀티미디어 시계열 분석시스템 설계방안연구(1998)」
- 「'97 교육현안조사연구(1998)」
- 「'98 교육현안조사연구(1998)」
- 「국가 교육통계조사내용 및 체제개편연구(1999)」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1999)」

교육통계정보 DB 시스템을 활용한 표본추출시스템 설계 방안 연구

국가교육통계 조사내용 및 체제 개편 연구

교육기본통계조사 실시 및 『교육통계연보』 발간

1998년 4월부터 실시된 교육기본통계조사는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기타 각종학교 등과 시·군 및 시·도 교육청, 그리고 교육부의 관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조사는 교육부 조사통계과의 지원 아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조사통계본부 교육통계연보발간사업팀에서 담당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발원은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입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활용해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교육통계연보』를 성공적으로 발간할 수 있었다.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개발

개발원은 교육통계데이터베이스 사업팀을 구성하여 『교육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각종 기술 지원을 담당하도록 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1997년부터 1999년까지 통계데이터베이스 1~4단계 사업을 전개해 민간 기업들과 함께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했고, 산출된 프로그램들을 활용해 교육통계조사의 원만한 진행과 결과자료 분석을 지원했다.

국제교육통계 협력 사업의 수행

교육통계사업 초기부터 국제 교육통계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OECD 교육통계 국가조정관(National Coordinator)을 두고, 국내 유관기관의 교육통계사업을 총괄하는 등 관련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국제교육통계 관련 자료들을 발간했다. 특히 1995년부터 OECD 국제교육지표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국가조정관 역할 수행, 국제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을 위한 기술그룹(OECD-INES Technical Group) 참여, 네트워크 사업 참여, 「OECD 교육통계지표」 참여 및 편역본 발간 등

의 사업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국제교육통계자료집도 다수 발간되었는데, 『세계 속의 한국교육(1997)』, 『통계로 본 미국교육(1997)』, 『통계로 본 일본교육(1997)』, 『통계로 본 독일교육(1997)』, 『통계로 본 세계 속의 한국교육(1998)』, 연도별 OECD 교육지표 편역본 등이 대표적이다.

1999.09.21.
국가교육통계 사업의 발전 방향 탐색을 위한 워크숍

03 정보화 사회를 준비하는 컴퓨터교육 연구·개발·보급 사업

컴퓨터교육 관련 사업의 확대

1990년대 들어 학교 컴퓨터교육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도 보다 강화되었다. 특히 기존 컴퓨터교육에 관한 연구와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이를 일선 학교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해졌다. 보급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것은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 사업, CAI 프로그램 일반화 사업 등이었다.

개발원은 1990년 교원 컴퓨터 일반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1991년에는 컴퓨터 교육 담당 교원, 컴퓨터 활용교육(CAI) 프로그램 개발 요원 및 컴퓨터교육 장학요원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또한 연구·개발한 연수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각 시·도 교육청에서 선발한 요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1992년부터는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하여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 공모전은 교원을 대상으로 교수-학습에 사용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공모한 것으로, 입상작은 일반화 과정을 거쳐 각 학교에 보급되었다.

또한 개발원은 CAI 프로그램 대행 전문업체를 지정하여 각급 학교에 대한 실비 보급을 전개하였으며, CAI 프로그램 및 각종 자료의 전시회와 함께 컴퓨터교육에 대한 시범사례를 발굴·발표하는 사업을 수행했다.

컴퓨터교육 관련 연구 수행

1990년대에는 기본 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서 연구·개발 수요가 있었다. 연구 내용도 단순히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에 관련된 연구뿐만 아니라 CAI 저작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컴퓨터교육 담당 교원 연수교재 개발 연구 및 교재 개발, 학교에서 컴퓨터를 도입·활용하기 위한 각종 지침 개발, 컴퓨터 교육의 장기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초·중등학교 컴퓨터 과목 운영 방안 연구

학교 컴퓨터 교육 추진 실적 분석 및 향후 대책 연구

학교 컴퓨터 교육 실태 분석 연구

컴퓨터교육 기초 및 정책 연구 | 「학교 컴퓨터교육 발전 과제 탐색(1990)」은 컴퓨터교육의 시각·목표·내용 등에 대한 진보된 견해를 분석·종합하여 제시하였고, 「학교에서의 컴퓨터 도입과 활용에 관한 지침 개발 연구(1992)」는 학교에서 컴퓨터를 도입·활용하는 과정에서 당면하는 각종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는 길잡이로 사용되었다. 그밖에 정책 분야 연구로서 「초·중등학교 컴퓨터 과목 운영 방안 연구(1992)」, 「학교 컴퓨터 교육 추진 실적 및 향후 대책 연구(1993)」, 「학교 컴퓨터 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1995)」, 「학교 컴퓨터 교육 실태 분석 연구(1996)」, 「학교에서의 컴퓨터 통신 활용 실태 조사 연구(1996)」 등이 이루어졌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 질 높은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쉽게 개발하고,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의 필요성은 이미 1980년대 초부터 부각되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전무했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이와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졌으며, 그 결과 공신력 있는 교육용 프로그램 질 관리 도구와 저작도구가 학교현장에 보급될 수 있었다.

교육용 컴퓨터 기술 관련 연구·개발 | 컴퓨터의 교육공학적 활용은 하드웨어의 특성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에 개발원은 「학습 정보 서비스 시험 운용(1990)」, 「학교 교육용 컴퓨터 활용의 효율화를 위한 교실망 연구(1991)」, 「교육용 LAN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1992)」, 「교육용 컴퓨터 시스템의 적정 기능에 관한 연구(1994)」, 「교육용 하드웨어 시스템의 사양 정의 연구(1996)」 등 교육용 컴퓨터의 하드웨어적 특성과 기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다.

교원 컴퓨터 연수 관련 연구·개발 | 컴퓨터교육이 올바로 정착되려면 교원들의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어야 한다. 당시에는 교원들의 컴퓨터 소양 부족, 공포감, 회피 의식 등이 컴퓨터교육의 보급과 정착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원은 1988년 이후 교원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를 추진했다. 그 결과 1990년 컴퓨터 일반연수 프로그램과 교재를 개발·보급했으며, 1991년에는 「컴퓨터교육 요원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컴퓨터교육 장학요원 연수 모형과 교재를 개발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 1980년대 후반부터 추진된 대규모 CAI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통해 1996년 말까지 개발한 CAI 프로그램 수는 총 684종에 이르렀다. 특히 1991년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용 소프트웨어 저작도구

를 개발했다. 당시 개발원은 저렴한 가격으로 학교 현장에 보급이 가능하고, 교사들도 쉽게 CAI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저작도구를 적극적으로 개발했다.

컴퓨터교육 보급사업 수행

사업 배경 | 한국교육개발원에 컴퓨터교육연구센터가 설치되어 학교 컴퓨터교육에 관한 연구가 이뤄지고, 교육용 소프트웨어, 컴퓨터 교수-학습자료 등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소프트웨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급하고, 보급된 자료를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 필요해졌다. 이에 개발원은 1991년 1월 컴퓨터교육연구센터에 '컴퓨터교육 지도보급부'를 신설했다.

주요 사업 | 컴퓨터교육 보급사업을 위해 1991년 연구과제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컴퓨터교육 요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연구」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교원 컴퓨터연수 교재 3종을 개발했다. 또한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사업과 1990년도 전산이용기술개발 경진대회 출품작 일반화 사업을 수행하였으며, 학교에 대한 지원·상담 업무를 실시했다. 그밖에도 교육용 소프트웨어 일반화 사업, 수정·보완한 소프트웨어를 보급하는 사업, 컴퓨터교육 관련 자료 발간 사업 등을 병행했다.

1997.02.28.
교육용 HTML문서 공모전 수상작 시상 및 멀티미디어 교수학습자료 DB개발 결과 발표

에듀넷 구축 및 운영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교육 부문에서도 통신과 네트워크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부상했다. 이러한 사회적, 기술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1996년 4월 교육정보화 추진분과위원회에서 에듀넷 구축운영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같은 해 5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에듀넷 구축운영 사업 추진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본원에서 에듀넷 구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1996년 9월 11일 개통식을 개최했다.

04 | 방송통신고등학교의 발전을 위한 운영과 연구

교육 방식의 새 변화 추구

직업과정 시범 사업 운영 | 직업·기술 교육과정에 대한 요구가 늘면서 1992년에는 직업과정 설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아현직업학교에 자동차정비학과(32명), 정보처리학과(43명) 2개과에 학생 70여 명을 위탁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과정 시범 연구」를 실시했다. 한편 1996년 5월에는 방송고 학생들의 수업 부담 경감과 학습 편의를 위해 총 이수 단위를 80% 수준으로 낮춰, 총 204단위에서 80%인 168단위만 이수하면 되도록 조정했다.

방송강의 방식의 변화 | 한국교육개발원은 1991년부터 교육방송 채널을 이용하여 고정 시간대를 확보하고 1시수 15분 수업을 20분으로 늘려 1년 365일 방송강의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5월 일부 개정된 「방송통신고등학교설치기준령 시행규칙」은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일수를 220일 이상으로, 수업시간을 1일 40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1997학년도 1학기부터는 법정 방송수업 최소 수업일수가 280일에서 220일로 감소하였으나 1과목 방송강의 시간은 종전의 20분을 유지했다.

교육평가활동 이관 | 1980년대 말 기말고사에 문제은행 도입을 추진함과 동시에 기말고사의 시행·관리를 방송통신고등학교 자체에 이관하려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1990년 전체적인 평가 방식은 유지하되 기말고사의 출제 및 평가를 해당 방송통신고등학교로 이관하기 시작했다. 이는 교육자치제의 영향과 평가의 탄력성 확보를 위한 조치였다.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구축 |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은 제한된 시간에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기존의 라디오 방송강의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1996년부터 개발되었다.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개발은 라디오 방송강의 전산화와 교과서 및 통신학습지 전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학생들 간의 정보 공유 게시판과 다양한 정보(방송통신고 안내, 진학상담 등)를 제공했다.

운영 및 홍보활동 강화

미디어를 활용한 신입생 모집 홍보사업 | 1988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학생 수는 매년 13~18%까지 대폭 줄어들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1997년부터 미디어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했으며, 그 결과 학생 수는 1998학년도에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학교 통합으로 인해 학교 수는 오히려 감소하여 1991년 50개였던 학교 수는 1999년 40개 학교로 줄어들었다.

학예경연대회 확대 | 1981년 운문과 산문의 2개 부문으로 시작된 학예경연대회는 1989년 제9회부터 학력·운문·산문·한글서예·한문서예·수강요지(청취록) 부문의 6

개 부문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보다 풍성해진 학예경연대회는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지니고 있던 소질과 특기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자칫 침체되기 쉬운 만학도들의 성취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방송통신고 관계자 해외연수 지역의 다양화 | 1991년과 1992년도에는 당시의 대북 방정책의 영향으로 중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1994년에는 뉴질랜드에서 처음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1995년에는 호주가 추가되었다. 1997년에는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핀란드 등 유럽 지역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하지만 1998년에는 IMF의 영향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각 학교에 컴퓨터와 프린터를 보급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뉴스소식지 창간 | 방송통신고등학교 설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994년 3월 『방송통신고등학교 소식』을 창간했다. 이 소식지는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직원, 재학생, 졸업생들의 정보 공유, 학생들의 학습의욕 고취, 방송통신고등학교 홍보 등의 위한 종합지였으며, 연간 4회 발행하여 학생들에게 무상 배포했다.

명사초청 순회강연회 실시 | 방송통신고 학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중도탈락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명사초청 순회강연회를 실시했다.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총 35개교 학생을 대상으로 총 28회 실시되었다.

평생학습사회를 위한 교육체제구축 연구 수행

1990년대는 방송통신고등학교가 평생학습 사회를 위한 교육체제 및 원격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연구는 '평생학습 사회에 적합한 방송통신고의 체제와 기능에 관한 탐색', '원격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과 구축에 관한 탐색'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진행되었다. 전자에 해당되는 연구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교육제도 개선연구(1991-1992)」, 「방송통신고등학교 직업과정 시범 운영 연구(1992)」, 「단기중학교과정 제도 도입 및 설치에 관한 연구(1999)」등이 있으며, 후자에 해당되는 연구에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개발 연구(1996-2001)」가 있다. 특히 「단기중학교과정 제도 도입 및 설치에 관한 연구(1999)」는 방송통신고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방송통신고가 중등평생교육체제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재정립하는 데 기여했다.

2011.09.21.
제31회 전국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

1990년대 방송통신고 관계자 해외연수

1998.08.13.
단기중학교 과정 제도 도입(안)에 관한 공청회

Chapter 4.

국제화·정보화 시대의 교육정보자료 및 국제교류·협력

01 | 정보 네트워크를 통한 전자도서관 체제 구축

1990년대 컴퓨터와 네트워크의 발달은 한국교육개발원 도서실에도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자료수집, 정보제공, 상호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정보자료 수집

교육정보자료 수집은 1990년대의 특징인 정보 네트워크 환경과 이를 이용한 자원협력체제 속에서 이루어졌다. 특히 예산 절감 측면에서 도서관 간 정보 공동 활용과 상호협력에 적극 참여했다. 사회과학정보자료기관협의회가 추진한 외국학술지 종합목록 DB구축 사업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추진한 대학도서관 간 종합목록 DB 구축사업 및 상호대차서비스체제 구축사업에 참여하여 중복 구입을 피하면서 필요한 자료 구입에 전력을 기울였다. 한편 도서실 장서 수는 1995년 10만 권을 돌파했다.

교육정보자료 제공

미국의 상용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이용자들에게 SDI(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도서실에 없는 학술지 논문을 이용자가 요구할 때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미국과 영국에서 입수하여 원문을 제공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천리안과 같은 PC통신망을 이용하여 미국의 데이터

1998.10.17.
인터넷을 이용한 수업개선 세미나

베이스를 검색하였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웹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입수했다.

SDI서비스 제공 | 매년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각 연구과제별로 원하는 정보에 관한 주제어를 신청받아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질 높은 최신 정보자료를 집중적으로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주로 이용한 해외의 유명 상용 데이터베이스는 DIALOG, LEXIS/NEXIS 등이었다.

원문 제공 서비스 | 도서실에 소장하지 않는 자료의 원문을 원할 경우, 해외 정보서비스망을 이용해 원문을 입수하여 이용자들에게 제공했다. 당시 개발원에서는 영국의 BLDSC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

교육정보자료 관리의 전산화

1990년 교육부는 제9차 IBRD 차관 사업으로 '국립대학교 도서관 전산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개발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LAN 설치, 데이터베이스 구축, 컴퓨터 서버 및 주변장치 도입, WINDOW-BASED 검색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1996년 9월 시스템을 오픈했다.

KEDILAS(KEDI Library Automation System) 개통 | 1996년 9월 도서관전산화시스템인 KEDILAS를 개통했다. KEDILAS는 삼보정보시스템에서 개발한 CLIENT/SERVER 방식의 도서관 전산화 토털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기존에는 도서실을 방문해야만 소장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구실에서도 검색 및 대출 확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바코드시스템을 도입하여 도서 대출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후 개발원은 KEDILAS 시스템을 웹 버전의 전자도서관으로 발전시켜 인터넷을 통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했다.

교육정보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 소장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국내서는 KORMARC 포맷을, 서양서는 USMARC 포맷을 사용했다. 서양서 서지데이터는 미국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의 소장 데이터를 수록한 CAT CD450을 이용해 다운로드 받았다. 또한 최신 자료의 서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OCLC의 PRISM 서비스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서지데이터를 내려받았다.

CD-NET 설치 및 운영 | 기존에 STAND ALONE 방식으로 운영해 오던 ERIC CD-ROM 시스템을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하여 CD-NET 시스템을 통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원내 이용자들이 도서실에 오지 않아도 각자 연구실에서 ERIC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및 자원협력

도서관 상호협력 체제에 있어서도 네트워크가 큰 영향을 미쳤다. 서울대학교를 주축으로 한 국립대학교 도서관 전산망 구축은 본격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시대를 알렸다. 사회과학 분야 전문도서관 간에 학술지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든 시기도 이때였다. 또한 1990년대 후반에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의 등장은 도서관 간의 정보 공동 활용과 상호협력 체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개발원 역시 이에 참여하여 도서관 간 자원협조를 위해 노력했다.

02 국제화·개방화에 따른 국제교류·협력의 전문화

국제화 및 개방화의 확산

1990년대는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이 거센 시기였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에 가입했으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각료회의) 등 다양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이 크게 확대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한국교육의 국제 창구로서 더욱 많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교육부의 싱크탱크로서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

시해야 한다는 사명과 더불어, 개발원이 세계적 기관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연구진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원은 국제 부서를 확대하여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1997년 IMF 외환위기의 여파로 인해 결실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개발원은 국제교류·협력이 기관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목표와 지향점을 보다 분명히 했다. 즉, 명분을 좇아 현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이루어지는 활동을 지양하고, 기관의 국제적 역량과 인지도·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활동을 취사선택하여 추진하되, 그 성과에 대한 홍보를 전략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기관의 기능재편과 함께 교육개혁 및 정책대안의 창출에 보탬이 되는 활동에 주력했다.

한편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국제교류·협력도 일회적·단기적·우발적인 양상에서 벗어나 보다 장기적·지속적·체계적 형태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이 시기 개발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해외 일류 기구 및 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이었으며, 이는 본격적인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 활동을 보다 장기적 안목과 비전 아래 추구하고자 했던 결과였다.

OECD 가입과 국제기구 협력 활동 증가

과거에는 UNESCO 관련 기구와의 협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협력 기구가 다변화되었다. 특히 한국이 1996년 OECD에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OECD와의 교류·협력이 크게 증가했다. 교육부는 1997년에 한국교육개발원을 OECD 교육연구정보센터로 지정하였으며, 이에 의거하여 국제교육통계지표사업(INES), 한국의 교육정책검토연구사업 및

1997.11.25~29.
UNESCO- ACEID
직업기술교육 연수프로그램 실시

1996.10.14.
OECD EDUCATION COMMITTEE MEETING

1997.05.26.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cience Education

후속보고연구사업, 한-OECD세미나 등 다양한 협력 사업 및 연구를 수행했다. 그밖에도 World Bank(세계은행), UNESCO, UNESCO-PROAP(유네스코 아·태지역사무소), UNESCO-ACEID(유네스코 아·태교육혁신센터), APEC(아·태지역 경제협의체), PCC(환태평양 교육협의체), APNIEVE(아·태지역 국제교육 및 가치교육 네트워크) 등의 국제기구와 공동연구 수행, 연수프로그램의 조직·운영, 국제 세미나 및 학술대회의 개최, 국제회의 및 연차 총회의 유치, 학술 및 인적 교류 등을 광범위하게 실시했다.

해외기관과의 상호협력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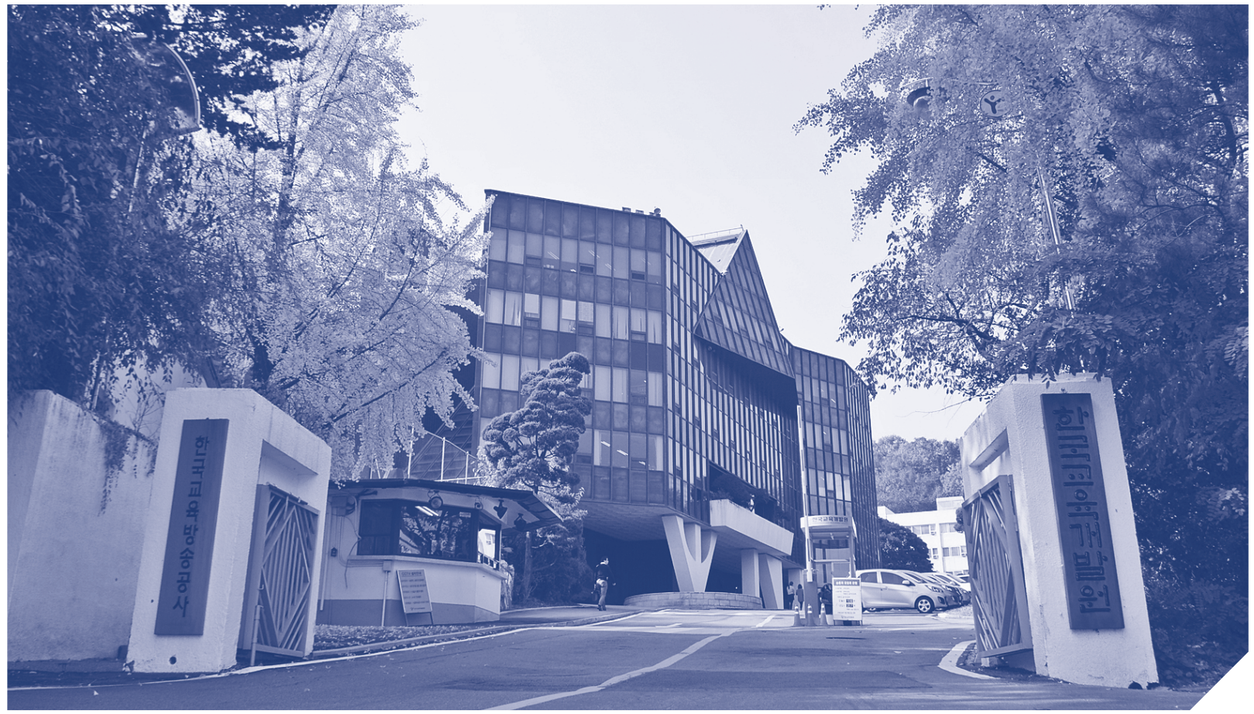
1990년대는 해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 한국교육개발원은 몽골 국립교육연구소(The Institute for Educational Development, 1994년), 유네스코(UNSCO 파리 본부, 1995년), 인도 교육행정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al Planning and Administration, 1995년), 중국 국가교육발전중심(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Development Research, 1996년), 네팔 교육혁신발전연구소(Research Center for Education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1997년), 태국 국가교육위원회(Office of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1998년)와 교육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협정에 의거해 기관의 성격, 분야, 상호 필요성 등에 따라 정보 및 인적 교류가 심도 있게 이뤄졌고, 직접 교류가 아니더라도 자매기관으로서 간접적으로 후원하거나 지원하는 사례도 있었다.

연구진 국제활동의 전문화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진의 국제적 역량이 강화되고 세계적 지명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에 연수 위주로 전개되었던 국제활동은 점차 국제자문 활동, 국제학술회의 발표, 국제학술지 기고, 학술행사 초청강연, 외국 석학과의 공동연구 등 전문적인 활동으로 대체되었다. 아울러 연구진 개개인의 국제적 역량과 활동이 기관 전체의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연구진의 국제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보다 강화되었다.

Section 4.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싱크탱크가 되다



1999
2008

Chapter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새롭게 출발
0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재편과 인문사회연구회 체제 편입
02.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변경

Chapter 2.
교육정책·기초 연구와 학교평가·지원 관련 연구
01. 교육정책 연구기관의 역할 확대
02.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는 교육기초 연구 수행
03. 학교평가제 도입에 따른 학교평가 및 학교지원 연구

Chapter 3.
교육격차 분석 연구와 교육복지 정책사업
01. 교육격차 연구
02. 교육복지 정책사업

Chapter 4.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인적자원개발 연구 수행
01. 평생교육센터의 출범 및 기능 이관
02. 교육인적자원부를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 연구
03.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Chapter 5.
다양한 위탁·지원 사업의 변화와 발전
01.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주무기관이 되다
02. 교육통계사업의 확장과 국제화
03. 쌍방향 방식의 디지털 교육정보자료 제공
04.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국제교류·협력 확산

Chapter 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새롭게 출발

01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재편과 인문사회연구회 체제 편입

연합이사회 체제 도입

밀레니엄을 앞두고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연합이사회 체제의 연구회 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4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은 기존의 관련 부처 소속 체제에서, 새롭게 구성된 5개 연구회 체제로 재편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연구기관이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서 연합이사회 체제인 연구회에 소속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정부는 1999년 1월 29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5733호)을 공포하고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의 지원·육성·관리를 위한 5개 연구회를 설립했다. 5개 연구회는 경제사회연구회,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공공기술연구회였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인문사회연구회에 속하게 되었다

인문사회연구회 편입에 따른 경영 구조의 변화

종전의 단일 이사회 체제 아래 기관을 운영하던 방식에서 연합이사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기관 운영 방식이나 예산 확보 방식에서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사회 분야 9개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일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의 의결기구로서 연구기관들의 연구사업 및 예산 결정과 원장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했다. 따라서 과거의 독자적인 이사회 체제에 비해 단위 기관의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장에게 일임하는 체제로 바뀌었다. 대신 원장은 기관의 경영목표를 연구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했으며, 이 경영목표에 기초하여 경영평가를 받도록 했다.

5개 연구회는 출범 초기부터 연구기관의 기구 축소와 인력 감축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특히 IMF 외환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한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의 연장선상에서 개발원에도 직원의 정년 단축, 계약제 실시, 연봉제 실시, 퇴직급여 누진율 폐지, 평가시스템 개선 등을 적용했다. 또한 기관 차원에서도 부원장제 폐지, 부서 조직 축소, 인력 감축 운영, 연구 직렬의 신설·재편 등을 포함한 직급 조정 등을 실시했다.

한편, 연구기관이 국무조정실에 소속하게 됨에 따라 소관 업무 관련 부처와의 관계가 소원해질 가능성이 컸다. 이에 연구기관과 관련 부처와의 관계를 긴밀히 하고 연구기관 간 경쟁체제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위탁 및 일반연구 사업비의 30%를 업무 관련 부처에 예치하고, 이들 부처가 필요한 정책연구를 연구기관 및 대학 등에 공모하여 연구과제를 수주하도록 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오랫동안 교육 분야 종합연구기관으로 활약해온 개발원 역시 치열한 경쟁체제 속에 놓이게 되었다.

02 경영혁신을 위한 조직 구성 및 운영

교육인적자원부 출범과 새로운 연구·사업 수행

1990년대 후반 기능조정과 함께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특화되었으며, 주요 연구 분야도 교육정책 연구 및 관련 사업이 되었다. 그리고 새천년 밀레니엄을 맞아 교육정책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지식기반 사회의 전개로 지식·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창의적 지식을 창출해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종합정책을 수립하였고,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 차원에서 2001년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여 인적자원의 양성·배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이러한 영향으로 본원의 정책연구에서도 지식기반 사회에 대비한 교육정책 수립연구들이 수행되었고, 국가인적자원개발정책에 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아울러 개발원은 국가 차원에서 중점 추진되어야 할 사업들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임받아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하게 되었다. 학교평가 사업, 영재교육 연구, 교육통계사업, 평생교육 연구, 학점은행제 운영 등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에 더하여 2000년 2월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2001년 12월에는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주무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정부 경영혁신에 동참하다

정부의 경영혁신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개발원 역시 경영혁신계획을 수립·추진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들어 개발원은 조직을 최대한 축소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하지만 2000년 2월 평생교육센터운영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평생교육센터를 개발원 내에 설치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축소된 조직 운영으로 침체된 분위기를 고려해 부서 단위 조직을 신설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서의 명칭을 본부로 개편했다. 이렇게 해서 2000년에는 1실(기획조정실), 2본부(학교교육연구본부, 교육정보연구본부), 1센터(평생교육센터), 1국(총무국)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2001년에는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새로운 교육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보다 짜임새 있고 내실 있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 시기에는 학교교육연구본부와 교육정보연구본부를 학교지원연구본부와 교육정책연구본부로 개편하고, 단위부서의 하부조직으로 각 연구 영역별 연구실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학교지원연구본부의 소관으로 교육기관평가연구실, 교육

2000.03.27.
평생교육센터 설치 현판식

기초연구실, 영재교육연구실을 조직했으며, 교육정책연구본부의 소관으로 교육정책개발연구실, 교육조사통계연구실, 한국관시정연구실을 조직했다. 또한 평생교육센터의 소관으로 인적자원연구실, 평생교육센터운영실, 학점은행제운영실을 조직하였고, 평생교육센터 소관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기존의 방송통신교육연구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수탁사업임을 감안하여 별도 조직의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로 유지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을 기획처로 개칭했다. 이후 2002년에는 교육정책연구본부의 하부조직으로 운영하던 한국관시정연구실을 부서단위인 국제교육정보연구특임본부로 확대·개편하고 특임본부의 하부조직으로 한국관시정연구실과 국제교육연구실을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2002년에는 1처(기획처), 2본부(학교지원연구본부, 교육정책연구본부), 1센터(평생교육센터), 1국(사무국), 1특임본부 체제로 운영하게 되었다.

2000.
방송통신교육연구본부 현판식

개방적·효율적 조직 운영의 시작

인문사회연구회체제로 전환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조직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본격화되고, 아울러 인문사회연구회 주관의 기관평가 업무가 시작되면서 조직운영의 탄력화·개방화·고집적화를 추구해야만 했다. 연구회 산하기관은 목적사업 수행에 있어 종전처럼 기관의 자체 인력만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외부 우수인력을 수행과제에 참여시키게 되었으며, 또한 가능하면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한 용역발주 및 아웃소싱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현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인력증원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목적사업 수행은 조직 운영에 필요한 최소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외부 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정부의 경영혁신 방침이기도 했다. 이러한 정부 방침에 따라 개발원은 1999년 대규모 인력구조조정을 시행하여 대폭적인 인력의 감축이 이뤄졌다. 또한 2002년 1월 석사학위 자격조건의 전문연구원제도를 도입하면서 연구직의 인력이 증원되었으나, 전체인원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비교적 인력 운영에 탄력성을 가질 수 있는 정부의 국고보조금사업 수행인력은 사업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본원의 출연금 인력 대비 6:4의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전환되면서 교육부는 교육개발원을 비롯한 유관 연구기관들의 업무협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가 그 이전보다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연구회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연구 활동과 성과가 교육부와 공유하는 과정도 긴밀하게 요청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유관 연구기관 간에도 정보 공유 및 연구협력 차원에서 마찬가지로 네트워크를 추진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2002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육과정평가원, 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방송공사 등과 연구사업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실천하는 목적에서 최초로 '교육연구개발 네트워크'를 공동 구축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2002.08.29.
창립 30주년 기념식

2002.08.29.
창립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0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변경

새로운 CI 및 국영문 로고 개발

한국교육개발원은 2002년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의 도약'을 선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3가지 사명을 분명히 했다.

- 우리나라 교육발전을 선도하는 탁월한 연구 수행
- 전문적 자율성으로 책무 수행
- 연구를 통하여 사회에 봉사

그리고 2004년 8월 새로운 CI(Corporate Identity) 및 국영문 로고를 개발하여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상징화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심볼은 주로 연한 녹색을 배경으로 해서 연구(펜촉)와 방송(안테나)의 조화 속에 전진을 거듭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표현했다. 반면, 새로운 심볼은 밝은 색상과 이미지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미래를 표현했다. 심볼의 형상은 전체적으로 사람이 땅에 발을 디디고 도약하는 이미지이며, 이는 교육이 길러야 할 세 가지 덕목인 '지덕체(智德體)'를 형상화한 것이다. 머리의 빨간 색은 지혜(智)를 의미하고, 전체적인 사람의 인상은 덕(德)과 신체적으로 건강한 모습(體)을 상징한다. 한편 영문 로고 'KEDI'의 'D'를 시각화하여 세계적 수준의 으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심볼에 사용된 네 가지 색상은 한국교육개발원의 네 가지 미션을 상징하며,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기존 CI 및 국영문 로고

한국교육개발원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새로운 CI 및 국영문 로고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KEDI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CI_전용 색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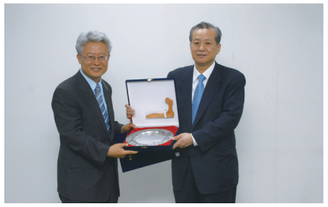
탁월한 연구수행	자율	책무	봉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변경

정부는 2005년 정부 출연 23개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통합작업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에서는 2005년 1월 31일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로 이원화된 정부출연 연구회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통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인문사회연구회에 소속되어 있던 한국교육개발원도 2005년 7월부터 통합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으며, 조직과 경영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이와 같은 통합에 따라 기존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자리가 사라졌으며, 이사 수도 기존 30인에서 20인으로 10자리 가량 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통합연구회 이사장을 비상임직으로 변경했으며, 소위 '낙하산' 인사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한편, 각 산하 연구기관의 원장은 경영성과를 평가받도록 규정하였다. 재임 기간 중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기관장에 대해서는 추천·공모 등의 선임절차 없이 통합이사회의 의결만으로 한 차례 연임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 실적에 따라 예산·인사상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는 등 성과관리를 강화했다.



2004.
인문사회연구회평가 경영분야 우수기관포상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에 선정되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 12월 한경비즈니스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 중에서 정치·사회·복지·교육 분야 1위에 선정되었다. 선정과정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정, 교육제도, 평생·고등교육연구 등 시대가 요청하는 교육 수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2007년 1월에는 개발원에서 발간하는 영문 저널 KJEP(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이 사회과학 논문 인용 색인(SSCI)에 등재되면서 연구 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기도 했다. 이는 국내 저널로는 10번째이며 대학이 아닌 순수 연구기관 저널이 등재된 것으로는 최초의 사례였다.

2007.01.
영문저널 「KJEP」 SSCI 등재

Chapter 2.

교육정책·기초 연구와 학교평가·지원 관련 연구

01 교육정책 연구기관의 역할 확대

교육계획 연구

1980~1990년대에 활발했던 교육계획 분야 연구들은 2000년대 들어와 다소 축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 이전에 이미 밀레니엄 시대의 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충분히 이뤄졌고, 정부 차원에서도 새로운 교육계획 개발보다는 현존하는 교육정책 추진에 더 비중을 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기존 교육계획 연구에서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연구가 산발적으로 이뤄졌다. 2000년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학생수요를 심층적으로 분석한 「고등교육 학생수요 분석연구」를 수행했으며, 2002년에는 교원수급 문제를 점검하기 위한 「교원수급계획 수립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2003년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2002년 「교육혁신 5개년계획 구안: 2003-2007」을 수행했다.

고등교육 학생수요
분석 연구

교원 수급 계획
수립 연구

국가교육혁신
5개년 계획 구안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 연구

「초·중등 사학운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2000)」 | 초·중등 사학의 운영 개선을 위해 재정 운영과 학생 선발 방식의 특례인정, 사립학교 설립조건의 완화, 사립학교 설립조건의 완화, 학교법인의 해산명령권 보완 등을 건의했다.

「경기도 고입제도개선연구(2000)」 | 경기도 7개 지역의 고교평준화 정책 도입 여부를 판단하고, 그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율학교 운영모델개발연구(2001)」 | 자율학교의 확대 시행에 대비하여 각 학교 유형별로 자율학교 제도를 적용하고자 할 때 어떤 점들을 주로 고려해야 할지 검토하고 제도적인 개선 및 보완점을 제시했다.

「21세기 교육복지 발전방안연구(2001)」 | 교육복지의 중요성과 실천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주요 국가의 교육복지 정책, 우리의 교육복지 실태를 분석하고, 교육기회·교육환경·교육결과의 측면에서 교육복지의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학교경영환경의 변화와 학교장의 리더십 연구(2000)」 | 새로이 요구되는 학교장의 리더십 모형을 교육적·상황주도적 리더십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학교장의 역할·능력·기술·특성·직무 등을 제시했다.

「사회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학교운영방안연구-학교 주5일제 운영 관련 사회적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2001)」 | 학교 주5일제 도입과 관련하여 그 교육적 의의와 실행 방향을 논의하고, 향후 학교 주5일제를 도입하는 데 유의해야 할 사항과 사전 준비요건 등을 제시함으로써, 학교 주5일제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했다.

「학교중심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연구(2005)」 | 교육행정체제가 학교중심 지원체로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했으며, 바람직한 학교운영체제 모습 탐색과 이를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권한 재배분 방안, 지방교육행정 조직과 운영 체제의 재구조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원교육 연구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연구(2000)」 | 교육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교감, 교장으로의 과열 승진 경쟁을 유발한 교원 직급 및 자격 체제의 개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제7차교육과정 대비 정규교원과 계약제교원의 합리적 배치 기준 및 직무기준 설정방안(2000)」 | 새로운 교육과정이 시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특정 선택교과 분야의 계약제 교원의 배치 기준과 직무 기준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00.08.31.
교원직급 및 자격체제 개편방안 정책토론회

2005.01.19.
학교운영 교육행정체제 혁신방안 1차 공청회

교원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연구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연구

「한국 교원정책의 종합적 진단과 전망(2003)」 | 1995년 이후 나타난 다양한 교원정책들을 대상으로 해당 정책이 결정·집행된 과정과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를 통해 향후 교원정책을 입안할 때 고려해야 할 교훈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교원의 직무 수행 실태 분석 및 기준 개발 연구(2005)」 | 교사와 학교행정가 집단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 영역 및 내용을 탐색하고, 직무 수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변화하는 미래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와 학교행정가가 수행해야 할 '직무 수행 기준'을 개발·제시하였다.

「교원 다면평가의 효과성 검토: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중심으로(2008)」 |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취하고 있는 다면평가방식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의 목적과 부합하면서 다면평가의 장점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교육재정경제 연구

「교육재정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원 확보방안연구(2000)」 | 교육학자가 아닌 경제학자가 수행했으며, 외부 전문가 공모를 통해 진행되었다. 연구를 통해 교육재정의 적정규모를 파악하고 안정적인 교육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초·중·고등학교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2005)」 | 표준교육비의 실증적인 산출과 함께 그에 기초한 재정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한국의 교육비 조사 연구(1998)」 |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그리고 기회경비를 산출하였으며, 과거 추세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혔다.

「고등교육재정지원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2004)」 |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의 경향과 지원 형태를 파악하고,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이 대학의 성과 지표(연구산출물, 취업성과 등)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검토함으로써 대학에 대한 공공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대학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연구(2006)」 |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을 포괄적이며 체계적인 평가 틀을 이용해 평가하고, 이를 근거

로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정책 개선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 밖에도 수탁연구로서 「유아교육 투자우선지역 선정방안연구」와 「사교육비 해소 방안 연구」, 「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 「교육발전을 위한 교육투자 실태분석 및 투자방향 재검토」 연구, 「학교회계 운영실태 분석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통일교육 연구

「북한교육관계 법령분석 연구(2000)」 | 북한의 교육 관계 법령을 분석하여 교육제도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연구(2000)」 | 한국에 귀순한 북한 학생들의 학력 수준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북한 이탈주민의 증언을 통한 분석(2001)」 | 북한 교육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당시의 변화 동향과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탈북자 202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쳐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북한의 교육 현실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
그밖에도 수탁 연구로서 「남·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연구」, 「남·북한 교육체계 비교분석」 연구 등 북한 교육을 바로 알기 위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기타 연구

교육정책연구 차원에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2000년 수탁과제였던 「2000학년도 신설교육대학원 운영실태조사보고」, 「교육분야 부패방지 대책연구」,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국민여론수렴사업보고」, 「2000년도 교육대학교 교대 교육대학원 평가보고」, 2001년 수탁과제였던 「학부모의 학력주의 교육관 타파 방안연구」, 「2001년 일반대학 교육과 연구」 등이 그 대표적이다. 「교육분야 부패 방지 대책연구」는 IBRD 지원에 의한 국무조정실의 부패방지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행된 것으로서, 교육 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패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편 2000년에는 개발원 연구진들의 연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교육정책연구 방법론 핸드북』을 발간했다. 이 책자는 연구진들의 문헌연구와 과거 경험을 근거로 다양한 정책연구 방법론을 제시하여 개발원 연구진들은 물론 정책 결정자들, 교원들에게도 큰 도움을 주었다.

2005.11.21.
북한 교육 발전과 국제협력 심포지엄

북한 교육 체제의
특성과 기능 연구

북한교육의 현실과 변화 :
북한 이탈 주민의
증언을 통한 분석

2002년도 신설교육대학원
운영 실태 조사 보고서

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
관한 제1회 국민의견 수렴
공청회)

2001년도 일반대학 교육과
평가 보고서

02 다양한 현안에 대처하는 교육기초 연구 수행

1999년 인문사회연구회 체제로 재편되면서 한국교육개발원 역시 정책연구 기관으로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해 나가기 시작했다. 1998년까지 교육기초 연구는 학교평가연구본부 체제 속에서 수행되었으나 1999년에 학교교육연구부로 개편되어 교육기초, 교육정책 및 평가 연구가 함께 수행되었다. 1999~2000년 사이의 교육기초 연구는 기관 차원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된 체계적인 연구라기보다는 당면한 교육문제 대응, 관련 기관의 요구 등에 의해 이뤄진 단편적인 성격의 연구였다. 하지만 2001년 학교교육연구부가 교육정책연구본부와 학교지원연구본부로 재편되고 각 본부에 2~3개의 연구실을 신설하면서 교육기초 연구, 영재교육 연구, 학교평가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교육심리 및 사회 연구

「학생의 집단 따돌림 및 괴롭힘 현상에 대한 대책 연구(1999)」 | 따돌림에 대한 구체적 유형을 제시하고 유형별 특성과 원인을 파악함으로서, 학교 현장의 따돌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대응하도록 도왔다.

「자녀의 진로지도를 위한 부모용 읽기 자료 개발 연구(1999)」 | 1990년대 초반부터 1998년까지 수행된 진로지도, 적성검사 개발 연구 결과를 실제로 부모들이 자녀 진로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수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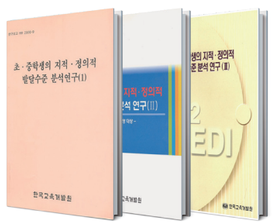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연구(2000)」 | 공교육 위기, 학교 붕괴 현상이 사회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점에서 학교교육 위기의 실제와 그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 진단하고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Ⅰ)(Ⅱ)(2000~2001)」 | IMF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만연된 도덕적 위기 상황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사회적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로서,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시의적인 연구 성격이 강했다.

「초·중학교 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Ⅰ)(Ⅱ)(Ⅲ)(2000~2002)」 | 학교 현장의 핵심적인 구성원인 학생들의 발달 특성에 관한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연구였다.

학교교육 위기의 실태와
원인 분석 연구

한국 사회의 도덕성 지표 개발 연구
(Ⅰ)(Ⅱ)



초·중학교 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 분석
(Ⅰ)(Ⅱ)(Ⅲ)

「중등학교 교사의 생활과 문화에 관한 연구(2001)」 |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교직을 수행하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교직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화의 특성과 그 형성 조건을 밝히고자 했다.

「초·중학교 사이버 교육체제 개발·적용 시범사업 연구(2001)」 | 사이버 교육에 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초·중등 사이버학교 도입 가능성을 탐색하였으며, 초·중등 사이버 교육체제 운영 모형을 제시했다.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2001)」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협동 연구로 수행된 연구로서, 학교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입시학원의 교육실태 분석 연구(2002)」 |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경시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고 입시학원의 실태를 파악하여 공교육 개선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학습부진아 판별을 위한 검사도구 개발 연구(1999~2001)」 | 학습부진 학생들에 대한 교육부의 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국가 수준의 표준화된 검사도구 개발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함께, 일선 현장의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효율적인 학습지도를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중학교 성교육 지도지침 및 자료개발 연구(2000)」 | 교육인적자원부의 공모 과제로 수행된 연구로서, 기존 성교육 자료가 주로 성의 생물학적, 보건학적 측면만을 강조한 데 비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의사 표현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기르고 양성평등적 성 역할의 이해를 통해 바람직한 성 정체성과 성 윤리 의식을 형성·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 연구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육효과 분석 연구(2000)」 | 유아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기관의 구조적 특징과 과정적 요인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기관 유형별 교육효과와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평가적 정보를 제공했다.

유아교육기관 유형별
교육효과 분석 연구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

유치원 급식실태 조사 및
효율적 급식 운영방안 연구

영재교육 백서

「유아용 사이버 교수·학습 시스템 설계 연구(1999)」 | 우리나라 유아교육 기관의 컴퓨터 활용 실태 및 문제점을 토대로 유아교육 기관에서의 컴퓨터 활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유아의 발달수준과 유아교육 내용을 고려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유아용 사이버 교수·학습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 예시안을 시범적으로 구안했다.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한 총괄적 진단과 분석: OECD의 관점(2004)」 | OECD가 추진하고 있는 「유아교육과 보호정책에 대한 OECD 주제 검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연구로, 우리나라 유아교육과 보육 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진단과 함께 현안 문제를 확인하고 해당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 정부 권고 안을 담았다.

그밖에도 「유아교육 투자 우선 지역 선정방안 연구(2001)」, 「영아용 교수·학습 교구개발 연구(2001)」, 「영유아 발달검사 개발 및 발달수준 분석 연구(2001)」, 「유치원 급식실태 조사 및 효율적 급식 운영방안 연구(2002)」. 「한국의 유아교육과 보육체제 분석 연구(2002)」 등이 수행되었다.

영재교육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은 1980년대부터 영재교육에 관한 기초 및 정책 연구, 판별도구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등 우리나라 영재교육 활성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특히 2000년 1월에 「영재교육진흥법」이 공포되고 2002년 4월 동법 시행령이 공포·시행되면서 영재교육 연구가 보다 활성화되었다.

1999년부터 2000년까지는 1996년부터 수립된 교육부의 「제1단계 영재교육 5개년 발전계획」에 근거한 영재교육 활성화 체제 구축을 위해 관련 연구가 이뤄졌다. 4차 연도인 1999년에는 「영재교육진흥법 구현을 위한 영재교육 연구」,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및 영어 영재교육과정 개발 연구(Ⅰ)」, 「원격 영재교육 서비스체제 구축 사업(Ⅱ)」, 「영재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0년에는 1999년에 수행되었던 연구의 2차 연도 연구인 「영재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구」와 함께 추가적으로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임용방안 연구」와 「영재교육 중장기 종합발전 연구」가 수행되었다.

2001년에는 「영재교육연구원 설치·운영 방안 연구」와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전략 개발 연구(Ⅰ)」외에 2개 연구과제가 기본연구 과제로 진행되었다.

2002년에는 기본 연구사업으로서 1차 연도인 2001년에 이어 수행된 「창의성 계발을 위한 교수·학습전략 개발 연구(Ⅱ)」를 비롯하여 「간편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도구 개발 연구(Ⅱ)」 등 4개의 정부위임 연구관련 사업,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정

책연구를 비롯한 3개의 수탁 연구과제 등 총 8개의 영재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아울러 2004년에는 국내 최초의 영재교육 백서라고 할 수 있는 「영재교육 백서 2004」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영재교육 체제를 수립해 온 과정, 구축된 영재교육의 체제, 현황과 실태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기록하였다. 그밖에도 「영재 육성 체제 정립을 위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 방안」, 「소외된 영재의 발굴과 재능 계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국가수준 영재교육 담당교원 전문 연수기관 설치·운영 방안」 등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6년에 진행된 「영재교육 수업 모범사례 연구」는 영재교육의 효과적 교수행위를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영재교육 교사의 효과적인 교수행위와 이를 수행하는 모범교사의 특징을 논의하고, 대표적인 영재교육 분야인 과학영재교육의 담당 교사 교수행위를 분석하는 한편, 우리나라 과학영재교육 수업에서 질 높은 교수행위를 실천하는 모범교사의 특징을 추출하였다.

2008년에는 수탁연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2000.08.29.
영제교육 중장기 종합발전방안 공청회

2006.06.02.
영재교육진흥법 관련 공청회

03 학교평가제 도입에 따른 학교평가 및 학교지원 연구

학교평가 관련 연구 및 사업

교육개혁위원회는 1995년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에서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학교평가제의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단위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는 가운데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교육 수요자에게 학교 선택과 진로선택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평가결과와 행정·재정 지원과의 연계를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취지였다. 이에 1998년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체제와 학교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하는 연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학교평가체제 및 학교평가모형 개발 연구 | 사업 초기 「초·중등학교 평가체제 개발 연구(1999)」와 「일반계 고등학교 평가모형 개발 연구(1999)」, 「실업계 고등학교 평가모형 개발 연구(1999)」 등을 수행했다. 「초·중등학교 평가체제 개발 연구」에서는

1996.08.28.
신교육과정 총론 공청회

국가 수준의 학교평가 실시 방향, 평가 담당기구에 대한 체계적인 안을 제시하여 향후 우리나라 학교평가제도 기반 구축의 토대를 세웠다. 「일반계 고등학교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영국의 학교평가 방식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변형시킨 학교평가모형을 제시하였고, 「실업계 고등학교 평가모형 개발 연구」에서는 통제가 아닌 지원에 초점을 둔 학교평가모형을 제시했다. 이 두 가지 학교평가모형은 교육부의 수탁과제로 진행된 「고등학교 모의평가 실시 연구」를 통해 모형 평가를 거치면서 보다 정리되었다.

학교종합평가사업 | 2000년부터 전국 16개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종합평가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1년 48개, 2002년 100개 학교로 확대되었다. 이 학교종합평가에는 1999년도에 개발된 '상호정보제공형 학교평가모형'이 적용되었다. 이에 개발원에서는 국가 수준의 통제보다는 자율성 함양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또한 학교를 구성하는 제반 영역을 총체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학교종합평가'라는 명칭을 붙였다. 사업 규모는 다음과 같았다.

학교종합평가사업 규모

1차년도 시범사업 (2000년)	• 현장 방문 평가: 16개교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4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8개교) • 설문지 조사 평가: 108개교(고등학교)
2차년도 시범사업 (2001년)	• 현장 방문 평가: 32개교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12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6개교, 실업계 고등학교 2개교) • 사후 평가: 16개교(2000년도 시범 평가 학교 대상) • 설문 평가: 200개교(초·중학교)
본 평가 (2002년)	• 현장 방문 평가: 84개교 + 일반학교평가: 54개교(초등학교 16개교, 중학교 16개교, 일반계 고등학교 16개교) + 자율운영학교 평가: 30개교(농어촌 자율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대안학교, 예·체능계 자율학교,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 사후 평가: 16개교(2001년도 시범 평가 학교 대상)
설문 및 방문에 의한 학교평가 실시 (2003년)	• 학교교육 실태조사 도구 개발(총 12종) 및 실시 • 학교교육 실태조사와 연계한 학교평가 모형 및 편람 개발 • 학교방문평가 실시 + 설문평가: 전국 초·중·일반계 고등학교 756개교 + 방문평가: 전국 초·중·일반계 고등학교 100개교

2001.11.29.
학교종합평가 결과발표회

학교종합평가는 시범사업에서부터 본 평가에 이르기까지 상호정보제공형 학교평가모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학교평가의 1차적 목적이 단위학교의 개선 노력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을 의미했다. 또한 이를 전국 수준에서 시행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질을 점검하고 정책효과를 진단하고자 했다. 또한 학교종합평가에서는 전국 수준에서 평가위원을 확보하여 연고 지역이 아닌 지역의 학교평가를 담당하도록 했으며, 대학·연구소·학교·교육청 등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인사를 평가위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학교교육 관련 주체들 간의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유도했다.

학교종합평가는 기존 평가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참여 학교 및 평가위원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었다. 체크리스트로 평가결과를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 자료와 함께 관찰 및 면담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는 질적 평가를 병행했다. 결과적으로 학교종합평가는 교육활동을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학교를 총체적으로 바라보는 한편, 학교 밖의 다양한 정보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평가로 인정받았다. 이후 개발원은 학교종합평가의 여러 개선점을 보완하면서 우리나라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데 기여했다.

「학교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 체제 개발연구(2006)」 | 학교 책무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교평가를 통해서 학교교육의 책무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안하고자 수행되었다. 학교평가체제를 개발하기 위해 전문가 디스커션 그룹을 5회에 걸쳐 운영했으며, 학교평가의 주요 당사자인 교원, 교육청 담당자, 학부모,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학교교육의 책무성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평가체제에 대한 인식과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구체적인 실태를 분석하였다. 또한 책무성 제고를 위한 국내외 학교평가 사례들을 분석하여 평가체제 모형을 구안하는 데 기초자료로 삼았다. 아울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진 학교평가의 연속선상에서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평가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학교 책무성 강화를 위한
학교평가 체제 개발연구

학교 교육개혁 지원을 위한
학교컨설팅 사업(Ⅰ)(Ⅱ)(Ⅲ)

단위학교 교육문제
진단 및 개선 지원 연구

학교지원 관련 연구 및 사업

학교지원 관련 연구 및 사업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2000년부터 「학교교육개혁지원을 위한 학교컨설팅 사업」이 진행되었고, 2002년도에는 「단위학교 교육문제 진단 및 개선전략 수립 지원 연구」가 시작되었다. 두 연구사업은 모두 단위학교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활동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였다.

Chapter 3.

교육격차 분석 연구와 교육복지 정책사업

01 | 교육격차 연구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교육격차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따라 교육 취약집단이 증가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소득을 비롯한 양극화 현상 보고가 이어졌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사회·경제적 격차와 교육격차 간의 관계, 교육격차 실태와 원인 등을 분석하여 적합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다각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은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외계층을 위한 ICT 교육정책 분석(2003)」, 「영유아 교육과 보육 실태 및 요구 조사(2004)」, 「외국인 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 연구(2005)」, 「학교부적응 학생의 교육 실태 분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2007)」 등의 연구를 전개했다. 또한 종합적이면서 심층적인 분석을 위해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6)」,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분석(2006)」 등의 연구도 연이어 수행했다.

아울러 해외 사례 연구를 참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외국의 교육안전망 사례 : 스웨덴·독일·영국·일본·미국(2007)」 등이 함께 수행되었으며, 국내외 현황과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21세기 교육복지 발전 방안 연구(2000)」, 「교육복지방안연구(2004)」, 「교육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2004)」 등의 교육복지 정책을 탐색·제안하는 연구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학교교육이 사회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 분석(2006)」 | 한국교육개발원은 다양한 변수를 통해 교육과 사회계층 사이의 관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려는 연구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당시 우리 사회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계층의 관계 분석 모형을 설계해 학교교육이 개인의 계층 지위 획득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나아가 세대 간 계층이동에 학교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시계열로 분석함으로써 학교교육이 사회 각 계층 구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계층 지위 획득과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미치는 학교교육의 가능성과 한계를 밝혔다.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분석

「한국 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연구 및 교육격차 분석(2006)」 | 교육격차 혹은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기초자료 분석이 필요하였다. 이에 개발원은 해당 연구들을 통해 교육격차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교육복지지표 개발 연구'는 사회양극화 문제에 대한 주요한 대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교육복지의 개념을 정립하여 교육복지의 수준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여 수록하였다. 이와 함께 '교육격차: 가정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 분석'을 통해서는 교육격차와 관련되는 여러 요인의 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로 '교육양극화'라는 용어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학업 성취와 상급학교 진학 기회에 미치는 가정 배경과 학교교육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08)」 | 해당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교육 취약집단의 규모, 지역별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가운데 기존 지원정책의 종류·성과·한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사회적 취약집단 지원, 교육 최소 기준 미달집단 지원, 교육복지지원체제 구축 등 세 가지 정책 영역을 구분하고 사회적 취약집단 지원 영역을 저소득층·농산어촌 학생 지원, 신(新)취약집단 및 장애학생 지원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아울러 크게 네 가지 정책 영역에 대한 세부과제를 개발하고, 세부과제별 주요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02 | 교육복지 정책사업

증가하는 사회적 취약집단의 문제는 점점 이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주류 집단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계층별 거주지 분화 현상을 비롯하여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학교 간에도 계층이 분리되는 등 삶의 다양한 국면에

2006.06.28.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관계자 연수

2007.08.24.
2007년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장 연수

서 주류 집단과 사회적 취약집단과의 분리 현상이 나타났다. 정책적 대응이 절실하던 이 시기, 당시 대통령 또한 경축사에서 "교육복지를 위한 투자" 방침을 천명(2002.08.15)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초연구실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2002)」 수행을 통해 지원 방안을 수립한 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시범사업을 위한 기초를 제공했다. 이 같은 시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중앙연구지원센터로서 사업의 효과적 운영 및 발전을 위한 연구지원 역할을 수행하였다.

사업 확대기에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계획 구체화 방안 연구(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연계협력 강화 방안 연구(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계획 구체화 방안 연구(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영·유아 교육복지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연구(2006)」,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2007)」, 「교육복지사업 발전 방안 연구(2007)」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통해 여러 차원을 고려하면서 사업 모델을 탐색하고 발전 방향과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가 수준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 방안(2005)」 등의 모색을 통해 매년 사업 만족도 및 성과를 분석·제시하였으며,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2008)」 등과 같은 연구를 통해서는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개발원은 연수 및 모니터링을 통한 현장 지원, 국가 수준 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계획 구체화 방안 연구(2008)」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2년간 서울과 부산의 저소득 밀집 8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대폭 확대되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확대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대처 방안들을 사업의 확대, 사업의 내실화, 사업의 안정화 차원으로 구체적으로 탐색·제안하였다.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2008)」 | 해당 연구에서는 국가 수준에서 시행해 온 각종 교육복지 관련 정책과 사업의 전개 과정 및 주요 성과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향후 발전적인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제도적·법적 기반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백서(2008)」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수임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중앙연구지원센터로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다. 이에 개발원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백서」를 발간하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저소득층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교육 여건 불평등을 해소하고 취약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 해당 사업의 발자취와 성과를 정리하였다. 이 같은 백서는 추후 2014년까지 이어진 해당 지원사업이 올바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는 이정표가 되었다.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Chapter 4.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인적자원개발 연구 수행

01 | 평생교육센터의 출범 및 기능 이관

평생교육센터의 탄생 배경과 주관기관 지정

교육개혁위원회는 제4차 교육개혁 방안(1996.08.20.)을 통해 교육부 산하에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과 사회교육 실천 사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여 교육계좌제도의 기획, 사회교육 연수, 사회교육 종합 연구, 평생교육 학술자료·정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라고 건의했다. 이러한 전담 기구의 설치는 과거에도 관련 위원회 및 학회를 중심으로 여러 차례 논의되었으나, 교육개혁위원회의 공식적인 건의 이후 가시화되어 「평생교육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교육부는 기존의 교육행정연수원을 확대·개편하여 평생교육진흥원(종합사회교육원)을 설치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정부기관 축소와 민간위탁업무 확대 방침으로 기존 민간단체 및 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1998년 8월 평생교육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센터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교육부는 2000년 2월 15일 한국교육개발원을 평생교육센터의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2001.06.13.
지역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찬회

평생교육센터의 출범

2000년 3월 29일, 평생교육센터가 출범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평생교육센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평생학습부를 평생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했다. 설립 직후 평생교육센터의 조직은 평생교육센터운영총괄팀, 학점은행운영총괄팀,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총괄팀으로 구성되었다. 평생교육센터의 실질적인 기능

은 평생교육센터운영총괄팀에서 수행했으며, 2001년 평생교육센터 운영실로 개편되었다. 또한 같은 해 방송통신고등학교운영총괄팀이 본부로 격상되었고, 인적자원연구실이 평생교육센터로 들어오게 되었다.

한편 기본 조직 이외에 평생교육센터의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는 기구로서 '평생교육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했다. 평생교육이 포괄하는 대상과 분야가 방대하여 수요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유관 기관 및 단체 등과 파트너십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 운영위원회는 평생교육센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인적자원부, 평생교육 관련 학계 및 단체 인사 등으로 구성되었다.

센터 운영 및 연구·지원 사업 추진

설립 첫해 개발원은 평생교육센터의 인프라 구축,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선정과 운영 지원 및 중앙 센터와의 연계 체제 구축, 평생교육 정보화 체제 구축에 역점을 두었다. 이듬해 2001년에는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제2단계 평생교육 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연수, 정보 수집·제공 기반을 다져 평생교육센터,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평생학습관의 역할과 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고자 했다. 아울러 2001년에는 여러 관련 연구가 이뤄졌다. 주요 연구로는 평생교육기관 운영 실태 조사, 지역 단위 평생교육 체제 구축방안 연구, 평생교육사 제도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성인의 문해실태에 관한 OECD국제 비교 조사연구, 평생학습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 등이 이루어졌다. 평생교육 연수사업으로도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및 평생학습관 관계자 연수, 평생교육사 2급 양성 교육과정 개발(시범연수 실시),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평가인

2005.10.07.
일본 평생학습연수 참가

정 등의 사업이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개발원은 다양한 연구, 연수, 지원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했다.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센터 기능 이관

교육부는 국가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중추기관으로서 2008년 2월 15일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다. 새로운 기관 설립에 따라 개발원은 평생교육센터 및 학점은행 운영 기능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하였다. 평생교육진흥원은 기존 한국교육개발원의 평생교육센터, 학점은행센터 이외에도 한국방송통신대의 독학학위 검정원의 업무까지 담당하며,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모든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개발원의 사업을 이어받아 다양한 평생교육 정책 및 지원사업을 펼쳐나갔다.

02 교육인적자원부를 지원하는 인적자원개발 연구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시작

인적자원개발 연구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확대된 이후 이에 따른 연구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00년 교육부의 체제 개편에 따라 개발원에 '인적자원개발 특임팀'이 구성되었다. 특임팀 구성 이전부터 개발원은 「국가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방향과 과제(2000)」라는 연구를 이미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임팀 구성을 계기로 향후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토대가 될 「국가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는 비록 소규모 연구과제

2002.02.15.
교육인적자원부 업무계획 보고
(출처. 국가기록원)

였으나 이후 개발원의 인적자원개발 연구에 여러 시사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개발원은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의 관계를 정립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인적자원개발'이라는 주제로 수행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과제에 대해 고민했다.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본격화

인적자원연구실 발족 | 한국교육개발원은 2002년 1월 인적자원연구실을 발족하고 인적자원개발, 평생교육,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을 확보했다. 그리고 그해 기본과제로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시스템의 재구조화」라는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이를 개발원의 중점과제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노동시장의 변화 추이나 사회변화 추이와 무관하게 교육이 이뤄졌다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인적자원개발의 시각에서 교육시스템을 어떻게 재구조화할 것인가를 다뤘다. 이를 통해 개발원은 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이 국가 정책으로써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야 하는지 연구해야 하며, 교육인적자원부에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한편, 기본과제를 수행하면서 개발원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한 「인적자원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기도 했다.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방향 설정 | 2001년에는 인적자원개발 연구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지 고민했다. 「글로벌 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비전과 과제-」에서는 개발원이 그동안 수행했던 연구들과 인적자원개발연구들과의 관계를 조명하면서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했다. 이 자료에는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개발이 국가적 차원, 지역사회 차원, 개인적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관점에서 아래의 3가지 슬로건을 제시했다.

- 질적 학습을 통한 경쟁력의 향상(Competitiveness in Excellent Learning),
- 연계망 학습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제고(Integration in Network Learning),
- 즐거운 학습을 통한 개인의 성장(Growth in Joyful Learning)

그리고 이러한 3대 비전에 따라 다음의 5가지 하위 전략을 설정했다.

- 인적자원 유형별 전략적 개발계획의 수립
- 국제적 표준이 부응하는 인적자원 질 관리 체제의 구축
- 인적자원 축적(Stock)보다 유량(Flow)을 중시하는 개발전략의 수립
-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의사결정구조와 단계의 마련
- 국가 인적자원개발은 지역사회 인적자원개발을 통해 구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연구 수행 | 한국교육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연구에 응모하여 해당 연구들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인적자원연구실뿐만 아니라 타 부서들도 참여하였으며, 외부 기관과의 협업도 이뤄졌다. 예를 들어 「정부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는 인적자원개발관련 연구기관의 협동연구과제로서,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진행했다. 또한 인적자원개발 연구와 평생교육과의 관련성을 고려해, 평생교육센터에서 「지역단위 인적자원개발 추진체제 구축방안」 연구를 수행하기도 했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통한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다.

인적자원개발 연구를 위한 통계 체제 구축 | 한국교육개발원은 일찍부터 국가교육통계 센터로서의 위상을 확보하여, 학교교육 관련 통계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개발원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취업 관련 통계를 접목하여 인적자원개발 연구를 위한 기반을 확립했다. 이와 함께 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통계정보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했다. 이 연구는 인적자원개발을 인력양성·개발·관리의 순환과정으로 파악하고, 전 과정을 효율화할 수 있는 통계체제 구축에 관한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인적자원지표가 국가적 차원에서 전무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인적자원개발 지표』 자료집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국내 최초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통계자료로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기도 했다.

대규모 컨소시엄 연구 수행 | 2001년 대규모 과제로써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연구를 정부에 제안했다. 이 연구는 개발원이 연구 전체를 설계하고 학습체제를 중심으로 하위 연구과제를 다수 설정하였으며, 유관 연구기관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에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을 취했다.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산업사회와 다른 능력들이 필요하며, 국가는 이러한 능력들을 반영하는 학습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학습체제의 질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개발원은 다양한 학습체제별 능력요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학습목표의 재설정을 시도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 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 방안

인적자원개발 연구의 방향 전환

2002년부터는 인적자원개발연구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기 시작했다.

개발원은 인적자원개발 연구가 기존의 교육정책 관련 연구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연구 방향성을 새롭게 정립했다. 즉, 기능적이고 부분적인 연구에 치중하기보다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철학과 비전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했으며, 유관기관들의 기능중복 문제를 고려해 국가 및 지역 인적자원개발 비전, 초·중·고등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 소외계층 및 중도탈락자 인적자원개발 연구, 사회적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인적자원개발 연구 등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03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제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변화

2002학년도부터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10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과를 개설하여 수준별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11학년과 12학년은 자기 진로에 맞추어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고 교육과정도 10학년까지 국민공통기본교과는 법령대로 이수하되, 11~12학년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은 인문·사회 과정의 일반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편성하여 총 216단위를 이수토록 했다. 또한 고등학교 교과서가 탐구 학습을 강조하는 형태로 개편되면서 주로 라디오 방송강의를 통해 학습하는 방송통신고 학생들에게 부적합한 교과서가 많아졌다. 이에 일부 과목(사회, 과학)은 시·도 교육청의 재정 지원을 받아 인정교과서를 개발·보급하였고 11학년용 교과서 중 일부 과목들은 교육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인정교과서를 개발했다.

컴퓨터 통신학습 시스템 기능 확장

2000년대에는 기존 음성강의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급속히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인터넷의 보급과 이를 활용한 원격교육의 확산으로 학생들의 정보활용 능력 및 이용 환경 역시 크게 향상되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고에서도 멀티미디어 동영상 강의와 인터넷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특히 2002년에는 전국의 각 방송통신고 홈페이지와 학생들이 개설한 커뮤니티 및 홈페이지들을 연결하여 인터넷을 통해 교류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고 포털 사이트 시스템을 구축했다.

방송통신고 학예경연대회

학예경연대회 내용 일부 조정

2000년대에는 대학입시에서 특기적성 점수가 가산점으로 작용하면서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예경연대회가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각 부문의 수상 점수가 대학입시에 가산점으로 작용하게 되자, 음악·미술 부문의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해당 분야를 경연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회화(동양화·서양화), 성악(국악·양악) 4개 부문을 추가하여 총 10개 부문의 경연을 실시하게 되었다.

뉴스지의 내용 및 체제 개편

2000년부터는 뉴스지의 내용을 확대하여 16쪽으로 증면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후 2002년 3월호부터는 뉴스지 명칭을 『배울;학』으로 변경하고, 20쪽으로 증면 발행했다. 이 시기의 주요 내용은 학교 뉴스, 재학생 인터뷰, 학생들의 문예작품, 인물 탐방, 학교 탐방 등으로 꾸며졌으며, 전국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잇는 교량 역할을 했다.

Chapter 5.

다양한 위탁·지원 사업의 변화와 발전

01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주무기관이 되다

「한국관 시정사업」 위탁 수행

오늘날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세계 각국의 교과서, 지도, 백과사전, 연감, 전시물, 뉴미디어 등에 나타난 한국 관련 내용 중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한국 및 한국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1970년대 시작된 '한국관 시정사업'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1975년부터 문교부 사회과학편수관실에서 주관하던 한국관 시정사업은 1980년 4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되었다가, 1981년 9월 문공부가 사업을 총괄하고 교과서 관계 업무를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 조정이 이뤄졌다.

이후 1982년 7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이 터지면서 해당 사업이 활성화되었다. 일본 문부성이 자국의 역사 교과서를 검정하는 과정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한국관 시정사업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아졌다. 당시 범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여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는 한국교육개발원과 국사편찬위원회로 하여금 일본 역사교과서 한국 관련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검토하도록 했다. 그 결과 39개 항에 달하는 한국사 왜곡 내용이 파악되었으며, 외무부는 이 내용을 일본 정부에 전달하고 조속한 시정을 요구했다.

1983년에는 한국관 시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정연구부 내에 교과서국제비교연구실을 신설하여, 세계 각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한국 소개 자료의 개발, 교과서 관련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외국 교사 및 교과서 편집인 초청 연수, 유관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수탁과제 등을 수행했다.

1996.09.29.
한국·프랑스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역사·지리 교과서 개선 연구 토론회

2000.09.27.
한·일 교과서 전문가 국제학술회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으로 명칭 변경

1992년, 공보처 차관이 한국관 시정사업 추진협의회 위원장이 되면서 해당 기구의 확대 개편이 이뤄졌으며, 14개 관계부처가 참여해 사업 활성화를 모색했다. 이후 1994년에는 국무총리 훈령(제303호)에 근거하여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대외홍보협의회'를 설치함에 따라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관련 업무는 대외홍보협의회 실무위원회에서 관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 1995년 범정부 차원의 국가이미지 개선·관리 강화를 위해 대통령 훈령(제61호)에 따라 '대외홍보협의회' 명칭을 '대외홍보위원회'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직접 맡기도 했다.

'한국관 시정사업'은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인의 잘못된 한국관'이 전제된 사업이었다. 때문에 해당 사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해외 한국관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1997년 교육과정연구본부의 교과서국제비교연구부를 국제협력실 한국바로알리기사업팀으로 바꾸면서 소극적인 활동에서 탈피해 사업 방향을 적극적인 자세로 전환했다. 이곳에서는 기본연구 사업을 진행하는 동시에 문교부, 공보처 등으로부터 수탁사업을 받아 외국교과서 전문가 초청사업, 한국이해 자료개발, 교과서 조사 활동 등을 전개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주무 기관 선정

2001년 4월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왜곡 파동'이 일어났다. 사건 직후 개발원은 그동안 축적해 온 일본 역사교과서의 한국 관련 내용 분석 연구를 토대로 작성한 「일본 중학교 역사교과서 수정요구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제출함으로써 정부 대응을 뒷받침했다. 그리하여 2001년 12월 19일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그동안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추진 실적과 경험을 인정받아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대책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주무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한국관시정연구실'을 '국제교육정보연구특임본부'로 확대 개편하여 시정연구실은 교과서 분석 및 시정자료 개발 등의 업무를, 국제교육연구실은 국제비교 기초연구 및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분담하도록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사업 이관

한국교육개발원은 2003년 3월 7일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하였다. 이후 같은 해 8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한국바로알리기 사업뿐만 아니라 일본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한일역사공동위원회와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등 관련 활동을 이어나갔다.

02 교육통계사업의 확장과 국제화

교육기본통계조사와 교육통계연보 발간사업의 발전

교육기본통계조사와 통계연보 발간의 개선 필요성은 1997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국가교육통계조사 내용 및 체제개편 연구(1997)」, 「교육통계 DB 활용 프로그램 개발방안연구(2000)」, 「인적자원조사통계체제 구축방안연구(2001)」, 「취업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연구(2001)」 등을 살펴보면, 기존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적절한 내용과 시기로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 드러나 있다. 이에 2002년 진행된 「교육통계체제 혁신방안 연구(Ⅰ)」에서는 교육통계조사의 적절한 분리를 위한 모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교육기본통계조사에 있어 고등교육기관의 자료수집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특히 「고등교육기관 웹기반 입력 프로그램 개발사업」을 계기로 2002년부터 고등교육기관 자료 입력에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한편 2004년에는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2006년에는 일반승인통계였던 교육기본통계가 통계청에 의해 지정통계로 지정되었다. 또한 2007년에는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시행하기 시작했다.

조사 방법 측면에서도 2000년대 들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수기조사 및 C/S 기반 조사로 진행되던 교육기본통계조사는 2001년에는 웹기반 조사로 변화하였다. 2007년부터는 고등교육통계 통합 조사 사업으로 고등교육통계와 유·초·중등교육 통계를 분리해 조사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는 정보공시제의 도입에 따라 교육통계와 정보공시 간 자료 연계가 이뤄지기 시작했다.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의 확대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교육기본통계조사를 위한 기술적 시스템 구축에 국한되었으나 2000년대부터는 여러 전문 분야로 확대되었다. 「국내외 인적자원 통계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2002)」, 「국가인적자원 통계정보 활용체제 구축사업(2002)」, 「졸업자 취업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2002)」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에서 「국가인적자원 통계정보 활용체제 구축사업」은 국내외 산재한 인적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활용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었으며, 「졸업자 통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은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의 취업통계를 파악하고,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이었다. 한편 2006년부터는 과거 교육통계연보에 대한 시계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도 이뤄졌다.

국가교육통계 조사내용 및 체제 개편 연구

인적자원조사통계체제 구축방안연구

국가교육통계체제 혁신 방안 연구(I)

1999.03.16~17.
교육통계담당자 연수회

OECD
교육지표

국제교육통계사업의 수행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제교육통계팀을 통해 OECD 등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관계 속에서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2000년 수행한 「국제교육통계 교류협력사업」에서는 우리나라 데이터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재정 분야의 데이터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이 외에도 국제기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매년 『OECD 교육지표 편역본』을 발간하기도 했다. 수탁 연구과제로 수행된 「OECD 국제교육지표 개발사업」은 교육과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였으며, 「OECD 교육지표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전망」 연구와 「OECD 국제교육지표 개발연구: 고등학교 국제조사」 등을 수행했다.

자료 발간 및 통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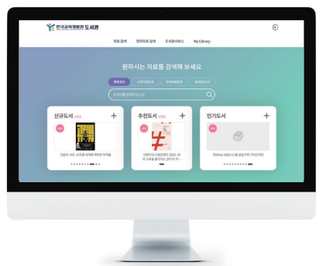
2000년대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은 매년 다양한 통계 자료집을 발간했다. 『교육통계연보』, 『교육통계편람』, 『간추린 교육통계』, 『OECD 교육지표 편역본』 등 기본적인 통계자료집과, 『교육통계분석자료집(2001)』, 『한국의 교육인적자원지표(2001)』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통계자료 서비스를 강화하는 한편, 교육통계와 관련한 온라인 문의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교육통계연보 및 각종 자료집을 웹 문서로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에 탑재했다.

03 쌍방향 방식의 디지털 교육정보자료 제공

2000년대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화', '지식정보', '쌍방향' 등이었다. 1990년대에는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단편적이고 정형화된 정보가 일방적으로 전달되었다면, 2000년대에는 지식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쌍방향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기술이 활성화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도서실 역시 이러한 큰 방향성에서 다양한 사업이 이뤄졌다.

교육정보자료 수집

정보통신 속도가 향상되고 디지털 자료가 다양해지면서, 도서실에서도 이용이 편리한 디지털 자료 수집을 확대했다. 특히 인쇄매체 외국학술지 구독을 전자저널 구독으로 넓혀,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자저널 데이터베이스인 「ProQuest Education Complete」를 구독하기 시작했다. 이 전자저널은 360여 종의 교육학 분야 디지털 원문정보를 제공하고, 660여 종의 교육 관련 저널의 색인과 초록을 수록하여 개발원 전체의 연구과제 수행에 큰 도움을 주었다. 또한 1980년부터 마이크로휫시 형태로 수집해 오던 ERIC의 원문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보급하는 「ERIC E*Subscribe」를 구독하여 관련 연구팀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게 되었다. 그밖에도 각종 이북(e-Book)을 구입한 뒤 전자메일을 통해 관련 연구팀에 제공했다.



전자도서관 메인화면

교육정보자료 제공

맞춤정보서비스 제공 | 2001년 교육학 분야의 대표적인 전자저널인 「ProQuest Education Complete」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학술정보 제공을 도모했다. 이 전자저널을 중심으로 전자도서관에 맞춤정보서비스 홈페이지를 만들고 연구과제별·연구원별 정보서비스 제공 체제를 갖추어 보다 효율적인 연구사업 수행을 지원했다.

해외교육동향 및 연구동향 제공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일간지 및 주간지에 게재된 해외 교육뉴스와 최신 교육연구 동향을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제공된 정보를 DB로 축적하여 검색이 가능하도록 교육동향 정보제공 체제를 시스템화했다.

KEDI서점 운영 | 연구보고서의 유료화 계획에 따라 이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KEDI서점 운영에 들어갔다. 당초 판매 부수에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개점 1년 만에 3,274권을 판매하는 등 예상 밖의 판매실적을 올려, 수익창출 및 기관 홍보에 크게 기여했다.

교육정보자료 관리의 전산화

2000년대 교육정보자료 전산화 작업은 기존 전자도서관을 개편하는 작업에 초점을 맞췄다. 기존 KEDILAS 시스템을 SOLAS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한편, 전자도서관 홈페이지를 보다 충실하게 보완했다. 또한 과거의 자료 전산화 작업이 주로 서지 데이터의 DB화 작업이었다면, 2000년대의 전산화 작업은 원문정보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연구보고서 300여 권과 옛 교과서 700여 권의 원문을 디지털화하였으며, 교과서 원문 DB는 교과서박물관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발해 서비스했다. 아울러 개발원에서 산출되는 지식정보를 축적하기 위해 연구그룹 시스템을 개발했다.

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및 자원협력

도서관 상호협력 체제 역시 2000년에 들어와 보다 진화했다. 도서관 간 협동목록, 상호대차가 성공리에 추진된 것은 물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주도한 자료 공동구매 컨소시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전자저널 구독의 예산 절감을 이뤘다. 또한 국회도서관과 자료 공동활용 협약을 맺어 원문정보의 공동활용 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아울러 2001년에는 개발원을 포함해 4개 교육연구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사업인 '통합정보검색시스템'이 개발되어 이용자들이 교육 관련 정보를 한번에 손쉽게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04 세계화·정보화에 따른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확산

세계화 및 지식기반 사회, 정보화의 확산

2000년대는 세계화,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 진흥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제교류가 이루어졌다. 특히 2000년부터 OECD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국제학업성취도 비교연구(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에서 한국이 핀란드와 함께 우수한 교육력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OECD 본부는 물론이고 유네스코를 포함한 다양한 국제기구와 국가들이 한국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의 연구본산 역할을 하는 교육개발원과 국제기구, 혹은 선진국 교육부문간의 교류협력이 촉진되었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동남아시아 및 유라시아, 중동 지역을 포함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 교류사업을 본격적으로 검토, 추진하였다.

2000년대 초반에는 개발원과 유네스코방콕본부 간의 정기적인 교류협력과 공동국제세미나를 통해서 유초중등교육 개혁에 대한 동남아시아 지역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연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또한 2003년에는 제주도에서 개발원과 아시아 및 유럽교육전문가 간의 '2003 Asia-Europe 고위급 교육포럼'을 통해 아시아 및 유럽국가 간의 미래교육 의제를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4.12.13.
KEDI-유네스코 방콕 국제 세미나

2000년대 전반에는 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 지역간의 다자 교육세미나도 개최하였다. 2003년 KEDI-ENERP 공동세미나는 8개국 교육학자가 참여하였으며, 2004년 KEDI-NCEDR 공동세미나와 2005년 KEDI-World Bank 국제포럼은 지식기반사회의 인적자원개발과 고등교육 개혁 등이 공통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2007년 개발원 창립 35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에서는 국제교육협력을 통한 아시아 국가의 발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아시아 교육학자들과 함께 '서울교육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2008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OECD 교육차관회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2005.
KEDI-World Bank 국제포럼

국제교육개발협력 연구 추진과 사업 실천

2000년대 중반 이후로는 개발원이 유네스코 및 OECD 등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류사업을 교육개발협력사업으로 전환하는 연구사업을 수행하였다. 2006년부터 유네스코 본부 및 방콕사무소가 주최하는 아세안 회원국에 대한 국제교사연수사업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였다. 또한 이 시기부터 스리랑카, 캄보디아, 중국, 몽골 등에 대한 교육협력연수사업을 착수하였고, 이런 축적된 성과를 국제교육개발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반영하였다. 2007년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는 교육개발협력을 위한 수요조사를 목적으로 해서 중국, 몽골,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교육을 본격적으로 분석하였다. 3년간 진행한 이 연구는 개발원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영역을 확충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중간 단계에서 중동지역 이슬람 기구를 활용하는 교육협력사업, 그리고 중앙아시아 및 남미지역 동포를 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을 추가 발굴하기도 하였다.

2007.08.29.
개발원 창립 35주년 기념 국제 학술대회 개최

한국의 교육발전경험공유사업 및 교육모델개발 보급

2006년부터 교육개발원은 유네스코방콕사무소와 교육개발협력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아세안 회원국의 교사 연수 및 세미나에 활용하는 방안을 실천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개발원이 35년 이상 한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연구 개발한 성과를 그대로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사업이 주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당시 한국이 개발도상국 신분을 졸업한 새로운 국제 기여 및 공여국으로서 OECD DAC(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가입을 앞둔 시기이기도 하였다. 한국의 발전역량을 배우고자 하는 개발도상국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서 바로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즉 발전경험공유사업을 수행하게 된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주로 국가발전을 위한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연구와 교사양성 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연구·보급하였다. 2008년부터 추진한 '한국형 교육협력모델'은 첫 번째 KSP 사업으로서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초중등교육 보편화, 교육정보화 육성산업, 직업훈련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등을 중심으로 영문판 책자를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경험보급사업은 이후 중동, 아프리카 및 중남미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전문가 연수사업의 실천활동 교재로 활용되었고, 2010년대 이후 교육부와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의 교육ODA 사업, 한국개발연구원·기획재정부의 KSP 사업과 연계하는 교육개발협력사업으로 발전하였다.

남북한 교육학술 분야에서 교류·협력 실행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면서 남북관계는 급진전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원도 남북한 화해 협력, 평화공존에 기초하여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2000년 이후로는 교육개발원이 교육 분야 남북 학술교류를 직접 주관하였으며, 연변대학 학술회의, 금강산학술회의 등으로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2003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으로 평양과 백두산에서 남북한 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2005년에는 교육개발원이 북한의 '조선교육후원기금'과 '남북교육협력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남북한 교육학술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북한교육 지원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북한의 교과서 용지를 지원하는 활동도 추진하였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2007년 12월에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으로 교육개발원과 북한 '조선교육과학원' 연구자 간의 금강산 학술대회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민족교육, 국제화, 정보화 관련 협력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Section 5.

글로벌 시대의 교육혁신에 매진하다

2009
2016

Chapter 1.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을 위한 연구 수행
01. KEDI 미래비전 선포
02. 미래교육 연구의 가동

Chapter 2.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및 학습자 존중 교육정책 개발
01. 공교육의 책무성 증진
02. 학생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03. 인성교육의 진흥 및 행복교육 추구
04. 교육취약집단 및 위기학생 지원
05.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적 지원

Chapter 3.
고등·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01. 대학 교육역량 강화
02. 고등·평생교육 국제경쟁력 증대
03. 고등·평생교육 학습성과 분석 및 제고
04.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Chapter 4.
교육통계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 실현
01. 국가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전문기관
02. 교육통계 조사방법 및 서비스의 고도화
03. 데이터 기반 연구사업의 확대

Chapter 5.
글로벌 교육 아젠다 선도
01. 교육 수여국에서 교육 공여국으로
02. 국제교육연구교류 활성화

Chapter 1.
교육혁신과 미래교육을 위한 연구 수행

01 | KEDI 미래비전 선포

새 정부 출범과 교육정책의 변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다. 특히 '인재대국'은 이명박 정부의 5대 국정지표 중 하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개혁이 활발하게 이뤄지기 시작했다. 새 정부는 인재 양성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흐름 속에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했으며, 이는 크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마이스터고, 특성화고를 취업중심학교로 육성하는 등 고졸 인재의 성공을 위해 노력했다. 둘째,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공정한 교육체제를 마련하고자 했다. 셋째, 창의성과 인성을 중시하는 학교교육을 구현하고자 했다. 넷째, 상시적인 대학구조개혁의 틀을 정립하고자 했다. 다섯째,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신장시키는 제도적 틀을 확립하고자 했다. 따라서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를 통해 지원하는 한편,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김태완 원장 취임과 새 경영계획 수립

2009년 10월, 한국교육개발원의 제15대 원장으로 김태완 원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공모를 통해 선임된 원장은 취임 후 경영계획서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라 신임 원장은 '프라이드(PRIDE) 경영'이라는 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경영계획은 ▲미래 한국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국가 교육정책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의 내비게이션 기능 강화, ▲기관의 연구·개발(R&D)

2012.08.30.
개원 40주년 기념식

역량 강화, ▲글로벌 교육연구 협력 추진 체제의 내실화, ▲교육정책의 수요자 만족도 제고, ▲동반성장형 조직문화 및 환경 구축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미래교육위원회가 구성되고, 한국교육개발원의 미래비전을 책으로 엮어 펴냈는데, 특히 '한국교육개발원의 국제화'를 강조하였다.

개원 4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12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은 개원 4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여 개발원은 2012년 8월 29일 세종문화회관에서 '학교 교육개혁의 국제 동향: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 중 하나로, 실제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는 주요국의 인사와 석학들을 초청해 자국의 교육개혁 사례를 발표하고 함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별세션으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주재한 '인재대국으로 가는 긍정의 변화'라는 주제의 토크쇼가 진행되었으며, 본 세션에서는 미국 연방 교육부장관 수석 보좌관, 독일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교육개발연구원 원장, 중국국립교육과학원(NIES) 원장, 전 일본국립교육정책연구원 원장 등이 주제 발표자로 나서 자국의 교육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하였다.

2012.08.29.
개원40주년 기념 심포지움 만찬

02 미래교육 연구의 가동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출범

그동안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 경제 성장을 위한 인력 양성에 초점을 두고 양적성장에 치우쳐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교육 패러다임은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인다. 단순한 지식암기나 훈련보다는 지식검색 및 접근능력, 문제해결에 지식을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하는 것이다. 상호 연결된 오늘날의 세계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통합적·총체적 교육의 특성은 국제화·인간화·미래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의 질적 성장 제고를 위해 2010년부터 미래교육 연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2010년 4월 23일 원장 자문기구로 '미래교육기획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미래교육기획위원회는 선진일류교육·인재대국 실현이라는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에 부응하는 한편,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한국교육의 중·장기 비전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아울러 교육 정책 및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과 대응전략을 수립하며, 한국교육개발원이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위상 및 역할을 제고해 나가는 데 토대가 될 그랜드 플랜을 마련하는 역할도 맡았다.

미래교육기획위원회는 학계 및 정부·민간의 사회인사 18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워크숍·월례특강·집담회 등을 통해 논의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선진 일류교육·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아젠더 발굴 및 대안 제시는 물론, 우리나라 중·장기적 교육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해 나갔다. 2010년 4월 23일 첫 회의를 가진 미래교육기획위원회는 같은 해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양평에서 '왜 창의적 인재양

2011.06.2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서울방송과 MOU체결

미래교육위원회 구성

성명	현직	성명	현직
김영길(위원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동대 총장	윤송이	엔씨소프트 부사장
권오준	포스코 부사장	이민화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KAIST 초빙교수
김세직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창경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 한양대 신소재공학과 교수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김현기	예비역 소장, 전 육군3사관학교 교장	이정모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및 인지과학협동과정 명예교수
류근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이종각	강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박문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	전길남	일본 게이오대학 특별연구교수, KAIST 명예교수
박종원	한국종합예술학교 총장	전상인	한국미래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원광연	KAIST 교수, 전 KAIST 문화기술대학원장	조장희	가천의과학대학교 석학교수 겸 뇌과학연구소 소장
유영만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
		홍영복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헤론예술디자인대학 부교수

성이 중요한가'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갖는 한편, 정기적인 월례 특강 내용을 개발원 홈페이지에 글과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교육미래연구포럼 운영

2011년 6월 29일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서울방송과 MOU를 체결하여,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포럼을 공동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개발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SBS와 함께 ▲미래교육의 이상과 가치 도출, ▲교육의 질 평가를 위한 다양한 포럼 의제 개발 및 논의, ▲포럼 의제와 연계된 연구과제의 기획·발굴 및 시행, ▲포럼을 통해 도출된 정책사업에 대한 기획 및 시행, ▲포럼성과의 사회적 저변 확대를 위한 언론 보도 및 각종 활동, ▲포럼 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행사 개최 등을 함께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 MOU 체결을 통해 개발원은 향후 교육문제의 근원적 해결방안 및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한국형 교육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미래교육의 비전 제시는 물론 중장기 국가적 어젠다 및 그랜드 플랜 마련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었다.

미래교육 관련 연구 추진

「고등교육 미래 비전 2040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2011)」 | 미래 국제사회의 변화와 이에 따른 한국사회의 변화 모습을 예측하고 고등교육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대한 면밀한 예측·분석을 토대로 '단기적 관점 → 장기적 관점', '일시적 발전 전략 →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 '독립적 정책과제 수립 → 연계·통합적 정책과제 수립'을 통해 고등교육 비전 2040을 제시하고자 했다.

2011.12.09.
미래교육기획위원회
'한국교육과 미래비전' 출판기념회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2011)」 | 2020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전망하여 교육적 이슈를 도출하고, 한국교육이 추구해야 할 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적 과제를 고찰하고자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이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사회적 처방(학벌주의 완화)과, 교육적 처방(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을 제시하였다.

국가교육의 장기비전: 향후 10년의 교육비전과 전략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

「학생 수 감소 시대의 미래지향적 교육체제 조성 방안(2015)」 |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학생 수가 감소하였으며 향후에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넘어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이 문제를 조망하고 대응방식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을 핵심 축에 놓고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체제가 미래지향적으로 재편된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어떤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지를 탐구하였다. 아울러 미래교육의 큰 방향 안에서 학생 수 감소에 대한 대응 방식도 제시했다.

2011.12.
한국교육 미래비전 출간

『한국교육과 미래비전(2011)』 | 발간지성을 넘어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인재개발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미래교육 시스템과 노하우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련 노하우를 어떻게 축적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12월 미래교육기획위원회의 각 분야 석학들이 공동으로 저술한 인재개발 정책제안서 『한국교육 미래 비전』을 출간하고 2011년 12월 9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출판기념회를 가

졌다. 이 책은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대해 미래교육기획위원회 위원들의 탁견과 혜안을 담은 인재개발지침서이자 정책제안서로, 이후 미래교육 관련 연구에 다양한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한국교육 미래 비전』 세부 주제 및 필자

- 21세기 대학교육의 새로운 방향: 분리에서 통합적·총체적 국제화교육으로 (김영길 위원장)
- 한국의 사회적 과제와 창의적인 글로벌 인재양성 (김태완 원장)
- 혁신에서 창조로 (김창경 위원)
- 융합형 인재가 희망이다: 지식융합, 기술융합, 산업융합의 물결이 몰려온다 (이인식 위원)
- 창의성 개념의 21세기적 재구성 (이정모 위원)
- 당신과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교육 뉴스 (이종각 위원)
- 가르치지 않는 교육에는 미래의 희망이 없다 (전상인 위원)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미래 과학기술교육의 방향 (조장희 위원)
- 21세기 창의적 인재상과 인재양성의 방향 (최상덕 실장)
- 자연과학 학습 (박문호 위원)
-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미래교육의 방향 (권오준 위원)
- 21세기 인재상, 브리콜뢰르형 인재: 독창적 인재에서 협창적 인재로의 전환 (유영만 위원)
- 영재기업인(IP-CEO) 프로젝트 (이민화 위원)
- 대학의 역사와 인성교육, 인문학 (이배용 위원)
- 목표지향적 자기계발 프로그램 (김현기 위원)
- 디자인 관점에서 바라본 창의력의 의미와 교육방법 (홍영복 위원)
- 미래 구상을 위한 학자의 역할 (Richard Ernst 교수)

'2013년 대한민국 미래학교 시상식' 개최

'미래학교'란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창출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학교교육을 위한 패러다임을 모색하며, 미래사회의 성숙한 시민을 육성하는 데 적합한 학교를 의미한다. 개발원은 미래학교가 지향해야 할 가치로 교육의 창의성·사회성·수월성·형평성·다양성을 설정하였고, 2013년부터 이러한 가치에 부합하는 학교를 선정해 시상하였다.

첫 미래학교 시상식인 '2013년 대한민국 미래학교'에는 경북 이산초등학교, 인천 영종중학교, 충남 공주여자고등학교, 제주 중앙여자고등학교 등 총 4개교가 선정됐다. 개발원은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초·중·고 총 43개교를 추천받아 이들 학교에 대한 서면, 발표, 현장방문, 최종심의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4개 학교를 최종 선정했다. 첫 미래학교 선정 이후, 개발원은 향후 10년간 100개의 학교를 발굴하여 한국교육의 질을 제고하기로 하고, 지속적으로 미래학교 시상식을 이어나갔다.

2013.12.17.
2013년 미래학교 시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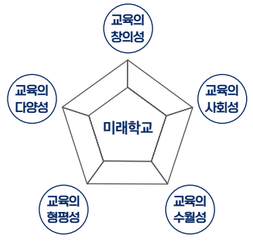
2014.02.07.
미래학교 선정 현판식(인천 영종중학교)

미래학교(Better School) 개념 체계도

비전 — 성숙한 시민 육성, 성숙한 사회 실현

목표 — 미래사회 인재상
- 고차적 인지능력을 가진 인재
- 대인관계 능력을 가진 인재
- 자기관리 능력을 가진 인재

지향 가치



Chapter 2.

공교육의 책무성 강화 및 학습자 존중 교육정책 개발

01 공교육의 책무성 증진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 수행

교육부는 2009년 2월 '2008 사교육비 조사결과 분석 및 대책'을 발표하고, 신규 추진과제에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 사업'을 포함시켰다. 이 사업은 사교육 없이도 다양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2009년 3월 20일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6월 15일 '사교육없는학교 지원특임센터'를 신설하고, 신규학교 선정, 사업운영, 실태조사 및 평가, 홍보 등 관련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다. 총괄 운영 기관으로서 개발원은 2009년 4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 전국 457개 초·중·고를 선정하여 총 600억 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컨설팅 지원팀을 구성해 457개 대상학교 운영을 도왔다. 아울러 개발원은 2010년 12월 『사교육 관련 선행 연구 초록집』을 발간하였다. 이 초록집에는 각 주제별 사교육 진단 및 대책 방법들이 광범위하게 요약 수록되어 이후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을 주었다.

사교육 관련
선행 연구 초록집

시·도교육청 평가를 주관하다

시·도교육청 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하여 시·도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교육의 분권화 자율화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책무성 확보를 위해 시작되었다. 개발원은 2010년 1월 시·도교육청 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평가 결과를 매년

『시·도교육청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리하였다.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의 경우, 학교정보공시, NEIS 등 공개정보(data)를 활용한 교육성과(outcome) 중심의 정량 평가로 실시되었다. 특히 평가지표수 축소 및 단순화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의 평가 부담을 대폭 경감시켰으며,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학교단위 성과를 중심으로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청 차원의 성과를 추가함으로써 시·도교육청의 책무성을 증진하고자 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주요 정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총 48개 주요 정책과제 중에서 5개 우수사례를 선정하였다.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사교육없는학교 지원사업에서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 2009년 시작된 '사교육 없는 학교'는 2011년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창의경영학교'란 교육과정, 인사, 재정 운영 등의 자율성을 토대로 한 학교 단위 자율·책임 경영을 통해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지향하는 학교를 의미한다. 이 사업은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학습할 수 있도록 자기 주도 학습 능력을 길러주고, 학원이 아닌 학교가 학습의 주축이 되는 학습공동체 학교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발원은 창의경영학교의 유형을 학력향상형, 사교육절감형, 교육과정혁신형, 자율형 등 4가지로 구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공통 과제와 중점 과제를 수행했다. 공통 과제로는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과 '창의·인성 교육'을 설정하였으며, 중점 과제로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학생 학습 지원 및 성과 관리', '학교장 리더십 및 교원 능력 개발', '학부모 및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을 설정하였다. 그 결과 1차년도 사업 대상 학교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16% 경감되었으며, 사교육 참여율도 14.7% 감소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2013.05.23.
2013 사교육절감형 창의경영학교
중앙 컨설팅단 연수회

창의경영학교 건강증진모델 사업 | 교육부는 학교보건정책 패러다임을 학교 구성원 전체가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학교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건강증진학교'로 전환하고, 2012년부터 건강증진모델학교를 100개교씩 지정·운영함으로써 건강한 학교 조성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갔다. 해당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은 2012년 1월 기관 내에 운영 전담기관을 설치하였다. 건강증진모델학교는 저 출산시대의 소아청소년이 보다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 스스로 학교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해나가도록 유도하는 사업으로, 개발원은 건강증진모델 창의경영학교를 통해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였다.

일반고역량강화사업 추진

전체 고교생 중 대부분이 일반고에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만족도나 목표의식은 낮게 나타났다. 실제로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떨어진 학생들이 일반고에 진학해 열패감으로 시작하거나, 직업교육을 희망해서 특성화고를 지원했다가 탈락해서 일반고에 온 학생들이 목표의식을 잃고 방황하기도 했다. 일선 교사들 역시 일반고 학생들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고 학생 개개인이 원하는 진로가 매우 다양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2013년 10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고교교육력제고사업'을 일반고역량강화사업으로 전환하였다.

이 사업은 ▲일반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선택과목 및 프로그램, 진로집중과정 등을 제공하여 일반고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진로와 연계된 교육을 강화해 일반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만족도를 제고하는 한편, ▲일반고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꿈과 끼를 살리는 교육을 제공하여, 학교와 교실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행복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당 사업 전반을 추진하면서 '현장지원단'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사례를 취합하여 새로운 일반고 도약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일반고역량강화사업 목표 및 기본방향

목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를 통해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
기본 방향	•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성 확대 • 일반고 교육 만족도 제고 • 일반고 학생의 교육선택권 확대 •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

02 학생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연구·지원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 사업 수행

교육과학기술부는 획일적 입시교육에서 벗어나 학교가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생이 직접 선택하는 교육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 2009년 12월 10일 「고등학교 선진화를 위한 입학제도 및 체제 개편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11학년도부터 외고, 국제고, 과학고, 자율형 사립고 등이 내신성적과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도입하여 72개 학교에서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개발원은 2011년 1월 18일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은 그동안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의 학생 선발방식이 야기해 온 과도한 사교육 유발요인을 최소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의 잠재력 계발과 자기주도 학습역량 배양에 적합한 전형방식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의한 학생 선발방식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았다.

-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등 특목고와 일부 자율형 사립고에 지원하는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신입생의 20%는 사회적 배려대상자로 선발하되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다.
-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으로 준비할 수 없는 학교 밖 경시대회 수상실적, 토플·텝스·토익 등 인증시험 점수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을 폐지하였다.
- 학교별 필기고사를 금지하고,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과 심층면접(영어면접)을 금지했다.
- 지원 학생이 제출한 학습계획서, 학교장 및 교사추천서 등을 활용하여 개인의 자기주도 학습능력과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전형과정에 입학담당관이 참여하는 입학전형 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도록 하였다.
- 면접은 자기주도 학습과정 및 진로계획, 봉사·체험활동 결과, 독서 활동 등 자기주도 학습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한편 개발원은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자기주도 학습전형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현장 착근을 위한 정책연구(2011)」 |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학교현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전형의 현장 적용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운영 보완 방안

「고입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운영 보완 방안(2011)」 |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추진 현황 및 성과, 현장 적용실태 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자기주도 학습전형 제도의 운영 개선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유학기제 연구 및 현장 혁신 지원

자유학기제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 공약으로,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교육과 창의교육을 구현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실천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방안이다. 교육부는 2013년 4월 자유학기제의 본격적인 확대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을 자유학기제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했다. 개발원의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는 크게 기획, 교수·학습지원, 성과확산, 콘텐츠 개발, 성과분석의 5개 팀으로 구성되었으며, 2013년 11월 14일 자유학기제 발전방안 탐색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관련 연구 및 현장 혁신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다.

2013년 42개 연구학교에서 시작된 자유학기제는 2014년 총 811개의 학교(연구학교 및 희망학교)에서 운영되었다. 2015년에는 전체 중학교의 약 80%인 2,551개 학교들에서 자유학기제가 운영되었으며, 2016년부터는 모든 중학교로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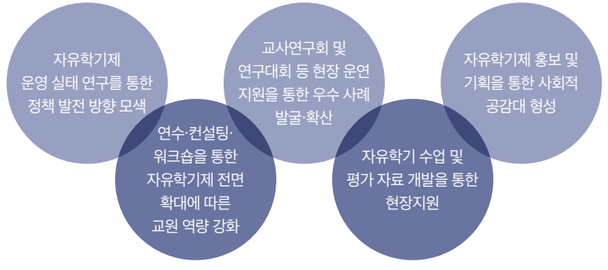
2013.06.0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사업 운영의 비전·미션·전략

비전 꿈과 끼를 키우는 교육을 통한 행복하고 창의적인 인재 양성

목표 자유학기제를 통한 중학교 교육의 개혁

전략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2013)」 | 자유학기제 도입 초기에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나 우려가 컸다. 이에 개발원은 2013년 「자유학기제 실행 방안」 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목적과 방향을 명확히 정립하고, 자유학기제의 실행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사례 분석을 토대로 '행복하면서도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실행 전략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2014)」 | 자유학기제가 단기적인 정책으로 소멸되지 않고 교육 전반의 변화 계기를 마련하는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도 정책의 초기 방향을 명확히 하고 초기의 운영 및 준비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다. 이 연구는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해서 자유학기제 정책의 이론적 모형을 정립하고 현장의 자유학기제 운영 및 준비 실태를 파악하여 자유학기제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방안 연구(2015)」 | 교육부의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실시 계획 발표에 앞서, 자유학기제의 전면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3년부터 2년 동안 시행된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 성과의 심층 분석과 함께 설문 조사, 델파이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 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분석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 초·중·고 운영 확대를 중심으로(2016)」 | 2016년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 시작된 이후,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고 행복교육을 지향하는 자유학기제의 긍정적인 성과들을 교육적 결실로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방향 탐색과 추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다. 이 연구는 초·중·고 교육체제 전반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자유학기제의 중장기 추진 전략과 방안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밖에도 개발원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사례연구, 자유학기제 종단연구, 자유학기제 운영 만족도 조사, 자유학기제 여론조사,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실태조사, 자유학기 수업 및 평가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자유학기제 전면 확대 지원을 위한 연수 및 컨설팅, 워크숍, 국제세미나 개최 등 자유학기제 확대·발전을 위한 다양한 연구 및 사업을 진행하였다.

2013.09.26.
제1차 자유학기제 포럼

2013.03.09.
KEDI·중앙일보 공동 기획
'자유학기제, 중학생들에게 듣다' 집담회

03 인성교육의 진흥 및 행복교육 추구

창의·인성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창의성을 새롭고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한다면 인성은 이러한 창의성을 사회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인성교육이 강조되기 이전부터 창의·인성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해 왔다. 특히 2014년부터는 창의경영학교지원특임센터,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 등 4개의 사업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창의·인성교육지원센터'라는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 운영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인성교육 연구 및 지원 활동은 정부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보다 활발해졌다. 정부는 학교·가정·사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 수립,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의 내용을 담은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하고, 2015년 1월 20일 공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개발원은 여러 부서로 나뉘어 있던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사업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2015년 3월 '창의·인성교육연구실'을 설치하였다. 창의·인성교육연구실에서는 기본연구 사업, 인성교육 사업, 방과후학교 사업, Wee프로젝트 지원 사업, 자기주도학습전형 지원사업 등을 수행했으며, 그동안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창의·인성교육을 새롭게 디자인하는 데 기여했다. 아울러 개발원은 교육현장의 인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인성측정도구 개발 및 전국현장 보급'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해나갔다.

2013.12.03.
2013 대한민국 인성교육 실천 한마당

정부의 '행복교육' 정책 지원

사회적 성공을 위한 학력·학벌 획득이 학교교육의 실질적 목적이었던 한국사회에서 '행복'이라는 개념을 교육과 연계하여 사고한 적은 거의 없었다. 따라서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공교육의 비전으로 '행복교육'을 설정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하나는 최초로 정부의 공식적인 교육 비전 혹은 목표에서 학생을 중심에 위치시켰다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경쟁력 제고나 창의인재 양성 등 거대하고 추상적인 수준의 목표에서 벗어나서 '행복'이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으며,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보다 구체화된 목표를 지향했다는 점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부터 정부의 행복교육 비전 실현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였다.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모형 탐색(2013)」 | 행복교육의 개념 정의와 목표 설정에 기초하여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 모형을 수립하고자 행복 개념에 대한 다각적 검토를 통해 행복교육의 개념과 목표를 규정하였으며, 행복교육 관련 정부 정책과 민간 부문의 사업 동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학생들의 생활에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생의 행복 수준, 학교생활 실태 및 학교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았다.

행복교육 현장토론회 개최 | 2013년 5월 20일 열린 제1회 행복교육 현장토론회는 중앙 및 지방의 정책당국, 유관기관 그리고 학교현장의 교육공동체들이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에 대해 현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 진단하고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서 그 결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 교육부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꿈, 끼, 행복이라는 주제로 교육현장의 변화를 생생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전국의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행복학교박람회'를 2010년도부터 개최하였다. 이 박람회는 2013년 '행복학교 박람회'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2016년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를 개최하였다. "꿈을 찾아 떠나는 행복교육여행(Hi Dream, My Happiness)"이라는 슬로건 아래 열린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는 교육 분야 종합 박람회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각 단위학교 및 대학이 4년간 추진해온 6대 교육개혁과제의 성과를 한곳에 모아 국민에게 홍보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인재 육성의 교육목표를 온 국민과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이 행사는 주요 교육정책으로 인해 달라진 교육현장의 모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등 6대 교육개혁 과제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를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2013.07.12.
행복교육기부박람회

04 교육취약집단 및 위기학생 지원

위(Wee) 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운영

'위(Wee) 프로젝트'는 위기 학생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시작되었다. 학교 상담에서 '위기'라는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08년 3월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학교안전관리통합시스템 구축' 사업부터였다. 그리고 같은 해 4월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학교 폭력과 위기 학생에 대한 대처 맥락으로 'Wee 프로젝트' 정책이 추진되었다.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감성)'의 이니셜이며, 여기에 하트 형태를 접목시킨 브랜드다. 둥근 원은 학교를, 하트는 사랑의 서비스를, Wee는 우리들의 감성 공간을 각각 의미한다. 즉, 'Wee 프로젝트'는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연계된 다중 안전망을 통해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새 시대의 학생 생활지도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프로젝트는 위기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위해 지역 교육청 수준의 'Wee 센터 중심'의 모

델로 진행되었으며, 일선학교의 Wee 클래스 구축과 함께 기존의 '친한 친구 교실'의 연장선상에서 함께 운영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 8월 1일 위(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이후 관련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2011년에는 Wee 프로젝트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Wee 프로젝트 운영 모델 개발 연구」를 수행하여, 문헌연구 및 현장전문가들의 의견과 워크숍 및 자문을 통해 새로운 모델을 구성해 제안하였다. 새로운 운영 모델은 분석과 상황, 전문가 의견에 근거하여 5가지 기본 방향을 구성하였고, 이에 맞추어 조직과 역할, 연계들을 구체화하였다.

2012.04.
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워크숍

위 프로젝트 구성 체계

학습부진, 따돌림, 대인관계 미숙, 학교 폭력, 미디어 중독, 비행 등으로 인한 학교부적응 학생 및 징계대상자

- 단위학교에 설치
- 학교부적응 학생 조기발견·예방 및 학교 적응력 향상 지도

단위학교에서 선도 및 치유가 어려워 학교에서 의뢰한 위기 학생 및 상담 희망 학생

- 지역교육청 차원에서 설치
- 전문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진단-상담 치유 원스톱 서비스

기숙시설에서 전문적 상담 개입과 학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개입이 요구되는 학생 또는 학업중단자

-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설치
- 장기적으로 치유가 필요한 고위기군 학생을 위한 기숙형 장기위탁교육

학교폭력 관련 연구 및 지원

학교폭력이 점차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현장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 발생 실태 및 관련 인식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학교별 학교폭력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폭력대책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부터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연 2회 실시되었으며, 개발원은 2012년부터 해당 조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2년 7월 6일에는 개발원이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활동 및 연구를 확대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2년 9월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특임센터'를 설치하여 학교폭력예방 연구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16년에는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학교폭력예방 연구사업은 물론 Wee 프로젝트 운영사업 및 건강증진학교 운영사업 등을 운영하는 센터로 확대하였다.

2014.1.14~15.
어울림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 연수

2015.10.15.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방안 모색 국제포럼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Ⅰ)(Ⅱ)(Ⅲ)

개발원은 학교폭력 예방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학교폭력예방 기초 및 정책 연구, 어울림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학교폭력실태조사 실시 및 분석, 학교폭력 예방 컨설턴트 양성 및 지원 등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밖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의 성과와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각급 학교 등 교육현장에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등을 보급하고, 학교폭력 실태와 예방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제안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방안 연구(Ⅰ)(Ⅱ)(Ⅲ)(2014~2016)」 | 학교폭력예방문화 지수를 개발하여 초·중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 실태를 진단·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는 단위학교의 학교문화 실태와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 결과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토대로 교육청과 교육부가 단위학교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되면서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학교폭력예방 관련 국제포럼 개최 | 2015년 10월 15일에는 서울삼정호텔에서 한국, 노르웨이, 일본 등 국내외 학교폭력예방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KEDI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이 국제포럼은 우리나라와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국의 학교폭력예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효과적인 정책방안을 모색,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교현장에서의 학교폭력예방문화 정착을 위한 발전방안과 과제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다문화 협동 연구 진행

「다문화가족의 자녀교육 역량 분석 및 지원방안(2009)」 | 인터뷰를 통해 자녀교육과정에서 다문화가족이 흔히 직면하는 과제뿐 아니라 이에 대한 대응양상을 파악함으로써 현재의 자녀교육 역량 증진 및 발전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이를 다루는 데 있어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적 차원 뿐 아니라 한국인 남편 등 가족원과의 관계, 자녀교육에 관한 요구를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는 사회적 차원의 역량을 총체적으로 파악하였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Ⅰ)(Ⅱ)(Ⅲ)(2009~2011)」 | 우리사회의 다문화사회로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여러 문제점에 체계 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현황과 문제를 지적하고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방안을 탐색하였고, 2차연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성인양육자와 자녀 모두를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 방안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리고 마지막 3차연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구성하는 성인양육자와 자녀 모두를 위해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을 시범적용하고 모니터링을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내용 및 운영상의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기초로 프로그램의 완성도 및 현장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방안 탐색 및 프로그램 개발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2012)」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증가 추세가 수나 비율로는 초등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지만 증가율로는 중등 학령기가 높은 현실에 주목하여, 중등학령기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학교교육 기회, 교육 경험, 진로 등의 실태를 알아보고 필요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 및 연구

개발원은 2009년 8월 10일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9년부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탈북청소년 교육 종단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서 ▲탈북청소년의 학교 및 사회적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탈북청소년의 교육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동시에 ▲탈북청소년의 적응 과정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공개하여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10년의 기초연구에서 연구 설계 및 조사지 개발을 실시하였고, 이후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반복 조사를 통해 탈북학생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심층 분석하였다.

2010.10.19.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도교육청 협의회

2013.10.15.
제1차 탈북학생 교육 포럼

탈북청소년의 교육 종단연구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운영

방송통신중학교는 중학교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방송·정보통신을 활용한 수업과 연간 20일 이상의 출석 수업을 통해 중학교 학력을 취득할 수 있는 정규학교다. 이는 정규중학교를 대신하는 대체제로서의 성격과 정규중학교의 일부 기능을 수행하는 보완제로서의 성격을 모두 갖고 있다.

1973년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후속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못하였고 교육법이 폐지된 후 표류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1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다시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계기로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과 함께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위하여 법령 개정, 예산 지원, 제 도 개선, 관계 기관 협의, 온라인 콘텐츠 및 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였다. 특히 개발원은 기존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에 대한 연구 및 세미나를 추진하였고, 방송통신중학교 설치를 위한 법령 개정 지원, 운영 모형 개발, 운영 요람 개발, 온라인 콘텐츠 개발, 온라인 교육시스템 개발, 관계 기관 협의회 개최, 시·도 방송중학교 설치 컨설팅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개발원은 2012년 11월 29일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위탁을 받아 방송통신중학교 운영 업무를 시작하였다.

방송중·고 운영사업 추진 체계계도

교육복지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

정부는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교육취약집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복지 연구들을 진행했으며, 특히 2009년부터는 교육복지연구센터를 신설하여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였다.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 방안 연구(2010)」 | 학업중단자로부터 유발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려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개입을 통해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학업중단 위기에 빠져 있는 재학생의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그들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2011)」 | 교육복지 유관 정책 사업들이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유사한 목표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부처의 교육복지 정책 사업의 운영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 체제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2014)」 | 기존 교육정책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 집중한 연구로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애진로개발상의 성장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교육복지 사업의 현장 이양 및 기초 연구 수행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양극화와 다극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통합 과제의 중요성이 점점 커짐에 따라 현장 자율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교육복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이에 정부에서는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인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안정적인 일반교부금으로 변경하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였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시·도에서 기존의 사업 성과를 계승·발전시키면서 원활하게 자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법제화, 재정 확보와 배분 방안 마련, 추진 체제와 그 역할에 관한 논의, 관계자 전문성 함양을 위한 자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연구(기초연구,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2008, 2009, 2011, 2012)」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면서 성과 기제를 밝혔으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제도화 방안 연구(2011)」와 「현장 중심의 자율적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추진 방안 연구(2011)」를 통해 현장 중심의 사업 제도화 방식과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체적으로 관계자 역량을 강화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교육복지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Ⅰ)(Ⅱ)(2013-2014)」을 제공하였으며, 이후 사업 비전 및 발전 모델 수립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해외 교육복지정책 연구(2012)」를 통해 참조할 수 있는 사례를, 「교육공동체를 지향하는 교육복지의 발전 과제(2013)」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과 과제를 제공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학습·문화·체험·심리·정서·복지 등 학생 성장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교 안팎 삶 전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학교의 역할을 비롯하여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교육공동체 모델 등을 개발하였다.

2014.07.14.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심화 워크숍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

이러한 복합적이고 통합적인 모델은 위(Wee)프로젝트, 방과후학교 및 방과후 돌봄, 진로교육, 마을교육공동체, 혁신학교, 기초학력 보장 등 후속적으로 이어진 정책사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사업의 이양 이후에도 교육의 격차, 양극화, 신소외계층 등에 관심을 가지고 현황과 실태, 정책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및 정책 연구를 꾸준하게 수행하였다.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2011)」 | 해당 연구는 교육복지 유관 정책사업들이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추진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유사한 목표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부 부처의 교육복지 정책사업의 운영 실태를 양적·질적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실태 및 지원 방안(2012)」 | 이 연구는 중등학교의 다문화가정 학생의 증가율이 높아짐에 따라 중등학교에 진입한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교생활이나 적응 현실이 어떠한지, 나아가 필요한 정책적 대응으로는 어떤 게 있을지 살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로서,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현실이나 실태 분석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정책적 쟁점을 짚고 학교교육 기회의 보장, 제도교육에 적응 지원, 진로 설계 지원, 통합적 체제 등의 차원에서 정책을 제안하였다.

빈곤층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빈곤층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 분석 및 정책 대응 방안: 사회적 자본 형성을 중심으로(2013)」 | 해당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빈곤층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 증진을 통해 빈곤층의 학생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지, 사회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은 무엇인지 등을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2014)」 | 이 연구에서는 기존 교육정책에서 크게 고려되지 않았던 '학교 중단 청소년들'에 집중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생애진로개발상의 성장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05 교육시설 환경 개선에 대한 전문적 지원

교육시설은 다양한 교육정책이 학교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고 원활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물리적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시설사업은 정부, 교육청, 학교, 전문가,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의사결정 주체들이 참여하여 기획, 설계, 시공, 운영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장시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건립 후 급 격한 사회변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안전성, 쾌적성, 경제성 등 다양한 측면의 고려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

교육시설의 선진화를 통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은 2006년 6월 교육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기관 내에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EDUMAC)를 설립했다. 이 센터를 통해 개발원은 교육시설환경의 선진화를 위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 개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교육환경보호 제도, 학교설립 및 적정규모, 학교안전 및 셉테드(CPTED), 교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등 다양한 정부시책 사업의 전문적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시설 포럼과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및 연수, 그리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교과교실지원센터 및 학교선진화지원센터 개소

교과교실제란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교사가 이동해 수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교과별로 교사들이 전문 학습 자료를 준비, 특성화된 교실로 학생들이 이동하며 수업을 듣는 방식을 말한다. 교과교실제 도입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도입·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2009년 교육부는 '교과교실제'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시범학교 647개 학교를 선정하였다. 이러한 교과교실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공간구성 및 다양한 학습공간을 구축하고, 학생 중심의 탄력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물론, 교원 및 행정 인력의 지원도 필요했다. 아울러 지속적인 학교연수와 현장 맞춤형의 컨설팅도 필요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09년 8월 25일 교과교실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9월 기관 내에 교과교실지원특임센터를 설치하여 교과교실제 확대·발전을 위한 여러 활동을 수행하였다. 이 센터는 2010년 9월 학교선진화지원센터로 확대·개편되었으며, 이후 '교과교실제' 및 '기초 및 심화과정 도입 등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 정책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교육과정 및 시설부문 컨설팅, 학교장 및 교원 연수, 관련 정책연구 등 현장 밀착형 전문 서비스를 전개하였다.

교과교실제
운영 실태 및 발전방향

2013.04.05.
교과교실제 국제포럼

2006.06.14.
교육시설 BTL사업의 안정화 심포지엄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 지정

개발원은 2010년 기획재정부로부터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련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가 추진하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사업 전반에 걸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개발원은 전문기관으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서 정한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와 결과 검토, 시설사업기본계획(안) 검토, 실시협약(안) 검토, 재무모델 변경사항 검토 등을 수행하였다. 이어서 2014년 5월에는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관련 업무를 더욱 확대하였고, 2015년 3월 12일에는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이후 개발원은 초·중등학교시설에서 국립대 생활관과 학교시설 태양광발전시설, 그리고 사립대학시설까지 민간투자사업 지원 영역을 확대하여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신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운영성과 평가시스템을 개발해 일선 현장에 무상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민간투자사업 운영에도 기여하였다.

Chapter 3.

고등·평생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

01 대학 교육역량 강화

1980년대부터 증가 추세에 있던 우리나라 고등교육 인구는 1990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세계에 유례없는 높은 취학률을 자랑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으로 이른바 '보편적 단계'의 한국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고,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학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연구(2011)」 |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외국의 정부 정책 동향과 대학의 우수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대상국가는 일본, 미국, 호주, 영국, 독일 등 5개 국가였으며, 이들 국가의 대학교육역량 강화 사업 관련 정책을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검토하고, 동시에 대학의 교육역량을 강조한 정부 사업의 목표, 재정지원 및 운영방식 등이 대학 교육의 질 제고에 미친 영향을 살피며 이에 대한 정책 제언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연구(2014)」 | 고등교육에 대한 개인적 수요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로 입학(Input) → 교육과정(Process) → 졸업과 졸업 후 결과(Outcome)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어떤 기대와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 대학의 사례와 국내의 우수 교육 사례를 분석하고 대학교육 정책 주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기관이 스스로 학생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변화의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대학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동향 분석 연구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의 교육운영체제 개선방안 연구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체제 혁신 방안 연구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방안 연구(2014)」 | 정부의 산학연계 정책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외에서의 산학연계 정책 및 대학운영 사례를 비교하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권역별로 국내 대학의 우수 산학연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살펴보았다. 나아가 산업체 대상 설문조사와 대학 및 산업체 전문가 면담조사를 통해 산학연계 강화를 위한 대학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과 과제를 도출하여 대학 교육과정 개선방향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대학,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제시하였다.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체제 혁신방안 연구((2016)」 |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체제 혁신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정책 동향과 고등교육에서 양성해야 할 창의 인재 개념에 대해 분석하고, 실제 대학의 창의 인재 양성 현황, 국내외 고등교육 혁신 사례 분석, 체제 혁신에 대한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고등교육 체제 혁신방안을 도출하였다.

02 고등·평생교육 국제경쟁력 증대

국제화는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제고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었으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기반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대 들어 대내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외적으로는 고등교육 시장 개발에 대응할 수 있는 견고한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개발원은 고등교육실의 연구사업으로 대학 국제화, 대학생 교류, FTA 등 고등교육 국제화와 시장개방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교육개발원 내 국제협력실, 국제비교연구실에서 외국의 교육 및 연구 기관과의 협력 사업과 교육 ODA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관련 연구를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전문기관 지정

OECD DAC 가입 및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형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공적개발원조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요구에 꾸준히 부응해왔다. 2010년대 들어서는 정부주도의 국제개발협력에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고 수원국과 함께하는 대학-전문대의 국제개발협력 발굴·확산이 요구되었다. 이에 정부는 지역별 국제개발협력 선도대학 육성을 통해 한국형 교육 지원모델을 발굴·확산하고 개도국 협력거점 및 교육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했으며, 대학 자원의 총체적 활용 및 현지 수요를 반영한 국내-수원국 대학 간 개발협력을 통해 대학의 ODA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2012년 한국교육개발원을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였으며, 개발원은 동 사업을 추진할 전담 기관을 설치하고 추진위원회 운영, 사업 관리 등 관련 활동을 전개하였다.

고등교육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 활동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 개발 연구(2007)」 | 국가 및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 수립과 실행 및 평가의 기반이 되는 고등교육 국제화 지표 및 지수를 개발하고자 수행되었다. 아울러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바탕으로 국내 고등교육기관의 국제화 현황을 조사하였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유치모델 및 기준 연구(2011)」 | 일본과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카타르 등 해외의 외국 대학 유치 사례와 당시 우리나라에서 운영 중인 STC-Korea, 개교를 앞둔 FAU-Busan, SUNY-Korea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유치 경위 및 유치 과정과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외국대학 유치 모델 및 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질 보증을 위한 제도 개선(2012)」 | 국가 간 고등교육 시장의 개방 및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통용이 가능한 국가간 질 보증 체제가 요구되었다. 이에 미국, 호주, 일본 등 활발하게 외국대학 분교를 유치하고 있는 국가의 질 보증 시스템을 분석하고, 외국교육기관의 질 보증 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2013)」 | 고등교육 국제화를 추진하는 실질적인 주체는 대학임에도 불구하고 대학 차원의 국제화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어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고등교육 국제화 정책이 대학 수준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고등교육기관 스스로가 국제화를 꾀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03 | 고등·평생교육 학습성과 분석 및 제고

대학의 교육 여건 및 인적, 물적 투입 자원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비교적 활발하게 이뤄졌으나 교육의 과정, 특히 교수학습의 과정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개발원은 2010년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연구」를 비롯한 여러 관련 연구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과 학습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한국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Ⅰ)(Ⅱ)(Ⅲ)(2010~2012)」 | 한국 대학생들의 학습과정 분석을 위한 표준화 조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3개년 계획으로 해당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1차년도에는 대학생 학습과정의 개념과 구성요소 정립, 대학생 학습과정 조사도구 개발 및 조사, 한국 대학생의 학습실태 분석(설문조사, 학습일지) 등을 진행했으며, 2차년도에는 조사 규모를 보다 확대하고, 대학의 교수학습 개발센터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조사도구 개발의 타당화 작업을 수행했다. 이후 3차년도에는 조사도구 표준화 과정의 일환으로 3개년간 실시한 전국 규모의 조사 결과를 시계열로 분석, 제시하였으며, 이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에서 자체 컨설팅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0.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 연구(I)

2009.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 연구(I)
- OECD AHELO 사업 참여를 위한
실천 전략 탐색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사업(AHELO) 연구(2009~2013)」 | OECD AHELO 사업은 국제적으로 비교가능한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를 실시하여 대학교육의 질과 성과에 대한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산출하고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교수·학습의 질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OECD는 본사업에 앞서 실행가능성 평가를 추진함으로써 고등교육 학습성과 국제비교평가의 과학적·실행적 측면의 실현가능성을 점검하고자 하였다. 정부는 2008년 12월 실행가능성 평가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한국교육개발원을 사업 주관기관으로 정해 동 사업을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추진하였다. OECD AHELO 사업은 대학생의 일반역량을 측정해 국제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선구적인 연구였으나 실행 가능성을 탐색하는 단계에서 중단되었고, 이후 본 사업이 시행되지는 못했다.

「대학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연구 1주기(2013~2017)」 | 이 연구는 대학의 교수·학습 실태 분석을 통해 대학교육의 역량 및 질 제고를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었으며, 1주기 연구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수행되었다. 기존 3년간(2010~2012년) 개발한 '한국 대학생의 교수·학습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전국 규모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데이터에 기반한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방안을 제안하였다. 특히 1주기 연구를 통해 대학과 협력적인 연합조사체제를 구축하고, 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을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공유할 수 있었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교원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2016) | 이 연구에서는 대학교원의 임용, 근무여건, 책무수행 등과 같은 주제 및 현안이 가지는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대학교원의 데이터를 보다 다각도로 수집하고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한편,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2016) | 이 연구는 OECD 고등교육체계 성과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한 국가의 고등교육의 노동시장 성과를 파악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하고자 했다. 2016년 기초연구에서는 OECD 고등교육 성과개선 사업의 효율적인 참여를 목적으로 사업을 이해하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담았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2017년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연구: 한국 사례를 중심으로(2017)」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그에 걸맞은 체제를 갖추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노동시장의 적합성 및 성과라는 차원에서 조망하였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대학교원 데이터 수집 및 활용방안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04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2000년대 들어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과 공급자 다양화에 기인한 대학교육 질 저하, 고등교육 비용 급증으로 인해 국제적 공신력을 갖춘 국가 수준의 대학 질 보장 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국경 간 고등교육 이동 증대와 고등교육 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대학 질 보장 체제 구축이 시급한 과제였다. 특히 2008년 대학정보공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고, 대학의 자체 평가와 외부

2013.09.27.
고등교육 질 제고 전략 국제포럼

평가인증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평가, 고등교육 학습성과 등 고등교육 질 보장 및 교육 기능 강화 정책과 관련한 연구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하이에듀포트 시스템)은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정보를 수집하고 효과적으로 현황을 분석·관리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2011년 구축되어 시범 운영되었다.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를 포함한 31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중앙부처 사업을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 및 서비스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시작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해당 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시스템 운영, 정보 수집 및 분석, 정부 재정지원 계획 수립·정책 활용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

국립대학 개혁의 일환으로 2010년 12월에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2년 2월에 인천대 법인화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각 법률에서는 국립대학법인의 자율성 보장과 재정지원의 근거를 제시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무성 확보를 위한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대학교는 2013년부터, 그리고 인천대학교는 2014년부터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 평가를 받게 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부터 국립대학법인 운영성과평가를 담당하였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후속 조치

대학 구조개혁은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과제이며, 특히 대학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입학정원 조정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2013년 11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실시 계획을 발표하였고, 2014년 1월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같은 해 5월에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별도의 정책연구를 추진하였고, 11월 대학 구조개혁 평가 운영안과 평가편람안이 마련되었다. 2015년 주관기관으로 지정받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 구조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에 대해 입학정원 감축, 재정지원 제한 등의 정책적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개발원에서는 평가 결과가 미흡한 대학을 대상으로 개선계획 수립, 이행 및 점검, 컨설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대학 평가 및 질 관리 관련 연구

「한국대학의 성과분석 모형 및 지표개발 연구(2013)」 | 대학교육에 대한 성과 증명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대학성과분석을 위한 성과평가 모형 및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 대학평가와 차별화된 대학평가 패러다임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대학이 스스로 달성 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 여부 또는 발전 및 변화의 정도를 증명함으로서 대학평가가 대학의 발전과 직결될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방향 정립을 위한 대학평가 운영실태 분석(2014)」 | 새롭게 도입된 대학 구조개혁 방향 정립에 일조하기 위해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관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대학 구조개혁 정책과 국내 대학평가들의 실태를 진단하여 고등교육에 대한 기존 구조개혁 및 평가정책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변화 동향과 비교하여 새로운 구조개혁 평가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도출하였다.

「국립대학 운영성과목표제 시행평가(2014)」 | 국립대학 운영성과 목표 수립에 따라 37개 국립대학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로 나누어 평가·분석하고,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은 물론, 각 대학 평가 관계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학 차원의 운영 개선방안과 정부 차원의 향후 정책 지원 방향을 제시하였다.

2019.08.20.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
대학 의견수렴회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안)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 연구(2015)」 | 이 연구는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목적으로 고등교육의 중장기적 발전 방향에 대해 대학의 운영체제 개편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 교육의 질 결정요인 및 유형화 분석, 대학의 체제 개편 유형별 컨설팅 전략을 제시하였고, 컨설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관련 연구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 방향 및 과제(2011)」 |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고등교육의 발전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재정투자 10개년 기본계획'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계획 수립 연구(2012)」 | 정부의 고등교육재정지원 계획 수립을 위해 고등교육 재정지원의 기본방향을 명시하고, 하위 5개 분야인 기초·교수-학습 분야, 전공 분야, 연구 분야, 산학협력 분야 그리고 평생교육 분야의 현황, 성과분석, 향후 지원계획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평가항목 개선방안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국가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2015)」 | 국가장학금을 정부, 특히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지원되는 국가장학금 I유형, II유형과 우수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을 포함한 광의의 학자금 지원으로 보고,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의 종합적 비전, 운영 및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지원 개선방안: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2016)」 |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 상황과 재정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법인화 이후의 국립대학 운영비 교부금 지원과 더불어, 국립대학과 마찬가지로 법인화로 전환하고 있는 공립대학, 자율성이 큰 사립대학의 재정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일본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나라 대학재정지원사업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Chapter 4.

교육통계 서비스 확대와 고도화 실현

01 국가 교육통계 작성 및 활용의 전문기관

2004년 이후 날이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의 문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 각 대학에서는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통해 졸업 및 졸업예정자의 취업률을 공시하고, 이를 교육 수요자와 대외 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체적인 취업통계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꾸준히 야기되었고, 한국교육개발원은 건강보험 DB를 비롯한 공공 DB를 적극 활용하여 대학의 취업통계를 보다 객관적으로 분석·공유하였다. 이후 신뢰성을 확보한 대학의 취업률 통계는 공시정보 및 대학 재정지원과 대학평가의 주요 지표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 교육통계를 작성하고 활용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도 교육기본통계 부문에서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초중등 교육통계의 발전과 함께 개별 대학의 행정 DB를 활용하여 조사의 효율화·안정화를 제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었다.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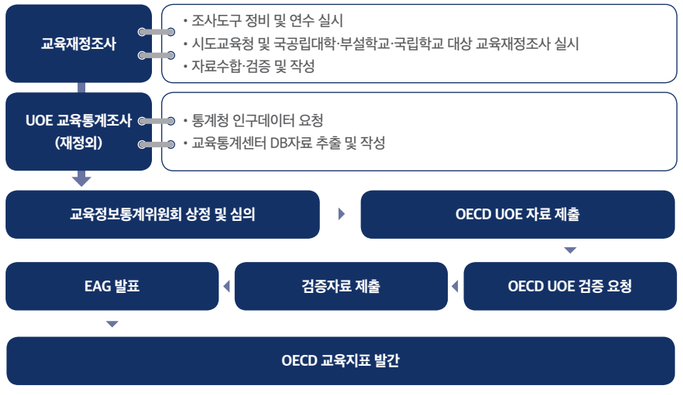
1998년부터 교육통계사업을 수행한 한국교육개발원은 국제교육통계의 일원으로 국제기구에 공식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매년 OECD에 제출하기 위한 교육통계를 작성하여 OECD 선진국과의 국제 교육지표를 비교하기 위한 OECD 교육지표 사업에 참여했으며, OECD에 제출된 데이터는 유네스코, EuroStat 등 국제기구에 공유되어 우리나라 교육지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개발원은 2012년 12월 11일 UNESCO 교육통계 협력기관으로 지정되어 UIS(유네스코 통계원)에 자료를 제공하였다.

또한 2016년부터는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교육통계 컨설팅 사업 결과를 교육통계 ODA 사업(교육통계 시스템 구축+컨설팅+연수)으로 확대하였다.

주요 국제교육지표

- 연령별 취학률
- 초·중등교육단계 학교 유형별 학생 비율
- 후기중등교육단계 교육 프로그램 유형별 학생 비율
- GDP 대비 공교육비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총 공교육비 부담주체 및 자원분배의 상대적 비중
- 의무교육에서 계획된 학습시간 수
- 교사 1인당 학생 수
- 학급당 학생 수
- 교사 급여
- 교사의 수업시간
- 교사의 연령 및 성별 분포
- 후기중등교육단계 졸업률
- 고등교육단계 입학률
- 고용률과 실업률

OECD 국제교육통계 조사 절차



2014.09.25~26.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조사 연구 국제세미나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OECD, World Bank, UNESCO를 비롯한 국제기구들의 선진국 위주 교육지표 개발 연구 및 사업으로는 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현황과 발전 방향을 가늠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수행된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는 아시아 각국의 교육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교육지표체계를 개발하고, 이들 지표의 산출을 위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제시함으로써 아시아 교육의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경향 및 특성을 밝

히고자 수행되었다. 또한 향후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에 대한 지속적 분석방안을 탐색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아시아 국가 교육지표 조사 및 분석 연구」 연차별 추진계획

구분	1차 연도(2013) : 기초연구	2차 연도(2014) : 조사 설계	3차 연도(2015) : 조사 및 분석
지표체계 개발	• 개념 모형 구안 • 아시아 교육지표(초안) • 1차적 타당화	• 개념 틀의 재구조화(조정) • 아시아 교육지표(수정안) • 2차적 타당화 및 지표 개선방안 도출	• 아시아 교육지표 정의서 작성 • 지표체계의 개선
자료 수집 및 분석	• 아시아 각국의 교육통계 자료 및 통계 기반 현황 • 가용데이터 수집 및 분석	• 아시아 교육지표 자료 수집 현황 분석 • 아시아 주요국의 교육자료 수집 및 활용 현황 분석 • 자료산출가능성 검토 및 자료 수집 및 관리 방안 모색	• 기 제출 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아시아 교육지표 분석 및 산출 • 주제별, 권역별 분석
국제 협력체제 구축	• 아시아 지역의 범주화 • 주요 아시아 지역 관련 네트워크 활용(참여) 가능성 진단 • 주요 국제지표사업 현황 분석	• 주요 국제지표 개발사례 분석: OECD INES 사업, 중남미 교육지표 등 • 국제세미나 및 해외출장을 통한 국제협력 모색	• 자료 연계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 • 지표 분석을 위한 국제협력 • 공동세미나 개최를 통한 지표 분석 결과 공유

02 교육통계 조사방법 및 서비스의 고도화

조사방법의 변화와 조사대상의 확대

한국교육개발원은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교육통계 조사방법과 서비스를 고도화하였다. 조사방법에 있어서는 2008년부터 정보공시제 도입에 따라 교육통계와 정보공시 간 자료 연계가 이뤄지기 시작했으며, 2010년부터는 조사자료의 신뢰도 향상과 조사 효율성 향상을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연계한 교육기본통계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별도로 조사하던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의 교원현황조사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대학여건조사, 한국전문대학교협의회의 전문대학교육지표조사 등 3가지 조사가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기관 교육기본통계조사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2015년부터는 고등교육기관 학생을 개인 단위로 구분해 조사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조사 장표 제공이 가능해졌다.

교육통계 활용 및 서비스 강화

통계 결과의 활용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 『교육통계연보』라는 하나의 형태로만 발간되던 간행물이 점차 다양화되어 2011년

교육통계 앱 화면

이후에는 『교육통계연보』를 비롯하여 『간추린교육통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등의 정기 간행물뿐만 아니라 『통계로 본 한국과 세계교육』 시리즈, 『교육통계 매뉴얼』 등의 비정기 간행물을 발간하였다.

2011년 11월 9일에는 각종 국가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시공간의 제약 없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는 「2010 교육통계」 앱을 개발하였다. 이 앱은 종래 간행물이나 홈페이지, 인터넷 등을 통해서만 찾아볼 수 있었던 교육통계에 관한 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크게 높였다.

또한 2013년 홈페이지를 개편한 이후 주요 요청자료, 샘플링 서비스를 비롯한 교육통계 웹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공하여 통계자료 공개 범위의 확대는 물론, 2014년부터 시작된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자료 제공 방식을 다양화하였다.

통계청 주관 통계개선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교육개발원은 2012년 11월 30일 통계청이 주관한 '2012년 통계 개발 및 개선 우수기관 평가'에서 '통계개선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 평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공공DB연계 취업통계조사'의 조사지침 및 조사프로그램의 개선으로 취업통계의 신뢰도와 적시성을 확보하고, 국세DB 연계를 통한 직장건강보험 미가입 취업자의 취업자 인정 및 취업준비 기간의 변화에 따른 취업률 산출로 취업통계의 현실성, 형평성을 반영하고자 노력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2011년 건강보험DB연계 조사에서 2012년 건강보험 및 국세청 DB 연계 조사로 DB 연계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자체조사 항목을 감소시켜 일선 취업통계 담당자의 업무 경감 및 통계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이바지하였고, 통계자료의 검증 기간을 단축시켜 고등교육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적시에 제공한 점을 인정받았다.

03 데이터 기반 연구사업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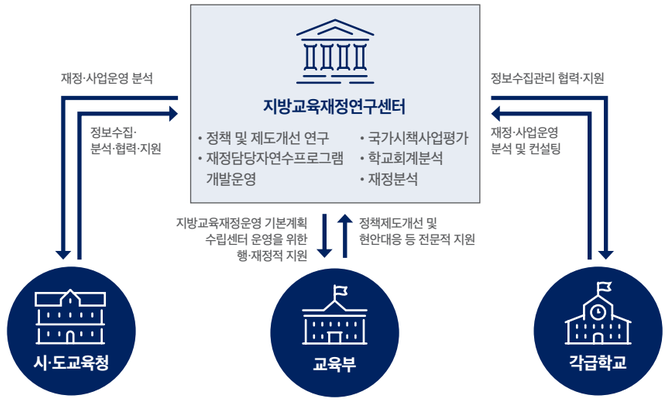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주관기관 지정

국회 등에서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방 교육재정의 체계적 관리 및 재정 건전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객관적·전문적 분석평가를

통해 특별교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0년 5월 15일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기관 내에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는 지방교육재정 및 국가시책사업의 계획-집행-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지방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교육재정 전반에 관한 데이터 확보·분석·활용·공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연구를 통해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운용의 책무성을 강화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개발원은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운영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체계적인 분석·평가 및 환류를 수행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 및 책무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초·중등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사업 구조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개통 및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10월 27일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ifted Education Database, GED)를 개통하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이와 관련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GED 국제 심포지엄 및 개통식'은 GED의 개통을 홍보함과 동시에, 각국의 영재교육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용 사례와 GED의 주요 기능과 의미,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GED 국제 심포지엄은 세계적인 석학 및 전문가를 초청해 GED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것은 물론, GED의 영재교육 지원 효과를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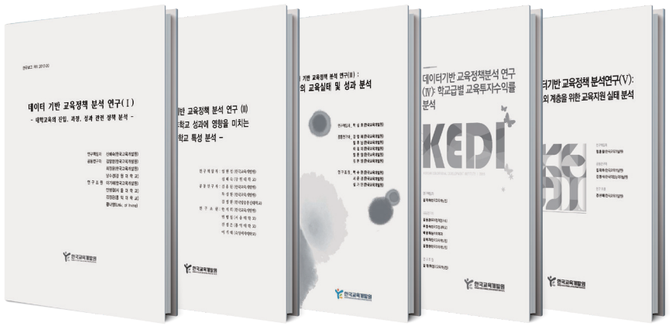
기타 데이터기반 연구사업

이 시기 한국교육개발원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연구사업들을 전개하였다. 개발원은 2011년 공교육 내실화에 기반한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시작으로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나아가 교육정책과 교육소외계층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연구사업들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이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매년 다른 정책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분석하는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를 통해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5개년 계속연구 사업으로 수행한 이 시기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I): 대학교육의 진입, 과정, 성과 관련 정책 분석(2012)」 | 한국교육종단연구 자료와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학교육의 진입, 과정, 성과와 관련된 주요 정책에 대해 분석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대학 입학과 관련하여 입학사정관제를, 대학 과정과 관련하여 장학금 정책을, 그리고 대학 성과와 관련하여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II): 방과후 학교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특성 분석(2013)」 | 학교현장에서 방과후학교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운영 현황을 탐색하고, 학교별 방과후 학교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방과후학교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는 이듬해 새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돌봄이 강화되는 시기에 앞서 수행되어 초·중등학교의 방과후학교 및 초등학교의 돌봄이 학교에서 질 높게 수행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7.02.07.
영재교육센터 현판식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수행한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III): 지방대학의 교육실태 및 성과 분석(2014)」 | 지방대학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증 연구 결과 제공을 목적으로, 지방대학의 교육실태의 변화, 대학의 성과 등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해당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정책 변화를 개관하고, 지방대학을 유형화하였으며, 고등교육정책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방대학의 변화 추이 분석, 지방대학 학생들의 특성 분석, 지방대학의 성과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데이터기반 교육정책분석 연구(IV):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분석(2015)」 | 후기 중등교육기관인 고등학교와 고등교육기관인 전문대학, 일반대학, 일반대학원의 교육비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급별, 전공계열별, 개인적·사회적 교육투자수익률을 산출하여 교육재정 정책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분석 연구(V): 교육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지원 실태 분석(2016)」 | 사회적 양극화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기존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과 미래지향적인 사회투자적 복지를 위하여 보편적 복지의 틀을 기반으로 한 세밀한 선별적 프로그램 구성의 필요성을 밝히며 교육소외계층 해소에 기여하였다.

Chapter 5.

글로벌 교육 아젠다 선도

01 교육 수여국에서 교육 공여국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정책연구기관이 개발협력에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2000년대 중반 무렵부터 교육개발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동 분야에서 연구·사업을 꾸준히 확장해 나갔다. 특히 2013년부터는 글로벌교육 협력을 통한 국제사회 기여와 글로벌 교육연구 리더십 제고를 기관의 핵심목표 중 하나로 정하고 글로벌교육연구본부를 신설하였다.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은 이러한 개발원의 미션을 수행하는 핵심 연구실이었다. 앞서 개발원은 2011년 글로벌교육협력연구센터를 설립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2013년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을 출범시켰다. 해당 연구실에서는 ▲국제 교육개발협력사업 인큐베이팅에 기여하는 기초 및 실용연구 수행, ▲국내외 교육개발협력 정책의 설계, 실천방안 및 평가연구, ▲기술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했다.

2013.11.27.
Global Education Forum 개최

국제교육개발협력 기초연구

국제교육개발협력 기초연구는 국책연구기관 내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였던 2000년대 중반부터 선도적으로 수행되었으며, 국제개발협력연구실의 중추적 연구과제로 자리잡았다. 특히 「개도국과의 교육협력방안 연구」는 국제교육 개발협력실의 대표 연구로 연구내용, 연구기간, 연구수행방식 측면에서 기존 연구들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 사업은 2007년 「아시아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협력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 국가들과의 교육개발 협력 연구를 지역별로 3개년씩 총 9개년에 걸쳐 수행한 획기적인 연구였

2008.09.26.
아시아개발도상국 교육협력 세미나

다. 개발원은 개발도상국가의 교육 및 교육개발협력 추진 현황과 개발협력 요구조사를 토대로 이들 국가와의 교육개발협력방안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제안하는 동시에 중점추진과제 실천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의 실효성을 높였다.

국제교육개발협력 정책연구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교육부가 발주한 「중점협력국가별 교육 협력 전략 개발 및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 「중점협력국가의 교원교육 분야 협력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발원은 이들 연구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국제교육개발협력 전략의 틀 안에서 중점 협력 국가를 대상으로 교육개발협력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KOICA로부터 「KOICA 대학교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사업 종합평가 연구」, 교육부로부터 「교육부 ODA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한 사업방식 개선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면서 정부가 주관하는 교육개발협력 사업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

한국교육개발원은 오랫동안 축적한 교육개발협력 연구 및 사업 수행 경험을 토대로 국내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다.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국제교육개발협력네트워크 웹 사이트를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매년 교육 ODA 컨퍼런스를 주관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내 다양한 주체가 수행하는 교육개발협력 연구와 사업 동향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며, 교육개발협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은 교육개발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구제적인 수준으로 발전시켰다. 2000년대 중반까지는 아시아지역 국가 및 지역기구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아프리카와 양자 및 다자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2013년부터는 중남미 지역 국가에 더하여 지역기구인 OEI, 개발은행인 IDB와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네트워크를 다각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글로벌 네트워크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국제포럼, 세미나 등을 개최하였다.

02 국제교육연구교류 활성화

한국형교육모델 개발 및 해외교육전문가 연수사업 지원

한국교육개발원은 2008년부터 3년 동안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형 교육협력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교육발전과정을 양적·질적으로 검토하여 초·중등교육의 보편화, 고등교육의 보편화, 산업화를 위한 직업훈련 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서 정책,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 11개 분야에 대한 교육 ODA 모델을 구축, 영문 책자로 정리하여 국제사회에 소개하였다. 이 책자는 유네스코-IIEP(International Institute for Educational Planning, 국제기획교육원) 연수 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교육전문가 연수사업 등에 적극 활용되어 큰 호응을 받았다.

국제교육 ODA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11월 28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에서 '교육을 통한 세계개발원조: 원조에서 개발로'라는 주제로 국제교육 ODA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국제개발 분야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MDGs(새천년 개발목표)와 EFA(Education for all, 만인을 위한 교육) 그리고 원조효과성 고위급회의(HLF) 이후 교육개발협력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1일차 포럼은 세계개발원조총회의 사전행사로, 2일차 포럼은 세계개발원조총회의 부대행사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교육 ODA사업 담당 정부부처 관계자, 교육관련 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위원을 비롯해 약 2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포럼은 교육개발협력의 과거·현재·미래를 조망하고, 한국의 교육을 통한 국가발전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발전과 개발협력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데 기여하였다.

2012.05.21~23.
APEC 교육장관회의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

APEC 21개 회원국을 중심으로 교육성과 공유 및 교육교류협력을 위해 2012년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가 개최되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주관기관으로서 행사 개최를 지원하였다.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한 첫 번째 회의로, APEC의 중요성 및 상호간의 공동협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제안한 교육 협력 프로젝트인 '경주 이니셔티브'를 실행하는 경주선언문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고, ICT 분야 우수사례 공유로 미래교육의 비전이 제시되었다. 무엇보다 이전의 교육장관회의와는 달리 APEC 회원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국가별 구체적인 협력의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교육협력 강화에 대한 실질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한편 행사 이후 개발원은 「2012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개최를 통한 한국교육의 국제협력 발전방안」이라는 연구를 진행하여 향후 국제협력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글로벌 교육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3년 11월 26일 '글로벌 교육협력을 위한 발전 과제 모색'이라는 주제로 글로벌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글로벌 교육협력 분야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공유함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향하고 있는 글로벌 교육협력의 방향을 공유하고 우리나라 글로벌 교육협력에 관한 비전을 탐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포럼은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과 Carlos Torres 세계 비교교육학회장의 기조연설에 이어 총 3개 세션으로 진행되었다. 제1세션은 '국제

2013.11.5~7.
글로벌 교육포럼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제2세션은 '학습 환경의 역동성, 교육과 사회적 진보', 제3세션은 '모두를 위한 교육의 진단과 발전'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되었다. 이 포럼은 글로벌 교육협력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공유함으로써 시사점을 제공하였으며, 나아가 글로벌 교육협력 관련 국내·외 기관 및 연구자와의 네트워크 확대에 기여하였다.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제1회 교육ODA 컨퍼런스'는 2014년 6월 24일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고등교육 개발협력의 다양성과 질 제고 전략을 논의하고 다양한 교육개발협력의 발전적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오전 전체회의에서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목표와 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고, 오후에는 개발협력의 분야별, 기관별 총 4개의 세션을 구성하여, 세션별로 5~6개의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각 세션별로 논의된 사례와 토론 내용 등을 공유하였다. 교육 ODA 컨퍼런스는 이후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었으며, 교육분야 공적개발원조 정책과 사업의 목표·정보·성과 등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협업의 장이 되었다.

2014.06.24.
교육ODA 컨퍼런스

2014년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개최 주도

2014년 11월 4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교육개발원과 세계은행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한국·세계은행 교육개혁 심포지엄'

이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개발원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 유관 연구기관과 세계은행이 한국교육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검토하고 밝은 미래교육을 전망하고 실천하기 위한 차원에서 협력하는 자리였다. 심포지엄은 '행복교육 실현과 창의인재 육성(Achieving HOPE-Happiness Of People through Education)'을 대주제로 하였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홍콩·싱가포르 등 국내외 교육 관계자들과 경제계 석학 및 전문가, 연구자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열띤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한국·세계은행 교육개혁 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첫째,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국제기구 수장인 세계은행 김용 총재와 함께 미래 글로벌 교육혁신 모델 국가로서 '한국의 창의적 교육혁신'을 공동 구상했다는 측면에서 한국의 높은 국제위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한국의 교육 유관 연구기관과 학계, 경제계 등이 연계하여 세계은행 측의 협력 속에서 그랜드 미래연구를 실천한 점이다. 한국 측은 한국교육개발원 이외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연구기관 약 60명이 연구진이 총결집해 각 분야별 교육혁신 방안과 추진 로드맵을 구상하였다. 셋째, 한국과 세계은행이 상호 역할 분담을 통해 한국 측은 창조경제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혁신에 집중하였으며, 세계은행 측은 창의적 교육혁신의 선진국 우수사례를 제공하였다. 해당 심포지엄은 한국의 교육혁신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한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닌 행사였다.

2014.11.04.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개최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 개최 지원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을 '2015 세계교육포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세계교육포럼 의제개발 및 행사준비 전반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개발원은 2015년 5월 열린 2015 세계교육포럼 행사 전반을 지원하였다. 2015 세계교육포럼 지원은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졌다. 하나는 세계교육포럼 의제개발 연구였다. 개발원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Post-EFA 세계교육회의 의제개발」, 「2015 세계교육회의를 위한 한국의 교육경험 의제발굴 및 확산지원 사업」, 「Post-2015 글로벌 교육의제 동향 분석」 등 여러 연구를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기존의 글로벌교육 의제인 모든 이를 위한 교육(Education for All, EFA)의 추진 경과 및 성과 분석, 국제사회의 새로운 교육의제 논의과정 추적 및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을 지원하였는데, 특히 한국 정부가 지지하는 주제인 세계시민교육을 의제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사전 연구 활동 이외에도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부가 위탁한 2015 세계교육포럼 본행사 특별세션 운영,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 기획총괄 및 한국교육개관 전시 관 운영, 교육부의 전체 행사 기획총괄 지원,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로서 국제포럼 개최, 국내외 홍보 지원 등을 수행하였다. 특히 '2015 세계교육포럼 특별세션'은 국내외 포럼 참석자들에게 교육과 발전의 조화로운 관계설정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처럼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 세계교육포럼의 성공적인 개최에 기여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교육정책 연구분야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5.05.18.
KEDI 국제포럼

2011.11.24.
한중일 교육교류협정

2014.11.26.
KEDI-SEAMEO 업무협약

교육 관련 국제 MOU 체결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및 중국 교육과학연구소와 교육교류협정 체결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1년 11월 24일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 중국 교육과학연구소(NIES)와 교육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 교육교류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해 매년 공동회의를 열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및 공동 학술회의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는 1949년에 설립된 문부과학성 산하의 연구기관으로, 일본의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교육과학연구원은 1941년 설립된 중국 교육부 산하기관으로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중국 교육 분야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이다. 이 협정은 동아시아 교육교류 및 협력 활동 활성화는 물론, 동아시아 교육공동연구체가 수립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KEDI-SEAMEO 업무협약 체결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5월 21일 동남아시아교육장관기구(SEAMEO)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향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SEAMEO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교육 및 문화 등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65년에 설립된 정부 간 지역국제기구로, 개발원과 그동안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공동연구 수행 및 공동세미나 개최, ▲연구원 파견 등 인적 교류, ▲연구자료 및 교육분야 관련 자료의 공유 등 여러 방면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 협약을 통해 개발원은 SEAMEO와 연구활동 및 교류협력 관계 증진은 물론, 동남아시아 각국 정부기구와의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Section 6.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 교육의 미래를 선도하다

2017
2021

Chapter 1.
지방균형발전 시대의 개막

01.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과 새로운 출발
02.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강화
03.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지성 체제 구축
04. KEDI 장기발전계획 수립

Chapter 2.
시대의 대전환과 교육의 전환

01.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교육적 대응
02.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연구 및 사업 강화
03.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
04.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개편
0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혁신 준비

Chapter 3.
고등·평생 교육 혁신 및 새로운 생태계 구축

01. 고등교육체제 개편 및 지역생태계 구축
02. 고등교육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03. 고등교육의 뉴노멀과 성과(역량) 제고

Chapter 4.
빅데이터 기반 교육연구 체제 수립

01. 교육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확대
02. 교육통계 수집 및 분석의 고도화

Chapter 5.
글로벌 교육 협력 및 지원 강화

01. 교육 2030 및 SDG4 이행 모니터링 및 지원
02. 개발도상국가와의 개발협력 강화

Chapter 1.

지방균형발전 시대의 개막

01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과 새로운 출발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05년 충북혁신도시로의 이전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1972년 창립 이후 약 45년 동안 개발원 업무의 중심지였던 우면동 시대를 마감하고 2017년 충북 진천군 덕산읍 소재 충북혁신도시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충북혁신도시는 충북 지역 전략산업의 성장거점으로서 산업 파급효과 및 인구 유입을 통해 자족도시를 실현하고, 혁신주체 거점도시로 산·학·연·관의 지역 공생도시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추진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충북혁신도시에 2015년 8월 3일 신청사를 착공하여 2017년 1월 13일 준공을 마쳤다. 신청사는 총 7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부지 2만 4,000㎡(7,256평)에 연 면적 2만 5,816㎡(7,809평)의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440여 명의 직원을 수용할 수 있는 건물로 완공되었다. 완공 당시에는 '초에너지절약형 녹색청사'를 실현하는 미래형 건축물로 대외적인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신청사를 준공한 직후 개발원은 2017년 2월 10일부터 19일까지 이전 작업을 진행하였고, 2월 20일부터 전 직원이 충북혁신도시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4월 20일 오전 11시 새로운 진천시대 개막을 알리는 개청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청식에는 국무조정실 오균 국무1차장, 교육부 이영 차관을 비롯하여 교육계 원로, 지자체 관계자, 유관기관 기관장, 지역 대학 총장, 교육 관계자 등 주요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

2017.04.20.
충북혁신도시 신청사 개청식

행사는 건축경과보고를 시작으로 기념사, 축사, 감사패 전달, 시설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발원 김재춘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청사 이전으로 글로벌 교육정책 연구기관의 명성을 한 차원 높이게 되었다"며 "개인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청사 이전을 계기로 경영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와 같은 미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지역사회와의 교류 및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도 공헌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의 진천 신청사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그동안 개발원이 쌓아온 글로벌 사회를 리딩하는 교육 싱크탱크로서의 명성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었다.

02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협력 강화

지역발전 협약식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청사 이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특히 2016년 6월 1일에는 청사 이전을 앞두고 충북 도내 기관들과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의 연계협력을 위한 지역발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 협약식은 개발원을 포함하여 진천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과 충북 도내 지역주체가 협의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의 주요 과제에 대해 상호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계획 중 교육 분야 주요 협력과제로는 ▲한국교육개발원 학교 운영,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진로체험관 및 충북교육포럼 운영,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대학원 재교육을 위한 계약학과 개설, ▲숲체험교육 전문프로그램 운영 등 10개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개발원은 이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이행을 약속하였다. 또한 이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추가 협력과제 발굴, 정책 수립 및 산학연관 공동연구, 인적·물적 교류, 지역 인재육성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찾아가는 생거진천 혁신대학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11월 26일 진천군과 공동으로 '찾아가는 생거진천 혁신대학' 강좌를 개최했다. '찾아가는 생거진천 혁신대학'은 진천군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평생교육 강좌 프로그램으로, 개발원은 이날 이희수 한양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를 초청해 '한국과 중동의 1500년 문화교류'라는 주제로

2016.06.01.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협력 지역발전 협약식

2018.12.05.
서전고등학교 지역사회 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를 통해 개발원은 지역민들에게 이슬람의 문화와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교류 역사 등을 소개하고, 중동 문화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을 제공했다. 이후로도 2002년 월드컵 축구스타 이영표 선수 등 사회각계 명인을 초대해 지역사회 주민과 직원들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정착하였다. 이 같은 행사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교육개발원과 진천군이 함께 협업해 기관과 지역 간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협력·정책 연구학교, 서전고등학교 개교

2017년 5월 24일, 충북혁신도시 내 서전중·고등학교가 개교식을 가졌다. 서전고등학교는 전국 최초의 한국교육개발원 협력학교로, 충청북도·도교육청·진천군이 행정과 재정을 지원하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 학교다. 기관 이전과 함께 개발원은 서전고등학교를 정책연구학교로 지정했으며, 기존 '자율형 공립고'보다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서전고등학교는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통해 2017년 첫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형 학교'라는 비전을 내걸고 문을 열었다. 특히 개발원은 '미래 학력을 신장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서전고등학교와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운영 및 발전 방안에 대해 정기적으로 협의하였으며, 지역사회와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또한 개발원은 기관의 수십 년 노하우와 풍부한 정책연구 성과를 교과과정에 접목한 '특성화된 융합 교육프로그램'을 서전고등학교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전인적인 성장을 지원하였다.

03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집단지성 체제 구축

의견 수렴과 소통을 위한 기관혁신위원회 조직·운영

2019년 4월, 한국교육개발원은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관혁신 방안을 적극 추진하였다. 이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개정 근거에 따른 것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당시 반상진 원장이 내건 차별적인 연구역량 강화와 조직 내 전문성 존중이라는 경영목표를 실천한 것이기도 했다. 개발원은 기관혁신위원회를 조직하여 원내 모든 직종별 대표자들이 1년간 기관혁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기관혁신위원회는 총괄조직 산하에 연구강화, 인사 및 조직개선,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 조직문화 및 인프라 개선 등 4개 분과

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분과별 의견 수렴 과정과 매월 1회 이상의 정례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발원은 기관혁신위원회에서 4개월간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강화 정책에 대한 자체 건의안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2019년 하반기부터 수탁사업 및 연구사업 선정 절차 등에 이러한 개선 조치를 적용하였다.

한편 인사와 조직, 복지와 근무여건, 조직문화와 인프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외부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5개월간 조직 진단 컨설팅을 통해 기관의 근무여건 및 조직문화 풍토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 구성원이 가감 없이 자신의 의견을 적극 제시하면서 원내 '숙의 민주주의(deliberate democracy)'를 실천한 첫 사례가 되기도 했다. 특히 기관혁신위원회를 통해서 근무평정과 승진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으며, 공정한 업무 분장, 비연구직에 대한 경력관리 지원 및 연수강화 등 새로운 복지제도가 적극 도입되었다.

이처럼 기관혁신위원회는 전 직원이 조직 환경 및 업무 개선안 등을 적극 개진하고, 이를 기관경영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조직 민주주의'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한국교육개발원은 2019년 7월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상 민간 제안 민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평가 과정에서 개발원은 전문기관 자격조건으로서 기관 설립목적, 조직, 전문 인력 확보, 경력자 확보, 적절한 운영 계획 등 다섯 개 기준을 모두 충족시켰다. 그동안 민간이 제안한 모든 사업에 대한 제안서 검토는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

2018.10.10~12.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

2017.07.05.
KEDI Brief 창간호

투자관리센터에서만 수행했으나,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이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도 관련 업무 수행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법적 전문기관으로서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기존 고시·공고, 평가, 협상, 협약체결 등 민간투자사업 추진 과정의 주무관청 지원 역할에서 업무 영역을 확대하게 되었다. 개발원은 총 사업비 2,000억 원 미만,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미만인 사업과 총 사업비 500억 원 미만인 사업에 관하여 제안 내용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적합도 여부 등을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개발원은 2개 이상의 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로부터 전문기관 승인을 얻은 유일한 기관으로 향후 교육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공분야의 민간투자업무 수행 기반을 마련하였다.

『KEDI Brief』 창간

한국교육개발원은 『KEDI 뉴스레터』를 통해 기관의 연구 및 사업 성과를 홍보하고, 격월간 교육정책전문지 『교육개발』을 발행해 국내외 주요 교육정책 및 현안, 이슈 등에 대한 관련 전문가의 심층 분석과 해법, 대안 등을 제시해 왔다. 이러한 교육정보 공유·확산의 연장선상에서 2017년 7월에는 새롭게 『KEDI Brief』를 창간했다. 『KEDI Brief』는 국내외 교육혁신 사례, 정책동향 분석 등을 간략한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정책입안자·정책 실행 담당자·연구자·교육자·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월 1~2회 발간되는 소식지이다. 해당 소식지는 학교 교육과 대학교육의 혁신 사례 발굴 및 소개하여 관련 정책을 개발·연구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교육정책 동향·교육 실태 분석 및 진단 등을 통해 정책적 이슈에 다양한 대안을 제안하기 위해 탄생했다. 개발원은 창간호 주제로 '대학교육혁신사례'를 선정하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KEDI Brief』는 미래지향적 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와 관련 정보를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정립하려는 교육계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04 KEDI 장기발전계획 수립

문재인 정부 출범 및 사회 환경의 변화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정책과 이를 지원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에도 큰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사회의 도래는 인간과 기술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미래사회에는 창조적 융합사고를 갖춘 협업형 인재, 네트워크형 인재가 필요하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인구절벽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다문화 사회로의 진전, 스마트교육 플랫폼의 확대 역시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을 앞당기고 있다.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정책 기조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새 정부는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아래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을 국정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의 강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교육부의 기능을 고등·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초중등교육의 지방 이양을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교육혁신 및 중장기 교육정책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를 설치하는 등 국가 교육정책의 기획과 집행을 위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8.04.02.
제18대 반상진 원장 취임

반상진 원장 취임과 새 경영비전

급변하는 사회적, 정책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제18대 반상진 원장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 교육 발전과 기관 성장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비전, 경영목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개발원은 새로운 경영비전을 "포용사회를 위한 미래교육 선도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 정하고, 4대 경영목표와 12대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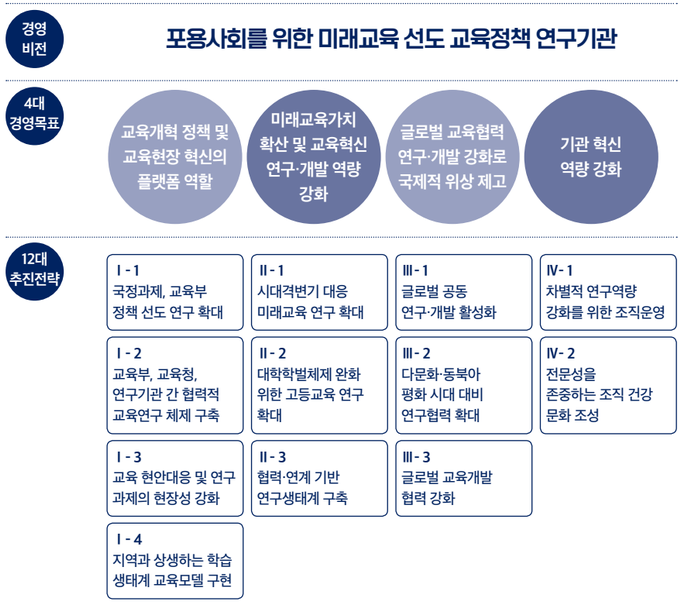
교육개혁 정책 및 교육현장 혁신의 플랫폼 역할 | 교육의 국가책임제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연구·지원하고, 교육자치 시대의 시·도교육청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학습생태계 조성 방안 연구를 추진하며, 사회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융합연구 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미래교육가치 확산 및 교육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시대격변기의 미래사회를 선도할 창의·협력·공감적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 방안을 도출하고, 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포용교육 실현을 위한 고등교육 및 대학학벌 체제를 연구한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아울러 협동 및 융·복합 연구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를 도모했다.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개발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 글로벌 교육 의제 선도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연구·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교육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연구를 추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통일시대를 대비한 통일교육 연구 강화 및 남북한 교육협력을 추진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협력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기관 혁신 역량 강화 | 연구와 사업 간 연계 조정을 통해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직원의 협력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조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직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근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했다.

4대 경영목표와 12대 추진전략



류방란 원장 취임과 중장기 발전목표 수립

2021년 5월 4일, 한국교육개발원 제19대 원장에 류방란 전 선임연구위원이 취임했다. 류방란 원장은 개발원에서 내부 승진을 통해 원장 자리까지 오른 첫 사례이자 첫 번째 여성 원장이기도 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취임식에서 류방란 원장은 교육데이터를 활용한 플랫폼 구축 등 우수 연구 성과를 통해 '한국교육체제의 미래전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의 디지털화와 인구절벽 상황에 대비하여 도전적인 연구 수행 의지도 다졌다.

한편 류방란 원장 취임과 함께 개발원은 2021년 7월 29일 새로운 중장기 발전목표를

2021.05.04.
제19대 원장에 류방란 원장 취임

설정했다. 새 중장기 발전목표에는 변화하는 외부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크게 반영하였다. 먼저 사회·교육 환경 측면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사회 문제의 극복, 포용적 회복, 미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저출산 심화,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지역 불균형 심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아울러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초중등교육의 분권화, 교육 분야 국제협력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였으며,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따른 사회적 갈등 조정 관리 역할도 중요해졌다. 교육 연구 환경 측면에서도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 전략과 과제 구체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고, 단순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는 현실에서 데이터를 연결·분석하는 국면으로 전환하는 한편, 개발원 조직 전반에 걸쳐 협업과 융합적 접근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개발원은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어젠다 선도 역할을 강화하고, 연구기획 혁신 및 연구 성과 확산에 집중하고자 했으며, 조직 역량 혁신 및 협력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자 했다. 특히 2022년 개원 5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기관 설립 이후 50년간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 및 성과를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시대 전환기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및 정체성을 구성원과 함께 재정립하고 공유하고자 했다.

이에 개발원은 새로운 비전을 '혁신적 교육 개발을 통한 미래교육 체제로의 전환에 기여'로 설정하였으며, ▲미래 교육을 선도하는 정책 연구역량 강화, ▲교육연구의 데이터 허브 구축, ▲사회구성원과 함께하는 연구기관을 중장기 발전목표로 설정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또한 신임 원장 취임에 따른 경영비전 및 경영목표도 새롭게 설정했다. 개발원은 새 경영비전을 "개인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 선도"로 정했으며, 이를 위한 경영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뉴노멀 시대 교육혁신을 이끄는 정책 연구 강화 | 학습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미래 교육 연구를 강화하고,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또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 연구·협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연구 기획·성과 확산 체계 강화 | 정책 수요 기반의 연구 기획 및 관리를 체계화하고, 주요 의제 정책화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한편, 정책 수요자 대상으로 성과 확산을 활성화하고자 했다.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경영혁신 |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상호 존중과 소통 기반의 협력적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직원 경력단계별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류방란 원장 취임 이후 새로운 중장기 발전목표 설정

Chapter 2.

시대의 대전환과 교육의 전환

01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교육적 대응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가 대규모 재난 상황을 대비한 역량과 함께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를 드러냈다. 사회적 돌봄 체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으나, 한편으로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전국적인 원격교육을 실시하면서 디지털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도 했다. 교육 부문에서도 돌봄 취약과 서둘러 추진된 원격교육 상황이 결합하면서 교육격차 문제가 대두되었다. 실제로 초중등학생 학력진단 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증가하고 지역 학력 격차가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디지털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과거 산업화 시기 구축된 교육체제와 노동시장의 괴리가 커졌는데 코로나19 이후 관련 문제는 보다 더 심각해졌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상황 분석과 대응법 등을 연구하며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였다.

「2020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현황 분석(2020)」 | 한국교육개발원은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사건에 대비하기 위해 「2020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현황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구는 교육 분야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향후 정부의 코로나19 교육 분야 백서 발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2020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현황을 분석·정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연구는 크게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 과정 분석,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 일지 작성, ▲코로나19 교육 분야 대응 문서 정리로 구성되었다.

2020 코로나19 교육분야 대응현황 분석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

「코로나19 확산 시기, 불리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2020)」 | 이연구는 감염병 재난 시기에 취약집단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다른 불리한 점이 있었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나아가 현재 수준에서,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이후 시대를 겨냥해서 교육 부문과 사회 각 영역에서 모든 학생을 품어 키워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했다.

교육 분야 『코로나19 대응 백서』 발간

코로나19 대응 백서는 코로나19 및 향후의 유사 감염병 확산 상황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용하고 실제적인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발간하였다. 이 백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을 지속하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서는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향후의 위기 대처 전략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으로 취해야 하는 대응 방안 및 전략을 모색하였다. 해당 목적에 따라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환자 확진 판정을 받았던 2020년 1월 20일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 대한 기록을 담아 총 5장으로 구성하였다. 1장에서는 교육분야 코로나19 대응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 순서에 따른 주요 조치들과 관련 사진 자료를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2장 범정부 차원의 대응은 시기별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그에 따른 정부의 대응조치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3장에서는 교육분야의 대응 과정과 활동에 대해 코로나19 관련 주요 교육 현안들을 11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대응 시기별 주요 조치사항'과 '주요 성과'에 초점을 맞추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11개 영역은 '대응 체계', '학사운영(기준 수립 및 시행)', '학교 방역 시스템', '범정부 외국인 유학생 관리', '돌봄 지원', '온라인 개학 준비 및 실행', '위기상황 현장소통 체계', '국제협력', '각종 시험', '예산 지원 및 보상', '미래교육'으로 구분하였다. 4장에서는 11개 각 영역별로 정부의 대응 과정을 평가하면서 향후의 과제들을 아울러 간략하게 제시하였고, 5장에서 맺음말로 백서 기록을 마무리하였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역할과 기능

01. 학습자 온라인 학습경험 강화
02. 데이터에 기반한 학습지원 제공
03. 국가 온라인 교육의 지식베이스 역할 수행
04. 온라인 교육의 실제적 운영
05. 공정한 학습 접근성 보장
06. 개인별 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 제공

02 코로나19 시대, 원격교육 연구 및 사업 강화

코로나19 팬데믹과 함께 원격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년부터 디지털교육연구센터 조직역량을 크게 강화하였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는 2020년 1월 기준 총 97명이 투입되었는데, 이는 기관 전

체 인원의 20% 수준으로 개발원 창립 이래 가장 많은 수치였다. 이러한 조직 편성은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교육 관련 연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원격교육 분석 및 방향 제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언택트(Untact)'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온라인 개학으로 대면 접촉이 없는 원격교육이 적극 활용되었다. 이에 개발원은 「코로나19 대응 국가 수준 원격교육체제 진단 및 과제(2020)」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의 국가 수준 원격교육 대응 체제에 대해 진단하고 그에 따른 쟁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코로나19 토착화 및 폭발적 재확산에 대비하고, 유사한 재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미래 원격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한국교육개발원은 미래교육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간·쌍방향 온라인 방식의 다양한 공동교육과정을 제공하였다.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소인수·심화 과목에 대해 여러 학교가 공동으로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시간적·공간적 한계에서 벗어나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보장되어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다양한 학습 기회가 제공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실시간 생방송 수업으로 진행하게 되므로 거꾸로 수업, 블렌디드 러닝, 토론 등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교실온닷' | 2018년 11개 시·도교육청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교실온닷(edu.classon.kr)'은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중소도시와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학습기회를 보장하고자 고교학점제 기반 사업으로 문을 열었다. '교실온닷'은 기존 녹화방식으로 제공한 온라인 강의와는 달리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였다. 이를 통해 교사가 일방적으로 수업하고 탑재된 자료를 학습하는 데서 오는 학생들의 학업 집중도를 제고하였다.

'스쿨포유' | 한국교육개발원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2005년까지 8개 병원학교를 운영하며 학교에 장기 결석하는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지원해왔다. 2017년이 되면서 개발원은 원격수업 시스템 개발과 운영을 통해 건강장애학생의 과목 선택권

교실온닷 사이트

2019.02.19.
스쿨포유 담당자 연수

2018.09.
학생선수 e-School 컨설팅

2020.01.06.
학생선수 e-School 성과발표회

을 보장하여 학생의 성공적인 학업 복귀를 위한 일환으로 스쿨포유(www.s4u.kr)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중등과정 원격수업으로 시작된 스쿨포유는 2020년 3월부터는 초등과정 원격수업으로 확대되었으며, 현재에는 초·중·고등 학교와 전국학교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개발원은 스쿨포유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건강장애학생 학부모와의 온택트 소통'을 비롯해 '전국병원학교 담당자 협의회', '온라인 캠프', '메티버스 체육대회'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학생선수 e-School' | 학생선수 e-School(www.e-school.or.kr)은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출발하였다. 학생선수들이 대회 출전 및 훈련 참가에 따른 수업 결손을 보충하고 기초학력을 증진하기 위해 2015년 이스쿨 학습시스템을 구축하고, 2016년 127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마친 후, 2017년 전국으로 이 같은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확대했다. '학생선수 e-School'은 2019년 기준 전국 3,074개 중·고등학교의 4만 8,000여 명의 학생선수가 참여하는 성과를 보였으며, 성과발표회 등을 통해 학생선수의 더 나은 학습환경 마련과 미래 진로 준비를 지원해나가고 있다.

03 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노력

미래 교육을 위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은 미래사회 및 교육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민주시민과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을 실천하고 교육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과 유연한 교육체

제 조성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다양한 혁신교육 방안과 개선안, 교육 실천 과제들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초·중등교육영역(2016~2017)」 |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고 모두가 바라는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한국 교육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연구다. 1차 연도인 2016년 개발원은 한국 초중등교육의 미래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혁신 영역을 탐색하였으며, 2차 연도인 2017년에는 1차 연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18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해야 할 초중등교육 영역에서의 혁신 과제를 제안하였다.

「미래지향적 대입제도 개선방안 연구(2017)」 | 대입제도는 미래사회에 요구되는 인재를 양성하고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래사회의 변화가 대입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다양한 미래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입제도의 중장기적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2018)」 |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가 교육 분야에서도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변화에 주목하면서 미래 학교교육의 방향성과 미래상을 탐색하고자 했다. 이 연구에서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를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농촌교육 실태 및 대응방안(2018)」 | 농촌의 학생 수 감소와 그에 따른 교육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교육적이면서도 실천가능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농촌교육 문제의 기저를 이루는 '학생 수 감소' 현상에 주목하고 그와 관련된 교육 실태의 변화를 양적·질적으로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시설 연구(Ⅰ):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2018)」 | 미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시범사업 추진 시 설계 단계의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학교시설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초·중등교육영역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교육:
학교의 미래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 교육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교육 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2019)」 |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교육 혁신 사례를 통해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비롯해 미래교육에 대비한 변화에 앞서 교육 혁신을 시도한 고등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들이 겪은 시행착오와 성과를 분석하여 일반 학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새로운 학력관에 따른 고교체제 연구: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2020)」 | 미래사회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학교 운영 전반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 체제의 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 교육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2020)」 | 4차 산업혁명,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 급속한 시대 환경의 변화에 따라 5·31 교육개혁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2045'의 청사진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지난 25년간 우리 교육체제에 큰 영향을 미쳤던 5·31 교육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 수 있는 한국형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였다.

「공교육 혁신을 위한 탄력적 교육체제 운영 방안: 통합운영학교 도입을 중심으로(2021)」 | 미래사회를 준비하기 위해 학습자 맞춤형 교육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표준화된 학제로는 이를 구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험지역 증가와 같은 인구지형의 변화로 통합운영학교가 증가함에 따라 통합운영학교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탄력적 교육체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2045' 정책포럼 주요 내용

주제	주요 내용	발표자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의 비전과 정책방향	교육2045 비전과 전략 수립의 시대적 맥락, 교육 2045의 비전, 교육2045 비전 실현을 위한 4대 추진 전략 및 추진전략의 실현을 위한 추동 요인 등을 소개	최상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미래 평생 직업교육 혁신방안 및 과제	신직업교육체제 구축방안의 주요 경과 및 미래 평생 직업교육의 핵심 영향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미래 평생 직업교육을 위한 과제를 제시	최동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미래 학력사회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전략	교육과 노동시장의 현재와 미래 노동시장 및 직업세계 변화 방향에 대해 알아본 후 학력사회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전략을 제시	김주섭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 정책포럼' 개최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1월 19일 온라인으로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를 주제로 한 '제165차 KEDI 교육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포럼은 한국형 혁신적 포용교육 2045의 비전과 정책방향, 미래 평생 직업교육 혁신방안 및 과제, 미래 학력사회 극복을 위한 노동시장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이 같은 포럼은 해방 100년이 되는 2045년을 목표로 '5·31교육개혁'의 한계를 넘어 혁신적 포용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비전, 추진전략,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연구 수행 및 정책 실행

고교학점제는 학생에게 교과 선택권을 부여하여 자율성 및 선택권을 확대함으로써 고등학교 교육을 보다 유연하고 개별화된 교육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주도의 능동적인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일반고 역량강화, 교과교실제,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고교학점제 관련 연구 및 사업을 오랫동안 추진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정책지원을 위한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또한 고교학점제 도입의 선결과제인 교원 및 시설 관련 연구·사업 역시 선도적으로 추진하였다.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 포럼 개최 | 개발원은 2018년 6월 서울에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 공간,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교육시설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개발원에서 진행한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시설환경 개선방안 및 시설규모 산정 연구」의 중간결과를 활용하여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미래학교 공간 조성 방향과 그 과제를 짚어보고, 우리나라 학교시설이 고교학점제 운영에 대응하여 변화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밖에도 개발원은 학교배치, 교육환경 영향평가와 같은 외부적 요소부터 그린스쿨, 유-스쿨(U-school) 등의 내부적 요소에 이르기까지 교육시설 관련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 실시 | 한국교육개발원은 고교학점제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 4월 30일 천안 갤러리아 아트홀에서 '고교학점제 정책 공감 콘서트'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공감대를 확산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수요자가 될 교원·학부모의 정책 지지도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현장발언대 '교육현장에서 바라보는 고교학점제', 정책이야기 '고교학점제가 무엇인가요?', 토크콘서트 '고교학점제, 내 꿈을 향한 징검다리'가 이어졌으며, '미래사회를 위한 창의적 인재와 교육혁신'이라는 주제로 특강도 진행되었다.

2019.04.12.
2019년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공감 콘서트

04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정책의 개편

문재인 정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전략으로 '포용적 복지국가', '보육과 교육의 국가 책임' 등을 강조하는 등 교육복지와 관련된 실천적 의지를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지원을 위한 관련 연구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2018)」 | 교육복지에 대한 논의를 서비스 전달체계라는 제한적인 관점을 넘어 관(官)과 민(民)이 소통하고 협력하며, 제기되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조정하는 혁신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접근했다. 교육복지정책 과정에서 집행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의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하여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는 한편, 수혜자 입장에서 보다 지속가능하고 통합적인 교육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버넌스 혁신방안을 모색하였다.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2019)」 | 국가 차원의 교육복지정책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교육복지정책의 방향을 정립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위한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특히, 공급자 주도의 교육복지정책 설계가 아닌 학습자 중심의 교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개별적인 교육복지정책사업 및 프로젝트가 아닌 일상적인 학교활동 및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였다.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2020)」 | 이 연구에서는 청년기로 접어든 다문화배경 청년에게 부모 혹은 본인의 이주 경험이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생교육의 참여 실제와 요구도를 밝힐 수 있었다. 또한, 그동안 국가 수준의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다문화배경 청년의 규모와 인구학적 특성을 계량적 수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 연구(2020)」 |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전국적 활용과 대중화, 국가 재난사태에서의 정상적인 공교육 제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다. 이 연구는 교육 공정성 측면에서 학습권을 보장하며 국가 원격교육체계 구축과 미래교육 준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방안을 탐색하였다.

05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교육혁신 준비

「팬데믹 시대의 대학생 경험의 특징에 대한 연구(2021)」 |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주체 중 한 집단인 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교육학적 기초 자료를 축적하였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방향의 출발점이 학생들의 변화된 삶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보고, 고등교육의 향후 방향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고등교육 중심으로(2021)」 |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경제적 변화, 고등교육의 팽창에 따른 이수자의 성격 변화,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화 등으로 고등교육은 급격한 환경 변화를 겪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뉴노멀 시대의 변화가 고등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뉴노멀 시대에 더욱 주목해야 할 대학의 가치를 탐색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인공지능시대의 영재교육: 변화 전략 탐색(2021)」 | 미래 영재교육의 큰 틀을 설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변화 전략을 도출하였다.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 변화 전망 분석, 영재교육의 변화 동향 분석,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영재교육의 이슈와 과제 분석 등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시대 영재교육의 변화 전략을 제시했다.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2021) | 학습복지 관점에서 교육정책 및 실제 교육현장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학습복지 실현 정도 및 영향요인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학습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팬데믹 시대의 대학생 경험의 특징에 대한 연구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고등교육 중심으로

인공지능시대의 영재교육: 변화 전략 탐색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Chapter 3.

고등·평생 교육 혁신 및 새로운 생태계 구축

01 | 고등교육체제 개편 및 지역생태계 구축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학령인구 감소는 대학의 학생 미충원 이로 인한 문제로 현실화되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대학의 구조 및 기능 재편을 통해 고등교육을 효율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다수의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장기적·체계적 관점에서 고등교육체제 개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2017~2019)」 |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학교육 관련 정책을 진단하여 구체적인 대학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교육방법 개선을 위한 대학의 교원 역량 강화, ▲대학의 거버넌스 개선 정책을 핵심 주제로 설정하였다.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2018)」 |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했던 주요 쟁점들을 진단하고, 향후 해당 사업이 대학의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기 위해 추진해야 할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2019)」 | 대학 간 유·무형 자원공유 및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대학체제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대학

대학교육 혁신을 위한 정책 진단과 방안(Ⅰ)(Ⅱ)(Ⅲ)

대학의 공유성장을 위한 대학체제 개편 방안 연구

대학 평생교육 재정지원사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이 당면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대학의 집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 방향으로서 대학들이 함께 상생·발전하는 공유 성장의 의의를 탐색하였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한계대학 대응 방안 연구(2020)」 | 인구지형 변화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은 고등교육 입학자원 부족과 학생 미충원 등으로 대학의 경영난과 재정결손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한계대학 발생 및 증가 추이 역시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계대학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를 모색하였다.

「대학 간 공유협력체제 구축 방안 연구(2021)」 | 개별 대학의 한계를 넘어 다양한 변화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해법으로서 공유와 협력이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대학 간 공유·협력을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탐색하고 정책적·제도적 기반 구축과 개선·발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한국 고등교육체제 재구축 방향과 과제(2021)」 | 학령인구 급감과 기술·산업 환경의 급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한 고등교육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뉴 노멀 시대와 고등교육의 보편화 시대는 고등교육의 혁신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급격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교육체제 재구축 방향과 이를 위한 다양한 과제들을 검토하고 주요 현안을 분석하였다.

02 | 고등교육 질 관리 및 책무성 강화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교육의 질과 성과 획득에 필요한 제반 요건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평가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즉, 고등교육평가 체제가 갖는 타당성과 문제를 분석하는 한편, 중장기적 관점에서 평가체제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1주기 대학 구조개혁평가에 이어 이른바 2주기(2018~2021)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을 추진하였고, 3주기(2022~2024) 진단사업 또한 시작하였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부터 정부로부터 대학구조개혁 평가(진단)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은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사업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으며, 정책기조 및 평가방식에서도 여러 변화가 있었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사업은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적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공공성 강화, 자율성 확대 및 교육의 질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합리적 수준의 정원 감축 권고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한 학생들의 선택을 병행하여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고자 했다.

고등교육 질 관리 관련 연구 추진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 고등교육영역(Ⅰ)(Ⅱ)(2016~2017)」 | 미래 고등교육이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2년에 걸쳐 추진되었다. 1차연도 연구에서는 미래사회 변화 전망과 고등교육 혁신의 방향을 설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2차연도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영역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정책과제를 개발하였다.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Ⅱ)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2017)」 | 고등교육 평가가 증가하고 평가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고등교육 평가체제를 체계화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 또한 증가했다. 이 연구는 고등교육을 둘러싼 국내외적 변화와 요구에 부응하여 한국 고등교육평가체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점을 파악해 해결 방안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학교육 격차 지표 개발 및 실태 분석 연구(2020)」 | 학벌주의, 경쟁적 대학입시, 대학의 서열화 및 수도권 집중, 저출산에 따른 지방 소멸 등을 고려할 때 초중등교육뿐만 아니라 대학교육 격차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는 대학교육의 질과 격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 방안 연구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학 진단체계 발전방안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학 진단체계 발전방안(2020)」 |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한 고등교육 구조개혁 정책의 추진과정 및 성과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 개선과제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향후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학 진단체제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VI)~(IX)(2018~2021)」 | 대학 교수학습을 둘러싼 여러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대학 교수학습 모형의 개선을 시도하고, 이를 조사도구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을 포괄하면서 각각 학생 설문조사와 교수 설문조사 도구를 개발 및 개선하였고, 모듈화를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축적된 자료와 전문성을 토대로 조사 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상당 부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다. 대학별로 원자료, 분석보고서 등을 제공하고, 연구진이 진단 기준에 따라 기본적 분석을 실시하여 대학교수학습의 실태와 수준을 보여주는 한편, 매년 다양한 주제로 대학 교수학습에 효과를 보이는 대학 여건, 교수학습 경험,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고등교육 재정 정책 관련 연구 추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연구(2017)」 |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을 보다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그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기존 고등교육 재정지원이 양적성장에 주력해 발생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재조명하면서 새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와 달리 거시적 관점에서 고등교육 재정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유관 정책과의 공조 방안까지 제시했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안(2018)」 | 고등교육의 핵심 주체를 학생과 교수로 설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질 준거를 재정립하였다. 또한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파악하여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투자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 방안 연구(2019)」 | 정부의 적정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안정적·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를 고려하면서도 고등교육 재정이 산술적인 다운사이징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재정 확보 방안을 도출하였다.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2019)」 | 정부와 대학 수준의 분석 모형에 따라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중앙정부와 대학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배분, 운용, 성과관리 실태를 파악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정책 개선방안과 대학의 재정운영 개선을 위한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고등교육 질 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안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

「사립대학 재정 운용 실태 분석: 재정 여건 및 지출 변화를 중심으로(2020)」 | 대학의 재정 운용 실태를 다각도로 살펴봄으로써 대학의 재정 여건 악화 및 대학교육 질 하락 우려에 대한 실태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고 실제 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방안(2021)」 | 이 연구에서는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고등교육의 전략적 투자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학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파악하여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고등교육 투자 근거 마련, ▲국가 수준의 고등교육재정 확보 근거 도출, ▲정부와 대학을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정책적 판단 근거 제공,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대학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효용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주요 목적이었다.

03 | 고등교육의 뉴노멀과 성과(역량) 제고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고등교육의 환경과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층의 고등교육에 대한 인식과 요구 또한 변화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은 고등교육의 목적과 실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의 뉴노멀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대학생의 삶과 학습에 대한 연구 또한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국 고등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학업과 진로를 중심으로(2017)」 |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관련 연구와 논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실제 대학생의 생활 세계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학업과 진로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체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현상적 실태의 이면에 있는 구조와 맥락을 파악하고자 했다.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분석 연구(2018)」 |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에 대한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성인학습자의 대학평생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생의 생활과 문화:
학업과 진로를 중심으로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고등평생직업교육의 과제와 미래 방향(2019)」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4개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혁신적 포용 성장의 관점에서 평생·직업교육과 연계된 고등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관련 정책의 성과와 한계점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고등교육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미래 지향적 고등·평생·직업교육 체제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방안 연구(2019)」 | 평생학습 체제 구축의 과제와 함께 사회·경제적으로 필요한 평생학습의 수요·공급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평생학습의 성과 인정 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안하였다.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2021)」 | 뉴노멀 시대의 변화가 고등교육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뉴노멀 시대에 더욱 주목해야 할 대학의 가치를 탐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의 전통적 가치를 확인하고, 고등교육의 환경변화와 뉴노멀 속에서 고등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탐색하였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향후 수행되어야 할 후속 연구를 제시하였다.

「팬데믹 시대, 대학생 경험의 특징에 대한 연구(2021)」 | 팬데믹 상황에서 대학생의 경험에 대한 교육학적 기초 자료를 축적하였다.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 방향의 출발점이 학생들의 변화된 삶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고등교육의 향후 방향 설정에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포스트 코로나 맥락에서 대졸 미취업 청년의 학습생활과 교육 요구(2021)」 | 이 연구에서 는 코로나19 시기를 살아가는 4년제 대졸 미취업 청년들이 어떠한 학습생활(learning life)을 이어가고 있으며, 청년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교육적 요구(education need)가 무엇인지 심층 분석함으로써 향후 청년세대 이해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하고, 청년정책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했다.

2019.05.16.
교육정책 성과 진단포럼

Chapter 4.

빅데이터 기반 교육연구 체제 수립

01 | 교육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확대

급격한 사회변화와 함께, 연구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 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다. 자료 수집에 대한 책임이 커지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는 한편, 이전에 불가능했던 자료의 수집 및 활용이 가능해지고 있기도 하다. 정책 연구의 증거력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는 사회적 현실 속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교육 분야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체제를 정비하고 교육정책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였다. 양질의 교육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빅 데이터 기반의 교육연구 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교육 종단연구 조사의 확대

한국교육개발원은 2005년부터 한국교육종단연구를 수행함으로써 국가 수준의 교육 종단자료 구축에 힘을 써왔다. 국내외 학계 연구자 및 학생에게 조사자료를 공유해 왔으며, 2021년까지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물 수는 약 1,143건에 달한다. 이와 함께 개발원은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연구 성과를 홍보하기 위한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였다.

한편, 2021년부터는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를 시작하였다.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 교사들은 근속률이 높고, 근속 기간도 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교직에 종사하면서 어떻게 변화 혹은 성장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종단자료가 수집된 적이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

없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를 통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 수준의 종단연구를 국내 최초로 시행하였고, 현재 초등학교 교사의 특징과 변화상에 대한 실증자료를 활발하게 수집하고 있다.

교육 분야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확대 체제 구축

국가 승인 통계인 교육통계사업을 전담하며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해 온 한국교육개발원은 50주년이 되는 2022년부터 기존의 '교육통계연구본부'를 '교육데이터연구본부'로 개편하고, 데이터전략실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공교육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수집 및 활용을 보다 강화하였다.

교육재정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초·중등 재정과 고등·평생교육 재정 관련 정책연구 및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와 함께 개발원-교육부-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 소관 부처 및 정책 집행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였다.

이밖에도 개발원은 지방교육재정 등 현안 공론화 및 대응, 지방교육개정 분석, 특별교부금 운영지원, 학교회계 분석 등 다채로운 교육개정 연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며 우리나라 교육현안을 진단하고 보다 건강한 교육생태계 마련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빅데이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여러 분야에서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활용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도 이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분야의 데이터 활용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다. 이 연구는 분산되어 있는 교육 분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생산·관리·활용 현황과 주요 이슈 및 문제를 파악하고, 교육데이터의 데이터 맵을 통해 교육 데이터의 생성·연계·분석·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추진되었다.

02 교육통계 수집 및 분석의 고도화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2017년 6월 22일, 교육기본법·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및 각 법 시행령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교육통계센터'로 지정되었다. 2017년 개정된 교육통계조사 관련 법들은 교육통계조사의 내용 및 절차, 자료 검증, 기관 간 자료연계, 식별자료의 수집과 보호, 자료 제공 범위, 업무부담 경감 등을 규정하였다. 특히 국가 차원의 지표관리와 예측통계 산출을 규정함으로써 증거기반 교육정책 지원을 강화하였다.

2017.07.24.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현판식

개발원은 2017년 7월 24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교육부 인사 및 개발원 관계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기념 현판식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2018년에는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에 따른 교육통계·정보 관리 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및 기관 차원의 교육통계·정보 관리 체계의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을 계기로 한국교육개발원은 빅데이터 시대에 걸맞는 교육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교육정책과 학술연구, 학교현장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교육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 강화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5월 26일 통계청과 교육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통계분야 연수 및 프로젝트 전문가 지원·자문, 국제개발협력 관련 지식 공동 활용, 인력 교류를 통한 사업 및 연구 활동 추진, 기타 상호 기관 발전 및 우호 증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통계청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은 개발도상국들의 교육 정책 수립과 모니터링을 위한 통계데이터 수집·분석·활용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에도 크게 기여하게 되었다.

2021.05.26.
교육통계 분야 국제개발협력(ODA) 공동 추진을 위한
한국교육개발원-통계청 업무협약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가와의 교육통계 및 교육지표 관련 개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베트남·몽골·스리랑카·캄보디아·우즈베키스탄·인도네시아 등과 체결하였다. UNESCO 아시아 지역사무소, UNICEF 등의 국제기구는 물론이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 UNESCO 한국위원회 등의 국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협력을 강화하였다.

2021.09.07.
교육통계 조사·분석·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교육통계 자료의 정책적 활용 확대

한국교육개발원은 유초중등교육 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 기본통계조사,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평생교육통계조사 등 교육·취업·평생교육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 같은 통계자료들을 분석하고 열람할 수 있는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을 운영함으로써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는 콜센터·모바일 앱·블로그를 비롯하여 각종 국가 및 유관기관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으며, 교육통계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통계 콘텐츠 제작 및 간행물 발간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개발원은 국내외 교육지표를 분석하고 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거나 자료집을 제작하여 발간해 왔다. 법령 개정으로 국가 수준의 교육지표 개발 및 분석이 법정화됨에 따라 2020년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2021년 자료집으로 제작·공표하였다.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연구(2020)」에서는 국가 수준의 정책기획과 집행 및 평가에 있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중요시되면서 증거기반 정책 이행을 정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국가교육지표체계를 마련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검토를 거쳐 국가교육지표 체계와 세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개발원은 지표별 담당기관과 '국가 교육지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지표를 수집·산출·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계로 보는 한국의 교육'으로 발간하였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외적 환경 및 조건에 대처하면서 교육통계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에는 '교육 분야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 체제 구축 연구: 교육 데이터 맵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교육 분야 데이터의 효율적인 활용과 생산·관리·현황과 주요 이슈 및 문제를 파악하고, 데이터 맵을 구축해 교육 데이터의 생성 연계 분석 및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Chapter 5.

글로벌 교육 협력 및 지원 강화

01 교육 2030 및 SDG4 이행 모니터링 및 지원

교육형평성 및 학습 환경 보장을 위한 국제세미나 개최

유네스코 아태본부 공동 국제세미나 | 한국교육개발원은 2021년 10월 21일부터 22일까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와 함께 '2021 UNESCO-KEDI 아태지역 정책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 행사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가 2001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로, 2021년에는 '코로나19 시대와 그 이후, 교사의 디지털 및 원격교육 역량 지원'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즉,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태평양지역 교사들의 디지털 원격 교수 역량 지원을 위한 노력과 현황 과제를 점검하고, 나아가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정책적 방향과 전망을 모색하였다.

총 4개의 세션으로 구분하여 진행된 해당 세미나는 '코로나19 시대의 교사 역량 및 교수방법 지원책',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혁신적 교사 역량개발 우수사례와 협업 현황', '교사의 웰빙 중심 동기 부여 및 근무환경 개선'의 주제를 검토하였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각국 현장 교사들을 초청하여 '코로나19 시기의 원격수업 우수 혁신 사례'를 주제로 수업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세미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사들의 회복력 제고와 미래지향적 역량 개발에 크게 기여했다.

한-OECD 국제세미나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11월 29일 '2018 한-OECD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교육형평성과 삶의 질: 현실을 넘어 미래로'라는

2018.11.29.
2018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

주제로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교육형평성 제고에 초점을 맞췄다. 즉, 다양한 교육 영역별 형평성 이슈와 사회 정책의 특징을 조명함으로써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기조 강연에서는 '한국의 교육 팽창과 평등'을 주제로 한국 사회의 교육 팽창 과정과 계층 분포 변화 양상을 통해 삶의 질과 관련된 교육형평성의 주요 이슈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서 'OECD 관점에서 본 교육 체제에서의 평등과 포용'이라는 주제로 교육에서의 성평등과 교육 기회의 공평성 문제를 OECD 교육 체제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한편, 당면한 도전적 과제들을 제시하였다.

오후 세션에서는 '교육정책' 분야와 '사회정책' 분야 두 개의 세션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교육정책 분야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교육형평성'과 '한국의 교육 영역별 형평성'이라는 두 개 주제로 진행되었고, 사회 정책 분야는 '전환기 한국 복지국가와 사회 정책의 현대화'와 '삶을 변화시키는 포용적이고 혁신적인 사회 정책'이라는 두 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2018 한-OECD 국제세미나'는 교육형평성에 관한 OECD 데이터와 다양한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관련된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발전적인 해결 방안을 탐색함으로써 한국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교육형평성 제고에 기여했다.

2018 KEDI-유네스코 방콕 국제세미나 | 한국교육개발원은 2018년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유네스코 방콕아태지역 사무소와 공동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국제세미나는 아-태 지역의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아-태 교육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안전한 학습 환경과 교육의 질'이라는 주제로 3개 세션을 진행하였다. 제1세션은 '아-태 지역 안전한 학습환경 보장: 쟁점과 우선순위'라는 주제로, 제2세션은 '학교시설 개선과 재난위험 감소'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3세션에서는 한국·홍콩·태국의 학교폭력 분야의 교육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자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와 관련된 국가 및 학교 사례를 소개하였다.

2018.10.15.
2018 KEDI-유네스코 방콕 국제세미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 분야의 개발협력 실천전략 모색

2015년 9월 UN이 선언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2030'은 지속가능한 인류의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의 목표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효과적인 SDGs 이행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7년부터 6개년에 걸친 중장기과제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를 수행하였다. 각 연차별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았다.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 연차별 연구 주제

1년차(2017년)	SDG 교육목표(4.1&4.2) 기초교육 분야 개발협력 실천 전략
2년차(2018년)	SDG 교육목표(4.3&4.4) 기술직업교육·훈련 실천 전략 도출
3년차(2019년)	SDG 교육목표(4.3) 고등교육의 개발협력 실천 전략을 도출
4년차(2020년)	SDG 교육목표(4.5) 교육형평성 보장을 위한 개발협력 실천 전략
5년차(2021년)	SDG 교육목표(4.6) 청소년·성인의 문해교육 개발협력 실천 전략
6년차(2022년)	SDG 교육목표(4.7)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 협력전략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SDGs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개발협력 전략 수립에 큰 도움을 주었다. 특히 2022년 연구에서는 지속가능개발목표(4.7 세부목표)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을 통한 교육개발협력' 의제 이외에도 교육 분야 협력목표와 나머지 16개의 SDGs를 연계하여 환경, 경제, 성평등, 평화, 보건위생, 인권 등의 글로벌 협력의제까지 포괄하는 연구를 추진하였다.

02 개발도상국가와의 개발협력 강화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 수행

OECD, UN, World Bank 등 여러 국제기구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국가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각종 지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6년 UN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함에 따라 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통계 체제 및 지표 개발이 중요해졌다. 하지만 개도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는 통계 생산 역량이 낮아 양질의 통계 및 SDGs 지표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한국교육개발원은 2016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 사업은 개도국의 교육통계 생산 및 활용 역량 개발을 지원하여 개도국 스스로 교육통계 및 지표를 생산하게 함으로써 각국의 증거기반(evidence-based) 정책 수립 및 모니터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수행되었다.

1주기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사업」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었다. 1주기 사업에서는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3개국에 대한 교육통계 역량 강화 컨설팅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교육통계 시스템 및 인프라, 법·제도 및 조직 정비, 교육통계조사체계, 교육통계서비스, 교육지표 개발 및 관리 등 여러 측면에서 각국의 개선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컨설팅 과정에서 일부 개선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아울러 개발원은 국가별 컨설팅 보고서를 영어와 현지어로 발간하여 해당 국가 교육부와 유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하였다. 이 컨설팅 결과는 이후 각 국가에서 우리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국제교류협력사업(ODA)을 지원받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한편, 개발원은 2020년부터 2주기 사업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1주기(2017-2019년) 컨설팅 국가별 주요 성과

구분	몽골	베트남	스리랑카
주요 성과	• 몽골 교육통계 장관령 개정(안) 제출 • 교육통계 전담 인력 확보 및 전담 조직(IT-통계과) 신설 • 취학 전(유치원) 교육통계 시스템 구축 및 관련 예산 확보 • 취학 전(유치원) 교육통계 지침 개정(안) 발간 • 교육통계 품질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시작 • 몽골 교육통계 신규 자료집 발간 • SDG4 지표 관련 조사항목 추가	• 교육통계센터 확대 개편 • 교육통계 인식개선에 따른 교육통계법 개정 및 국회 중기계획을 통한 국가지표 선정 • 2030 교육발전계획 구축 사업 구축으로 SDG4 지표 작성 계획 수립 • 유초중등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신규 시스템 구축 및 기존 학생관리정보 시스템과의 연계 진행 중 • 대학정보화사업 구축계획 수립 중 • 교원, 학생, 교실 수 예측서비스 마련 • 유초중등 및 고등교육 데이터베이스 표준화를 위한 규정 제정	• 법령 개편의 필요성 인식 • 학교단위 조사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개발·보급 • 교육통계 전담인력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교육통계조사지 개선 및 신규조사지 개발 • 교육통계조사 매뉴얼(조사지침) 개선 • 스리랑카 컨설팅 대상 확대 (UGC(University Grants Commission:대학입학위원회) 고등교육부)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별 중점협력국 교육 공적개발원조 관련 연구 수행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 2007년부터 10년 동안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지역의 중점지원 대상 개발도상국에 대한 교육진단 및 협력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다.

당초 개발원은 2007년부터 3년 동안 아시아 지역 중점국가 협력연구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몽골·베트남·인도네시아 등 7개국을 대상으로 교육현황 및 교육협력요구진단, 중장기 협력과제 등을 구상·제안하였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연계 전략으로 2010년부터 이집트·나이지리아·콩고민주공화국·에티오피아·탄자니아 등의 북아프리카 및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교육협력 방안이 작성되었다. 이후 2013년부터는 3개년 연구로 중남미 지역의 콜롬비아·파라과이·페루·볼리비아·과테말라 등 5개국 지원방안 연구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이처럼 개발원에서 주도적으로 수행한 지역별 중점지원국가 개발협력방안 연구는 국무조정실 ODA 기술협력으로 적극 활용되기도 했다. 2016년 이후로는 UN이 새롭게 제안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전략을 통해 글로벌 교육개발협력 방안으로 발전했다. 특히 2010년대에 이룬 한국-ADEA(아프리카교육개발협회) 교육협력사업으로서 부르키나파소에서 개최된 '한국의 날' 행사, 한국-이슬람교육기구(OIC) 교육협력사업, 아프리카 세네갈, 케냐, 에티오피아 교육협력사업과 아시아권의 스리랑카, 캄보디아, 몽골, 이라크, 요르단 연수사업 등이 10년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 추진되었다. 이러한 연구사업 실적을 기반으로 개발원은 2017년부터 전 세계 개발도상국가에 대한 교육협력방안을 기초교육, 직업기술교육훈련, 고등교육, 교육

2019.08.06.
니카라과 교육당국 관계자 내방

형평성 지원, 문해교육, 지속가능발전역량지원 등 6개 단계로 구분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마련하였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앞으로도 2030년까지 교육개발협력의제를 중심으로 기후환경 변화,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불평등감소,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성평등과 보건복지, 빈곤해소 대책 등 글로벌 혁신의제와 연계하는 「그랜드 교육개발협력의제 실천연구」 사업을 본격적으로 구상·적용할 계획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 수행

한국교육개발원은 한국국제협력단의 글로벌 연수사업을 2020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수행하였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주기 개도국 교육지표 개발협력 연구의 참여국이었던 스리랑카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1차년도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없었다. 이에 개발원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교육통계 자료 수집·분석·활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해나가고 있다. 사업 개요는 아래와 같다.

과정명	교육통계 조사·분석·활용을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Capacity Building for Survey·Analysis·Utilization of Educational Statistics)
연수기간	4년(2020~2023년)
연수대상	스리랑카 교육통계 담당자(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급 학교 등)

개발원은 코로나19 이슈로 2021년도에도 해당 글로벌 연수사업이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감안하여 온라인 방식의 연수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스리랑카 교육부·시도교육청·각급 학교 교육통계 담당자 등 총 22명을 대상으로 열흘에 걸친 온라인 연수가 시행되었다.

가상 스튜디오 방식을 통해 현장감 있고, 참가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연수를 추진하였다. 사전 제작된 동영상 강의를 시청하고 실시간 소집단별 온라인 토론을 통해 참가자들 스스로가 스리랑카 교육통계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를 도출하고 실행계획(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고등교육·ICT·방송교육 분야 국제협력' 교육 세션 진행

한국교육개발원은 '2020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에서 컨퍼런스 일환으로 교육 세션을 진행하였다. '고등교육·ICT·방송교육 분야 국제협력'을 주제로 진행된 이 행사는 해당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성과를 살펴보는 데 있었다. 나아가 코로나 시기의 도전과제를 탐색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국제협력에 있어 K-에듀의 선도적 역할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도 하였다. 개발원은 이 행사에서 한국 교육통계 분야 개도국 대상 컨설팅 성과 사례로 '개도국의 교육통계 역량 강화 및 데이터 중심의 교육정책 수립 기반' 지원 성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 분야 국제협력의 우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제협력 활성화 및 우리나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개발원은 미래사회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모색해 나갈 것이다.

2021.11.15~17.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컨퍼런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50th

한국교육개발원 본부별 현황

Part.02

Current state of affairs

Section 1. 부원장/기획조정본부

Section 2. 초·중등교육연구본부

Section 3.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Section 4. 교육데이터연구본부

Section 5. 미래교육연구본부

Section 6. 교육현장연구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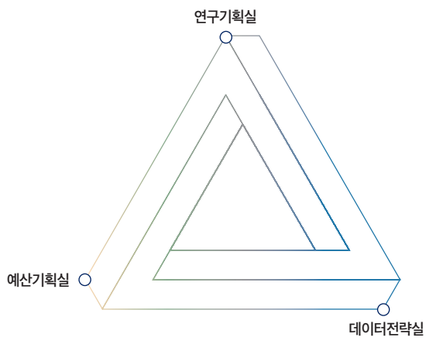
Section 7. 대외협력단

Section 8. 경영지원본부 및 감사실

1972 2022

Section 1.

부원장/기획조정본부



01 개요

부원장/기획조정본부는 연구기획실, 예산기획실, 데이터전략실 등 3개 실로 조직되어 있다. 2022년 직제 개편을 통해 그동안 기획조정본부에 포함되어 있던 홍보·글로벌협력 관련 업무는 대외협력단으로, 정보화 관련 업무는 경영지원본부로 이관되었다. 이를 통해 부원장/기획조정본부는 연구·사업 기획과 관리,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연구의 기반 조성 등 연구·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기획 중심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먼저, 연구기획실은 기관의 전략적 운영 방향 수립과 그에 따른 성과관리, 연구·사업의 기획·발굴부터 공유·확산까지 전 주기적 관리 수행을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기관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 범위로 설정하고 있다. 예산기획실은 효율적인 기관경영을 위하여 중장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및 규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기관경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및 인력 증원 신청, 국정감사 수감 등 정부부처 및 국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2년 신설된 데이터전략실은 국가 수준의 교육데이터 구축·운영, 능동적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기반 교육 연구·지원 체계 구축, 교육데이터의 적극적 활용과 개방, 데이터 기반의 교육 현안 대응 등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02 업무 현황

1)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은 기관의 전략적 중장기 발전계획과 기관장 경영목표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이와 연계된 기관의 성과관리도 함께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사업의 기획 및 발굴하고 연구·사업의 질 관리 및 연구사업관리시스템의 운영, 조사도구 및 산출물 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 성과의 공유·확산을 위한 콜로키움, 정책포럼, 학술대회 등의 개최와 이슈페이퍼 발간,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을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연구·사업에는 출연금에 의한 연구·사업, 정부 등 외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연구·사업과 함께 유관기관과의 협동에 의한 연구·사업 등이 모두 포괄되어 있다. 연구·사업의 진실성 추구를 위해 연구윤리 준수를 위한 제도의 구축·운영 및 인간 대상 연구의 생명윤리 준수를 위한 체제 구축·운영 등을 수행하는 것도 연구기획실의 주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연구기획실은 기관의 전략적 중장기 발전계획과 함께 기관장 경영목표 수립, 이와 연계한 경영성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2) 예산기획실

예산기획실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예산의 편성·조정·배정·통제 관리 및 중장기 재정 계획 수립, 조직 및 정원관리, 규정 제·개정 및 제도 개선, 국회 및 정부부처 관련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

다. 개발원 예산과 관련하여 매년 초에 중기 재정 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기반으로 다음 해 출연금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출연금 예산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의 심의·조정, 국회 정무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후 정기국회에서 최종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조직 및 정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초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6월까지 다음 해 인력 증원 요구 및 기획재정부 심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조직개편 시 이런 내용을 반영하는 등 기관 운영에 적절한 정원을 관리하고 있다. 규정 및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안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유관기관 실태 등을 참조하고 기관 내 의견 수렴 및 행정표준화 회의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관업무 및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회 및 정부부처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매년 정기국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는 국정감사를 수감하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 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데이터전략실

데이터전략실은 2022년 1월에 신설된 조직으로, 그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은 중요한 경영목표나 실천과제를 다루어 왔다. 또 이와 관련된 연구·사업의 성과 또한 지대하다. 그러나 여러 실·센터 및 연구·사업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다소 개선될 부분이 있었고, 향후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데이터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발전적인 전망 속에서 연구·사업을 수행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신설된 데이터전략실은 개발원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구축·관리·활용에 대한 종합적 전략을 마련하고, 원내·외 데이터 간 연계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교육연구와 정책 수립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의 교육 현장 모니터링과 적시적인 교육 현안에 대해 대응하는 역할도 데이터전략실의 주요한 업무이다.

03 주요 성과

1) 연구기획실

연구기획실에서는 그동안 기관의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설계하고 이에 따른 연구사업 수행 및 기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2007 중장기 발전계획, 2012 청사 이전에 따른 KEDI 중장기 발전계획, 2018년 기관 이전에 따른 지역발전계획, 2019 기관경영 성과진단 및 혁신계획, 2022 KEDI 2030 발전계획 등의 수립을 담당해 왔다. 더불어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토대로 기관장 취임 시 기관경영 목표 수립을 통해 더욱 구체화된 기관의 운영전략과 성과목표, 실천계획 등을 제시해 왔다. 2022년 현재에는 제19대 원장의 경영목표를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책무성을 확보하고 기관경영에 따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연구기관 평가를 매년 수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고객이 요구하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그 결과를 다시 기관경영에 환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획실은 기관 출연금에 의한 연구·사업의 기획 및 발굴·수행과 이에 따른 조사도구와 산출물 관리 등 연구·사업의 전 주기에 걸친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구과제의 기획 및 발굴을 위해 연구사업기획심의위원회와 자문을 위한 위원회 및 TF의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또한 외부 기관에 의한 수탁 연구·사업의 수주 및 실행계획서 심의, 정책기여도 제고를 위한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의 질 관리, 산출물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134건의 연구·사업 관리를 수행해 온 연구기획실은 교육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의제 설정과 정책 형성 역할 수행에 꾸준히 이바지하고 있다.

아울러 연구기획실은 연구·사업의 수행에 통해 도출된 성과의 공유·확산을 통해 기관의 교육정책 의제 설정 기능 강화에도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슈페이퍼·정책제안서· 국내 학술지 논문 게재 지원 등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현안 대응 및 이슈화를 담당해 왔으며, KEDI 교육정책포럼·청람교육포럼·국내 학회와의 학술대회 연계 등을 통해 공론의 장을 마련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연구·사업 수행과정에서 진실성을 추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구 및 생명윤리 준수 체계를 확립·운영해 왔다. 보고서 출판윤리의 준수와 함께 부당한 저자 표기의 방지, 부실학회 참여 방지 등을 통해 연구윤리 준수 문화를 수립하고 있으며,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를 통해 인간대상 연구의 생명윤리 준수 강화와 이를 통한 연구대상자 보호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2) 예산기획실

예산기획실에서는 매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인 정부출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을 통해 2020년 193억 9,000만 원, 2021년 195억 8,500만 원, 2022년 202억 8,800만 원을 승인받았다. 또한 매년 중기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3개년 간 총 4명(2020년 2명, 2021년 1명, 2022년 1명)을 증원받았으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연구 수행 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예산기획실에서는 대외적으로는 경영목표 달성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구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외부 유관기관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국회 국정감사의 성공적인 수감으로 기관의 대외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였다. 대내적으로는 내부 환경 개선 요구에 부응하여 행정표준화 회의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관련 법령 및 규칙이나 권고사항 등을 기관 규정에 성실히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이 가져야 할 올바른 가치관 형성 및 방향성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다.

3) 데이터전략실

한국교육개발원은 1990년대부터 교육통계 및 교육조사 분야에 있어서 양질의 교육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한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기본통계·취업통계·평생교육통계·영재교육통계 등 한국의 대표적인 교육 분야 승인통계를 작성하고 있으며, 한국교육종단연구, 학교교육실태 및 수준 분석연구·학생역량조사·대학의 교수-학습 실태조사 등 국가수준의 대규모 종·횡단 조사연구를 선제적으로 수행해 왔다. 또한 당시 연구기획실을 중심으로 2012~2013년에 이미 데이터 수집·관리·제공 관련 지침을 제·개정하여 데이터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한 바 있다.

2012년에는 조사자료 공개지침을 제정하여 연구·사업에서 수집된 조사자료의 공개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을 마련하였고, 2013년에는 조사자료 관리 지침을 제정하였으며, 2015년 개정을 통해 조사도구 및 조사자료 관리 지침으로 개정해 제출 자료 및 관리 대상 자료를 확장하였다. 이와 함께 질적 조사자료도 관리 대상에 포함하였다. 또한 2020년 개정에서는 수탁연구·사업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다. 한편 2013년에는 교육통계자료 관리 및 제공 지침을 개정하여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통계 자료에 대한 자료제공 범위, 방법, 신청 및 제공 절차 등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오늘날 한국교육개발원은 더욱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데이터전략실을 신설하였다.

04 계획 및 전망

1) 연구기획실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정책 분야의 싱크탱크로서 보다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연구기획실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기관의 교육 분야 의제 설정 기능 강화를 위해 전략적 연구기획 및 현안 대응체계를 재정립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정책을 둘러싼 정책수요자와 이해관계자는 매우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에 따라 교육 문제에 대한 이해와 요구의 관점 또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이해관계자 간에 첨예한 대립을 통해 많은 교육정책의 문제들이 갈등의 양상을 보이며 난제로서 정책 해결이 더욱 어려워지는 추세에 있다. 더불어 인구구조의 변화 및 경제·산업·기술 등 주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을 전달하는 학교와 교육기관 역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의 요구 하에 있다. 한편, 최근 팬데믹은 표준적 교육체계와 교육현장의 시공간을 넘어 개별 학습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변화된 형

태의 학습체계를 요구하는 계기로 작용함에 따라 보다 혁신적인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연구기획과 이를 통한 선도적 의제 설정 기능의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둘째, 다양한 성격의 연구를 적합한 주제에 맞게 발굴하기 위한 연구·사업 발굴 체계의 정련과 증가하고 있는 연구·사업의 수와 규모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적정한 수준에서 효율적인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 방안의 재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다양한 형태와 성격의 연구·사업 수행에 대한 요구와 그 성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수준에 있다. 이론적 토대를 기반으로 정책의 기초 원리를 다루는 학술적 연구와 함께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정책연구를 통해 실질적 정책 방안의 탐색과 정책 실현화가 요구된다. 더불어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단기간의 수시연구와 함께 중장기적 관점에서 특정 현상을 관찰·분석하거나 데이터를 수집·축적하는 연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각 연구의 성격에 맞는 적합한 주제의 발굴과 이를 위한 체계의 정련, 이에 연계한 효율적 관리 방안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있다.

2) 예산기획실

예산기획실은 대내적으로는 예산 편성의 합리성 및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통해 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중장기적 인력계획 수립 및 정원관리를 통해 효율적 인력 운영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또한 기관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보다 원활한 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대외적으로는 주무 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유대관계 형성 및 업무협력 강화를 통해 정부출연금 확보 및 인력 증원에 힘쓸 것이며,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기관 중장기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직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3) 데이터전략실

데이터전략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교육연구 데이터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교육단계별 학교 수준의 횡·종단 조사 데이터 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교육종단연구·학교교육실태 및 수준 분석연구·학생역량조사·대학의 교수-학습 실태조사 등의 기존 조사들을 발전시켜 우리나라 전 교육단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한 조사데이터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또 이를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 체제를 모니터링하고, 학교교육의 과정과 성과, 교육정책의 실행 및 이행 성과 등을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이 같은 조사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는 주요 지표체계의 미산출 지표의 산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다. 둘째, 교육 분야 유관 데이터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분석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육통계와 조사자료를 유관부처, 유관기관, 시도교육청 등의 보유 데이터와 연계해 보다 학술적·정책적·실천적 활용도가 높은 연구들을 생성할 것이다. 셋째, 교육 분야 이슈에 대응하는 상시 여론조사체제 구축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신속하게 파악하여 교육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는 상시 여론조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발전된 여론조사분석 기법들을 통해 교육 이슈와 국민 여론을 빠르게 파악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넷째, 교육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데이터 수요자의 데이터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조사데이터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의 축적·관리·개방 체제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한국교육개발원을 비롯해 유관 부처와 기관에 산재한 교육 분야 데이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데이터 허브를 구축할 것이다.

최근 5년간 연구·사업 관리현황(2017~2021년)

(단위: 건, 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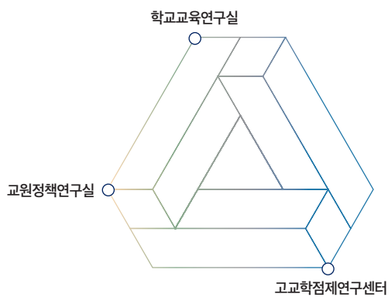
구분	출연금과제		수탁과제		합계	
	자체	수시	정부	민간	건수	금액
2017	26	18	48	6	143	85,958
2018	28	13	82	16	140	59,515
2019	38	9	62	27	142	58,660
2020	37	11	59	16	125	54,385
2021	36	6	48	4	121	59,496
연평균	33	11	60	14	134	63,603

*주: 소수점 이하 반올림

** 출처: KEDI 연구사업관리시스템 (2022.2.9. 인출)

Section 2.

초·중등교육연구본부



01 개요

초·중등교육연구본부에서는 초·중등교육 분야 학교교육을 비롯하여 유·초·중등교육 제도, 교육자치·교육 거버넌스, 교원정책, 고교교육 혁신에 관한 연구와 사업, 기타 초·중등교육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분야는 1972년 한국교육개발원 설립의 계기가 되었던 프로젝트가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Elementary & Middle School Project: E·M Project)'인만큼 한국교육개발원의 출범 직후부터 시작된 주요 연구사업 영역이다. 지나온 기간에 따라 초·중등교육연구본부, 학교교육연구본부, 교육정책연구본부 등으로 일부 명칭 변화가 있었지만, 창립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초·중등교육 관련 연구와 사업을 하는 부서로서의 정체성은 변함이 없다. 현재 초·중등교육연구본부는 학교교육연구실과 교원정책연구실, 고교학점제연구센터의 2실 1센터로 조직·구성되어 있다.

02 업무 현황

1) 학교교육연구실

학교교육연구실은 학생, 학부모, 학교교육 관련 연구를 통해 학습자가 학습의 즐거움을 느끼는 학교교육과 함께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교육, 사회통합을 위한 학교교육 방향을 꾸준히 제시해왔다. 2022년 현재에는 초·중등교육의 학교교육을 비롯해 교육제도, 교육자치·교육 거버넌스,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3개의 기본연구와 1개의 수탁연구, 2개의 수탁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기본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화 방안',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 모델 개발',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Ⅱ)'를 수행하고 있다. 수탁연구로는 '미래지향적 괴산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Ⅰ): 괴산고 발전방안'과 2개의 수탁사업인 '2022년 시·도교육청평가사업'과 '2022년 자기주도 학습전형지원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2) 교원정책연구실

교원정책연구실은 교원 양성과 전문성 신장, 교원 인사제도와 복지, 교원정책 국제비교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교원 관련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와 함께 주요 현안과 연계된 교원 관련 사업을 병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원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현재 교원정책연구실에서는 교원정책 혁신의 기반이 되는 정책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개의 기본과제와 3개의 수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기본연구로는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한국 초등교원 종단연구(Ⅱ)'가 있으며, 수탁사업으로는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사업',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학교 업무경감

및 효율화 사업'이 수행되고 있다.

3) 고교학점제연구센터

고교학점제연구센터에서는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함께 미래 교육체제와 미래지향적 역량교육의 실행전략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는 등 미래지향적 교육 패러다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지원해나가고 있다. 먼저 고교학점제연구센터는 고교학점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지원을 위해 설치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21년 9월 「초·중등교육법」 제48조의2(고교학점제 지원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 시행령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마련됨에 따라 2022년부터 이에 근거한 국가지정 고교학점제 지원센터가 지정될 예정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일반고 학점제 성과분석, 고교학점제 선도지구사업, 학교간 공동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공간조성사업, 현장소통 및 인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학교교육연구실

학교교육연구실에서는 초·중등교육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연구와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다.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와 수탁사업 및 2022년 수행 중인 연구와 수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와 수탁사업 및 2022년 수행 중인 연구와 수탁사업

구분		연구·사업명
2019	기본연구	•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 방안 연구 •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V)
	수탁사업	•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사업 • 2019년 시·도교육청 평가를 위한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 사업
	수탁연구	• 학교자치 확대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방안 연구 • 서전고등학교 종단연구 III •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충북혁신도시 교육협력 학교 모델 개발
2020	기본연구	• 공교육 혁신을 위한 탄력적 교육 체제 운영 방안: 통합운영학교 도입을 중심으로 • OECD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 혁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연구(연적금) •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 전문성 강화 방안(수시)
	수탁사업	• 2020년시·도교육청 평가사업 • 2020년 교원 행정업무경감 사업
2021	기본연구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 학교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I)
	수탁사업	• 2021년 시·도교육청평가사업
2022 (수행중)	기본연구	•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학교교육 유연화 방안 • 중등 글로벌 인문교양교육 수업 모델 개발 •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II) • 교육의 질 제고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 관련 제도 연계 및 발전 방안 연구(수시)
	수탁사업	• 2022년 시·도교육청평가사업 • 2022년 자기주도적학습전형지원사업
	수탁연구	• 미래지향적 괴산교육 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I): 괴산고 발전방안

학교교육연구실에서는 지난 3년간 다양한 정책연구와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다. 2019년의 주요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지방교육자치 역량강화 방안 연구'는 자치분권 시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중앙의 교육권한을 어떻게 발휘하고 적용할지에 대한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지방교육자치의 현황과 방향 및 과제, 주요 역량과 관련 요인 분석 등을 통해 교육 주체들 간의 연계와 공동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역량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중학생의 성장과정 분석: 학교, 가정, 지역사회를 중심으로(IV)' 연구를 통해 동일한 연구 대상에 대하여 4년간의 성장과정을 추적해 왔으며, '생활과 성장과정'이라는 공통 주제와 함께 매년 '관계', '정체성', '진로'와 같은 핵심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중학생의 삶과 성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중학교 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020년에는 공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체제 운영과 보다 역량을 갖춘 미래지향적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등을 연구하였다. 먼저 '공교육 혁신을 위한 탄력적 교육 체제 운영 방안: 통합운영학교 도입을 중심으로' 연구는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의 구현을 위해 표준화된 학제의 유연화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필요로 하는 탄력적 교육체제가 요구된다는 인식 하에 통합운영학교가 서로 다른 학교 조직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기반으로 하며 다양한 통합적 교육과정을 마련함으로써 학제 유연화를 선도한다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간 교육과정 운영이 연계되는 통합운영학교의 교육과정 통합운영 방안과 통합운영학교를 중심으로 한 탄력적 교육체제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OECD교육 2030 참여 연구: 미래지향적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 연구는 OECD 교육 2030의 2주기 참여 연구로,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을 찾고,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교사의 역할을 상징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역량교육 실행을 위한 교사의 역할과 역량을 탐색하였다.

학교교육연구실은 2021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와 함께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를 연속적으로 수행해나갔다. 먼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인구 이동, 원도심에 위치한 소규모학교처럼 새로운 유형의 소규모학교가 나타나는 등 사회적 영향요인에 따라 소규모학교가 증가하는 가운데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소규모학교 정책 방향 설정과 접근의 필요성에 따라 연구가 수행되었다. 해당 연구를 통해 학교교육연구실은 우리나라 학교규모 지형도를 예측하고 소규모학교의 여건과 특징을 고려하여 소규모학교 지원체제 및 운영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OECD 교육 2030 참여 연구: 역량교육을 위한 교사양성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연구는 OECD 교육 2030 2주기 3차년도 연구로 지속되었다. 해당 연구는 교원양성교육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그 현황을 이해하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교육하는 교사의 양성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탐색한 결과를 토대로 교사교육에 관한 이론적·학술적 논의를 제공하였다.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 학교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특징을 논리적으로 기술하고 이의 탐색을 위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향후 10년간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성장과 변화에 대한 10년 연구(I)'은 10년간 수행되는 '10년 연구'의 제1차년도 연구로서 학교의 성장과 변화를 탐색하기 위한 분석 틀을 정하고 데이터 수집과 축적 및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10년간의 연구를 설계하였다.

아울러 학교교육연구실에서는 '시·도교육청평가사업'과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사업'을 통한 수탁사업과 수탁연구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시·도교육청평가사업'은 1996년 시·도교육청평가가 도입된 이후 매년 또는 격년으로 실시된 평가로서 기관 조직개편에 따라 다른 부서에서 수행된 경우도 있으나 최근에는 학교교육연구실에서 계속 수행되고 있다. '시·도교육청평가'는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 국가시책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발굴된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공유·확산하였다. 2021년부터는 전면 개편된 평가 개선 방향에 따라 국가시책 추진현황 점검, 주제별 정책분석 진단,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등을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수행 중에 있다.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사업'은 자기주도학습전형 확산 및 현장 착근을 위해 2011년 3월 한국교육개발원에 '자기주도학습전형지원특임센터'를 설치·운영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오늘날에는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담당관 업무 안내서 발간, 자기주도학습전형 입학전형 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고등학교 입학전형 영향평가, 입학담당관 입학전형위원 연수, 고입정보포털사이트 운영, 자사고·외고·국제고 고입 업무 지원 시스템 운영 등의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학교교육연구실에서 수행한 수탁연구는 다음과 같다. 2019년도에 '학교자치 확대에 따른 학부모의 교육 참여 방안 연구',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충북혁신도시 교육협력학교 모델 개발', '서전고등학교 종단연구 III' 등을 수행하였다. 2020년에는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교원전문성 강화방안' 연구,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교원행정업무경감 개선 방안'연구를 수행하였다.

2) 교원정책연구실

교원정책연구실에서는 교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

와 이에 따른 교원정책 과제를 모색하고 미래 교원양성을 위한 다양한 연구와 수탁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와 수탁사업 및 2022년 수행 중인 연구와 수탁사업은 아래 표와 같다.

교원정책연구실은 정책연구와 기초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2019년에는 '교직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Ⅲ): 교원 인사제도 혁신 방안 연구'를 통해 교직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교원정책 영역에서 지원해야 할 혁신과제를 3개년에 걸쳐 관련 집단의 혁신 요구를 수렴했고, 이를 통해 3차년도 연구에서 교원 인사제도의 혁신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2018 결과를 중심으로(Ⅰ)'를 주제로 TALIS 2018이 다루고 있는 교사의 인적 배경 및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 결과를 국내의 상황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과 함께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교원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국제비교학적 관점에서 고찰해 실행 가능한 교원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와 수탁사업 및 2022년 수행 중인 연구와 수탁사업

구분		연구·사업명
2019	기본연구	• 교직 환경 변화에 따른 교원정책 혁신 과제(Ⅲ): 교원 인사제도 혁신방안 연구 •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비교 연구: TALIS2018 결과를 중심으로(Ⅰ)
	수탁사업	• 2019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업 • 2019년 교원 존중 및 치유지원사업 • 2019년 교장자격연수기관 운영평가사업
	수탁연구	•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수업요구와 교사과목개설 합치도 제고 방안 연구
2020	기본연구	•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2018 결과를 중심으로(Ⅱ) •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
		• 교사인플루언서의 활동 및 영향 분석(연적금) • 이주배경 학생 밀집 초등학교교원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수시)
	수탁사업	•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업 • 2020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수탁연구	•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교육격차 원인과 대응 방안: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경험 개선을 중심으로 • 5주기 전문대학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 개발
2021	기본연구	•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적응을 중심으로
	수탁사업	• 2021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업 • 2021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 2021년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사업 • 2021년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사업
	수탁연구	•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개선방안 연구
2022 (수행중)	기본연구	• 교사의 직무수행 변화 분석과 향후 과제 • 한국초등교원종단연구(Ⅱ) • 「평생학습자로서의 교사」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선 방안 연구(수시)
	수탁사업	• 2022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업 • 2022년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 2022년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사업

2020년에는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2018 결과를 중심으로(Ⅱ)'는 TALIS 2018의 결과를 교사 직무스트레스, 교사 평가와 피드백, 교사협력과 학교풍토, 학교리더십의 4개 주제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중학교 교원 및 교직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고 교사 전문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미래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사자격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서는 교사 자격제도의 개념, 구성요소, 개선 지향점을 밝혀 교사자격 내용, 교사자격 관리, 교사자격 활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원정책연구실은 2021년 '학교자치 관점에서 본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학교자치 관점에서 교원양성교육, 교사연수 체제, 교장 공모제, 순환 전보제, 교원능력개발평가, 교원성과급제, 교원의 지방직화 등 교원정책별 쟁점과 이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였고, '교원 및 교직환경 국제비교 연구(TALIS): 초등학교 신규교사의 교직적응을 중심으로'는 신규교사의 교직 적응이 어떤 상황과 요인에 의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분석하고, 성공적인 교직적응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제시하기도 하였다.

교원정책연구실은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이외에도 다양한 수탁사업과 연구를 수행하였다.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사업'을 비롯하여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사업', '교장자격연수기관 운영평가사업',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사업'을 계속해서 수행해오고 있다. 먼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업'은 1997년 교육부가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정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수행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을 지정하면서 1998년(1주기 평가)부터 수행하고 있다. 교직 전문성과 미래역량을 갖춘 예비 교원양성을 위해 교원양성기관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교육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 교·사대 교육과정 개편, 대학기본역량진단 및 재정사업 등 다른 교육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해 역량진단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있다. 전문적 역량진단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자기 발전을 유도하고, 이 같은 결과를 공개하여 교직 희망자에게 신뢰도 높은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는 '5주기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사업'이 수행되었다.

아울러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자긍심과 의욕이 저하된 교원 지원 및 사기진작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위기 교원 지원을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공포(2016.2.3., 2016.8.4. 시행)되어 시행되었고, 현재 시·도교육청별로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각 시·도별로 운영 중인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내실화와 효율성 제고, 시·도별 운영 현황 공유 및 협력 증진을 위해 운영 성과분석, 관련 전문가 및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자료 배포 등을 통해 교원치유지원센터의 내실화에 이바지하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육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학교업무경감 및 효율화사업'도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교원정책연구실은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 업무 총량을 경감하기 위한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자치를 위한 교육지원청의 혁신적 운영 및 학교지원센터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된 '교장자격연수기관 운영평가사업'의 경우, 전국 유치원장 및 초·중등교장 자격연수를 실시하는 3개 연수원을 대상으로 연수 운영 평가 및 후속 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2019년도 평가는 3주기 평가로서 교장 자격 연수기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연수의 질 제고 및 지속적 발전을 유도하였다. 또 2015년부터 시행된 '종합교육연수원 운영평가사업'은 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시행하는 종합교육연수원에 대한 평가 및 컨설팅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3년 주기로 실시되며, 2021년에는 14개 기관에 대한 3주기 평가가 종료되었다. 평가 및 컨설팅을 통해 각 연수원의 특징과 장점을 활용한 전략적 발전 노력을 유도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교원들의 연수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수탁연구 수행 실적을 보면 2019년에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수업 요구와 교사과목개설 합치도 제고 방안 연구', 2020년에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교육격차 원인과 대응 방안: 이주배경 자녀의 교육경험 개선을 중심으로', '5주기 전문대학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지표 개발', 2021년에는 '6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업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3) 고교학점제연구센터

고교학점제연구센터는 고교학점제를 통한 교육혁신 사례를 분석하고 미래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센터는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다양한 수탁연구·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3개년간 주요 연구 실적은 다음 표와 같다.

고교학점제연구센터는 정책연구와 기초연구 수행을 위한 방안으로 2019년에는 '교육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연구를 수행했다. 해당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진 교육혁신의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미래교육의 실천 과제를 탐색하여 일반 고등학교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실천과제가 제시되어 있다. 2020년에는 '새로운 학력관에 따른 고교체제 연구: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미래사회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과 성적 위주의 학력관에서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학력관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더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중시하는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학교교육의 목적, 교육과정, 학교 운영 전반에 있어 새로운 변화를 담보할 수 있는 교육체제의 변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수탁사업 및 수탁연구 수행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와 수탁사업 및 2022년 수행 중인 연구와 수탁사업

구분		연구·사업명
2019	기본연구	• 교육혁신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교육 실천 과제
	수탁사업	• 2019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 2019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
	수탁연구	•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수업요구와 교사과목개설 합치도 제고 방안 연구 • 학교공간 혁신방안 연구 • 학교 문화 조성 전략 연구 • 대입연계방안 탐색 • 필요 교원 수 추산 연구 • 미래형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방향 탐색(외)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 교육력 제고 사업 발전 방안 연구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발전 방안 연구 • 농산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 방안 연구
2020	기본연구	• 새로운 학력관에 따른 고교체제 연구: 학교 운영을 중심으로
	수탁사업	• 2020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 2020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
	수탁연구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외) •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성취평가 현황 분석 및 대입 활용 방안 연구(외) •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업학급 및 수업시수 변화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 연구(외)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활용 모니터링 연구: 2020년도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 고교학점제 공간 활용 모니터링 연구 •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기준 및 가이드 개발 •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방향 탐색(외)
2021	수탁사업	• 2021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 2021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
	수탁연구	• 공동교육과정 기반 미래지향적 수업 운영을 위한 탐색적 연구 •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 사업 운영 실태 분석 •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방안 연구 • 고교학점제 관련 법령 개정 방안 연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 나타난 교원 업무 변화의 쟁점 탐색 •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과정 및 활용 방안 연구
2022 (수행중)	기본연구	• 학습자 중심 관점에서 본 교육의 형평성과 수월성 연구: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수탁사업	• 2022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사업 • 2022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지원 사업
	수탁연구	•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사이버 고등학교 설립 및 운영 방안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의 역할 변화 및 제도 개선 방안 •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 모형 연구 • 일반교실의 학점제형 공간 조성 및 활용 방안 연구

착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고교학점제연구센터의 주요 업무는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서 크게 교육부의 '고교학점제도입기반조성사업'과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각 사업을 통해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선도지구컨설팅, 학교공간 컨설팅 등 현장 지원과 교원연수 프로그램 개발, 고교교육혁신추진단/고교교육실무추진단/고교학점제종합추진계획지원팀과 중앙 및 시도의 지원센터 간 협의체, 시도담당자 협의체와의 연계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외에도 고교학점제 포털을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온라인 학습 플랫폼(교실온닷)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고교학점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먼저 2019년도에는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생수업 요구와 교사과목개설 합치도 제고방안 연구', '학교공간 혁신방안 연구', '학교문화 조성전략 연구', '대입 연계 방안 탐색', '필요 교원 수 추산 연구', '미래형 고교 교육혁신을 위한 교육과정 방향 탐색(외)',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고교교육력 제고 사업 발전방안 연구',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발전방안 연구', '농산어촌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 확대방안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2020년도에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육과정 설계 전문가 양성 과정 개발(외)', '고교학점제 도입 대비 성취평가 현황 분석 및 대입 활용방안 연구(외)', '고교학점제 도입 시 수업학급 및 수업시수 변화에 따른 필요 교원 규모 추산 연구(외)',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활용 모니터링 연구: 2020년도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공간 활용 모니터링 연구', '고교학점제 학교공간조성 기준 및 가이드 개발', '학생 맞춤형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방향 탐색(외)', 2021년도에는 '공동교육과정 기반 미래지향적 수업 운영을 위한 탐색적 연구',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지원사업 운영실태 분석', '고교학점제 학교 밖 교육 학점 인정 방안연구', '고교학점제 관련 법령 개정 방안연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에서 나타난 교원 업무 변화의 쟁점 탐색',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조성 과정 및 활용방안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미래사회를 선도하기 위해 우리 교육은 학습자 삶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초·중등교육연구본부는 교육 분야의 새로운 아젠다 연구를 비롯하여 한국교육개발원만이 할 수 있는 초·중등교육 분야의 대규모·중장기 연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난제에 관한 연구, 초·중등교육정책의 안정적인 현장 정착에 대한 지원을 연구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계획이다.

04 계획 및 전망

1) 학교교육연구실

학교교육연구실은 학교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연구·사업의 선도적 수행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연구·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첫째, 기후위기, 인구변화, 팬데믹, 디지털 전환 등 변화에 조응하는 아젠다 발굴과 선도적 연구
둘째, 학교의 변화 및 성장에 관한 질적·양적 데이터의 축적을 통한 혁신적 데이터 분석 활성화
셋째, 학교 성장과 변화에 대한 장기적 현장 밀착형 과제 수행을 통하여 학교 단위에서의 실제적 교육정책 작동과정·영향 요인 분석 및 교육정책 난제 해결의 단초 제공
넷째, 자치분권 확대를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의 연계·통합 방안 모색
다섯째, 교육혁신의 주체인 학생 및 학부모의 변화 및 역동에 대한 연구 추진
여섯째, 'KEDI 연구 협력학교' 및 실행연구 등을 통한 교육주체와 KEDI 간 소통협력 네트워크 형성

2) 교원정책연구실

교원정책연구실은 교원정책 혁신의 기반이 되는 정책연구 수행과 연구·사업 성과의 공유·확산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연구·사업을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미래교육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교원정책 연구 강화
둘째, 데이터기반 교원정책 연구 활성화
셋째, 글로벌 연구 협력 강화
넷째, 연구·사업 성과의 정책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
다섯째, 정책 수요자와의 소통 강화와 성과 확산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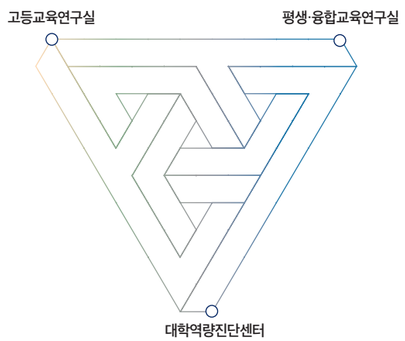
3) 고교학점제연구센터

고교학점제연구센터는 모든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포용적 고교교육 실현을 돕는 중요도와 유용성이 높은 다양한 연구와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미래사회에 기여할 창의적 인재 육성 지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특히 KEDI 고교학점제연구센터만의 차별화된 영역인 교원,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고교-지역 연계 방안, 학교 공간 연구와 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다.

첫째, 고교학점제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
둘째, 고교학점제 관련 현안에 대한 적극적 대응과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 고교학점제 학교공간 조성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현장 교육 지원 강화
셋째, 고교학점제 포털 구축 기반 마련 및 온라인 학습 플랫폼 통합운영과 같은 정보 체계화 및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운영
넷째, 고교교육 혁신추진단, 고교교육 실무 추진단, 고교학점제 종합추진계획 지원팀, 중앙·시도 지원센터 간 협의체, 시·도 담당 협의체 등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의 허브기능 발휘

Section 3.

고등·평생교육 연구본부



01 개요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는 본부 산하에 2실(고등교육연구실, 평생·융합교육연구실), 1센터(대학역량진단센터)를 두고 있다. 고등교육연구실은 고등교육에 대한 정책·제도와 관련된 국내·외 협력 연구와 사업, 고등교육 관련 데이터 및 지표·정책 동향 점검과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은 평생학습체제·평생학습 거버넌스 관련 연구를 비롯해 평생학습이론·문화·국제비교 연구, 평생교육 정책과 현안 관련 연구, 사회 변화와 교육의 상호관계 관련 연구, 지역평생학습생태계, 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평생교육 관련 데이터, 지표, 정책 및 동향 점검 및 분석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대학역량진단센터에서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컨설팅 관련 연구 및 운영, 고등교육 평가·컨설팅 관련 데이터, 지표, 정책 동향 점검 및 분석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02 업무 현황

1) 고등교육연구실

한국교육개발원의 고등교육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가장 오랜 전통을 자랑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고등교육연구를 처음 수행한 것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00년대 중반에 고등교육 정책연구의 기능을 담당한 연구실이 출범하였다. 고등교육연구실은 시기에 따라 고등·평생교육연구실, 고등교육정책연구실 등의 명칭 변경을 거치기도 하였으며, 현재는 직제규정 제9조(2021년 12월 28일 개정)에 따라 고등교육정책 및 고등교육제도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고등교육연구실의 대표적인 연구사업으로는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를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고등교육의 수요자 만족도 및 사회·경제적 효용성 제고 연구,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연구, 고등교육 제도 및 재정 개선을 통한 대학 경영 지원 연구,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 및 협력 활동 등 고등교육 관련 정책을 살피고 이를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2) 평생·융합교육연구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초가 된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는 2000년 초에 출범한 이후로 고등평생교육연구실, 인적자원연구실 등 명칭 변경을 거쳐 현재 평생·융합교육연구실로 자리를 잡았다.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은 직제규정 제10조(2018년 12월 28일 개정)에 따라 평생·융합교육에 관한 연구와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과 사회 변화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실의 주요 연구사업 영역으로는 미래형 학습체제 관련 연구, 평생학습이론, 평생학습문화 관

련 연구, 평생학습 관련 국제 비교 연구, 평생교육 정책과 현안 관련 연구, 사회 변화와 교육의 상호관계 관련 연구, 평생학습생태계, 교육공동체 관련 연구, 지역혁신과 교육정책 관련 연구 등을 들 수 있다.

3) 대학역량진단센터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 대학 진단체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학평가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데이터 분석·연구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대학역량진단센터를 운영하면서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비롯해 2018년과 2021년에는 대학기본역량진단 등을 전담하는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 사례로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중장기 대학 진단체제 발전 방안(2020), 고등교육 질 보장을 위한 주요국의 정책 동향 연구(2019),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제 개선방안 연구(2017), 대학평가 개선을 위한 고등교육 데이터 분석 연구(2015), 대학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방안 연구(2016), 대학 체제 개편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전략 수립 연구(2015) 등을 들 수 있다.

공정한 대학 진단과 평가 수행 또한 대학역량진단센터의 주된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해당 센터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전문기관으로서 다양한 대학평가 및 진단을 수행하고 있는데,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2018년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주관하였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평가를 매년 수행하고 있으며, 평가인증 기구에 대한 신규 지정 및 재지정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센터는 대학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에는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맞춤형 컨설팅이 지원되었으며, 2019년 역시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였다. 2022년 현재에도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의 후속적인 조치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대학역량진단센터는 이 밖에도 평가인증 기구 지정과 지도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인증 기구 지정 및 지도 사업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평가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평가로서 인증제는 교육부 장관의 인정(recognition)을 받은 기관(인정기관)이 대학의 신청에 따라 대학의 운영 전반(기관 평가) 또는 교육과정 운영(프로그램평가)을 인증(accreditation)하는 제도이다. 현재 10개의(2개 기관평가 인증기구, 8개의 프로그램평가 인증기구)에 지정 및 지도 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고등교육연구실

고등교육연구실은 그간 고등교육 이론과 대학 현장 전문성을 결합한 연구를 통해 고등교육의 혁신을 선도하였다. 고등교육 재정 및 평가를 비롯해 대학 거버넌스와 제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국내외 사회·경제적 변화와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적합성 높은 고등교육 정책연구를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생의 발달, 대학교수의 교육과 연구 활동, 대학기관의 특성 등에 관한 방대한 실증 데이터와 국내외 고등교육 이론을 연계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 고등교육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정부와 대학 차원에서 추진되는 고등교육 혁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를 필두로 새로운 과학기술의 혁신, 세계화의 진전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의 체계적 발전을 견인하는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은 국가의 중요한 아젠다로 꼽힌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연구실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를 설계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바지해왔다. 1998년 '21세기 고등교육 변화와 전망', 2003년 '고등교육 보편화에 따른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질 제고 방안' 연구를 시작으로 2011년 '고등교육 미래 비전 2040' 연구, 2016년 '창의 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체제 혁신방안 연구', 2016년과 2017년에 수행된 '교육개혁 전망과 과제(Ⅰ)(Ⅱ) : 고등평생교육 영역'에 이르기까지 미래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 모습을 그려보고 개혁의 비전과 방향, 발전과제를 탐색하였다. 최근에도 고등교육의 미래 비전 및 발전 전략을 고민하는 연구는 계속되었다. 2019년과 2021년에 '대학 간 공유·협력 체제 구축 방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대학 간 공유·협력을 미래 고등교육 체제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고 2021년 '뉴노멀 시대, 교육의 새로운 가치 탐색 연구: 고등교육을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보편적 고등교육, 초연결사회, 비대면 교육이 새로운 일상이 된 시대에 고등교육의 새로운 가치를 개인적 측면, 사회·국가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수요자 중심의 미래고등교육정책 개발을 지원하였다.

실증 데이터 기반의 대학교육 실태를 분석하고 대학의 교수·학습 전략 수립에 이바지한 것도 고등교육연구실의 주요 성과 가운데 하나로 들 수 있다. 고등교육연구실은 학생-교수-대학에 관한 방대한 실증 데이터를 심층적으로 분석해 왔는데, 이는 해당 실이 선도적으로 개척한 연구 분야로 손꼽힌다. 먼저, 2007년과 2008년 '한국 대학의 질적 수준 분석 연구(Ⅰ)(Ⅱ)'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수행된 '한국 대학생의 학습과정 분석연구(Ⅰ)(Ⅱ)(Ⅲ)'를 거쳐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추진되고 있는 '대학의 교수·학습 질 제고 전략 탐색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의 교수학습 경험과 대학교수의 교육 및 연구 활동, 대학교육에 대한 인식과 대학의 다양한 조직적 특성에 관한 방대한 실증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계·분석하는 유의미한 성과였다. 특히 대학 현장과 긴밀한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수행하였고, 연구 결과를 대학과 공유함으로써 고등교육 연구의 새로운 수행 방식을 정립하였다. 아울러 정부와 대학의 교수·학습 전략 수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에도 많이 기여해왔다. 고등교육연구실이 주도한 대학의 교수·학습 연구는 데이터 활용 및 대학교육에 관한 이론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연구계의 학문적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이바지하였고, 최근에는 대학가 화두로 등장한 학생 성공과 대학기관연구의 중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공하고 담론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와 지원체제 구축도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연구실이 수행해 온 대표적 연구 분야이다. 실은 2001년 '정부 부처의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분석 및 효율화 방안 연구'를 비롯해 2004년 '고등교육재정지원 성과분석 및 효율화 방안연구' 등 국내에서 고등교육 정책연구가 활성화되기 이전인 2000년대 초반 무렵부터 한국교육개발원은 고등교육 재정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후에도 고등교육재정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꾸준히 전개되었다. 2006년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 연구'를 시작으로 2008년 '대학교육비와 수익률 분석연구', 2009년 '대학재정 실태와 성과분석', 2010년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발전방안', 2011년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및 효율적 운영 방안연구', 2015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국가 장학금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7년 '고등교육 재정지원 정책 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 2019년 '고등교육 정부재정 확보방안 연구', '고등교육재정 배분 및 운용의 합리성 제고 방안', 'OECD 고등교육 재정분석 연구: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현황분석 연구', 2020년 '사립대학 재정 운용 현황 및 실태' 2021년 '대학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고등교육투자 방안' 연구 등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등교육 재정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고등교육연구실이 수행한 고등교육재정 연구는 고등교육재정 확보·배분·운용 방안, 고등교육 재정지원 성과평가, 대학의 등록금 및 장학금 정책연구, 고등교육재정 신수요 발굴 및 추정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수행되었으며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정책방향 설정과 정책과제 수립의 토대를 마련해왔다.

한편 고등교육연구실은 고등교육 분야의 글로벌 연구 협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었다. 전통적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은 글로벌 교육협력의 선두주자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고자 고등교육연구실에서도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OECD에서 주관하는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적인 글로벌 연구 협력에 있어 고등교육연구실은 한국의 전문기관으로 참여해 왔다. 2005년과 2006년에는 OECD 회원국 17개국이 참여하는 고등교육 주제

검토 사업에 참여하였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세계 최초로 글로벌 차원에서 추진된 OECD 고등교육 학습성과 평가 사업(Assessment of Learning Outcomes in Higher Education : AHELO)에 참여해 대한민국 대표 고등교육 연구 전문기관으로서 글로벌 연구 협력의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활동은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발전을 해외 고등교육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에서는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진 고등교육 동향과 선진적인 연구 접근법을 국내에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동안 추진된 OECD 고등교육체제의 노동시장 적합성 및 성과 분석 연구, 2019년부터는 2022년까지 지속될 OECD 고등교육에서의 창의성과 비판적 사고력 강화 및 평가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2) 평생·융합교육연구실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은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과 사회 변화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는 한편 전 생애적 인간발달 이론에 기초하여 교육과 사회 분야 융합 연구를 통해 계층별, 연령별 온 국민의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교육체제 혁신을 위한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의 대표적인 성과는 평생학습 기반의 국가 교육혁신 방향을 제시에 있다. 2002년 '국가 수준의 생애능력 표준설정 및 학습체제 질 관리방안 연구'에서 2008년 '생애단계별 능력개발 지원방안 연구'에 이어 최근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역량기반 교육혁신 방안(2020)'에 이르기까지 약 20년에 걸쳐 학벌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넘어서 역량(competency)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체제의 변화를 주도해왔다. 특히, 정부의 국가 비전 연구로서 '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구상(2018)', '전환적 뉴딜(2019)',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방안(2020)' 등에 참여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교육정책과 사회정책의 균형과 통합을 위한 혁신과제(2021)', '해방 100년,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교육체제의 대전환 방안' 연구 등을 통해 미래 교육 실현을 위한 비전 및 핵심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사회적 자본 형성을 통해 시민교육과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정책 수립도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의 주된 성과이다. 2003년 '사회적 자본 형성의 관점에서 본 시민의식 측정 연구'를 시작으로 '국가발전을 위한 사회적 자본 형성 전략 연구(2006)',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2009)', '지역사회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인프라 현황과 과제(2009)',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 정보체제 개선 전략 연구(2015)', '사회적 형평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확대 방안(2019)', '다문화배경 청년의 평생교육 실태 및 지원방안(2020)' 등 최근까지 사회적 자본, 사회적 격차, 소외계층을 위한 정부의 소외계층 및 사회적 자본 관련 평생교육 정책 수립에 이바지하였다. 특히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연구(2011-2020)', 'IEA ICCS 국제시민교육연구(2006-2018)' 등 세계적인 국제기구와의 공동연구를 10년 이상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교육과 평생교육 연구 분야에서도 국제적인 위상을 높여왔다.

이와 함께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은 2000년 초반부터 급속한 고령화와 백세 시대를 대비한 평생교육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2004년 '평생학습사회에서 노인교육의 전망과 실천전략'을 시작으로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연구(2004)', '고령화 사회에서의 교육체제 전망과 과제(2004)' 등이 수행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평생교육 발전모델 구상 및 정책 개발(2005)', '교육계좌제 시행을 위한 평생학습 인증체제 구축방안 연구(2006)',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운영체제 개발 연구(2006)' 등 전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연구들도 이루어졌다. 또한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년교육 장기발전 방안 연구(2007)', '고령화 사회에서 평생학습 효능성 제고 방안(2015)', '고령자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개발 방안(2015)',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IV):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체제 구축(2016)' 연구 등을 수행함으로써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학습 정책 방안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2000년대 중반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약 10년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졌다.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은 국가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방향 제시하는 것에도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다. 2000년 초반부터 '지역사회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2000)', '지역단위 평생교육체제 구축 방안 연구(2001)', '지역평생학습사회 실현방안 연구(2002)' 등을 통한 다양한 평생교육 방향이 모색되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당시 노무현 정부의 지역혁신 정책의 맥락에서 평생학습도시사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도시 시범사업 평가 및 모델 도시 구축운영 방안 연구(2002)'를 비롯해 '지역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운영 실태 분석 연구(2005)', '지역사회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활성화(2005)', '평생교육기관 실태 분석 연구(2005)', '지역혁신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매뉴얼(2005)' 등은 이에 따른 대표적인 연구 성과였다. 또한 정부의 평생학습도시 지정이 양적으로 확대되고 이를 질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구안하기 위한 주요 전략 연구와 기초 연구들이 병행하여 수행되었는데 '평생학습도시 발전을 위한 지원시스템 체계화 전략(2006)' 연구와 '지역혁신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지원체제 구축방안 연구(2006)',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평생학습도시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2007)'등이 이루어졌다. 갈수록 지역평생학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그동안 정부 주도의 하향적인 정책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 구축 방안과 지역평생학습정책 성과 분석에 관한 연구들이 '지역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학습 파트너십 구축 방안 연구(2006)', '평생교육시대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2010)', '지역평생학습 정책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1)'를 통해 이루어졌다.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에 소속 지자체나 지역의 평생학습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혁신도시를 위한 평생학습 정책을 전략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연구로 '지역혁신을 위한 '혁신도시' 평생학습생태계 구축 방안 연구: 충북혁신도시를 중심으로(2019)'가 수행되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혁신적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평생학습체제 구축 방안(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역의 교육생태계 활성화 방안 연구(2021)'를 통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온라인 등 새로운 뉴노멀 평생학습 환경에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에듀테크 전략에 관한 미래지향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3) 대학역량진단센터

국가 수준의 대학 교육 질 보장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한 대학의 자율 성장과 교육혁신에서도 다양한 성과를 창출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와 2018년·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국가 수준에서의 대학에 대한 진단과 환류(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였다. 세 번의 평가와 진단 시에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 운영을 통해 대학의 질 보장을 위한 진단·평가 전문연구기관으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기본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의 대학평가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등 정부 정책 수립에도 기여했으며, 즉각적인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센터 자체 연구를 통해 주요 동향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등 진단 및 평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나갔다.

아울러 대학평가 및 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단위의 평가 운영체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왔다. 평가의 공정함을 유지하면서도 대학의 평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도입했는데,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한 평가시스템의

대학역량진단센터 주요 평가·진단 및 컨설팅 수행 내역

수행기간	주요 내용
2015~2017	· (2015) 대학구조개혁 평가 · (2015~2016) 하위등급 대학(D, E 등급, 66교) 맞춤형 컨설팅 실시 · (2016) 평가제외 대학, 별도조치 대학 컨설팅 실시 · (2016) 대학구조개혁평가 후속 이행점검 실시 · (2017) 상위등급대학 컨설팅 실시
2018~2020	· (2018)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 (2019)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대학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2020)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소규모 대학 컨설팅 · (2020) 보완평가 실시
2021~현재	· (2021)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실시 · (2021)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실시 · (2022) 2023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실시 · (2022) 일반재정지원대학 추가 선정 평가 실시 · (2022)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맞춤형 컨설팅 (예정)

개발, 대학의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부담을 감소하기 위한 온라인보고서 접수 및 검수 시스템의 개발 등 평가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졌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 및 진단위원을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하는 등 국가 단위 차원에서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는 조치를 선도적으로 도입하였다.
이와 함께 대학역량진단센터는 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분석자료를 제작해 각 대학에 제공하고 있다. 센터는 맞춤형 분석자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진단에 참여한 전체 대학에서 자체적인 혁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상세한 대학별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대학역량 진단 전문기관으로서 개발원의 위상을 대외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2021년 대학기본역량 진단의 경우, 분석보고서의 시간적 범주를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평가 요소 단위의 전국·설립유형·권역별 비교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발전을 위한 중요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맞춤형 컨설팅에 참여하는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의 재정실태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공동으로 제작·배포해 대학이 각 학교별 상황에 맞춘 수준 높은 분석보고서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04 계획 및 전망

1) 고등교육연구실

고등교육연구실은 향후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연구 수행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미션을 설정하였다.
첫째, 고등교육 환경 변화와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연구 수행이다. 이를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할 연구 영역은 고등교육 체제 및 기능 개편, 미래비전 수립, 대학원 혁신 모델 개발 등 대학의 연구 역량 강화, 전문대학, 사립대학 등 대학유형별 발전 전략 수립 등이다. 둘째, 고등교육의 수요자 만족도 및 사회⊠경제적 효용성을 제고하는 연구 수행이다. 이러한 임무와 관련된 연구 영역은 대학교육 성과, 교수학습, 교육과정 및 학사구조 개선, 대학교육과 노동시장 간 미스매치 해소, 산학연 협력 강화,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고도화이다. 특히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 고도화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오래전부터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연계에 관심을 가져왔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탐색할 것이다. 셋째,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위기 극복에 기여하는 연구이다. 고등교육 정책 수립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 위기 극복이 화두로 등장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예상을 넘어서는 수준의 인구감소가 지역 소멸을 걱정하는 상황에 이르면서 지방대학의 문제는 지역 상황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하여 해결될 수 있다. 이에 고등교육연구실에서는 대학-지역 간 연계·협력의 실효성 제고, 고교-대학 연계 강화를 전략적 연구 영역으로 설정하였다.
넷째, 고등교육 제도 및 재정 개선을 통한 대학 경영을 지원하는 연구 수행이다. 이러한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 확보, 배분, 및 운용 방안, 대학 학자금 정책, 대학 거버넌스 개선, 고등교육 질 보장 제도 개선, 데이터 기반 대학기관 관리역량 강화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은 고등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 및 활동 수행이다. 개발원은 그동안 상당한 기간에 걸쳐 OECD 사무국 및 회원국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 이러한 국제교류 협력 경험을 토대로 고등교육정책 국제 동향 분석, 국가 간 고등교육정책 비교 분석, 데이터 기반 고등교육 분석 및 예측, 고등교육정책 연구 및 사업 관련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2) 평생·융합교육연구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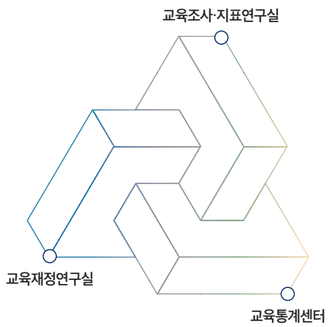
평생융합교육연구실은 향후 교육과 사회변화에 대한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한 평생학습사회 실현을 목표로 세 가지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평생학습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교육혁신 방향 제시이다. 이를 위해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교육과 사회 변화에 대한 학제 간 연구를 추진하고 전 생애적 인간발달 이론을 기본으로 교육과 사회 분야 융합 연구 추진하고자 한다. 둘째, 백세 시대 전 국민의 평생교육 실현을 위한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제시이다. 이를 위해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를 결합한 국가 평생교육 실태 분석 및 국가 평생교육 정책 설계의 토대가 되는 정책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지역의 다양한 평생교육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발전 방향 제시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역의 균형을 맞춘 평생교육 발전방안 연구 및 주제별, 학습자별, 연령별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 종합 발전 방향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향후 연구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첫째, 미래융합교육 연구로서 새 정부 출범에 대비하여 미래 평생·융합교육정책의 주요 쟁점과 방향 모색, 둘째, 정책 거버넌스 연구로서 평생교육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셋째, 데이터 기반 연구로서 실증 데이터 기반의 평생교육 현황(접근성, 참여, 성과 등) 분석 및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책 방안 도출, 넷째, 에듀테크 기반 연구로서 교육소프트웨어, 디지털교과서, AR/VR,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평생교육 플랫폼 구축의 쟁점과 향후 과제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연구나 청년·다문화 연구 및 지역교육생태계 연구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정책 연구 수요에도 대응하고자 한다.

3) 대학역량진단센터

대학역량진단센터는 가장 먼저 대학의 교육환경 변화에 대비한 대학 교육의 질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코자 한다. 4차 산업혁명과 빠른 신기술의 도입과 동시에 저성장, 고실업 등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뉴노멀 시대에 대학이 스스로 자율 성장하기 위한 혁신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대학 교육의 질 보장의 선순환 체제가 형성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의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대학 간 공유·협력을 통한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학 평가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차기 진단의 방향 설계를 위해 대학의 역할을 모색하고, 차기 진단 관련 주요 정책연구 동향을 선제적으로 종합 분석하여 대학 성장의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대학 진단 및 평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진단 및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 고등교육기관 핵심 역량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등 새로운 영역으로서 기능과 역할의 확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대학평가·진단 및 컨설팅 전문 연구기관으로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학평가·진단 및 컨설팅에 대한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공정한 평가 수행을 위한 체제를 더 공고히 다져나갈 방침이다. 특히 차기 진단의 시행 여부와 방식, 지표 등에 대한 대학 현장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진단평가 전문 연구기관으로서 차기 진단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정책 설계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대학의 자율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조직으로서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진단 자료와 정보를 상시로 대학에 제공하고, 더욱 풍부한 분석자료 등을 제공하여 대학의 자율성에 더해 우리 대학의 질적 제고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의 변화를 모색해나갈 것이다.

Section 4.

교육데이터연구본부



01 개요

교육데이터연구본부는 교육 분야 조사 및 지표의 개발·분석·관리와 1962년부터 시행되어온 국가 승인 통계인 교육통계사업을 전담하고 있으며, 특히 KEDI가 50주년이 되는 2022년부터 교육재정 연구 및 현안 대응, 지방교육재정분석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면서 기존의 '교육통계연구본부'에서 '교육데이터연구본부'로 확대 개편하였다. 교육데이터연구본부는 관련 연구 및 사업의 수행을 통해 데이터에 기반한 교육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지원하고, 아울러 교육재정의 적정성·효율성·책무성 강화를 통한 교육의 질 제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부 산하에 교육조사·지표연구실, 교육재정연구실, 교육통계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02 업무 현황

1) 교육조사·지표 연구 및 사업

교육조사·지표 관련 연구 | 교육 분야의 조사 및 지표 개발, 분석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하며 국가 수준의 조사 수행을 통해 종단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2022 한국교육종단연구',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혁신방안' 수행을 통해 학교교육의 현황을 점검하고, 교육지표의 관리, 개선 및 신규 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또한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조사를 통해 초·중·고등교육 및 직업 이행 관련 종단적 교육 자료를 수집, 데이터를 구축하여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 수립 및 시행, 성과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교육지표 및 예측통계 개발·관리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동법 시행령 개정(2020)으로 체계적인 교육지표 및 예측통계의 산출과 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2021년부터 수행된 사업으로, 국가교육지표 체계를 개발하고 기관별 산재된 자료를 수집해 이를 「통계로 보는 한국의 교육」으로 발간하고 있다. 또한, 유아 및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모델 개발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국제교육지표사업 참여 | 「OECD에 관한 협약」(1996.12.18, 조약 제1358호)에 근거하여 1995년부터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INES)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2년 UNESCO 통계원(UIS) 한국측 협력기관 지정에 따른 협력업무와 IMD·WEF 국가경쟁력 및 THE·QS·상하이랭킹 세계대학평가 내 교육지표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2) 교육재정 연구 및 사업

교육재정 연구 및 현안 대응 | 교육재정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

한 전문적 지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유·초·중등 및 고등·평생 교육 재정 관련 정책연구 및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교육부-시·도교육청 등 교육재정 소관 부처 및 정책 집행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방교육재정 등 현안 공론화 및 대응을 위한 플랫폼 마련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분석 | 17개 시·도교육청의 재정집행 상황 및 결과 분석을 통해 지방교육재정의 변화 동향 파악 및 데이터 정확성 제고, 분석 결과 환류를 통해 시·도교육청의 재정집행 책무성 및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매년 분석지표 및 편람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통계 분석, 서면 및 대면분석을 실시하고 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를 작성·발간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의 환류를 위해서 시·도교육청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지원 | 매년 약 1조원을 전·후해 교부되는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초·중등 교육 정책 전 분야에 투입되는 국가차원의 재정사업 효과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교육재정의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고 있다. 특별교부금 국가시책사업 성과평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을 개발하고 있으며, 서면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를 산출하고 평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학교회계 분석 | 공·사립학교의 재정집행 상황 및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종 정책대상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재정의 변화 동향을 파악하고, 단위학교의 재정관리 집행능력 및 책무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약 12,000개 단위학교의 학교회계 분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학교회계 분석지표 및 편람 개발하여 학교회계 분석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시·도교육청의 공·사립학교 자체분석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고 있다.

3) 교육통계사업

유초중등교육 기본통계조사 | 전국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의 각급 학교들과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의 교육행정기관들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으며, 상반기 4월 1일, 하반기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교육정책 수립·평가의 기초자료로, 정보공시·재정지원 사업을 위한 원천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언론보도를 통한 조사결과 공표, 각종 교육통계 자료집 발간, 대내외 자료 제공 서비스 등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고등교육 기본통계조사 | 전국의 대학과 대학원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의 전반적인 현황을 조사하며, 상반기 4월 1일, 하반기 10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교육현황의 진단, 정책 수립 및 각종 대학평가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학정보공시에도 연계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국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약 55만여 명의 졸업 후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DB, 국세DB 등 공공DB 연계 조사와 연계되지 않은 졸업자의 현황조사를 위한 대학 직접조사를 병행하여 연 7회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형식검증, 내용검증, 대학 자체점검 등 상세 점검과 공공DB연계 검증과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연계기관 확대를 통해 대학담당자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데이터 정확성을 높이고 있다. 조사 결과는 시각화 분석자료 및 데이터로 일선 대학의 진로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별 진로 추천 및 컨설팅을 위해 진로정보 시스템의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2017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의 국가승인통계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18년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에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체제를 구축하였다. 2020년에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 업무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교육개발원으로 이관되었고, 국가승인통계로 전환하면서 조사를 수행하여 첫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생교육통계조사 | 2007년부터 평생교육법 제18조에 의거 약 4,500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등을 파악하는 「평생교육통계조사」와 만 25~79세 성인을 대상으로 평생학습 활동 내용, 불참요인 및 접근성 등에 대한 표본조사(약 9,600명)인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교육통계서비스 | 교육통계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서비스를 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 교육통계 콜센터, 모바일 앱, 블로그 및 각종 국가 및 유관 기관 사이트 탑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제공하여 데이터 기반 정책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통계 활용 확대를 위한 교육통계 콘텐츠 제작 및 간행물 발간 업무를 통해 조사 활용도를 제고하고, 학교별/학과별 자료 제공 서비스, 주제별 쟁점을 발굴하여 맞춤형 자료 제공 항목을 확대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데이터 기반 과학적 교육정책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

전국 수준의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전문적 역량을 발휘하고, 객관적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실행, 정책효과 분석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가 수준의 종단 자료 구축 | 2005년부터 한국교육종단연구 수행을 통해 국가 수준의 교육 종단 자료 구축에 힘쓰고 있다. 2005 코호트는 12차, 2013 코호트는 9차까지 종단자료가 구축되었으며 현재 2013 코호트의 10차 자료를 구축 중이다. 또한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심화 분석 보고서와 조사개요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국가 수준의 교육 종단 자료 구축 및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수행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 활용 및 학술대회 | 한국교육종단연구는 국내·외 학계의 연구자 및 학생들에게 조사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2021년까지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물은 약 1,143건에 달한다. 또한, 한국교육종단연구 데이터의 활용성 제고 및 연구의 성과를 홍보하고 학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한국교육종단연구 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16회를 맞는다.

국가 교육지표 및 예측통계 개발·관리 | 국내·외 교육지표를 분석하고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 검토를 거쳐 국가 교육지표 체계와 세부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후 지표별 담당기관과 '국가 교육지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교육지표를 수집·산출·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계로 보는 한국의 교육'으로 발간하였다. 또한, 국내·외 선행연구와 각 시·도 교육청의 예측통계 현황을 분석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유아 수 예측을 위한 기초연구인 '유아 수 예측에서의 쟁점과 이슈' 연구를 진행하였다.

2) 국제교육지표 사업 참여 통한 국제교류 및 협력 활성화

OECD 교육지표사업(INES) 참여 |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이후[근거: 「OECD에 관한 협약」('96.12.18, 조약 제1358호)] KEDI는 1995년부터 OECD INES(INdicators of Education Systems)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별 교육정책, 교육제도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a Glance: EAG)의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 상태를 진단하는 등 교육정책 수립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UNESCO 통계원 협력업무(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UIS) 수행 | 2012년 우리원이 UNESCO 교육통계 협력 기관으

로 지정됨에 따라 국제기구 간 공유하는 UIS DB 내 통계자료를 수집·검증·분석·활용 등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UNESCO에서 주최하는 SDG4 전문가협력그룹(TCG) 회의에 참여하고 아시아지역 교육통계 및 지표 개발에도 협력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및 세계대학평가 내 교육지표 모니터링 | IMD·WEF 세계대학평가와 THE·QS·상하이랭킹 등 주요 세계대학평가 내 교육지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교육정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3) 교육재정 관련 연구·사업을 통한 교육재정의 체계적 분석 및 환류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선 및 현안 대응 | 교육재정 분석 및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재정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다. 교육재정 관련 과제 및 이슈를 발굴하여 매년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긴급하게 발생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슈페이퍼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포럼 개최 등을 통해 교육재정 관련 과제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탐색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고 있다.

교육재정 데이터 관리 | 2010년부터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데이터 및 학교회계 데이터를 축적하고 시계열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계열 데이터를 정책연구 및 외부대응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또한, 2018년 지방교육재정분석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9년부터 운용함에 따라 데이터의 신뢰도 제고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교육재정 분석 및 환류 강화 | 교육재정 현안과 이슈를 고려하여 교육재정 분석과 관련된 지표를 검토하고 신규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에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책무성·투명성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최근에는 이슈가 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의 이·불용액 감소, 조기집행 등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17년부터는 본예산 분석 및 시·도교육청기금운용 분석 등을 추가하는 등 교육재정 분석을 다각화 하고 있다. 이외에 2018년부터 지방교육재정분석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재정운영 및 개선 우수사례 등을 발굴하여 공유하는 등 환류를 강화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교육재정담당자 역량강화 | 시·도교육청 재정담당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먼저, 교육재정담당자의 지방교육재정 관련 제도 및 정책 등 기본 지식 습득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강화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지방교육재정담당자 온라인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의 이해'와 '지방교육재정백서'를 발간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업무 전반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통계사업 연혁

시기		내용
1960's	1962.01	국립교육평가원 주관 교육통계연보 등 발간사업 추진
1990's	1995.01	OECD 국제교육지표(INES)의 국내조정관 역할 수행
	1998.01	국립교육평가원에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사업 이관 및 센터 설립
	1999.11	웹 활용 교육통계시스템 홈페이지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실시
2000's	2004.01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실시
	2006.03	교육인적자원통계협력망 운영
	2007.01	고등교육통계 통합 조사 실시, 평생교육통계 조사 실시
2010's	2010.04	나이스 시스템과 연계한 유초중등 교육통계 조사 시행
	2010.06	건강보험 DB 연계 기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실시
	2011.04	고등교육기관 교원 하반기 조사 시행
	2011.10	OECD 국제교육지표사업 확대
	2011.12	국세 DB 연계 취업통계 추가 조사 시행
	2012.11	통계청 주관 통계개선 최우수기관 선정
	2013.12	교육통계서비스 개편 및 영문 홈페이지 구축
	2014.10	시도분담금 사업 시행, 학교교육통계조사 시행, 교육통계모바일 서비스 실시
	2015.10	고등교육통계 1차 고도화 조사 수행
	2016.10	고등교육통계 2차 고도화 조사 수행
	2017.06	교육기본통계조사 근거법령 및 시행령 개정,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
	2018.10	유초중등통계 유치원 조사 하반기 시행
2020's	2020.01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시행

4) 교육현장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는 통계 수집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증거 및 데이터 기반 교육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활용되는 교육통계는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 요소인 미래 인재 양성 정책의 핵심 데이터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정책의 보다 정교하고 과학적인 수립, 시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많은 통계와 데이터를 생산하고, 교육 연구 및 다양한 교육현장에의 활용을 위한 교육통계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유초중등교육 기본통계조사 | 2017년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교육통계 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가 강화되었다. C/S 프로그램으로 직접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유·초·중등 교육통계는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교육행정정보들을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나이스에 교육통계 연계·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초중등 정보공시, 특수교육통계, 다문화학생 현황 조사 등 다른 기관들에서 수행하고 있는 중복조사를 교육통계 조사로 일원화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는데 공헌하였다. 지역통계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시도별 교육통계 결과 활용 지원을 통해 맞춤형 자료제공 서비스 및 통계 역량 강화 연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연수를 진행 중이다.

고등교육 기본통계조사 | 대학 및 대학원 전반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있는 국가 지정통계로써 2017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통계법 이외에 명확한 법적 기반이 추가로 확보되었다. 1998년 C/S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가 시행된 이래로 2001년부터 웹 기반 시스템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부터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별단위 자료를 수합하는 C/S 환경의 고도화조사로 전환되었고, 하반기 조사를 상반기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2008년부터는 대학정보공시에 자료를 연계하여 대국민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대졸자의 취업 또는 진학 등의 졸업 후 상황을 전수 조사하는 유일한 통계로 청년층 취업정책 수립 및 대국민 서비스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생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에 첫 조사를 시작하였다. 2009년부터 대학 직접 조사에서 공공DB 연계조사 병행으로 개선되었으며, 2020년 진학자DB 구축을 위한 신입생정보조사를 시행하여 조사담당자의 업무 경감과 더불어 데이터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취업통계는 취업률, 진학률과 같은 양적취업통계 외에도 급여수준, 취업준비기간 등과 같은 질적취업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통계청과 협업하여 3년간의 일자리 이동현황을 확인하는 일자리 이동통계를 개발하였고, 취업통계 데이터를 활용하여 졸업자의 진로선택을 지원하는 진로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2020년도부터 국가승인통계로서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가 실시되었다. 다른 교육통계조사와 달리 학교입력조사가 아닌 공공DB 연계를 통해 통계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0년에는 건강보험DB, 고용보험DB 등 17개 공공DB 연계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통계조사가 이루어졌으며, 2021년에는 공공DB 연계를 확대(23개 공공DB)하여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 및 학교 조사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였다.

평생교육통계조사 | 2007년부터 평생교육법 18조를 근거로 평생교육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생교육법(2021.06) 및 동법 시행령(2021.12) 개정을 통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로 지정되어 평생교육통계조사 위탁 수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가평생교육통계 품질 개선을 위해 조사대상기간을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현장 활용도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와 통계청 「표준교육분류(영역)」간 매칭 시스템을 개발하여 통계의 유용성과 활용성을 증대시켰다. 이러한 결과로 2021년 통계청은 한국교육개발원을 '국가통계 품질관리 우수기관'으로 선정한 바 있다.

교육통계서비스 | 1998년 교육통계 DB가 구축된 이후 1999년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 개설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2011년 교육통계 블로그 개설, 2013년 교육통계서비스 영문 홈페이지 구축, 2014년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하며 교육통계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편해 왔다. 2019년에는 데이터 활용 및 제공 확대를 위해 교육통계 데이터 오픈 랩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통계 결과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통계조사 주요 결과를 포함한 수요자 맞춤형 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으며,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교육통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화 자료를 제작하여 온·오프라인으로 배포하고 있다. 대국민·정부·공공기관·지자체·연구기관·언론 등으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통계자료를 원하는 형태로 제공·안내·서비스하고 있다.

04 계획 및 전망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 연구·사업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교육데이터연구본부는 교육 분야 조사 및 지표의 개발·분석·관리, 양질의 통계 및 데이터의 수집 및 서비스 체계 구축, 그리고 교육재정의 체계적인 분석 및 환류를 위해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교육데이터연구본부의 교육조사·지표연구실, 교육재정연구실, 교육통계센터에서 각각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 및 사업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조사·지표연구실

교육 분야 조사 및 지표 개발·분석·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첫째, 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을 통해 한국교육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그와 관련한 교육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구축해 온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학생역량조사, 학교교육실태조사와 같은 양질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의 학교교육 및 고등교육의 상황을 점검하고, 학습자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해 적합한 교육정책을 발굴하고자 한다.

둘째, 교육 관련 종단적, 횡단적 조사 수행을 통해 교육 분야의 데이터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수행 중인 한국교육종단연구2005, 한국교육종단연구2013 조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초·중·고등교육 및 직업 이행 관련 종단적, 횡단적 교육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또한 신규 교육조사를 발굴하여 미래 교육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한 양질의 기초 데이터를 구축 및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증거기반 교육정책의 수립·시행·평가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지표를 산출·관리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측통계를 산출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및 데이터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지표 혁신방안 연구' 수행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등 교육환경 변화와 데이터의 질적, 양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지표를 개발하고 관리하여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넷째,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교육지표를 제공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ECD 교육지표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수시조사 확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며, OECD 교육지표(EAG) 개선 방안 논의를 위한 INES 네트워크별 국제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기구 제공 자료의 질 관리를 위한 데이터 검토 및 제공 절차를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조사 시스템 구축 및 개선을 통해 OECD 교육재정 자료의 신뢰도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도 구축하고자 한다.

2) 교육재정연구실

향후 교육재정은 인구지형 변화 및 급변하는 사회환경·수요자 요구 등에 따라 재원 확보와 운용상의 변화가 전망된다. 따라서 교육재정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교육재정연구실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의 초·중등 교육재정 연구 및 사업의 한계에서 벗어나 유·초·중등, 고등·평생교육 재정을 종합적으로 연계하여 분석하고 연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기초정책연구와 수탁사업을 보다 균형 있게 추진하고 초·중등교육재정뿐만 아니라 유치원과 고등·평생교육재정 분야까지 확장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또한, 외부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연구·사업 수행의 시너지를 창출하고, 교육재정 정책 방향 수립 및 정책 변화와 제도개선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교육통계센터

변화하는 외적 환경 및 조건에 대처하면서 교육통계 데이터의 품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 관리 및 맞춤형 통계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통계센터의 향후 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초중등교육통계는 현재 지능형 4세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라 나이스 교육통계 조사 시스템도 새롭게 개발되고 있으며, 유치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도 구축 중에 있어 자료 연계 활용 프로세스가 새롭게 추가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중복조사 일원화를 위한 유치원 정보공시,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에듀빌)과의 자료 연계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둘째, 고등교육통계조사의 경우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개인식별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조사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자료의 신뢰성 제고와 다양한 자료와의 연계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학생 및 교원의 종단자료 구축으로 고등-평생-직업교육에 이르는 미래지향적 통계 생산과 교원 및 학생의 이력 분석 등 다양한 통계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갖출 것으로 기대한다.

셋째, 개인정보 기반조사로 고등교육통계조사의 조사체계 변경이 예정되어 있어 취업통계-고등통계 간 데이터 연계 방안 검토 및 시스템 개발을 고려하고 있으며, 진로정보시스템의 지속적 활용·제공을 위한 추가 기반 마련을 위해 졸업자의 다양한 특성정보와 취업정보 수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진로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대상을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재학생이나 대입준비생까지 확대를 위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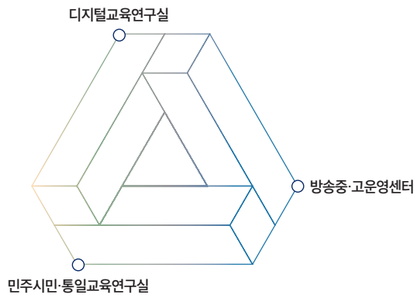
넷째,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를 통해 통계정보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공공DB 연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기존에 연계되는 공공DB에 대해서는 안정화를 추진해야 하며 미취업자로 구분되는 직업계고 졸업생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공DB 연계를 통해 졸업 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DB 연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직업계고를 포함한 고등학교 취업통계정보와 대학의 취업통계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정보의 유형으로는 취업자 정보뿐만 아니라 진학자 정보와 기타 취업의 질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정성 정보를 포함해서 취업통계 통합DB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평생교육통계조사와 관련 국가통계로서 대표성 확보를 위해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기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이후 타 법령상 평생교육기관 조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후화된 조사시스템(소프트웨어)의 전면 개편 추진을 위해 2023년에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할 예정이다.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의 경우 시·도별 평생학습실태 세부결과로 맞춤형 평생학습정책 수립에 활용 가능하도록 표본을 확대(1만 명→3만 명)하여 추진하고자 한다.

여섯째, 교육통계에 대한 수요가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교육통계서비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통계 데이터의 지속적 확대·개방 및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데이터 공개에 대한 단계적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통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교육통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편의 및 자율성에 기반한 자료제공 시스템 구축 및 클라우드 전환을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교육통계서비스는 교육통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와 간행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Section 5.

미래교육연구본부



01 개요

미래교육연구본부는 디지털교육연구실, 민주시민·통일교육연구실, 방송중·고운영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교육정책이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특히 미래교육연구본부에서는 미래사회 및 교육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민주시민과 평화를 지향하는 교육 실천, 교육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 소외된 학습자 없이 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교육체제 조성, 혁신적 교육방법의 적용 등과 관련된 교육정책 연구 및 실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디지털교육연구실은 국가 디지털교육 정책과 혁신적 방법론에 대한 연구, 디지털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환경 구축, 수요층별 맞춤형 디지털교육 제공, 디지털교육을 통한 학점·학력 인정제도 운영, 그리고 디지털교육 교원 전문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 일반 중·고등학생 대상의 온라인수업은 물론, 건강장애학생, 학생선수,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민주시민·통일교육연구실은 2022년에 기존의 관련 조직들을 통합하여 신설한 조직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인성교육, 통일교육, 탈북학생 교육 등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통해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연구와 사업을 연계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2022년에는 기존의 민주시민교육연구실에 속했던 인성교육 등의 사업 및 조직과 통일교육연구실에 속했던 통일교육,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업무 기반 조직을 민주시민·통일교육연구실로 확대 개편해 운영하고 있다.

방송중·고운영센터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시작한 1973년부터 오늘날까지 오랜 역사를 가진 조직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원격수업 운영과 학교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8년에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다양한 학습자 집단을 위해 온라인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등 기능이 확대되어 디지털교육연구센터로 변경되어 운영된 바 있으며, 이후 센터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2022년에는 사업별 성격에 맞게 디지털교육연구실과 방송중·고운영센터로 각각 분리·운영되고 있다.

02 업무 현황

1) 디지털교육연구실

디지털교육연구실은 디지털교육 법·제도 개선, 학생의 교과 선택권 제고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온라인수업의 내실화와 활성화, 디지털학교 설립과 온라인 기반의 개방형 교육 및 학력인정체제 구축, 학습분석 기반 맞춤형 교육, 교사와 학생의 디지털 리터러시 등에 관한 연구과 개발을 추진해 왔으

며, 특히 최근에는 학습분석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교육과 디지털학교 설립에 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스쿨포유)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장애학생에게 정규 교육과정 기반의 원격수업(동영상수업 및 실시간 화상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학교 복귀를 원활하게 이룰 수 있도록 기초학력 증진과 진로·진학 컨설팅 등의 학업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심리·정서의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 |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사업은 전·편입으로 발생한 미이수 교과에 대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단위학교에서 교원 수급 등의 문제로 개설하기 어려운 선택과목에 대한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온라인 보충과정은 단위학교 관리교사를 통해 과목 이수가 필요한 학생들이 신청하고, 학기 중 수강 및 확인학습 제출 등의 과정을 통해 이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신청 및 운영 지원, 신청 학생 관리를 위한 교과교사 운영, 이수를 위한 평가 운영, 학생 및 교사의 온라인 보충과정 이용을 위한 시스템 운영, 학생의 다양한 과목 선택권을 위한 콘텐츠 개발이 수행되고 있다.

학생선수 이스쿨(e-School) 운영 | 학생선수 e-School 운영사업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문화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선수 e-School은 2015년부터 온라인 학습시스템을 구축하여, 정규학기 프로그램(1, 2학기)과 방학 중 프로그램(Run-up) 운영을 통해 대회출전이나 훈련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업결손 보충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온라인수업을 제공하고 있다. 학생선수 e-School은 정규교과 기반 교과 콘텐츠뿐만 아니라 진로·직업, 학교운동부 인권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스포츠 인문·과학 콘텐츠 등 학생선수 맞춤형 특화콘텐츠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e-School을 더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상담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꿈이음)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비행이나 취약계층 전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하고,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학습자로 가입한 후에 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학습자 승인 이후에는 온라인 프로그램(방송중, EBS 초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오프라인 프로그램(교과, 자격증, 진로체험 등)을 수강하여 학력인정 신청 자격을 충족하면 학력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꿈이음 홈페이지 및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여 학습자 등록·관리, 온라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의무교육단계 학력인정 대상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정하는 지정심의와 학력인정 자격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학력인정평가를 운영하고 있다.

2) 민주시민·통일교육연구실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 한국교육개발원은 탈북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한 전문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아 2009년부터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학교 재학 탈북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사업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학교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지원사업 수행 | 최근 평화 프로세스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통일의 필요성을 주입하던 기존의 통일교육에서 상호존중과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평화·통일교육으로 전환하는 연구와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원은 학교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지원사업을 수행하여 학교 현장에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고 내실화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인성교육 관련 연구·사업 수행 | 2015년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제정된 후 이 법에 근거하여 인성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와 사업들이 추진되었다. 인성교육 관련 사업으로는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원 전문인력 양성, 인성교육 포럼, 우수교사 네트워크 운영, 인성교육대상 수여, 홈페이지 개설 운영 등이 진행되었고 인성교육 관련 정책연구들이 진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활성화와 확대에 이바지해 왔다.

3) 방송통신중·고운영센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사업은 다양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중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력 취득과 학습자 맞춤형 블렌디드 교육(온오프라인)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도(세종특별자치시 제외)에 방송통신중학교 24개교, 방송통신고등학교 42개교가 공립 중·고등학교에 부설 형태로 설치·운영 중에 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 근거하여 방송·정보통신을 통한 원격수업과 격주 주말 운영되는 출석수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방송중·고운영센터는 사업을 통해 학사운영, 콘텐츠, 시스템 등 전반에 걸쳐 이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교 지원을 위한 학사운영, 교원연수 운영, 학생모집 홍보를 비롯하여 학생 지원을 위한 기초학력을 지원하고 학예경연대회 운영, 학업 적응력 제고 지원, 학습경험인정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학습지원을 위한 디지털 학습 콘텐츠 및 교과교재 개발,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등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디지털교육연구실

디지털교육 연구·개발의 주요 성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온라인수업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구를 통해 일반 중·고등학생을 물론, 건강장애학생, 학생선수,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의 보완을 이루었다. 한편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 설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여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따른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온라인 수업 활용 확산에 이바지했다. 또한 온라인교육 운영 중에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맞춤형 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기반의 학습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학습자 개별 맞춤형 교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성과로 들 수 있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스쿨포유) 성과 |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2017년부터 운영된 스쿨포유 중등과정에 이어, 2020년부터는 초등과정도 운영되고 있다. 2022년 현재,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건강장애학생이 스쿨포유를 통해 교육 지원 및 출석 인정을 받고 있다. 스쿨포유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유급 방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원격수업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이고,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고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부터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성과공유회를, 2020년부터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의 기초학력 증진과 진로·진학 지원을 위한 '학습더하기' 프로그램, 심리·정서 지원 및 회복을 위한 '스쿨포유 캠프'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상담 등을 운영함으로써 건강장애학생의 원활한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21년에는 평소 야외활동이 힘든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인 캠프와 메타버스 체육대회를 진행함으로써 보다 실재감 있는 학습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성과 | 2012년 고등학생 대상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15년 2학기에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2012년 2학기 시범운영부터 1년에 2회(1, 2학기) 학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2년 시작 당시 한 학기 신청 학생은 337명이었으나, 2021년 2학기 약 9,000명의 학생이 온라인 보충과정을 신청하였다. 온라인 보충과정은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

을 위하여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보충과정 교육부-시·도교육청 협의회, 만족도 조사 및 면담, 교과교사 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책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 방안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보충과정 시스템의 경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교사와 학생의 학습 이력 관리, 모니터링 등이 용이토록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사용자 중심 기능 개선이 이루어졌다.

학생선수 e-School 운영 성과 | 학생선수 e-School 사업은 2015년에 기본적인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6년 시범운영(125개교)을 거쳐 2017년에는 전국단위로 사업 범위를 넓혔으며, 이후 학생선수가 재학 중인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e-School 운영을 자율 확대하여 연간 3,000개 이상의 학교가 이용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였다. 학생선수 e-School 사업은 사용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중 상시 상담 전화를 운영하며 상담내용을 관리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 외에 학생선수의 요구사항과 특성을 반영하여 특화콘텐츠를 새롭게 제작하여 학생선수가 기존 학습 콘텐츠와 함께 다양한 맞춤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매년 증가하는 e-School 이용자에게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운영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확충하고 웹페이지를 개선하였으며 향후 e-School이 데이터 기반 맞춤형 온라인 학습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꿈이음) 성과 | 2017년 6개 시도교육청 참여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전북 제외)으로 확대하여 사업을 운영한 결과, 2017년 사업 초기에는 46명이었던 학습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 2월 현재는 약 1,400명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1~11차(연 3회 실시)의 지정심의를 통해 총 921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지정하여 학습자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였고, 1~8차(연 2회 실시) 학력인정평가를 통해 총 85명(초등 2명, 중학교 83명)의 학력 인정자를 배출하는 성과가 있었다. 2021년 학력인정 자 및 학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학력인정자 평균 4.67점, 학습자 평균 4.03점의 결과를 얻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학교 밖 교육지원의 양적, 질적 개선을 통해 더 이상 정규학교 이탈을 이유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정책에 소외되지 않고 청소년들이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개인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민주시민·통일교육연구실

탈북학생 심리상담 지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탈북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탈북학생과 탈북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심리상담이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심리검사를 지원하였고, 상담사를 대상으로 연수와 슈퍼비전을 제공하였다. 본 사업을 통해 학교와 가정에서 탈북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확보에 이바지하였고, 각 지역 심리상담 지원기관이 해당 지역 탈북학생들의 심리상담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다졌다.

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 탈북학생-전문가 멘토링(탈북학생 잠재역량강화 프로그램, HOPE)은 잠재력을 가진 탈북학생에게 성장·역량 계발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인문학, 외국어, 수학·과학, IT·로봇공학, 문화예술 등에서 잠재력을 가진 탈북학생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연계하여 맞춤형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본 사업을 통해 분야별로 발전 가능성을 가진 탈북학생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 연수 | 해당 연수는 탈북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 연수를 통해 개발원은 멘토링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 등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도사례 온라인 콘텐츠(동영상)를 제작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표준화하였고, 그 결과 개발원은 탈북학생 지도교원 연수의 질 제고와 시·도교육청의 업무 경감에 도움을 주었다.

찾아가는 진로상담 | 탈북학생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상담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진로상담은 탈북학생이 소수 재학하거나 탈북학생 진로지도 경험이 부족한 학교 현장의 업무 지원에 도움을 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연속성 있는 진로상담을 진행하여 탈북학생이 우리 사회와 학교에 실질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

입국초기 교육 지원(하나둘학교 진로교육 지원) |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는 입국초기 교육기관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와 협력하여 하나원 재원생을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진행하였다. 먼저 하나원 재학생(청소년반) 대상으로 진로교육을 진행하여 정착기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착기 탈북학생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였다. 또한 하나원에 재원 중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학교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정착기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한 연수를 진행하였다. 본 사업을 통하여 개발원은 남한 입국초기부터 정착기까지의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체계화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및 통통평화학교 운영 | 수업형태(등교수업 및 원격수업), 학교급, 교육활동(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따라 유연한 활용이 가능하며, 일상화된 한반도 분단 상황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분단을 연결 지어 이해하고 평화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초·중등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용 평화·통일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창의적이고 우수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 발굴 및 확산을 위해 공모전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장 교사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평화·통일교육의 확산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편 통통평화학교(http://tongil.moe.go.kr)는 교육부 평화·통일교육 누리집으로, 평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현장에 더욱 질 높은 자료를 보급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 및 한국교육개발원 산출물, 평화·통일교육 관련 초·중등 수업자료, 교사 연구자료, 참고자료 등의 콘텐츠를 탑재하고 있다.

평화·통일교육 협력체제 구축 및 운영 |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전문성을 제고하고 학교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개발원에서는 전문가 특강, 수업사례/주제 탐구, 수업사례 나눔 프로그램, 국제학술포럼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또한 평화·통일교육 전국의 평화·통일교육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각 지역 및 전국단위 우수교사 네트워크 조직에 기여하였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정책 및 사업계획 등 공유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탐색 및 협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정부부처, 시도교육청, 유관기관이 함께하는 협의회를 운영하여 평화·통일교육 업무담당자 및 전문가,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평화·통일교육의 포괄적인 지원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인성교육 관련 연구 | 인성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2016년부터 이 종합계획에 따른 다양한 인성교육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종합계획에 명시된 인성교육 정책 추진의 이행 과정과 성과를 평가하는 정책연구를 매년 추진함으로써 인성교육 정책 추진의 성과를 진단하여 내실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나아가 인성교육 관련 초·중등 학생 인성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통해 인성교육 진단과 발전 과제를 탐색하고, 교원을 위한 연수 자료 등도 개발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OECD와 합력하여 인성의 기반이 되는 사회정서역량 진단도구 개발을 위한 예비조사연구 및 본조사를 4년 동안 추진하여 '인성'을 구성하는 주요 역량의 중요한 기능을 밝히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 「인성교육진흥법」 제11조(인성교육지원 등)와 제20조(전문인력의 양성)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책임과 인성교육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

라, 인성교육 사업에서는 인성교육의 비전과 목표를 반영하여 학교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인성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심사를 수행했으며, 선정된 양성기관에 대한 지원·관리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인성교육 추진을 위한 실질적 기반 구축에 기여해 왔다.

인성교육 활성화와 성과 공유를 위한 지원인성교육이 종합계획이 추진된 이후 인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인성교육 포럼을 운영하고 인성교육 관련 우수교사 간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인성교육의 성과 확산과 공유를 추진하였다. 구체적으로 인성교육 포럼에서는 교육환경과 학교생태계 변화에 따라 인성교육 추진 방안이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체제 구축 방안 등 인성교육 관련 주요 쟁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여 제2차 인성교육 종합계획(교육부, 2020.10.)의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관련성에 기반하여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논의를 끌어내는 데 기여하였다.

3) 방송통신중·고운영센터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왔으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수행해 온 블렌디드 교육 기반의 교육 지원과 콘텐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미래교육 대비와 학습자 맞춤형 교육 지원에 기여하고 있다.

교육소외계층의 중등 학력 취득 기회 제공 확대 | 방송통신고등학교는 1974년, 방송통신중학교는 2013년에 개교를 시작하여 오랜 기간 교육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중등 학력 취득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2019~2021년)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졸업생 수도 일정 수준 유지되거나 증가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중학교를 졸업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도 2021년 기준 86.4%로 매우 높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은 38.6%로 일정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을 통해 특정 제한 없이 누구에게나 중등 학력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보장함으로써 교육 평등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 수(2019년~2021년) 및 졸업생 수(2018학년도~2020학년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학생 수	14,595명	14,767명(▲1.2%)	14,932명(▲1.1%)
구분	2018학년도	2019학년도	2020학년도
졸업생 수	4,695명	4,550명	4,728명

국가 교육과정 기반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및 일반 학교 활용에의 기여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주 학습자층인 성인 학습자 수준을 고려하면서 주요 교육방법인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콘텐츠를 국가 교육과정에 기반하여 개발 및 제공하고 있다. 이는 기존 온라인 수업자료들이 정규 수업에 대한 보충학습 성격으로 개발된 것과 달리, 정규 교육과정에 따라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 영상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 과제, 평가까지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이에 따라 2015개정 교육과정에 기반한 교과 콘텐츠는 방송통신중학교의 경우 48종에 대해 전 과목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을 포함하여 전 과목 대비 약 72%에 해당하는 72종이 개발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 상황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28종, 방송통신고등학교 41종의 콘텐츠를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원격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였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2022년 현재까지도 공유함으로써 방송중·고 콘텐츠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수행 연구 현황(2022~2019년)

연번	연도	연구명	비고
1	2022	방송중·고 머신러닝 예측모델 기반 맞춤형 피드백 제공 방안 연구	미래교육 대응
2	2022	방송통신고등학교 고교학점제 적용 방안 연구	교육정책 변화 대응
3	2021	방송중·고 학습분석 기반 대시보드 설계 방안 연구	미래교육 대응
4	2021	국가 재난 상황 대비 방송중·고 운영 방안 연구	미래교육 대응
5	2020	방송중·고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학습 분석 모형 개발	미래교육 대응
6	2020	방송중·고 학습경험인정제 이수인정평가 체제 개선 방안 연구	운영 내실화 및 환류
7	2020	2020년 방송중·고 표준교육비 산출 연구	교육정책 변화 대응
8	2019	방송중·고 중장기 수요 예측 연구	교육정책 변화 대응
9	2019	방송중·고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마련 방안 연구	교육정책 변화 대응

교육정책 변화 및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현장 연계 연구 수행 | 방송중·고운영센터에서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을 위한 사업 추진과 더불어 교육정책 변화와 미래교육에 대응하여 학교 현장에 실효성 있는 연구를 다년간 꾸준히 수행해 오고 있다. 2020년대에는 주요 교육정책인 고교학점제 적용,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국가 재난 상황 대비 학교 운영, 미래교육 전환에서 부각되고 있는 학습분석, AI 적용 등을 주제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학습경험인정제 개선, 학습 콘텐츠 설계 방안 등 연구 결과를 사업에 환류하여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에 내실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학습자 특성에 맞는 학습경험 제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다양한 학창 생활의 경험과 학습자 특성에 맞는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첫째, 학업 공백기를 보완하고 영어, 수학에 대한 학습을 지원하고자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기초학력 콘텐츠 제공뿐만 아니라 튜터(도우미), 교육봉사자를 활용한 실시간 화상수업 운영, 학습 문자 발송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학습더하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평가 결과, 진단평가 대비 성취도평가에서 모두 성적이 향상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방송중: 영어(92.0%, 32.3점 → 62.1점), 수학(53.8%, 44.7점 → 68.8점) / 방송고: 영어(45.5%, 40.9점 → 59.5점), 수학(43.6%, 41.5점 → 59.6점)). 둘째, 성인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교 밖 학습경험(자격, 검정고시 등)을 과목 이수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1년 기준 학습경험인정제를 통해 방송통신중학교는 42명의 학생이 110건을, 방송통신고등학교는 262명의 학생이 857건의 학습경험을 인정받았다. 셋째, 학생들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하고 학업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성인 학습자가 주요하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ICT 활용 능력 향상 지원,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자기이해 프로그램과 인성·진로 온라인 검사 운영을 통해 졸업 후 진로를 설계하는 데에도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04 계획 및 전망

1) 디지털교육연구실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로 대표되는 디지털 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학습권 보장 차원의 디지털교육의 활용을 넘어 학교교육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기 위한 연구·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모두를 위한 보다 매력적인 개별화 맞춤형 교육, 학교 교육에서 디지털 교육의 내재화와 일상화를 위한 디지털 역량 함양, 수업 모델 개발, 교수·학습환경 구축, 그리고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교육 현장의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고 능동적이며 자발적인 혁신에 대한 효능감을 제고하는 방안에 집중할 계획이다.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스쿨포유) | 스쿨포유를 이용하는 학생 수의 지속적인 증가추세는 스쿨포유가 지원하는 교육의 질 제고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을 수반하고 있다. 이에 스쿨포유 실시간 화상수업 질 제고, 건강장애학생 기초학력 강화 및 맞춤형 교육 회복 지원에 중점을 둠으로써,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를 넘어 체계적으로 학교 복귀를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이루어진 스쿨포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탐색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건강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한다.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 | 원격수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온라인 보충과정 운영을 위해 운영방안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존 진행했던 만족도 조사 및 면담, 협의회 등을 통한 현장 의견 수렴뿐만 아니라, 학습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온라인 보충과정의 내실을 다지고자 한다. 콘텐츠의 경우 교육격차 해소 및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콘텐츠 개발 단계에서부터 학교 현장의 수요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온라인 보충과정 콘텐츠를 개발하고 운영 과목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온라인 보충과정의 교과교사, 평가 및 시스템 운영에 있어 다양한 교과교사 연수와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매뉴얼 제공 등을 통해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온라인 보충과정에 대한 학교 현장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고교학점제와 관련하여 온라인 보충과정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바, 클라우드 전환 및 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선수 e-School 운영 | 학생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 차원에서 학생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지원하는 e-School 운영 신청학교 수는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중도에 운동을 그만두는 경력 전환 학생선수를 위한 학습지원 요구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학생선수의 특성과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방식을 차별화해 학생선수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선수들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학교 환경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적극적인 정책 홍보 및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현장 의견수렴 등 현장지원 및 홍보 또한 계획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서도 데이터 활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학생선수들의 학습 유형과 패턴을 파악하여 적응적 학습지원을 제공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학습지원 플랫폼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및 학력인정(꿈이음) | 학교 울타리 밖에서 사회 취약계층으로 전락할 수 있는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들에게 학습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이를 통해 교육 책무성을 강화하고 한 명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는 포용적 교육의 가치 창출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희망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향후, 학습자의 요구와 진로, 적성을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력을 인정받고, 더 나아가 상급학교 진학 등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시·도교육청, 지역 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보 연계, 질 높은 학습 프로그램 제공, 학력인정을 연계하는 허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간 제약 없이 원하면 언제든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학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확대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2) 민주시민·통일교육연구실

한국교육개발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역할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탈북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함과 동시에 교육지원 기반을 공고화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향후 탈북학생을 우리 사회의 통합된 일원으로 안정적 적응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여 탈북학생이 통일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평화적 관점으로 평화·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와 각 교원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해왔으며,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이를 기반으로 분단의 구조적, 일상적 문제에 대해 평화적으로 접근하고 삶 속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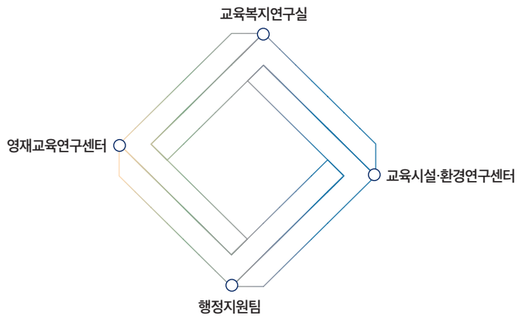
3) 방송통신중·고운영센터

방송중·고운영센터는 다년간 축적해 온 전문 인적자원과 콘텐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교육에 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정책 변화 및 미래교육 전환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되면서 미래교육 전환이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고, 교육 회복,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 개정 등과 같은 다양한 교육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다년간 원격수업 콘텐츠 및 시스템을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 전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 교육정책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AI 기반 맞춤형 학습지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디지털 학습 콘텐츠 설계,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방송통신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 관련 주제들을 발굴할 계획이다. 둘째, 신기술 적용 및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코로나19 이후 빅데이터, AI, 메타버스 등과 같은 신기술 적용이 주요하게 논의되었다. 특히,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달리 나이가 많고 기초학력이 낮으며, 최근 방송고에는 다양한 나이와 학습 목표를 가진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 맞춤형 학습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및 평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콘텐츠 추천, 피드백 제공 등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셋째, 국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학습자 특성에 맞는 디지털 학습 콘텐츠를 개발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높여가고자 한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이 논의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도 국가 교육과정에 맞는 콘텐츠가 새롭게 개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 교육과정 변화에 발맞추면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의 학습자 특성과 수준을 고려하고, 일반 학교에서도 전면 원격수업 상황이나 학습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

Section 6.

교육현장연구본부



01 개요

교육현장연구본부는 교육복지연구실, 영재교육연구센터,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그리고 행정지원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직제규정」에 의해 다음과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와 사업
2. 방과후학교 및 돌봄에 관한 연구와 사업
3. Wee프로젝트에 관한 연구와 사업
4. 영재교육에 관한 연구와 사업
5. 교육시설·환경에 관한 연구와 사업
6. 기타 교육현장 지원에 관한 연구와 사업

교육복지연구실은 '교육복지에 관한 연구와 지원사업', '방과후학교 및 돌봄 관련 연구와 지원 사업', 'Wee프로젝트 관련 연구와 지원 사업'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면서 2018년부터 교육현장연구본부의 제1실로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물론 원내에 교육복지 관련 연구 및 사업 조직이 2018년도에 처음 생긴 것은 아니다. 교육복지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국가 수준에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기 시작한 2003년부터 현재의 사업명으로 바뀌어 지방정부 사업으로 전환된 2011년 전까지 동 사업의 중앙 연구·지원센터로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팀'이 있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방과후학교, Wee프로젝트 관련 연구·사업 조직도 독자적인 실·센터 단위로 운영된 바 있다. 현재는 교육복지연구실에서 교육현장에서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며 '교육복지'라는 큰 틀에서 관련 연구 및 사업들을 모아 운영하고 있다.

영재교육연구센터는 2002년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정·시행과 함께 지정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재교육연구센터의 시작은 1987년 설치된 영재교육연구실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96년에는 영재교육연구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여 영재교육에 대한 초기 연구·사업을 주도하였다. 현재,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영재교육 관련 기초 및 정책 연구 수행, 정보시스템을 통한 영재교육 성과관리와 현장 지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도구 개발,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직무연수, 영재교육 질 제고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영재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체제 구축 등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2006년 5월에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와의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 설치·운영 협약서」 체결을 통해 국내 최초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BTL)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지원센터(EDUMAC)'를 개소하면서 비롯되었다. 이후, 2009년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미래학교공간 관련 연구, 학교 안전 관련 연구 등 관련 연구를 고유사업으로 추진하여 오고 있으며, 이외에도 학

교시설 복합화 사업 전문기관, 교과교실제 지원 전문기관,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 공급 지원기관, 학교시설 CPTED 전문 지원기관 등으로 지정되어 관련 사업들을 수행하면서 국내 교육시설·환경연구 및 사업의 대표적인 기관으로 자리를 잡아 왔다. 특히, 2021년에 교육부로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는 하위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지원센터'를 별도로 두고 있다.

02 업무 현황

1) 교육복지연구실

교육복지연구실은 교육복지 연구 강화, 사업 수행의 선도적·전문적 역할 강화, 정책 사업과 연구 간 연계 강화, 부서 간 협력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하여 다음을 중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교육복지연구 | 2018년도에 교육복지연구실이 새롭게 조직된 이후에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방안 연구(2018),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 연구(2019),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2020), 교육 분야 양극화 추이 분석 연구(2020),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 연구(2021), 학생의 심리정서 현황 분석 및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 연구(2022) 등을 기본 연구과제로 수행해 왔다. 이 외에도 교육복지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수시연구과제와 교육부 등 관련 정부기관이 발주한 정책연구과제를 주기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 운영 | 한국교육개발원은 2006년부터 방과후학교 사업 수행을 시작한 이래 이듬해인 2007년에는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방과후학교정책연구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이후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06년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된 방과후학교 정책과 2014년부터 전면 확대된 초등돌봄교실 정책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보다 안정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중앙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데, 방과후학교중앙지원센터에서는 성과분석 연구 및 공통 길라잡이와 매뉴얼 개발 등의 지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학교 현장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및 지자체의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총 11회의 방과후학교대상 선정 및 시상식을 운영해 왔고, 지속적으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방과후돌봄 온라인 뉴스레터'를 발간 및 배포하고 있으며,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www.afterschool.go.kr)'을 활용한 결과물 공유 등을 통해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 정책의 공유 및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위(Wee)프로젝트연구 특임센터 운영 | 2010년 '위(Wee) 프로젝트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어 위프로젝트 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정책연구 및 연수, 현장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위(Wee) 클래스·위(Wee) 센터·위(Wee)스쿨·가정형 위(Wee)센터 등 전체 사업기관의 성과분석이 중요한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매년 이루어지는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기관별 이용 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에 기반하여 필요한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위(Wee) 프로젝트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 연수를 통한 관련 인적자원들의 역량 제고와 함께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자료개발·보급 등을 통해 학교폭력과 자살 등 위기학생 현안에 대한 대응력 제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분기별로 '뉴스레터'를 제작·배포하고, Wee포털시스템(www.wee.go.kr) 운영 등을 통해 소통과 확산에 힘쓰고 있다.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 운영 | 2022년 3월부터 교육부의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사업'과 연계되어 새롭게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가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해당 센터 운영사업은 '교육을 통한 모든 학생의 성장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학생 성장을 위한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및 운영'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지원 대상 발굴 및 지원 방안 마련 등의 정책연구 수행, 교육복지 실태조사 모델 개발 및 실태조사, 학생통합지원 연수 모델 개발 등의 현장 지원 역량 강화, 교육복지 정보공유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육적 취약계층이 발생하고 있으며, 교육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변화됨에 따라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통해 더욱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한 통합적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2) 영재교육연구센터

영재교육연구센터는 '미래주도 창의융합 인재육성 지원'이라는 비전 아래 국가 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의 싱크탱크 기능을 강화하고자 선도적 영재교육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 수요자 중심의 종합적 교육지원 강화, 정보 체계화를 통한 영재교육 활성화,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 기능 발휘 등을 위해 다음을 주요 업무로 선정·추진하고 있다.

한국 영재교육 종단연구 수행(2017년~2041년, 총 25년간 추적연구) | '한국영재교육 종단연구'는 영재교육대상자의 경험, 발달 및 성장, 사회적 공헌 등에 대해 장기적·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함으로써 영재교육 효과성을 종단적으로 규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2017년 영재학교 입학생을 25년간 추적 연구하는 것으로 설계되었고, 2022년 연구에는 2022년 입학생 코호트가 추가될 예정이다. 설문조사뿐만 아니라 심층 면담을 통해 영재학교 졸업생 및 재학생의 진로 선택과 학교 적응 과정, 성장과 성취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영재학교의 교육과정 및 고등학교-대학교 간 연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영재교육의 성과와 효과성을 보여주는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이행 실적 점검 |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중·장기적 청사진인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은 「영재교육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되고 있다. 현재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8~2022)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이행 실적 점검'에서는 교육부 및 관계 부처, 전국 시·도교육청 및 영재교육기관, 국가영재교육연구원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5대 분야 11개 세부과제의 목표별 증거 기반 실적 데이터를 수집·점검하고 추진 성과 현황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 이행 실적과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함으로써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목표 달성을 관리하며,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23~2027)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를 통한 영재교육 자료의 종합적 관리 |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는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8조의2)에 따라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개발원이 구축·관리하고 있는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이다. GED는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운영, 영재교육대상자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수·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관리, 영재교육 관련 연구·지식·정보 공유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영재교육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영재교육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 |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 개발'은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단계에서 교사관찰추천제와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선발도구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발도구는 'KEDI 영재성 검사도구'와 'KEDI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도구'의 두 종류로 개발된다. KEDI 영재성 검사도구는 유창성, 융통성 등으로 구성된 창의사고를 평가하는 일반 영재성 도구와 (수학, 과학, 수·과학통합, 인문사회, 정보과학) 영역별 비판적 사고력과 종합적 탐구능력을 평가하는 영역별 영재성 도구로 구분된다. KEDI 창의적 문제해결력 관찰도구는 창의적 문제해결 과정을 관찰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실생활 상황제시형, 수행관찰형, 심층면접형) 유형별로 수학, 과학, 인문사회, 정보과학 영역에서 개발된다. 다양한 전문가와 함

께 체계적인 과정을 거쳐 신뢰도와 타당도 높은 선발도구를 개발하고 활용안내서와 함께 제공함으로써 선발의 타당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영재교육 담당 교원 직무 연수 |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는 2009년부터 국가영재교육연수원으로 지정되어 매년 영재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무 연수를 제공하고 있다. 연수의 주제와 방법은 현장의 요구와 영재교육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매년 새롭게 기획하고 있다. 2021년에는 13개 시·도교육청에서 선정된 영재교원 90명을 대상으로 총 60시간의 온라인 직무연수를 제공하였다. 2022년에는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인공지능 시대 및 에듀테크에 대한 이해와 활용에 초점을 둔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는 전국단위 영재교육 관계자 간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도모함으로써 영재교육 질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영재교육 역량 중심 온라인 콘텐츠 개발 |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2018년도부터 2020년까지 국가 영재교육 프로그램 기준을 구체화하여 70종의 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21년부터는 개발된 프로그램 일부를 온라인 콘텐츠로 전환하여 개발하고 있다. 영재교육 역량 중심 온라인 콘텐츠는 영재의 특성을 고려한 모듈형 프로그램으로 개별 학생의 관심사와 요구에 따라 세부 내용의 유동적 조합을 통해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개발하고 있다. 코로나로 온라인 영재교육이 확대되고 있지만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는 부족한 상황이므로, 역량 중심 온라인 콘텐츠는 온라인 영재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여 온라인 영재교육의 질 제고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재교육 유관기관 정책협의회 운영 | 한편,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유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연 4회)으로 운영하여 영재교육 정책·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영재교육 유관기관 간 협력과 국가 영재교육 현안 논의를 바탕으로 영재교육 정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내실화에 기여하고 있다.

3)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모두가 행복(Wellbeing)한 교육시설·환경 조성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교육혁신을 선도하는 연구·개발·사업지원 강화를 비롯하여 연구 및 사업성과 확산, 찾아가는 현장 지원 서비스 활성화, 상호 협력·배려하는 업무환경 조성이라는 네 가지 전략을 가지고 주요 업무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설·환경 연구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제로에너지·생태학교 모형개발 연구'(2008/2009)부터 시작하여 매년 한 건 이상의 교육시설 및 환경, 안전 등과 관련된 자체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2년도에는 학교 교육에 대한 영향 또는 효과와 관련성이 높고,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과 관련된 교육시설 지표를 개발하여 교육시설 정책 개발 및 목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통계의 통합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교육시설 통계 구축 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비대면 교육이 학교교육의 새로운 일상으로 우리 교육 현장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교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하이브리드 학습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자 '하이브리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지속적인 KEDI 교육시설 포럼 및 국제화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의 저변을 꾸준히 확대 및 고품격화하여 교육시설·환경의 선진화를 견인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교육청, 학교, 학회, 연구기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KEDI 교육시설 포럼을 연 1회 개최함과 함께 'OECD GNEELE 정기 뉴스레터'를 통해 공유하는 해외 각국의 교육시설 관련 최신 연구성과물 및 자료집 등의 번역·보급, 한국과 일본의 교육시설에 관한 최근 정책 동향과 최신 기술 및 우수사례 발표 등을 프로그램으로 하는 정기 세미나 운영 및 학교시설 견학 등 한·일 교육시설 정기 교류 활동 등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운영지원 사업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교육부(20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14), 고용노동부(2015), 기획재정부(2016)로부터 지정된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조사, 시설사업기본계획 검토, 사업제안서 평가, 협상 및 실시협약 검토, 재무모델 검토, 각종 질의에 대한 회신 등 사업 추진 단계별 전문지원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성과분석,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관계자 교육, 교육시설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도 함께 수행 중이다.

국립대 생활관,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BTL) 평가 및 협상 용역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교육시설 민간투자사업 전문기관으로서 국립대학교 생활관 및 시설개선 임대형 민자사업의 평가 및 협상 용역을 의뢰받아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1) 1단계 PQ심사, 2단계 사업계획서 기술 및 가격분야 평가 등으로 이루어진 사업제안서 평가, 2)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요구수준의 충족 여부 그리고 정부지급금(시설임대료, 운영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재무모델의 적정성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협상, 3) 실시협약서 작성, 실시협약 체결 지원, 협상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수행 중이다.

학교시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검토 | 임대형 민자사업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9조에 따라 재무모델 변경 시 전문기관의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전문기관으로서 임대형 및 혼합형 민자사업의 재무모델 변경에 따른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시설 시도교육청 'BTL전문위원 워크숍'도 연 2회 개최하고 있다.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전문지원기관 위탁 용역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2021년에 교육부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전문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일체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민자사업 전 단계별 원스톱 현장지원,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표준(안)·지침·안내서 등의 개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민자사업 선도·특화모델 개발 등과 함께 관련 연구개발 및 홍보, 교육·연수 그리고, 정보화·시스템 개발 및 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교육복지연구실

교육복지연구실은 국가 교육복지 정책을 현장에 적용·지원하고 교육복지 방향을 제시하며 정책을 선도하였다.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적 교육복지 체계 구축 및 지원 | 한국교육개발원은 2000년 이후 '21세기 교육복지 발전방안 연구(2000)',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2002)',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2004)' 등을 시작으로 국가적 교육복지정책 수립과 현장 적용 및 개선을 위한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2003년 시작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중앙 연구·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면서 교육소외 학생의 교육기회 균등 실현을 지원하였다. 다만,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이 2011년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지역중심에서 학교 단위 사업으로 변화하면서 사업의 시행 주체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중앙 연구·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은 종료하고, 이후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관련된 교육소외, 교육양극화, 교육복지거버넌스, 교육복지정책 평가, 교육복지 지원 기준, 교육안전망 등 교육복지 또는 학습복지의 실현을 위한 연구들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방과후학교·돌봄 운영 및 내실화 지원 |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방과후학교 참여율 제고방안 연구, 초등돌봄교실 운영 적정 기준 개발, 방과후학교 참여율 변화 추이 및 원인 분석, 초등돌봄교실 정책 효과 분석: 실재론적 평가(realist evaluation)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교육청, 교육지원청 및 학교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운영 길라잡이, 매뉴얼 등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운영 방향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공통 기준을 제공해 왔다. 더불어 방과후학교포털시스템에서는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이 협력하여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등의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의 정보가 포함된 돌봄안내지도를 탑재하여 학교돌봄 및 마을돌봄이 필요한 학부모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부·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의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 돌봄 정책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위기 해소 및 발달을 위한 위(Wee)프로젝트 운영 지원 | 2011년 '위(Wee) 프로젝트의 성과 및 발전방안 수립 연구'를 통해 학교 상담의 효과와 긍정적 인식을 확인하였고, 매년 '위(Wee) 프로젝트 성과분석 연구'를 통해 사업기관별 이용실태 및 만족도를 분석하고 있다. 2012년 위(Wee) 사업기관 및 종사자를 위한 '표준 매뉴얼' 4종을 개발·보급하고, 2014년에는 '학생상담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직무기준 및 평가체제 구축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문상담교사 역량강화를 위해 2020년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 개선 방안 연구', '전문상담교사 실습을 위한 교육과정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고, 2021년 '전문상담교사 연수표준안 개발'을 수행하였다. 또한 매년 위(Wee) 프로젝트 사업기관의 우수 운영사례 및 관련 소식 교류를 위해 '뉴스레터'를 제작·배포(분기별 연 4회)하고 있으며, 우수사례 공모전을 통해 상담 활동 및 기관 운영 노하우를 공유·확산하고 있다.

교육복지 방향 제시 및 정책 선도 | 한편, 한국교육개발원은 국가 수준의 교육복지 연구를 추진해 오면서 교육복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선도해 왔다. 연구의 결과들은 교육부 등 정부부처에서 교육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정책 실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에 기여하였다. 교육복지 방향 제시 및 정책 선도를 위해 개발원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교육복지 관련 연구는 다음과 같다.

- 21세기 교육복지 발전방안 연구(2000)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선정 지원을 위한 연구(2002)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와 타지역 학교의 교육격차 분석 연구(2004)
- 교육소외 계층의 교육실태와 정책과제(2004)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효과 분석과 발전방안(2005)
- 한국사회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교육격차 분석(2006)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확대 계획 구체화 방안 연구(2006)
- 교육복지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2008)
-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2008)
-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종단적 효과 분석연구(2009, 2010)
-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교육복지 정책 방안(2011)
- 2011 교육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와 학교 연계 모형 개발 연구(2011)
- 교육복지 통합적 지원체제 구축 방안 연구(2011)
-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복지 방안 연구: 생애진로개발을 중심으로(2014)
- 교육복지투자 실태 및 효율화 방안 연구(2014)
- 교육복지 거버넌스 혁신 방안 연구(2018)
- 교육복지정책 평가 및 개선과제(2019)
- 교육복지 지원 기준 개발 및 활용 방안 연구(2020)
- 교육분야 양극화 추이분석 연구(2020)
- 교육 뉴노멀 시대의 학습복지 실현 방안(2021) 등

2) 영재교육연구센터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선도적 영재교육 정책 및 기초 연구, 영재교육 자료의 종합적 관리, 현장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 영재교육 지원,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며 영재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있다.

선도적 영재교육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 |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영재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전략을 도출하는 영재교육진흥 종합계획 수립 연구를 모두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중장기 비전과 과제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한국영재교육 종단연구'를 통해 영재학교 학생들의 성장과 성취를 추적·분석하고 영재교육의 효과성과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주제의 영재교육 정책연구와 기초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토대를 마련하고 내실화를 도모하며, 영재교육 정책 방안 및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보시스템 구축·관리를 통한 영재교육 자료의 종합적 관리 | 2006년 개정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제38조의2)에 근거하여 2009년 GED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2018년에는 영재성발달기록부 추가를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GED 시스템을 바탕으로 통계청 승인 통계인 국가영재교육통계를 작성·공표하고, 영재교육 기관 알리미를 통해 수집된 영재교육기관 정보를 대국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국가 우수인재인 영재학교 졸업생의 교육성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분석하여 영재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영재교육대상자의 영재교육기관 간 이력 연계와 맞춤형 교육기반 마련을 위한 영재성발달기록부를 운영·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과정을 지원함으로써 영재교육 실행을 지원하고, 영재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를 갖춘 종합자료실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영재교육 실행을 지원하였다.

현장 요구를 반영한 종합적 영재교육 지원 | 영재교육연구센터는 초기부터 영재 판별 도구 개발, 영재교육 교수·학습 자료개발, 영재교육 담당교원 연수 등을 통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종합적인 영재교육 실행을 지원해 왔다. 2007년부터 영재교육대상자 선발도구를 매년 개발·보급하고, 영재교육 담당 교원 직무 연수를 주기적으로 제공하며, 2018년부터 역량 중심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영재교육 실행을 직접적으로 지원해 왔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영재교육이 확대되면서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 부족에 직면하여 2021년부터 영재교육 온라인 콘텐츠(39종)를 개발·제공하였다.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 기능 수행 | 우리나라 영재교육은 관계 부처 및 연구·전문 기관이 아주 다양하므로 내실 있는 영재교육의 실행을 위해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은 중요하다.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유관기관, 한국교육개발원 담당자가 참여하는 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연 4회) 실시함으로써 영재교육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연계의 허브 기능을 수행하였다. 현재까지 총 83차 정책협의회가 실시되었으며, 22년 3월 제84차 정책협의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3)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전문 연구 수행을 비롯하여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정부 정책 사업 지원과 교육시설·환경 연구 및 정책·사업을 확장해 왔다.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전문 연구 수행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에서는 지난 2006년도에 수탁연구로 '교육환경개선사업 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 연구'를 수행한 이후에 매년 교육시설·환경, 교육안전 분야의 다수 연구들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특히, 매년 안정적인 재원인 출연금을 통해 기본연구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여 오면서 교육시설·환경 분야에 관한 연구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다. 개발원에서 수행한 대표적인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전문 연구는 다음과 같다.

- 제로에너지·생태학교 모형개발 연구(2008, 2009)
- 학교시설의 교육효과 분석 연구(2009), 노후학교시설 개축 판별 모델 개발(2009)
- 학교안전·시설공단 설립·운영 방안 연구(2009)
- 교육시설정책지원(BTL) 연구·선진형 학교시설 모형개발을 위한 사용자 참여디자인 개발(2010)

- 교과교실 개선이 교수-학습 활동과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조사 분석 연구(2010)
- 학교시설의 디자인 품질 지표 개발 연구(2011), 학교시설 범죄예방 디자인 평가모형 개발 연구(2012)
- 한·일 초등학교의 공간구성 비교 연구(2012)
- 창의·인성 교육을 고려한 공간조성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2013)
- 한·일 중학교의 공간구성 비교 연구(2013)
- 초등학교 내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시설 모형 개발 연구(2014)
-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내진성능통합 평가 모형 개발(2015)
- 초등돌봄교실의 환경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5)
- 유휴교실을 활용한 안전체험교실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2017)
-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시설 현황 데이터 활용 방안(2018)
-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교육 시설 연구(2018, 2019, 2020)
- 학교공간혁신의 교육효과 분석 방안(2020)
- 온라인 교육을 위한 학교 공간 조성 가이드라인 개발(2021)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한국형 교육 뉴딜 연구: 교육시설환경 의제 발굴을 중심으로(2021)

교육시설·환경 분야의 정부 정책 사업 지원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2006년도부터 시작된 '초·중등 교육시설, 국립대학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전문 지원을 포함하여 교육시설 민간투자 재무모델 검토 전문 지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전문 지원, 학교시설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전문 지원, 교육환경평가 전문기관 지정, 학교용지 및 학교시설 무상공급 지원, 교과교실제 공간조성 전문 지원, 학구도 국가공공데이터 사업, 학교시설통합정보시스템(Edubuil) 사업, 고교학점제 공간조성 전문 지원, 그리고 최근의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민간투자사업 전문 지원까지 다수의 교육시설·환경 분야 정부 정책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왔다.

교육시설·환경 연구 및 정책·사업의 확장 |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2006년 '학교시설의 과거, 현재, 미래와 BTL'이라는 주제로 제1차 KEDI 교육시설 포럼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32회의 KEDI 교육시설 포럼을 개최하였다. 아울러 BTL 교육시설 운영성과 평가시스템 등 총 8종의 교육시설·환경 관련 정보시스템을 개발·제공하였으며, 국제교류 협력 및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등의 성과도 거두었다. 또한,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를 모태로 하여 한국교육환경보호원(2018), 지방교육재정연구원(2019)과 같은 전문기관을 양성·배출하였다.

04 계획 및 전망

1) 교육복지연구실

교육복지연구실에서는 먼저 뉴노멀 시대의 교육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기반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학생들의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 및 학력격차 해소부터 학생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이르기까지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중심에 둔 교육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복지 정책을 개발하는 연구와 학생 성장 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국가의 교육 책임 강화에 따라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내실화를 위해 노력한다. 먼저, 방과후학교 업무 효율화 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수준에서 시도교육청 및 현장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중앙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방과후학교 및 초등돌봄 정책 관련 정보 관리를 통해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의 활성화를 지원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위기 해소 및 발달 지원을 위한 위(Wee)프로젝트 운영을 지원한다. 위(Wee)프로젝트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다양한 콘텐츠의 온라인 연수를 제공하여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또한, 학생의 심리정서적 특성과 교육환경을 고려한 위(Wee) 클래스 운영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넷째, 2022년 상반기 새롭게 시작한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을 지원하도록 한다. 교육복지 실태조사 모델을 개발하고 조사를 실시하여 분절화 및 중복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교육복지 현황을 파악하며, 이를 통해 통합적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와 더불어 교사, 교육복지사, 시·도 교육복지 담당자를 위한 학생통합지원 연수 모델을 개발하고, 연수를 시행하여 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2) 영재교육연구센터

영재교육연구센터에서는 다양한 정책 및 기초 연구 수행을 통한 우리나라 영재교육의 정책적 방향 선도, GED 시스템을 통한 영재교육 관련 자료의 종합적 관리, 현장의 요구와 사회 변화에 맞춘 종합적 교육 지원, 국내·외 연계 협력의 허브 기능 수행을 계속해 갈 계획이다. 특히, 2022년에는 GED 내 영재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역량 중심 온라인 콘텐츠 개발, 인공지능 시대 및 에듀테크를 주제로 한 교원 직무 연수 등을 통해 온라인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확대에 초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2022년은 '제4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이 마무리되는 해이므로, 제5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될 미래 영재교육의 비전과 핵심과제 도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영재교육연구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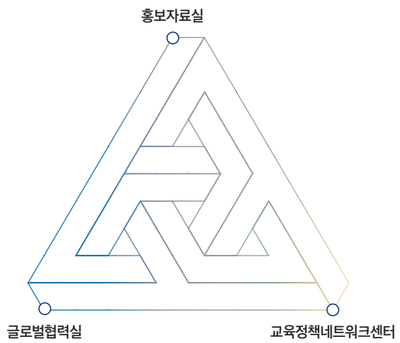
3)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

교육시설환경연구센터는 지금까지의 성과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시설·환경 및 안전 분야의 최고 정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제1차 교육시설 5개년(2022~2026) 기본계획' 등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추진에 따른 미래학교 시설·환경 관련 연구 및 정책·사업,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로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을 포함하여 코로나19 사태 이후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이후 시대의 새로운 교육시설 환경을 구축에 초석이 되는 다양한 연구를 지속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에 맞추어 전문기관으로서 지정받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들 법령의 안착을 통해 교육시설·환경 및 안전 분야의 정책·사업이 선순환 구조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아울러 OECD GNEELE 참여 활동,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 문교시설연구센터와의 한·일 교육시설 정기 교류 활동 등을 통해 국제적인 교육시설 관련 연구, 사업, 우수사례 등의 발굴과 국내 소개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Section 7.

대외협력단



01 개요

대외협력단은 홍보자료실, 글로벌협력실,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의 2실 1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홍보자료실은 개발원의 연구·사업 성과를 효과적으로 확산하여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선도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와 지속적인 소통과 교육정책 관련 연구 등 기관의 주요 연구·사업을 대내외에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원의 연구사업 성과물인 각종 보고서를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공공데이터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개발원이 생산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모든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협력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50년간 축적한 교육발전 정책연구 경험과 성과를 국외로 확산하여 기관의 위상을 제고하고 세계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OECD·UNESCO·SEAMEO·ASEM·APEC·UNICEF·ADB 등 국제기구 및 지역 네트워크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협력 의제를 발굴·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교육 및 연구 체계를 배우고자 하는 국가에 맞춤형 교육협력사업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KEDI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있다. 최근에는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양적 확대를 넘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질적 성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협력방식 다각화(국제·지역기구, 정부부처, 연구기관, 대학 등 대상 다각화), 다변화(양자/다자, 상시/특수 등 방식의 다변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 2월 기준 국외 31개 기관(국제·지역기구 7개, 대학 6개, 연구기관 학술단체 13개, 기타 5개)과 교류협정(MOU)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 교육정책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성과가 적시 적소에 전파·활용되어 세계교육 발전을 주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교육정책네트워크는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체로 참여 기관 간 인적교류·공동연구·정보공유·정책지원 활동 등을 통해 교육정책의 현장 착근과 공교육 개선을 실현하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은 지난 2002년 '교육연구개발 연계 체제(ER&D Network)'라는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2007월 1월 한국교육개발원 내 공식 센터가 설치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2년은 교육정책네트워크가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기도 하다.

02 업무 현황

1) 홍보자료실

홍보자료실은 효과적인 언론 홍보를 위해 지속이고 상시적인 보도자료 배포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기관 성과를 시의 적절하게 확산하고, 데일리 뉴스 서비스, 언론보도 모니터링 등을 통한 오보 정정 등 언론 홍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KEDI 뉴스레터'를 매월 발간하여 이메일을 통해 배포하고,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비롯한 SNS 운영하는 등 온라인 홍보 활동과 더불어 교육정책 전문지 '교육개발', 학술지 '한국교육' 등 개발원 내 대표 발간물을 웹진과 PDF 형태로 개발원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다.

2) 글로벌협력실

글로벌협력실은 OECD 장기적 국제협력사업(2007~)을 비롯하여 KEDI-UNESCO Regional Policy Seminar 운영(1995~),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KJEP) 학술지 발간(2004~), 스리랑카 중등교육 개선 지원사업(2021~2024), A Panoramic View of Korean Education 발간(2021)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중장기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개발원은 2007년부터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의 한국 대표이자 OECD 교육연구협력사업 참여기관 간 협력 전담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며 국가 수준의 OECD 연구·사업 참여를 주도해 왔다. 연 2회 개최되는 OECD 교육정책위원회(EDPC)·교육연구혁신센터(CERI) 위원회 정례회의에 참여하여 OECD에서 추진하는 교육사업 전반에 대한 한국 측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으며, 교육 2030·국제교육지표·교원 및 교직환경·고등교육·디지털 교육 등 OECD에서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 교육의 영향력과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있다.

아울러 개발원은 1995년부터 UNESCO 방콕지역사무소와 함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아·태지역 교육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를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해 왔다. 2001년부터 연례행사로서 'KEDI-UNESCO Regional Policy Seminar'로 자리 잡아 매년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에 따라 교사가 겪는 어려움을 조명하여 '코로나19 시기 교사의 디지털 및 원격교육 역량 강화'를 주제로 아태지역 교사들의 디지털 및 원격교육 현황, 역량 강화 노력과 실제 우수 수업사례 공유, 공동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2022년으로 22회째를 맞이하는 KEDI-UNESCO Regional Policy Seminar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육 전문가 및 정책 담당자 간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아태지역의 교육정책 발전을 주도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3)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에서는 교육정책의 발굴, 정책지원, 정보공유 등 교육정책에서 교육 현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의 시각과 요구를 수렴하고 공론화할 수 있는 사업을 수행하였다.

'정책 발굴'은 중앙-지역-관계기관 간 협력적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우리 교육의 장기적 비전과 교육정책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업 영역이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함께 교육 현안을 논의하고 정책과제 발굴, 점검,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각종 협의체(교육정책협의회 및 담당자협의회)와 교육 현안에 관한 정책·연구 현황을 공유하고 정책역량 제고를 도모함으로써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정책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다.

'정책지원'은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다양한 시각과 요구를 수렴하고 논의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안 대응을 위한 연구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 영역이다. 이에 따라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육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적·현실적 교육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교육정책 토론회를 펼쳐 왔다. 아울러 국가 및 지역의 당면 문제 해소를 위한 이론적 기초와 개선 모형을 제공하는 교육정책 개선·선도 연구,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적시에 수렴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책 현장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 풀(POLL) 등을 추진하였다.

'정보공유'와 관련, 센터는 국내·외 교육정책 동향을 수시로 추적하여 교육정책 흐름을 선도하고 교육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응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각종 발간사업을 추진하였다. 매월 주제가 되는 교육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 토론의 장인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월간 정기간행물)', 해외 13개국의 최신 교육 동향은 물론 국내 교육 이슈와 관련된 각국의 정책과 사례를 소개하는 메일진 '해외교육동향(월 2회 온라인 발행)',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국외 교육정책 사례를 소개하는 '교육현안보고서(정책분석편, 글로벌교육편)'를 발간하였다. 또한 참여기관의 정책 동향과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산출물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SNS(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도 다양한 정책·연구정보를 월 3회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홍보자료실

홍보자료실은 계간으로 발간하는 교육정책 전문지 '교육개발'을 통해 교육정책 입안자 및 집행자, 교육계 연구자 및 전문가, 학교 현장의 교사,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에게 교육 현장의 주요 정책과 현안, 이슈, 쟁점 등에 관한 분석과 전망, 다양한 관점의 견해를 제공해 왔다.

아울러 연 4회 발간하는 등재학술지 '한국교육'을 통해서는 우리 교육의 정책과 현안, 교육 관련 이론과 실제를 탐색 규명하는 우수 논문을 게재하고 교육정책 수립과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이외에도 'KEDI Brief'를 연 20회가량 발간·배포하여 개발원 연구 성과(보고서)를 시의성 있게 언론에 홍보·확산하고 있으며, 개발원의 연구사업 추진 실적 등을 수록한 '연차보고서'를 매해 발간하고 있다.

이 밖에도 연구사업 지원을 위한 '과제별 정보서비스' 등 본원의 특화된 정보서비스를 통해, 원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원을 적시에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가정책정보협의회 등 국내외 주요 기관과 협약 체결을 통해 서지정보 교환 등 정보 제공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한편, 홍보자료실은 실의 고유 업무인 언론 홍보와 발간물 등의 간행물 관리 및 보급 이외에도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 전국 주요 사범대 및 교육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등과 관계를 맺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연구기관들과 홍보협의체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6년부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본원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의 개방 플랫폼인 '공공데이터 포털'을 게시, 이를 관리하고 있으며 데이터 보유 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데이터 개방에 대한 대국민 문의에 대응하고 있다.

2) 글로벌협력실

글로벌협력실은 기관을 대표하는 영문학술지 'KEDI Journal of Educational Policy(KJEP)'를 2004년 12월 창간하였으며, 이후 2007년 4권 1호부터는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에 등재되었다. 한국의 교육정책과 교육 분야 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고 국외 우수한 연구를 소개하는 목적으로 시작해 전 세계 교육정책 동향과 이슈를 조명한 학술적·실천적 연구를 담아 교육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론적·경험적 지식을 생산하고 공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인 2021년에는 스리랑카 중등교육 개선사업을 통해 스리랑카의 과학, 기술, 수학, 상업 과목 교사 모집 및 (재)배치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해당 지원사업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개방경쟁입찰(헬싱키대학교, 투르쿠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수주한 기술지원 프로젝트로 스리랑카 정부의 교육발전계획(2020~2025)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글로벌협력실은 스리랑카 현지 교육당국 관계자들이 공정성, 형평성에 입각한 효율적 정책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밀착 집중 컨설팅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21년 본원 개원 50주년을 기념하여 발간한 'A Panoramic View of Korean Education'을 통해 해방 이후 한국교육의 주요 발전상과 변천사를 분야별로 일목요연하게 담아내었다. 교육정책에서 교육거버넌스, 교육시스템, 교원정책, 커리큘럼, 교육재정에 이르는 총 6개 분야의 발자취와 함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으며, 교육·비교육 관계자 할 것 없이

한국교육에 관심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유용할 학습서 및 입문서이자 교양서 및 실용서로 널리 읽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는 교육 현안 및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비롯하여 국내·외 교육정보 공유 및 환산을 통해 교육정책을 선도하고,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기초한 교육정책·연구 형성 및 추진 기반을 마련해왔다.

교육정책네트워크 사업의 대표 협의체인 교육정책협의회는 교육정책네트워크가 시작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개최되어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교육정책 수립과 추진의 연계성 강화와 교육정책에 대한 소통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혁신을 위한 미래교육방안 모색(2020.06.), 교육정책 성과 점검 및 학생 기초학력 보장 지원 방안 논의(2021.06.), 교육회복과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방안 논의(2021.09.) 등과 같은 교육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하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교육정책네트워크 참여 기관장 등이 참석한 협의회를 연속으로 개최하는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중추적 협의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우리 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이에게 국내·외 최신 교육정보를 공유하고 확산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내 교육정보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오피니언 리더와 다양한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교육정책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교육토론의 장인 정기간행물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포럼'(2002.10.~2022.01.기준, 통권 343호)과 국내 교육정책을 분석하고 착근 전략 등을 제공하는 '교육현안보고서-정책분석편'(舊 교육정책네트워크 이슈페이퍼)을 발간(2004.~2021.기준, 총 132종)하고 있다. 국외 교육정보 공유 사업으로는 13개국 해외통신원을 통해 각국의 최신 교육정보를 주기적으로 조사·제공하여 국제 교육동향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온 '메일진 해외교육동향'(2006.06~2022.01.기준, 통권 416호)과 국내 교육정책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외국의 교육정책과 사례를 분석하여 소개하는 '교육현안보고서-글로벌교육편'(舊 교육정책네트워크 세계교육정책 인포메이션)을 발간(2007.~2021.기준, 총 122종)하고 있다. 한편 2019년 4월부터는 전술한 국내·외 교육정보를 포함한 교육동향과 연구보고서 발간 정보 등을 종합하여 교육정책네트워크 공식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4,500여 명(2022.02.기준)의 구독자에게 매월 3회 제공하고 있다.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는 교육공동체의 요구에 기초한 교육정책·연구 형성 및 추진 기반 마련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하고 있는 교육정책 토론회는 교육공동체 간 소통의 장 마련, 열린 교육정책 형성 및 추진 기반 조성, 교육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실제적·현실적 교육정책 개선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숙의 공론조사형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교육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요구와 의견을 정책 집행자와 연구기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참여 기관 간 정례적인 실무협의회를 통해 국책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에 학교, 학부모, 시도교육청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원 및 교육 전문직으로 구성된 교육현장 자문단을 구성하여 교육정책네트워크의 각종 사업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04 계획 및 전망

1) 홍보자료실

홍보자료실은 업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언론 홍보체제의 정교화, 기관 내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IT 변화에 대응하는 온라인 홍보 혁신 등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 및 소셜 미디어의 확산에 따라 SNS를 통해 기관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원내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 자원을 선제적으로 파악·제공할 수 있도록 'DoUknow' 정보서비스 등 특화된 정보서비스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본원의 연구성과물이 효과적으로 활용·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아갈 것이다.

2) 글로벌협력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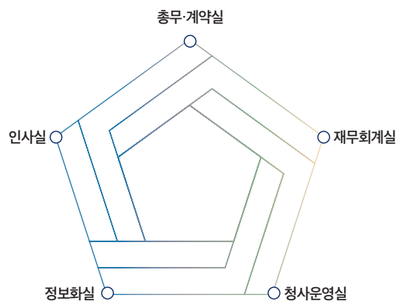
지난 50년간 축적해 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결과 중심 성과관리체제로 재정비해 지속가능한 질적 고도화를 이루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더 나아가 국제기구, 정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아래 기술지원, 역량강화, 정책·기초연구, 국제비교연구 등 다양한 협력모델을 구축해 본원이 보유한 콘텐츠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고자 한다. 이에 개발원은 유니세프와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동남아 기초학습평가(Southeast Asia Primary Learning Metrics; SEA-PLM)에 파트너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정책 자문, 교육훈련과 같은 기술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3) 교육정책네트워크센터

우리나라의 교육행정 체제는 중앙집권적 체제에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2년 7월에는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교육 관련 시민사회 단체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정책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분권, 다양화, 전문화되는 교육정책 환경 속에 교육정책네트워크의 주요 기능 중 한 가지인 중앙-지방 간, 정책연구-입안-실행 주체 간 연대와 조정 역할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다. 또한 국민과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민주적 교육정책 수립 및 정책 추진, 지역 및 세계의 교육정보 수집, 분석, 공유를 통한 정책 수립 지원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Section 8.

경영지원본부 및 감사실



01 개요

경영지원본부는 총무·계약실을 비롯해 인사실, 재무회계실, 정보화실, 청사운영실로 5개 실로 조직·운영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자체 감사기구인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다.

총무·계약실의 업무는 기관의 경영활동을 지원하여 경영목표를 달성하고, 임직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972년 개원 당시부터 존재했으며 이후 조직개편에 따라 총무실, 인사총무실 등으로 불려왔고, 2017년 이후 계약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되면서 현재에 이르러 총무·계약실로 불리고 있다. 주요 업무는 복리후생·보안·행사 주관 등 총무업무, 계약업무, 기록물관리 업무, 임원지원(기관장 보좌)업무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인사실에서는 직원 인사관리(발령, 전보, 승진), 채용(정규직, 계약직, 청년인턴), 급여·보험, 직원 정기평정 및 수습직원 평정, 고용계약 및 연봉계약, 노무, 복무, 교육, 복지, 윤리경영(고충처리,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인권경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7년 3월 총무인사실에서 독립하여 인사실로 구성되어 채용·급여·복무·복지뿐 아니라 윤리경영·대외활동 등 업무 범위를 확충하여 직원 관리에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재무회계실은 기관 운영 및 설립 목적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비 집행에 있어 해당 목적에 부합하게 적정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보화실은 기관 연구 및 사업의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기관 혁신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시행하는 추진 과제 중 정보화 사업 관련 사항의 선제 대응 및 추진에도 노력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협력하여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청사운영실은 관리부, 시설관리실, 시설지원실 및 청사운영실로 명칭이 변천되었고, 임직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시설의 유지보수, 운영시스템 관리 및 안전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감사실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자체 감사기구로서, 감사(監事)를 보좌하여 기관 업무 및 회계를 감독하고 검사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2004년 감사업무를 기획처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검사역을 두고 2007년 감사실을 설치함으로써 감사기구 장의 독립성을 확보하였다. 확보된 독립성을 바탕으로 개발원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감사 활동을 하며, 청렴 업무를 통해 임직원의 청렴 및 윤리 의식 고취를 위하여 힘쓰고 있다.

02 업무 현황

1) 총무·계약실

총무·계약실은 복리후생, 계약, 보안, 기록물관리, 임원 지원에 이르기까지 기관의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복리후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복리후생 업무로는 임직원 건강검진, 구내식당 운영,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과 충북혁신도시 이전 이후 유관기관과의 공동통근버스 운영,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설·추석, 근로자의 날, 창립기념일 등 전 직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품을 지급하거나 비상약품을 상시 구비·관리하는 등 직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을 기하고 있다.

국가계약법령 및 지방계약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 등에 따라 총무·계약실에서는 개발원에서 발주하는 각종 용역계약{연구용역, 시설(공사)용역, 일반용역, 정보화용역, 구매(임대차)용역} 인쇄용역}의 체결·이행 등 제반사항을 총괄·관리한다. 계약업무에 낯선 직원들의 업무 이해도 증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계약업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배포하고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법한 계약업무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총무·계약실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보안 및 방첩업무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매년 연간 보안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자체 정기보안 감사를 실시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비밀(대외비) 소유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 점검, 보안 및 방첩업무 교육 실시 등 전 직원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개발원의 공적업무 수행의 증거인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일도 총무·계약실의 주 업무이다. 연간 기본계획 수립부터 기록물 정리, 이관, 보존, 평가·폐기에 이르기까지 법적 의무 수행업무를 매년 실시하며, 이외 임직원이 생산·접수하는 각종 유형의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및 지침, 매뉴얼 등을 개정·수립하였다. 또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기록물의 공개·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관장 업무보좌를 위하여 총무·계약실의 하위팀으로 임원지원팀을 두고 있으며, 임원지원팀에서는 기관장의 대내외 활동 지원 및 의전 관리를 도맡아서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주 초 실시하는 '기관운영회의'를 위한 안건 취합 등 업무를 지원·수행하고 있다.

2) 인사실

인사실에서는 인사·채용, 급여·보험, 포상·징계, 복무 및 대외활동, 교육·복지, 윤리경영에 이르기까지 한국교육개발원 내 주요 연구자 및 인력 운영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고 있다. 인사실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인사관리에 있어 임면, 승진, 보직, 전보 발령 등을 관장하고 있으며, 주요 사항으로는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조치(2014), 임금피크제 도입(2015),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2018), 고용계약제 삭제 및 승진 관련 개정(2020), 정년연장 및 근무성적 평정 전산화(2021) 등이 있다. 아울러 인사실은 「인사 채용·승진 전형 실무 지침」 제정(2014) 이후 14차례의 지침 개정을 통하여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규직, 계약직, 청년인턴 채용 전형을 연간 10회 정도 진행하고 있다. 결원, 증원, 별도 정원을 적시 충원하여 원활한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 다양한 인재 확보를 위해 응시요건을 축소하였다(연구직-전공 분야 확대, 비연구직-전공 요구 삭제). 한편,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노력으로 지역인재, 사회적배려고용(장애인, 국가유공자)을 위해 가점부여(5~10%) 및 동점자 처리 시 우선순위 부여, 제한경쟁 채용을 실시하였다.

직원 급여·보험 또한 인사실에서 일괄 지급·납부하고 있다. 직원 인사·승진·연봉계약·징계·복무에 따른 급여 변동사항을 매월 반영하고 가족수당, 육아휴직 급여 신청 등 직원들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업무대행 위탁 용역을 체결하여 직원이 개별적으로 정산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효율화하였다.

포상·징계(경고·주의 포함)와 관련, 인사실은 연공상, 연말공적상을 표창하여 직원 근로의욕을 제고하였다.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장기근속자 포상을 삭제하는 반면(2014), 일반 직원도 표창을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2015)하였고, 연말공적상 표창 인원을 확대(2020)하여 직종별, 부서별 형평을 고려하여 표창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등 외부기관 표창을 전 부서에 공유하여 다양한 분야의 표창을 추천하고 있다. 인사 규정 등 관련 규정에서는 채용 비리 연루 임직원의 직무 정지, 직계시효 연장 및 징계감 경제한(성희롱·성폭력·성매매, 음주운전), 성과급 지급 제한 조항(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을 신설하고 「직원 경고·주의 처분 지침」을 제정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한편, 인사실은 진천 청사 이전 이후로 출입 시스템을 설치하여 직원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왔으며 그 결과 2020년 기관평가 복무 관리 분야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 연차유급휴가, 보상휴가, 특별휴가, 유연근무제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한편 연차저축제 신설, 유연근무제 전면 개정, 재택근무 도입 등 다양한 근무제도를 병행·사용하도록 제도적·전산적으로 준비해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업무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다. 대외활동과 관련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는 비연구직의 대외활동 신고를 의무화하며 전 직원의 대외활동을 인사실에서 담당하여 관련 지침을 개정(2020)하고 연 4회 교육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연간 2,000건 이상의 대외활동 신고와 출강·겸직 등을 승인하였다.

인사실은 교육·복지 관련 신규직원, 재직직원, 퇴직직원을 위한 생애주기별 교육체계 확립,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업무편람을 게시하였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외부 역량강화 교육을 게시판에 공지하여 온오프라인 교육을 전면적으로 확충하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한 재택근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윤리경영에 따른 고충처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담당자, 성희롱·성폭력위원회를 운영하고, 인권경영영향평가도 인사실의 업무로 수행되고 있으며, 고충신고센터를 운영(2021)하고 법정의무교육은 물론 폭력·갑질 예방 교육(2021), 관련 직원 교육 이수 등도 실시하고 있다.

3) 재무회계실

재무회계실의 주요 업무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반되는 각종 연구사업비에 대하여 정부와 기관의 예산편성집행지침 등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집행하는 업무이다. 재무회계실에서는 회계증빙서 심사·편철·관리와 회계전표 작성, 계정원장·총계정원장·기타 보조장부 기장 정리, 월별·분기별 가결산과 회계연도 결산 작업, 외부 회계법인 감사 수감과 비상임감사 결산보고 및 의견서 수령, 자금운용과 일일·월별 자금의 입·출금 현황 보고, 출연금·수탁사업 자금 등 수납·지출과 계정 기장 정리, 원천세·부가세·주민세·법인세 등 징수·신고와 계산서 발급·관리, 공익법인·일용근로소득 신고, 법인카드 교부와 대금납부, 자금·채권·채무의 차입 및 상환·추심 등으로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다.

4) 정보화실

정보화실은 정보화 정책 수립 및 사업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 기관 인프라 시스템, 웹서비스 및 정보화 서비스 운영·관리, 기관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사업을 수행하고 클라우드 이전 및 전환 정책을 관리 및 지원하고 있다. 정보보안 진단과 관리, 이와 관련된 정보보안시스템을 운영하고 개인정보보호의 진단 및 관리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도 정보화실의 주요 업무이다.

정보화실은 1994년 기관 전산망 환경을 구성을 시작으로 업무의 기본이 되는 전자우편시스템을 구축하여 기관 데이터와 정보를 전자적으로 체계화를 시작하였다. 이후 1999년에는 기관 홈페이지 구축과 2007년 기관 행정업무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이후 약 20년간 끊임없이 업무의 기반이 되는 각종 정보시스템 구축과 기능 개선을 통하여 기관 업무 및 문화를 혁신하고 경영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업무 생산성을 제고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화실은 2003년부터 정보시스템실을 구축하고 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합하여 유지·보수하는 통합유지보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스템 장애를 예방하고 대국민 웹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정보화실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코로나 펜데믹 시대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택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2020년부터 인프라 시스템 환경 업그레이드(전자우편 및 전자결재, 대량메일, 메신저, 원격 접속 시스템 등) 및 시스템 환경 구성 변경 및 영상회의실 구성 등 정보화 요구사항에 대해 대응하고 다양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 활용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나가고 있다.

5) 청사운영실

청사운영실은 청사 운영, 구청사 매각, 안전관리 업무를 주요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청사운영실은 시설유지보수(건축·기계·전기·소방 등), 운영시스템 관리, 자산관리(자산 취득, 불출, 수리 등), 시설 운영·경비 및 환경미화의 청사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 이전의 일환으로 구청사 매각 업무를 담당하고, 매각 완료까지 구청사 시설경비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도 수행하였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및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위험성평가(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방안 수립)를 통해 사전 조치하고, 직원들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6) 감사실

자체 감사기구로서 별도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실은 감사(監事) 업무를 보좌하고 위임받아 개발원의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매년 수립한 자체 감사 계획을 근거로 일상 및 정기 감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상 감사는 규정에 의거 일상 감사 대상 업무에 대해 매일 감사하고 있다. 아울러 정기 감사는 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감사 분야는 관련 규정 위반사항 및 외부 감사기관 지적사항 등으로 한다. 감사원, 국무조정실 등 외부 감사 수감 시, 이를 지원하며 내·외부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이 적절히 이행되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법인카드 사용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채용전형 단계별 입회 및 검토를 통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감사실에서는 임직원의 반부패·청렴 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 청탁등록센터 등을 통해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 사안을 접수·처리하고 있다. 또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를 예방하고자 임직원 행동강령 업무와 관련 법률 개정 내용 반영, 제출·신고 해당 사항 접수(신규 입사자 청탁 및 청탁금법 서약서, 외부 강의 회의 등 신고서 등)를 하고 있다. 청렴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방지 교육 운영 지침에서 권고한 교육 대상자별 교육 방법 등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있다.

03 주요 성과

1) 총무·계약실

2020년부터 총무·계약실을 주축으로 코로나19의 원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원내 '코로나19 상황대응반'을 조직하여, 감염 의심 상황 발생 시 조치 절차 등 표준화된 접수체계를 구축·운영하였다. 초기 발생 당시에는 전 직원을 위한 마스크 수급,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비, 우한 교민 격리 동향 파악 등 성공적 대응을 위해 힘써왔다. 2021년 2월 코로나19 사전 예방 및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당시 검사한 174명 전원 음성을 통보받았다. 2022년 현재까지도 전 직원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대응 현황 상시 공지·지침 안내 등 많은 노력을 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총무·계약실에서는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공동직장어린이집·공동통근버스·구내식당 운영 등 전 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왔다. 임직원 건강검진 업체 선정의 경우,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충북권 업체를 추가 선정하는 등 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또한 2021년부터 전 직원들이 더욱 활발한 동호회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동호회 지원예산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내 커피머신 운영, 지역 특산물,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확대 등 지역 상생을 위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총무·계약실에서는 2017년 계약업무를 총괄 수행한 이래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계약 체결·관리로 기관 경영목표 달성에도 기여하였다. 관계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원내 계약업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2020년부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제도 개편사항을 신속하게 적용하여 민생경제 회복 등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계약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위와 같은 노력으로 2021년 국무조정실 종합감사 시 계약 분야 점검 현황 중 총무·계약실 소관 지적사항 전무, 적정 운영 중임을 검증받았다.

한편, 총무·계약실은 상위 법령에 따라 기록물 정리·생산현황 통보, 기록물평가심의 개최 등 기관 내 적법한 기록물관리 수행을 위해 노력한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주관 연구기관 운영실태 점검 시 2020년, 2021년 2개년 연속으로 유관기관 대비 최고 수준 관리 총평을 획득하였다. 더불어 기관 내 생산되는 회의록의 체계적인 작성·보존을 위한 안내 매뉴얼을 수립·배포하였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하여 2021년 기준 원내 청구된 151건의 정보공개 청구 건을 누락 없이 처리하였다.

2) 인사실

인사실에서는 우수인력 확충 및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기회를 부여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인사실은 채용솔루션(채용사이트 임대솔루션)을 도입하여 채용 절차에 드는 인력과 시간을 절약하고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 등 채용제도 개선과 관련한 관계 부처의 지침에 맞추어 왔다. 나아가 채용제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NCS 기반 능력중심채용을 도입(2017)하고, 공공기관 공정 채용과 관련하여 평가위원 제척, 회피 기준 등을 마련(2019)하였다. 또한 제한경쟁 채용 시 상위기관과의 사전협의 및 채용절차점검위원회를 실시하도록 하여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조항을 마련(2021)하였으며, 알리오 정기공시·행정정보공표·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직원 채용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한편 신입직원은 기관 조직과 사업을 소개하고 각종 규정 및 행정 업무 처리 절차를 안내하여 조직 적응 및 업무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 일주일의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재직 중인 직원은 학기별로 상위학위 취득을 위한 입학원과 수강 승인을 받거나 수시로 핵심 역량강화 교육을 신청할 수 있고, 직종에 따라 연구연가 또는 비연구직 자기계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승진·보직자는 역량개발 및 리더십 강화 차원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퇴직 전 직원을 위해서는 전환 연수를 신청·승인하여 은퇴 이후의 인생 설계를 준비할 시간을 부여하고 있다.

인사실은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하여 「직원평정및승진후보자명부작성세칙」을 1989년 개정한 후 2020년까지 줄곧 수작업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평정업무에 과다한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직원의 편의성과 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2020년 근무평정 제도 개선 위원회에서 전산화 의견이 제기되었고 2021년 처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정 전 준비기간과 방법을 간소화하고 평가 결과를 전산 관리함에 따라 평정 결과의 적극적 활용 등 체계적 인사관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직원 임용 시 수습직원 평가 후 정규 임용이 되면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정규 임용을 시행해 왔으나 이를 실제 운영과 맞게 3년 단위 재계약 조항을 삭제(2021)하였다. 또한 승진도 연 1회 실시하고 재직 연수와 경력기준을 모두 요구하던 것을 연 2회 실시하고 경력기준을 삭제(2021)하였다. 이를 통해 승진 적체 현상 해소 등 기존인력의 이탈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인사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주52시간제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연근무제 도입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실천해오기도 하였다. 개발원은 2017년 기관 이전에 따라 출·퇴근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스마트워크센터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능동적으로 실시해 행정안전부의 스마트워크센터 추진 유공 기관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18년에는 연차저축제도(3년)를 마련함과 동시에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휴가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시간 외 근무시간의 1.5배를 보상휴가로 제공하고 있다. 한편, 2019년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라 「유연근무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하였다. 시간선택제, 선택적근로시간제, 탄력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를 개정·신설하였고 안정적인 정

착을 위해 주52시간제 제도운영 설명회(부서별), 만족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여성의 Life Cycle(임신·출산·육아 관련 규정) 제도 안내, 남성 직원의 육아 참여 제도운영 방안을 마련(배우자 출산휴가 분할 청구 가능 및 유산휴가 신설)하고 2017년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등 타 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운영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내역을 신속히 반영하여 선도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결과 기관 평가 관련지표에서 S등급을 획득하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을 받았다.

3) 재무회계실

재무회계실에서는 매 회계연도 목적사업 수행에 따른 제반 연구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정부 및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제반 증빙자료 및 지출 전표의 전자화에 따른 본원의 결산·회계·세무 전산시스템을 안정화하고 고도화하여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4) 정보화실

정보화실은 2012년, DDoS 공격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수 있는 DDoS 공격 대응 시스템과 내부 PC에서 발생하는 유해 사이트 및 좀비 PC를 실시간 차단하는 좀비 PC 탐지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에 기관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국무조정실 보안관제센터·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부출연연보안관제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기관 평가 정보보안 관리수준 우수등급 확보' 및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준수'를 통해 기관 지식정보의 보호 및 안정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정보화실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면적으로 재구축한 업무 시스템(전자문서, ERP, 메일, 메신저, 백업, 웹사이트, SSO 등)을 실제 기관경영 및 연구·지원 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및 직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기도 하였으며, 전산 인프라 환경 보완을 위해 신규 장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보안시스템(5종) 교체를 통하여 선진적인 인프라 환경을 구축하기도 하였다.

2017년에는 개발원의 충북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신청사의 네트워크 환경 및 정보시스템실 신규 구축과 2차에 걸쳐 전산 인프라 이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고도화된 정보시스템실을 구성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환경을 구축하였다. 더불어 우면동 구청사 시절인 2011년 7월에는 우면동 산사태로 인한 정전 피해로 정보시스템 일부 장애가 발생하였으나 신속한 복구작업을 통해 정보시스템을 긴급히 정상화하였고, 차후 정전사고를 대 비 하여 UPS 장비를 개선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2017년부터 정부출연(연), 정부·공공, 대학, 학·협회, 산업체(연) 등 약 200여 기관, 30여만 명이 이용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특별회원으로 가입하여 첨단 연구 분야의 협업뿐만 아니라 KAIST, KDI, 서울대 등 연구기관의 사이버 연구 네트워크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청사의 인터넷 전용회선을 1Gbps(LTE)급 대역폭으로 증가시켜, 대용량 연구데이터 전송 기반을 마련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를 원활하게 하였다.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 기관 웹사이트(www.kedi.re.kr)는 10년 연속 웹 표준화, 웹 접근성, 웹 호환성을 준수해야만 획득할 수 있는 웹 접근성 인증마크를 부여받아 정보 접근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홈페이지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임을 대내외에 입증하기도 하였다.

5) 청사운영실

청사운영실은 지난 2011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 전기·기계설비, 전산장비, 각종 시설물 및 EBS 방송시설 등 일부 침수· 파손된 시설 전반을 복구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KEDI 창립 이래 천재지변으로 인한 업무중단 등 초유의 위기 상황이었으나, 수해복구 작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여 KEDI 및 EBS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였다. 아울러 청사운영실은 국가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충북혁신도시에 첨단 신청사를 건립하여(2015.07.~2017.01.) 약 40년 동안의 서울청사 생활을 끝내고 새로운 진천청사의 역사를 이어 나갈 토대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04 계획 및 전망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경영지원본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임직원 모두가 더욱 쾌적한 근무 여건과 환경 속에서 더욱 큰 성취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에 따라 총무·계약실을 비롯하여 5개 실과 감사실은 대내외에 KEDI의 위상과 역량을 강화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먼저 총무·계약실 업무의 주된 목적은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에 있는 만큼 오늘날까지 수행해 왔던 직원복지 향상 등 총무업무를 비롯해 계약업무, 기록물관리 및 보안 업무 등에 대해서도 전 직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관계 법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행할 예정이다. 이뿐만 아니라 2020년부터 주요 이슈로 떠오른 코로나19의 원내 확산 방지를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 인사실에서는 인력계획 수립 등 기본업무 수행은 물론 코로나19 대응으로 변화된 직원 근무시스템, 직원 워라밸 확보 등을 위해 다각도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재무회계실에서는 기관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연구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정부 및 기관의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정보화실은 기관 연구 및 사업의 기반이 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기관 혁신 역량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센터 이전 통합 중기계획'에 맞춰 정보시스템 중·장기 전환 계획 수립과 시스템별 현황 분석 등을 구체화하여 연구함에 따라 국가 정책 수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한편, 청사운영실은 미래정보화사회 및 4차 산업혁명으로 많은 변혁을 예상하고 이에 따른 관련 설비의 안정적인 운영 등 유지관리에 더욱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특히 진천 신청사 준공 이후 유지관리 비용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철저한 사전점검 후 유지보수를 통해 각종 시설물의 수명연장 및 유지관리 예산을 절감하여 개발원의 시설물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고자 한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50th

자료로 보는 한국교육개발원 50년

Part.03

Appendix

01 ___ 역대 원장

02 ___ 조직도

03 ___ 미션 & 비전

04 ___ CI 변천 및 50주년 엠블럼

05 ___ 연표

1972 2022

01 역대 원장

1~3대	이영덕	1972.08.30. ~ 1980.09.19.
4대	홍웅선	1980.09.20. ~ 1983.08.27.
5~6대	김영식	1983.09.24. ~ 1988.02.24.
7~8대	신세호	1988.04.02. ~ 1992.05.27.
9대	한종하	1992.05.28. ~ 1995.05.27.
10대	이돈희	1995.06.09. ~ 1998.06.08.
11대	곽병선	1999.05.19. ~ 2002.05.18.
12대	이종재	2002.05.19. ~ 2005.06.24.
13대	고형일	2005.10.04. ~ 2008.06.09.
14대	진동섭	2008.08.08. ~ 2009.08.31.
15대	김태완	2009.10. ~ 2012.12.
16대	백순근	2012.12. ~ 2015.12.
17대	김재춘	2016.01. ~ 2017.11.
18대	반상진	2018.03. ~ 2021.05.
19대	류방란	2021.05 ~

1~3대 이영덕
1972.08.30. ~ 1980.09.19.

4대 홍웅선
1980.09.20. ~ 1983.08.27.

5~6대 김영식
1983.09.24. ~ 1988.02.24.

7~8대 신세호
1988.04.02. ~ 1992.05.27.

9대 한종하
1992.05.28. ~ 1995.05.27.

10대 이돈희
1995.06.09. ~ 1998.06.08.

11대 곽병선
1999.05.19. ~ 2002.05.18.

12대 이종재
2002.05.19. ~ 2005.06.24.

13대 고형일
2005.10.04. ~ 2008.06.09.

14대 진동섭
2008.08.08. ~ 2009.08.31.

15대 김태완
2009.10. ~ 201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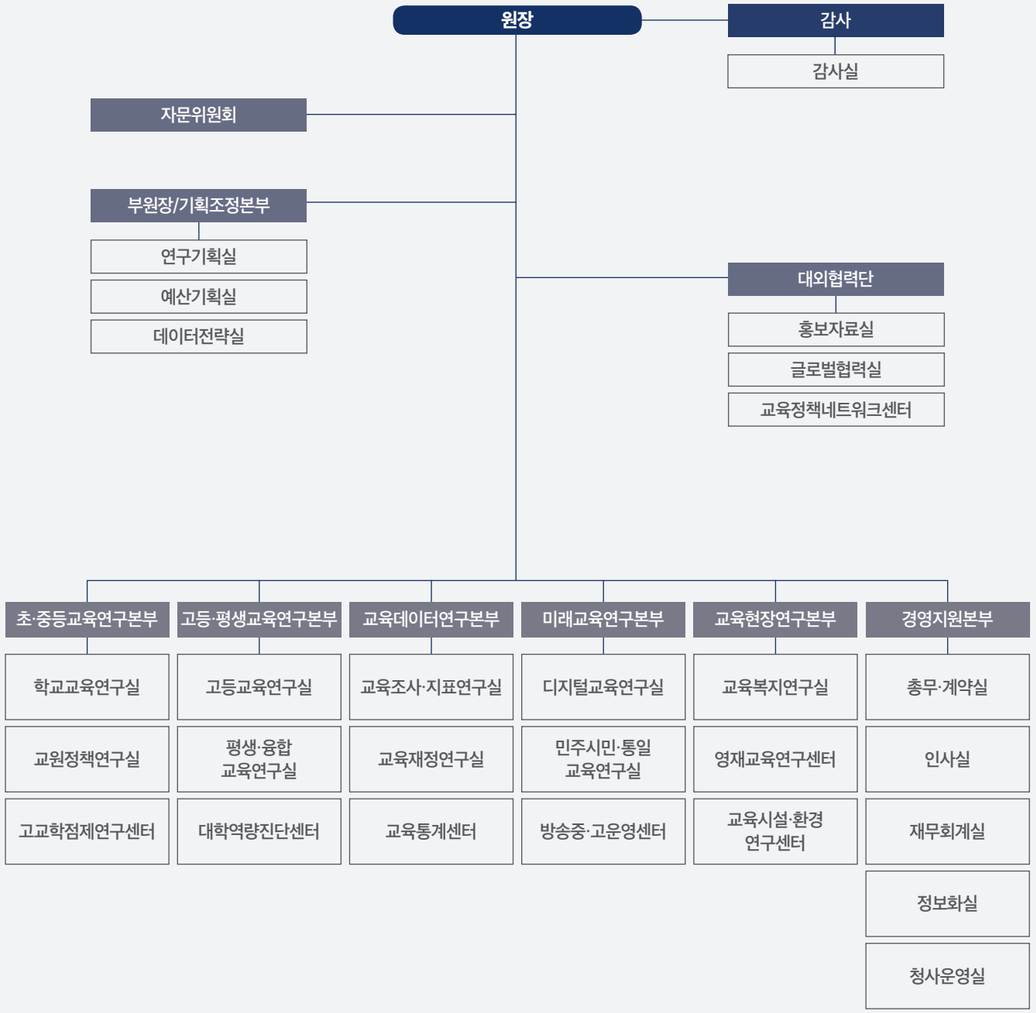
16대 백순근
2012.12. ~ 2015.12.

17대 김재춘
2016.01. ~ 2017.11.

18대 반상진
2018.03. ~ 2021.05.

19대 류방란
2021.05 ~

02 조직도



02 조직도(원장 및 본부장급 소개)

류방란
원장

KEDI, 50년 축적된 연구의 힘으로
한국교육 100년을 힘차게 열어갑시다
류방란

박병영
부원장 / 기획조정본부장

새로운 50년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박 병 영

이쌍철
대외협력단장

더 나은 교육을 선도하는
교육정책연구의 허브, KEDI!
이쌍철

정미경
초·중등교육연구본부 본부장

한국교육을 중심의 KEDI,
이제 세계로 도약하기를!
정 미 경

임후남
고등·평생교육연구본부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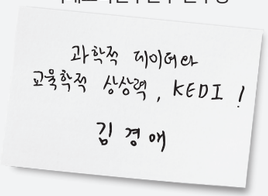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임 후 남

임소현
교육데이터연구본부 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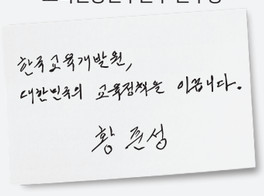
이제 더욱 발전하는 항상
KEDI!! 파이팅!!
임소현

02 조직도(원장 및 본부장급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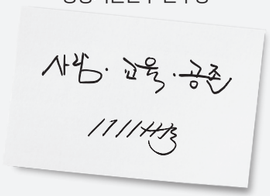
김경애
미래교육연구본부 본부장



황준성
교육현장연구본부 본부장



임승호
경영지원본부 본부장



03 미션 & 비전

설립목적

한국교육개발원은 1972년에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한국의 전통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 내고, 앞선 교육 정책과 제도를 개발하며,
종합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육이 당면한 제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혁신적인 교육체제를 개발하여
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교육의 어젠다에 대해 선도적 대안을 제시합니다.

경영목표와 추진전략

Vision
경영비전
포용 사회를 위한 미래교육 선도
교육정책 연구기관

01 교육개혁 정책 및 교육현장 혁신의 프랫폼 역할
- 국정과제, 교육부 정책 선도 연구 확대
- 교육부, 교육청, 연구기관 간 협력적 교육연구 체제 구축
- 교육 현안 대응 및 연구과제의 현장성 강화
- 지역과 상생하는 학습생태계 교육 모델 구현

02 미래교육 가치 확산 및 교육혁신 연구·개발 역량 강화
- 시대격변기 대응 미래교육 연구 확대
- 대학학벌체제 완화 위한 고등교육 연구 확대
- 협력·연계 기반 연구생태계 구축

03 글로벌 교육협력 연구·개발 강화로 국제적 위상 제고
- 글로벌 공동연구·개발 활성화
- 다문화·동북아 평화시대 연구 협력 확대
- 글로벌 교육개발 협력 강화

04 기관 혁신 역량 강화
- 차별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운영
- 전문성을 존중하는 조직 건강 문화 조성

04 CI 변천 및 50주년 엠블럼

1972 ~ 2003년

한국교육개발원
KOREA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연구(펜촉)와 방송(안테나)를 형상화하여 전진을 거듭하는 한국교육개발원을 표현했으며, KEDI의 연구 개발이 힘차게 자라는 새싹들 교육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의지 표현했다.

2004년 ~ 현재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진취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KEDI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사람이 크게 내딛는 모습을 이미지화하여 개방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창의적 싱크탱크로서의 활동을 표현하였으며, 영문CI에서는 D를 엄지 모양으로 형상화하여 세계 수준의 으뜸 연구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

창립 50주년 엠블럼

더 나은 삶, 교육
KEDI 50

창립 50주년을 상징하는 숫자5와 0을 이어 무한대로 표현했으며, 세계적 수준의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서 KEDI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닌 모습을 형상화했다.

05 연표

1970's

1972. 개원초 사용했던 삼청동 중앙교육행정연수원 청사

1974.05.14. 한국교육개발원 청사 건설을 위한 기공식

1972	08	23	재단법인 한국교육개발원 설립
•	08	23	제1대 이영덕 박사 원장 취임
•	08	30	한국교육개발원 법인 등기 업무 개시
•	09	01	'한국 초·중등교원 장기수급계획' 수립
•	10	13	'한국교육 이념, 목적, 확립을 위한 학술대회' 개최(~1014)
1973	03	14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법률 제2616호) 제정·공포
•	05	28	새교육체제 시범 운영(~0623)
•	10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시행령(대통령 제6896호) 제정·공포
1974	03	18	방송통신고등학교 수업 위한 방송업무 시작
•	03	27	중앙시청각교육원으로부터 라디오 학교방송 운영 인수
•	03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및 개교
•	08	30	「한국교육」 창간호 발행
•	09	18	유기춘 교육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	11	08	'한국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국제회의 개최(~1109)
1975	01	16	교육방송국 가허가 취득
•	08	31	제2대 이영덕 박사 원장 취임
1976	01	02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교육정책 수립방안 탐색' 포럼 개최(~1110)
•	02	04	황산덕 교육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	03	02	'국민정신교육의 의의와 과제' 세미나 개최
•	07	24	'재수생 대책' 시안 공청회 개최
1977	08	05	중학교 수학, 중·고등학교 사회 등 50종의 교과서 편찬
•	09	22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종합 협의회' 개최(~0923)

1978. 브리태니커상

05 연표

1979.02.20. 교육과정 방향탐색을 위한 세미나

- 12 20 박찬현 교육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1978 04 03 '중학교 의무교육 발전 위한 방향 탐색' 세미나 개최(~04.04.)
- 08 16 '교육발전 전망과 중요 정책 과제에 대한 정책협의회' 개최
- 08 31 제3대 이영덕 박사 원장 취임
- 10 영국 브리태니커사 선정 Golden Anniversary Citation상 수상
- 12 19 '입시제도 문제점 개선방향 탐색 위한 간담회' 개최

1979 01 01 교육과정 연구·개발 전담 기구로 지정
- 04 20 과외 해소방안 위한 협의회 개최
- 05 10 '정치·사회 발전과 교육의 역할 모형 정립' 세미나 개최
- 07 27 「교육개발」 창간호 발행
- 10 15 '직업교육 개선 위한 국제회의' 개최(~10.27.)
- 12 15 김옥길 문교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1980's

1980 07 22 '교육정상화 및 과열과외 해소방안 검토 위한 공청회' 개최
- 09 01 TV고교 교육방송 KBS-TV, MBC-TV 통해 방송 개시
- 09 20 제4대 홍웅선 박사 원장 취임
- 12 17 유형진 문교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1981 02 02 UHF 교육방송 개국
- 10 30 '초·중학교 교육발전사업 종합세미나' 개최
- 11 20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 개정안 종합세미나' 개최
- 12 15 교육과정 개편 및 교과용 도서 연구개발 기관 지정

1982 03 11 '교단설립방안 모색 위한 협의회' 개최
- 11 05 '2000년대의 사회발전과 교육' 세미나 개최(~11.06.)
- 12 22 신관 청사 증축 준공식

1983 02 11 '2000년을 위한 국가발전 장기구상 중 교육 및 인력개발 부문 연구협의회' 개최
- 06 23 영재교육 세미나 개최

1980.07.22. 교육 정상화 및 과열 과외 해소 방안 공청회

1981.11.20. 교육과정 개정안에 관한 종합 세미나

1985.04.26. 한국고등교육의 미래전망과 발전 전략 세미나

- 06 25 이규호 문교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 09 27 제5대 김영식 박사 원장 취임
- 10 15 권이혁 문교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 11 18 '초·중·고등학교 컴퓨터교육' 세미나 개최

1984 02 13 제1차 교육평가 워크숍 개최(~02.17.)

1985 02 19 손재석 문교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 04 15 '한국 고등교육의 미래 전망과 발전전략' 세미나 개최(~04.26.)

1986 03 26 '제5차 유치원, 초·중학교 교육과정 제정 위한 방향 탐색협의회' 개최
- 06 05 '특수교육 진흥방안 수립 위한 세미나' 개최
- 09 24 제6대 김영식 박사 원장 취임

1987 04 30 '제5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방향 검토 위한 공청회' 개최
- 05 13 '초·중등학교 시설 현대화방안 탐색 세미나' 개최
- 07 14 서명원 교육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 12 10 교육개혁심의회, 본원에서 3년간 진행된 교육개혁연구사업 종료 기념 위해 본원 정원에 '교육개혁의 산실'이라고 새겨진 기념비 세움
- 12 30 초·중·고등학교 경제교육 개편 연구결과 발표

1988 02 01 컴퓨터 교육 연구 센터 설치운영
- 04 02 제7대 신세호 박사 원장 취임
- 06 21 '진로교육 시범학교 운영 공개 발표회' 개최
- 12 27 정원식 문교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1989 08 26 국제교육평가협의회 제30차 총회 개최(~09.01.)
- 12 22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 경과보고 및 전시회 개최

1989.08.28. IEA(국제교육평가협회) 공동 국제학술세미나

05 연표

1990's

1990	05	23	‘교육자치제 실시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05.24.)
•	07	20	‘외국교과서 한국관련 내용분석 및 비교연구 활성화방안 모색’ 세미나 개최
•	12	27	윤형섭 교육부장관, 이사장에 취임
•	12	27	교육방송 전담기구로 부설 교육방송(EBS) 설치
1991	02	21	‘한국교육의 종합적 이해와 미래구상’ 워크숍 개최(~02.22.)
•	04	06	제8대 신세호 박사 원장 취임
•	08	05	‘입시위주 교육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1991	09	06	‘초·중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교육 개선방안’ 포럼 개최
•	11	01	교육방송 송출업무 KBS로부터 인수 부설 교육방송이 자체 송출 개시
•	11	10	시도교육(과학)연구원과 연구협력체제 구축 협약 체결
•	12	06	교육용 소프트웨어 활용 사례발표 및 전시회 개최
1992	05	28	제9대 한종하 박사 원장 취임
•	06	02	UNESCO-IIEP와 ‘교육, 고용 및 인간자원 개발’ 국제워크숍 개최(~06.12.)
•	09	28	‘한국교육의 미래구상’ 워크숍 개최(~09.29.)
•	10		세종문화상 교육부문 수상
1993	04	08	‘교원교육의 변화’ 국제토론회 개최
•	04	30	‘신한국 창조 위한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정책포럼 개최
•	07	22	‘교육재원 GNP 5% 확보 전략’ 정책포럼 개최
1994	03	04	‘국제화·개방화 대비한 교육의 과제’ 정책포럼 개최
•	07	13	학교 컴퓨터교육 추진 협의회 개최
•	10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체코공화국 교육부 수여 Comenius상 수상
•	10		몽골 교육연구소와 교육협력 협약 체결
1995	03	24	‘인간교육과 교육개혁’ 교육정책 세미나 개최
•	08	24	OECD 한국교육정책평가 조사단 방문
•	10	06	학교 컴퓨터교육 중장기방안 탐색 워크숍 개최
•	10		제10대 이돈희 박사 원장 취임

1990.12.27. 교육방송 개국 현판식

1990.12.27. 교육방송 개국

1996.06.21. 멀티미디교육연구실 현판식 설치

1996.10.14. 한국교육정책 평가에 관한 OECD 교육위원회

1999.09.21.
국가 교육통계 사업의 발전방향 탐색을 위한 워크숍

1996	03	02	‘국가발전에서의 교육의 역할 분석’ 학술연구 토론회 개최
•	04	15	핀란드와 교육협력 체결
•	04	20	‘한국 교육비전 2020 미래 전망’ 학술연구 토론회 개최
•	06	20	교육과정 2000을 위한 교과별 담당관 및 연구진 합동 협의회 개최
•	06	21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설치
•	10	14	‘영재교육 운영의 실제와 발전방안’ 심포지엄 개최
1997	03	12	KEDI 부설 교육방송 및 부설 멀티미디어교육연구센터 한국교육방송원(현 EBS)으로 분리·독립
•	03	18	영재교육진흥법(안)’ 정책토론회 개최
•	07	25	교육통계 정보DB시스템 구축 시연회 실시
•	10	09	국립교육평가원으로부터 교육통계연보사업 인수
•	10	16	한·영 수교 200주년 기념 ‘교육과정과 평가, 교원연수 및 개발, 학교교육의 질 평가’ 세미나 개최
•	10	18	직업기술교육연구업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 이관
•	11	12	‘한국과 OECD 회원국의 교육개혁과 그 성과’ 한·OECD 세미나 개최(~11.13.)
•	11	25	KEDI-UNESCO ACEID 직업기술교육 실시(~11.29.)
•	12		UNESCO ACEID로부터 ACEID Excellence in Educational Award 수상
•	12	02	‘국가 공통 절대평가 교과별 기준 개발연구’ 세미나 개최
•	12	23	한국교육방송원 등의 분리·독립에 따른 귀속재산 무상양여안 의결 위한 이사회 개최
•	12	31	교육과정연구업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이관
•	12		아·태지역 교육혁신센터 교육부문 우수상 수상
1998	03	31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	06	25	학점은행제 확대 시행과 평가인정 원칙 및 기준을 소개하는 설명회 개최
1998	11	05	국가교육통계 발전 방향 위한 전국 시·도 교육통계 담당자 워크숍 개최(~11.06.)
1999	01	29	"[정부출연연구기관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법률 제 5,733호),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03	02	교육통계정보 시·도 분산 DB시스템 프로그램 인수인계 실시(~03.06.)
•	03	14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대국민 의견조사사업 일환으로 대관계약, 시설점검 및 교육청 지원요청, 언론홍보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03.20.)
•	03	22	교육부 교직발전 종합대책(시안) 검토 협의회 개최
•	05	24	제11대 곽병선 박사 원장 취임
•	06	10	KOICA와 아프리카, 아시아 정부관리 대상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교육정책에 관한 국제연수 실시(~06.17.)
•	07	21	임용고사 출제 및 개선방안 협의회 개최
•	08	25	학위수여대상자 선정 재심안 등을 의결하기 위한 학점인정 심의위원회 개최
•	09	21	‘국가 교육통계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워크숍 개최
•	11	16	‘한·OECD 교원정책 세미나’ 개최

05 연표

2000's

2000.03.27. 평생교육센터 현판식

2000	02	21	학점은행제 학위수여식 실시
•	03	27	평생교육센터 출범 및 현판식 거행
•	05	03	'교직발전종합방안 수립 위한 공청회' 개최
•	06	15	'21세기 평생학습사회 도래와 새로운 학습체제 구상' 평생교육 세미나 개최
2001	4	20	'학교종합평가 중·장기계획 협의를 위한 워크숍' 개최(~04.21.)
•	10	16	'아·태지역 민주시민교육' 국제 포럼 개최(~10.17.)
•	12	21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주무기관 지정
2002	05	21	제12대 이종재 원장 취임
•	05	31	'교직 경쟁력의 현주소와 당면과제' 교육정책포럼 개최
•	06	27	'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안' 교육정책포럼 개최
•	08		창립 30주년 기념식 개최
•	12		영재교육연구원 주관기관 지정
2003	03	07	한국바로알리기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이관
2004	08		CI(Corporate Identity) 및 국영문 로고 개발·선포
2005	06	01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EDUEXPO 2005) 개최
•	07	01	인문사회연구회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 소관 변경
•	10	04	제13대 고형일 원장 취임
2006	05	03	교육시설민간투자지원센터 주관기관 지정
•	09	04	교육안전망지원센터 주관기관 지정
2007	01		교육정책네트워크운영센터(구 교육연구개발연계체제운영센터) 주관 기관으로 지정
•	01		영문저널 「KJEP」 SSCI 등재
•	08	29	창립 35주년 기념식 및 국제 학술대회 개최
•	10	27	'교육ODA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심포지엄 개최
•	10	29	교육부-연구기관-시·도교육청 '다문화이해교육 실태와 향후 정책추진 방향 모색' 협동 세미나 개최

2001.10.16. 아·태지역 민주시민교육 국제포럼

2007.12.12. 교육ODA 심포지엄 개최

2007.12.12. 교육ODA 심포지엄

2008	01	18	대학정보공시제 총괄관리기관 지정
•	02		평생교육센터 및 학점은행 운영 기능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
•	08	08	제14대 진동섭 원장 취임
2009	03	20	사교육없는학교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정
•	08	10	탈북청소년교육지원 주관기관 지정
•	08	25	교과교실지원센터 주관기관 지정
•	10	30	제15대 김태완 원장 취임
•	12		한경비즈니스 조사 '대한민국 100대 싱크탱크'중 정치·사회·복지·교육 분야 1위 선정

2010'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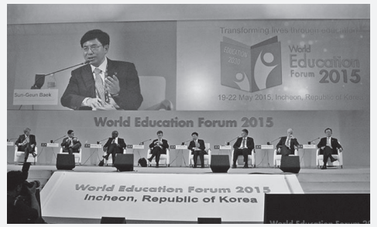
2013.07.23. 창조경제 교육포럼 개최

2014.06.24. 2014 제1회 교육 ODA 컨퍼런스 개최

2010	01	01	시·도교육청 평가 주관기관으로 지정
•	01	01	국제교육개발협력특임센터 주관기관 지정
•	01	12	교원양성기관평가센터 주관기관 지정
•	01		교육기관평가연구센터 주관기관 지정
•	02		한국도서관협회 수여 제42회 한국전문도서관상 수상
•	04	13	학교선진화지원특임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	05	15	지방교육재정연구센터 주관기관 지정
•	05	15	교육분야 FTA 협상지원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
•	08	01	위(Wee)프로젝트연구특임센터 주관기관 지정
•	09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최고상 국무총리상 수상
2011	01	01	대학정보공시제 총괄관리기관이 대학교육협의회로 이관
•	01	18	자기주도 학습전형 지원센터 주관기관 지정
•	02	10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 주관기관 지정
•	02	21	창의경영학교 지원사업 주관기관 지정
•	03	14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 주관기관 지정
•	10	27	영재교육종합데이터베이스(GED) 개통 및 'GED 국제 심포지엄' 개최
•	11	09	'2010 교육통계' 어플리케이션 개발, 서비스 개시
•	11	25	일본 국립교육정책연구소(NIER), 중국 교육과학연구소 (NIES)와 교육교류협정 체 결
•	11	28	'교육을 통한 세계개발원조 : 원조에서 개발로' 국제교육 ODA포럼 개최(~11.29.)
•	12	09	'한국교육과 미래비전' 발간
2012	01	12	제5차 APEC 교육장관회의 전문기관 지정
•	01	18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실시(~02.20.)
•	02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전문기관 지정
•	03	08	서울방송·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100대 좋은 대학강의' 시상식 개최
•	06	22	'학생 문제행동과 학교폭력 : 분석과 대처방안' 주제로 KEDI-KAERA 교육정책 국제심포지엄 개최
•	06	26	제3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 및 영재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06.27.)
•	07	06	학교폭력예방연구·지원 전문기관 지정
•	11	29	방송통신중학교 설치·운영

05 연표

2014.11.04.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개최



2015.05.20. 2015 세계교육포럼 한국교육 특별세션

- **11 30** 통계청 주관 통계개선 최우수기관 선정
- **12 11** UNESCO 교육통계 협력기관 지정
- **12 27** 제16대 백순근 원장 취임

2013 01 08 학교폭력예방 국제세미나 개최
- **02 15** 자유학기제 실행방안 교육정책포럼 개최
- **04 19** 자유학기제 지원센터 주관기관으로 지정
- **05 20** 행복교육 현장토론회 개최
- **06 04**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발대식
- **07 12** 2013 대한민국 행복교육기부박람회 및 행복학교박람회 개최
- **07 23**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양성의 방향과 과제' 창의인재 교육포럼 실시
- **11 14** 자유학기제 발전방안 탐색을 위한 정책포럼 개최
- **11 26** 글로벌 교육포럼 개최
- **12 04** 한국사보협회 선정 '2013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社史부문 우수상
- **12 18** '2013년 대한민국 미래학교 시상식' 개최
- **12 26** 2013년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2014 01 22 2015 세계교육회의 개최 준비를 위한 전문기관 지정
- **03 25**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공교육의 새로운 프레임-학습복지 개념과 정책방향 현장토론회 개최
- **04 08** 한국연구재단과 교원인력-연구성과 공동활용을 위한 업무협정 체결
- **05** 미래부 소관 민간투자사업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 지정
- **05 30**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과제 창의인재 교육포럼
- **06 10** 대학 구조개혁 평가기관 위탁 지정
- **06 11** 창조경제 R&D 인력양성을 위한 방안 창의인재 교육포럼
- **06 24** '제1회 교육ODA 컨퍼런스' 개최
- **07 17** '대한민국 행복학교 박람회' 개최
- **09 17** 2014 이러닝 국제박람회(e-Learning Korea 2014:EXPO)
- **09 18** '제6회 방과후학교 대상 시상식' 개최
- **09 18** 2014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박람회 개최
- **10 23** 2014 전국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우수학교 선정 및 발표회
- **11 04** '한국-세계은행 교육혁신 심포지엄' 개최
- **11 27** KEDI-SEAMEO 업무협약 체결

2015 02 25 한국교육개발원 메인 사이트 2013-2015년 3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03 12** 한국폴리텍대학 및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임대형민자사업(BTL) 재무모델 검토 전문기관 지정
- **04 24** 2015년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일반대 및 전문대 평가
- **05 18** 2015 세계교육포럼 부대행사 'KEDI 국제포럼' 개최
- **05 20** '2015 세계교육포럼' 본행사 중 '한국교육 특별세션' 발표 및 진행
- **05 21** KEDI-SEAMEO MOU 체결
- **10 15** 학교폭력 예방문화 조성방안 모색을 위한 'KEDI 국제포럼' 개최
- **10 28** 2015 한국-OECD 국제세미나

2017.04.20. 한국교육개발원 신청사 개청식

2019.10.2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개최

2020's

2021.05.03. 제19대 류방란 원장 취임

- **11 25** 제5차 한·중·일 국립교육연구기관 회담
- **11 25** UNESCO 방콕-KEDI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책세미나 개최
- **11 26** '제5차 한·중·일 국립교육연구기관 포럼' 개최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4년도 연구기관 평가 결과 '매우 우수' 기관으로 선정

2016 01 29 제17대 김재춘 원장 취임
- **03 15** 2016 행복교육박람회 주관기관 지정
- **06 01** 충북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발전 협약식
- **07 07** KEDI-KOICA, '교육기획 역량강화 연수(이라크)' 실시(~07.23.)
- **10 20**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박람회 개최

2017 02 20 충북혁신도시로 청사 이전
- **04 20** 신청사 개청식 개최
- **06** 국가교육통계센터 지정(교육통계센터 기능 1997년부터 수임)
- **09 01** 통계의날 기념 대통령상 수상
- **10 20** 2017 한-독 통일교육 세미나

2018 03 제18대 반상진 원장 취임
- **10 15** KEDI-UNESCO Bangkok 지역정책세미나 개최
- **11 08** 제6회 대한민국 인성교육대상 시상식
- **11 23** 「2018 대한민국광고대상」 공공, 정부광고(공기업 및 기타) 부문 특별상 수상
- **11 26** 진천군과 공동으로 '기관으로 찾아가는 생거진천 혁신대학' 개최
- **11 29** 2018년 한-OECD 국제세미나 개최
- **12 04** 2018년 제5차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 개최

2019 05 31 2019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라이브이벤트 부문 소비자이벤트혁신상 은상 수상
- **07**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 **09 24** 국립세종도서관 공동으로 '2019년도 찾아가는 정책 아카데미' 개최
- **10 23** 한-OECD 국제교육컨퍼런스 공동 주최

2020 02 18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후속 소규모 대학 컨설팅 실시
- **06 16** KEDI-UNICEF와 업무협약 체결
- **09 20** 5주기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사범대 미설치 대학) 정량진단
- **09 27** 한국교육개발원 기관 웹사이트 9년 연속 웹 접근성 인증마크 획득
- **10 13** ADB, KICE, KERIS, KRIVET, NETI와 업무협약 체결
- **11 12** UNESCO-KEDI Asia-Pacific Regional Policy Seminar 개최

2021 05 03 제19대 류방란 원장 취임
- **06 15** KEDI, 아시아개발은행-우즈베키스탄 아블로니원과 세미나 개최
- **10 21** 2021 UNESCO-KEDI Asia-Pacific Regional Policy Seminar 개최
- **11 25** 평화·통일교육 국제학술포럼 개최

2022 08 30 KEDI 창립 50주년 기념식 개최

편찬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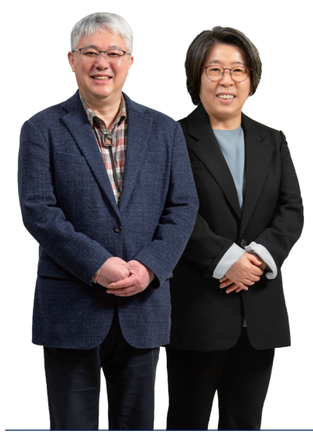
한국교육개발원이 걸어온 지난 반세기가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로 편찬되었습니다. 편찬에 앞서 한국교육개발원은 기획위원회를 꾸리고 창립 50주년을 맞은 해에 그간 우리 KEDI 가족들에게 자부심으로 남아있던 역사를 오롯이 보여주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편찬 과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아울러 배움의 뜻을 둔 사람들과 가르침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한 교육 관계자 모든 분에게 소중하게 새겨진 KEDI의 추억들을 보여주고자 고민을 거듭하였습니다.

내부 기획위원회를 꾸린 이후에는 ㈜대통기획을 제작업체로 선정한 뒤 편찬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온갖 자료를 찾았으며, 각 본부에서도 초고 작성을 하는 등 산고 끝에 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년이 채 되지 않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간 속에서 모두의 노력이 하나가 되었기에 50년사 발간이 가능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는 개발원의 지난 역사를 여섯 개의 장을 통해 통사로 구성하였고, 각 본부의 현황과 변천을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는 부문사와 함께 부록으로 꾸려졌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집필된 원고에 대한 감수를 통해 되돌아본 우리 KEDI의 역사는 때로는 생생하게 가슴에 와 닿았고, 못내 아쉬운 기억들이 별안간 잦아들기도 하는 가슴 뭉클한 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누구도 쉽게 따라 할 수 없는 KEDI의 전문성을 재차 확인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미 사라지고 빛바랜 사료의 수집과 고증이 쉽지 않아 온전히 다 담아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새천년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 근현대 학교교육 120년을 정리한 5년간의 연속연구사업, 2000년대 초반 고교평준화 담론으로 온 국민의 주목을 받았던 과정과 성과 등은 지면 관계상 다 싣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KEDI의 별도 성과물과 발간 자료에서 관련 내용들을 볼 수 있기에 허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쉬움을 차치하고 바라본 50년사는 그래도 우리 모두의 가슴을 뛰게 하는 훌륭한 미래 길잡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에 수록된 수많은 단어 중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역시 '교육'입니다. '교육'의 사전적 정의는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늘 사람을 만드는 역할로 존재했고, 우리 KEDI는 사람을 만든다는 교육의 명제와 원칙에서 단 한 번도 어긋남이 없었음을 자부합니다. 나아가 KEDI가 계승해야 할 이념과 정체성의 중심 또한 '사람'일 것입니다. 편찬후기를 마치며 오늘의 KEDI를 만든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KEDI를 가꾸어 나갈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50년사 발간은 이러한 생각을 이끄는 데 있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자 발간을 위해 관심과 참여를 보여준 우리 임직원 모두와 교육 관계자 분들께 다시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배들이 쌓아올린 KEDI 50년!
새롭게 출발하는 100년의 설레임!

50년사 편찬위원장
윤종혁·임후남

50년사를 만든 사람들

기획위원회

편찬위원장	윤종혁 위원장
	임후남 위원장
기획위원	강성국 선임연구위원
	고민훈 선임행정원
	김지수 연구위원
	남궁지영 선임연구위원
	이기준 책임전문원
	이은영 책임전문원
	임소현 연구위원
	최정윤 선임연구위원
간사	한지연 선임전문원

자문위원회

자문·감수	김흥주 前 KEDI 선임연구위원
	신경희 前 KEDI 책임전문원
	이찬희 前 KEDI 선임연구위원
	정광희 前 KEDI 선임연구위원
	한만길 前 KEDI 선임연구위원
	현 주 前 KEDI 선임연구위원

도움주신 분들

총괄	조우기 배기수
기획·진행	김동균 최주연 신채은 김사라
집필	이상우
편집디자인	이병길 전영인 최문석 고충렬 우선영 김선리
촬영	이명철(링크포토스튜디오)

한국교육개발원 50년사

산출물 번호 RM2022-06

발행일 2022년 2월 28일
발행인 류방란
발행처 한국교육개발원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읍 교학로 7
043-530-9114
www.kedi.re.kr

기획·편집 ㈜대통기획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15
02-2269-3613
www.lucksway.com

인쇄·제작 ㈜영은문화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길 14
02-2274-9250

Copyright© 1972-2022 by KEDI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동의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